



2024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국제학술대회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O THE WORLD**

# 2024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국제학술대회

구분	시간	주요내용		
	09:00~10:00	60' • 등록		
개회식	10:00~10:30	30' • 개회식 및 축사		
	10:30~11:10	40' • 축하 퍼포먼스   정음시립국악단		
기조강연	11:10~12:10	60' <b>[기조강연]</b> •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 더 넓은 세계사 사료(史料)의 확장 - 서경호   대한민국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위원장 •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 역사적 가치와 의미 - 헬렌 자비스(Helen Jarvis)   캄보디아 · 호주   MOWCAP 등재심사소위원회 위원장		
		12:10~13:30	80' • 환영 오찬	
1부	13:30~15:20	110' <b>[1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세계기록유산]</b> ※ 좌장: 허권   전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 선언 원본(1789, 1791)의 가치와 의미 - 셸린 파르세(Céline Parcé)   프랑스   프랑스 국립기록박물관 기록관 • 마르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의 발단과 초기 발전상에 대한 기록물의 가치와 의미 - 미르코 구트자르(Mirko Gutjahr)   독일   독일 루터박물관 관장 • 아시아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OW)국제기록부에 등재된 기록유산의 세계적인 중요성과 의미 - 아이자르킨 코조베코바(Ajarkyn Kojobekova)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 중앙아시아 대학교 시민사회 이니셔티브 디렉터 • 토론: 김민철   성균관대학교 교수 홍경만   루터대학교 교수 정근식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5:20~15:40	20' • 휴식	
		2부	15:40~17:30	110' <b>[2부: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사적 가치]</b> ※ 좌장: 신영우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소장 •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 내포된 가치와 의미 - 배항섭   대한민국   성균관대학교 교수 •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구성과 특징 - 조재곤   대한민국   서강대학교 연구교수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 방안 - 홍성덕   대한민국   전주대학교 교수 • 토론: 김양식   청주대학교 교수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이동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선임전문관

Classification	Time		Main Contents
	09:00~10:00	60'	• Registration
Opening Ceremony	10:00~10:30	30'	• Opening Address, Congratulatory Speech
	10:30~11:10	40'	• Celebration performance   Jeongeup Municipal Gugak Orchestra
Keynote speech	11:10~12:10	60'	<b>[KEYNOTE SPEECH]</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Expanded Resources for Global History</b> - Suh kyung Ho   Republic of Korea   Chair National MOW committe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The world historical value and meaning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rchives</b> - Helen Jarvis   Cambodia-Australia   Chair of the Register Subcommittee of the Memory of the World Committee for Asia and the Pacific(MOWCAP)</li> </ul>
	12:10~13:30	80'	• welcome luncheon
Part 1	13:30~15:20	110'	<b>[PART 1: Universal values of humanity and Memory of the World]</b> ※ Chair: Heo Kwon   Former Secretary-General of the Asia-Pacific Center for the Preserv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Valeur et signification de la Déclaration originale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1789, 1791)</b> - Céline Parcé   France   Archivist of National Archives Museu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The value and meaning of records documenting the origins and early development of the Reformation initiated by Martin Luther</b> - Mirko Gutjahr   Germany   Director of the Luther museum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The world significant value and meaning of documentary heritage in Asia listed o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MoW) International Register</b> - Aijarkyn Kojobekova   Kyrgyzstan   Civil Society Initiative Director, University of Central Asia, Kyrgyzsta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Discussion:</b> Kim Min Chul   Professor of Sungkyunkwan University Hong Kyeong Man   Professor of Luther University Jung Keun Sik   Emeritus Profess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li> </ul>
	15:20~15:40	20'	• Break Time
Part 2	15:40~17:30	110'	<b>[PART 2: World historical value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b> ※ Chair: Shin Young Ou   Director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search Institu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The Values and Significance Embedded in the Record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b> - Bae Hang Seob   Republic of Korea   Professor of Sungkyunkwan University</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The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b> - Cho Jae Gon   Republic of Korea   Research Professor of Sogang University</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Strategies for Globaliz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b> - Hong Sung Deok   Republic of Korea   Professor of Jeonju University</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Discussion:</b> Kim Yang Sik   Professor of Cheongju University Lee Byeong Gyu   Head of Research and Documentation Division,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Lee Dong Hyun   Senior Specialist, UNESCO Korean Committee</li> </ul>

- 기조강연** 013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 더 넓은 세계사 사료(史料)의 확장  
· 서경호 |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위원장
- 019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 역사적 가치와 의미  
· 헬렌 자비스(Helen Jarvis) | MOWCAP 등재심사소위원회 위원장

## 1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세계기록유산

- 027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 선언 원본(1789, 1791)의 가치와 의미  
· 발표: 셀린 파르세(Céline Parcé) | 프랑스 국립기록박물관 기록관
- 036 마르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의 발단과 초기 발전상에 대한 기록물의 가치와 의미  
· 발표: 미르코 구트자르(Mirko Gutjahr) | 독일 루터박물관 관장
- 042 아시아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OW)국제기록부에 등재된 기록유산의 세계적인 중요성과 의미  
· 발표: 아이자르킨 코조베코바(Aijarkyn Kojobekova) | 키르기스스탄 중앙아시아 대학교 시민사회 이니셔티브 디렉터
- 049 토론  
· 김민철 | 성균관대학교 교수  
· 홍경만 | 루터대학교 교수  
· 정근식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2부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사적 가치

- 061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 내포된 가치와 의미  
· 발표: 배향섭 | 성균관대학교 교수
- 072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구성과 특징  
· 발표: 조재곤 | 서강대학교 연구교수
- 103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 방안  
· 발표: 홍성덕 | 전주대학교 교수
- 121 토론  
· 김양식 | 청주대학교 교수  
· 이병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 이동현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선임전문관

---

## Keynote Speech

- 135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Expanded Resources For Global History**  
• Kyung Ho Suh | chair National MOW committee
- 141 **The world historical value and meaning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rchives**  
• Helen Jarvis | Chair of the Register Subcommittee of the Memory of the World Committee for Asia and the Pacific(MOWCAP)

---

## Part 1

### Universal values of humanity and Memory of the World

- 149 **Valeur et signification de la Déclaration originale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1789, 1791)**  
• presentation: Céline Parcé | Archivist of National Archives Museum
- 159 **The value and meaning of records documenting the origins and early development of the Reformation initiated by Martin Luther**  
• presentation: Mirko Gutjahr | Director of the Luther museums
- 166 **The world significant value and meaning of documentary heritage in Asia listed o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MOW) International Register**  
• presentation: Aijarkyn Kojobekova |  
Civil Society Initiative Director, University of Central Asia, Kyrgyzstan
- 173 **Discussion**  
• Kim Min Chul | Professor of Sungkyunkwan University  
• Hong Kyeong Man | Professor of Luther University  
• Jung Keun Sik | Emeritus Profess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

## Part 2

### World historical value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 187 **The Values and Significance Embedded in the Record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 presentation: Bae Hang Seop | Professor of Sungkyunkwan University
- 198 **The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 presentation: Cho Jae-gon | Research Professor of Sogang University
- 239 **Strategies for Globaliz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 presentation: Hong Seongduk | Professor of Jeonju University
- 259 **Discussion**  
• Kim Yang Sik | Professor of Cheongju University  
• Lee Byeong Gyu | Head of Research and Documentation Division,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 Lee Dong Hyun | Senior Specialist, UNESCO Korean Committee
-



2024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국제학술대회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를 바라보다



2024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국제학술대회





#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 더 넓은 세계사 사료(史料)의 확장

서경호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위원장

##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 : 더 넓은 세계사 사료(史料)의 확장

서경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위원장

### 개 관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MOW)30주년 기념 (2022)

프로그램의 목표

- 위험에 처한 기록유산을 보호한다.
- 기록유산을 인류의 공유 자산으로 보존한다.
- 기록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 일반인의 기록물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을 높인다

## 핵심전략

- 중요한 기록유산을 국제, 지역, 국가목록에 등재한다.
- 1997년 등재가 시작된 이래로, 494개의 기록물이 국제 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 등재의 효과

- 국제적 인정을 통한 명성과 자부심
- 기록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의 향상
- 보존을 위한 더 나은 환경의 조성
- 역사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해석

## 목표를 벗어나는 효과의 발생

- 문명 발전에 대한 각 공동체의 기여를 보여주는 플랫폼
- 전 세계의 사회문화적 공통성과 다양성을 조명하는 플랫폼
- 기존 역사 서사를 넘어서는 새로운 역사적 지식을 제공하는 플랫폼

##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 (MOW)의 역사적 시각 확장에 대한 기여: 사례

- 노예 제도에 관한 다양한 세부 지식의 제공
- 식민지 과거에 대한 기억의 발굴
- 유럽의 진출에 직면한 통치자들의 고뇌
- 탈식민 이후 국가 건설 과정

##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 (MOW)의 30년: 새로운 역사 서사의 출현과 일치

-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확산에 대한 성찰, 베네딕트 앤더슨, 1991
- 대전환: 중국, 유럽, 그리고 현대 세계 경제의 형성, 케네스 포머랜츠, 2000
- 사피엔스: 인류의 간략한 역사, 유발 노아 하라리, 2014
- 서구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4,000년의 역사, 조제핀 쿤, 2024

##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 동아시아의 종교 공동체의 독특한 성향을 조명하는 기록물
- 동아시아에서 종교를 바탕으로 일어난 봉기에 대한 기록물

## 동아시아의 종교적 봉기: 사례

- -2세기 황건적의 난: 도교에 기반한 비밀결사가 농민을 규합하여 일으킨 봉기 - 20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한 왕조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 -백련교(白蓮教): 5세기에 불교와 도교를 혼합한 소수 종교로 발생하였으며, 1340년대의 홍건적의 난과 1790년대의 청 왕조의 권력을 약화시킨 반란을 촉발했습니다.
- -태평천국(太平天國)의 난 (1850년): 과거(科擧)에 실패한 홍수전이 서남 중국의 빈곤한 농민들과 함께 새로운 종교 집단을 조직하여 일으킨 봉기입니다. 태평천국을 선언하고 공동 소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봉기로 10년에 걸쳐 2천만 명이 사망하고, 17개 성(省)이 황폐화되었습니다.

## 동학농민운동: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집단적 열망

- 공동 소유의 개념
- 사회적 평등
- 성 평등
- 참고: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1867년에 처음 출판되었습니다.

## 동아시아 종교 집단의 특수한 역할

- 억압받는 자들의 집단 구원을 위한 종교 공동체
- 종교적 교리가 사회 개혁의 원동력으로 발전

##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MOW)의 세계 역사에 대한 영향

-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는 세계 역사를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규범은 새로운 증거를 통해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 비유럽 문화 요소를 포용함으로써 역사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 역사적 가치와 의미

헬렌 자비스(Helen Jarvis) MOWCAP 등재심사소위원회 위원장

130년 전, 1894년에 한국의 전라북도에서 놀랍고 궁극적,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민들이 새로운 사회를 요구하며 봉기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에서의 신분과 계급 구분, 특히 노비 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했으며, 억압적인 세금 제도의 폐지, 차별 부과 전의 의무적인 재판, 그리고 “사람이 하늘만큼 소중하다”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의 완전한 재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시민의 복지를 지킴 원칙으로 삼을 것을 주장했습니다.

비록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인정받아온 사건이지만,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국제 등록부에 등재되는 국제적으로 그 중요성이 인정받기까지는 지난해(2023)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북에서 이 등재를 기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을 구상한 이들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친 이들을 추모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수백 개의 문서를 수집한 수백 명의 사람과 이를 100년 넘게 보존하여 이 기록물을 보존해준 노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 귀중한 기록물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증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동학의 역사에서 185개의 문서를 세계 무대에 올려 세계기록유산으로 인정받게 한 지혜와 노력에 인정과 감사를 표합니다.

## 세계기록유산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MoW) 프로그램은 197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세계의 기록유산은 모든 인류의 것이며, 모든 사람을 위해 완전히 보존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문화적 관습과 실용성을 적절히 인정하면서도 모든 사람이 방해 없이 영구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MoW 프로그램의 목표:

- 특히 갈등 지역이나 자연재해에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세계기록유산의 보존을 촉진합니다.
- 전 세계적으로 기록유산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 대중에게 기록유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인식을 높입니다.

세계기록유산(MoW)의 가장 눈에 띄는 측면 중 하나는 국립, 지역, 국제 수준에서의 일련의 기록유산 항목 기록부입니다. 이는 세계기록유산(MoW)의 유일한 활동은 아니지만, 가장 눈에 띄는 항목입니다. 이러한 수준 간에는 위계가 없으며, 항목의 중요성 범위에 따라 어떤 기록부에 등재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국제 기록부에 등재된다는 것은 동학농민혁명 문서가 세계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된 495개의 다른 기록유산 항목들 또는 수집품과 함께 등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의 다른 19개의 항목과 함께 포함됩니다.

###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등재

국제 기록부 등재를 향한 여정은 길고 복잡했습니다. 이는 1994년 혁명 100주년 기념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기념식은 모든 남아있는 문서들의 가치를 주목하게 했습니다. 2004년, 한국 정부가 “동학농민혁명 참가자 명예 회복 특별법”을 제정하고 사건과 관련된 기록 수집을 위한 광범위한 국가 차원의 조사를 했습니다. 2006년에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편집되었고, 2010년에는 동학농민혁명 재단이 설립되어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5년 후, 2015년 6월에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 기록부에 등재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기록유산의 등재를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국가적, 지역적, 지방의 기관과 개인, 정부와 민간 모두가 이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2017년에는 국제 등록부 등재를 위해 문화재청에 의해 제출용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연히도, 유네스코 내에서 전혀 다른 과정으로 인해 세계기록유산 등록부는 5년간 동결되었고, 이는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등재 신청은 2022년에야 평가되었고, 결국에는 2023년 5월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 의해 성공적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진행 상황과 목표, 조선 왕조의 전복이라는 목표 달성은 실패했지만, 그 목표 중 많은 부분이 채택되어 한국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친 궁극적인 성공에 대해서는 다른 발표자분들이 설명할 것입니다. 이 영향력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제 말은 동학의 국제적인 중요성과 현재 국제 등록부에 등재된 문서들의 성격에 대한 몇 가지의 의견으로 제한하겠습니다.

### 동학 기록물의 국제적 중요성

MoW의 국제자문위원회의 몇몇 위원들, 심지어 기록물을 등록하기로 투표했던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서도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들어본 사람은 아마도 드물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 기록물들

이 어떻게 국제적인 중요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국제기록유산 목록에 등록된 496개의 항목이나 수집품 대부분에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명자들이 평가자들에게 그들의 주장을 확립하고 설득하는 것은 큰 도전 과제가 됩니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한국 역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역사에서도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19세기의 봉기는 한국이 봉건 국가에서 현대 민주주의로 전환하고 있는 과도기 단계를 나타냅니다. 동학농민군이 표명한 이상은 운동을 와해하려는 국내외의 억압에 직면하여 즉각적으로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 운동은 사회에서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람들의 저항과 외세의 자주권 침해에 관한 반대사례로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동학농민혁명은 한국이 봉건적 관행을 버리고 현대적인 체제를 채택하는 과도기 동안 발생한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집강소로 알려진 민중 중심의 통치를 실현하였고, 조선 정부에 의해 시행된 일련의 근대화 개혁을 가져왔습니다….

둘째, 동학농민혁명은 주로 국내 문제에서 비롯되었지만, 이는 국제적인 갈등으로 발전하여 동아시아에서 오랜 기간 유지되었던 지정학적 질서의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으로 촉발된 일련의 사건들은 동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중화 중심 질서의 붕괴로 이어졌고, 일본이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셋째, 동학농민혁명은 한국에서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이후 한국의 사회운동에 중요한 영감을 주었으며, 이는 일본 식민 통치에 대한 전국적인 저항 운동인 3·1 운동과 해방 후 대한민국에서의 일련의 인권 및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재단은 이 운동의 국제적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이 19세기 한국의 농민 봉기는 반제국주의, 독립지지, 근대화 열망에 영감을 받은 다른 지역의 유사한 사건들과 이념적 유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안된 문서들은 사람들이 역사의 주체로서 행동했고 보편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역사를 이끈 과정을 증언하는 기억의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분명히, 국제기록유산 등재의 소위원회, 국제자문위원회, 그리고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의 위원들은 이 문서들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였고, 제안된 문서들을 등재하기 위해 투표했습니다. 실제로, 국제기록유산 목록에 있는 496개의 항목과 수집품들을 검토함으로써 국제적 중요성에 대한 이해는 우리 각자가 자국의 관점에서 발전시켰던 것보다 훨씬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초기에는 유럽 중심적이었던 국제기록유산 목록의 구성이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중요 항목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원주민과 소외된 사람들의 중요한 항목들을 포함하도록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다른 대표적인 유산 프로그램인 세계기록유산과 무형문화유산에서도 동일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과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 모두 ‘보편적인’ 범위를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연구에서 각각의 목록과 등록부에 등재된 유산 간의 극적인 불평등이 입증되었습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이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과거 식민지를 가졌던 국가들의 지속적인 부와 권력의 상대적 우위는 이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자신들의 유적지와 문서를 식별, 보존 및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지속적인 과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가치’ 혹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상이한 견해를 보여주는 또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위원회는 특히 지난 10년 동안 이 문제와 씨름해왔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 후보지들은 동결되었으며, 최근의 갈등과 관련된 기억의 장소에 대해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 그룹(OEWG)의 권고 사항들이 이행되면서 이제야 이러한 유산들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에 의해 주도된 열정적인 개입 이후, 2023년 7월에 아르헨티나, 프랑스와 벨기에, 르완다의 집단학살 유적지가 성공적으로 등재되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만델라 유적지도 2024년 7월에 새롭게 등재되었습니다.

한편, 세계기록유산에서도 유사한 이의가 제기되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제 및 지역기록유산 목록이 동결되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고, 이의 제기를 포함한 새로운 후보지 선정에 대한 새로운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기억에 남는 장소들이 단지 유럽 역사서에서 익숙한 것만이 아니라 장소 자체의 가치를 기반으로 평가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 없이는 대표적인 세계유산 목록을 달성할 수 있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필요성은 기록유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독특한 성격

지명된 유산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185개의 문서의 수집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85개의 문서 중 65개의 문서, 118권의 책, 그리고 사진/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많은 문서 수집품들과는 달리, 지명된 수집품은 특히 아래에 항목별로 적혀져 있는 것처럼 직접 참여자들이 작성한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는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 (1)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에 의해 작성된 문서
- (2) 한국 대중의 다른 구성원들에 의해 작성된 문서
  - 운동을 억압한 사람들에 의해 작성된 문서
  - 운동을 관찰한 사람들에 의해 작성된 문서

(3) 조선 왕조에 의해 작성된 문서

날짜	운동 참여자들의 문서	기타 대한민국 국민들의 문서		조선정부의 문서	Total
		운동을 탄압하는 사람들에 의한 문서	움직임을 관찰하는 사람에 의한 문서		
1894-1895	26	13	9	115	163 (88.1%)
1896-1909	1	-	2	7	10 (5.4%)
1910-1954	3	3	6	-	12 (6.5%)
계	30 (16.2%)	16 (8.7%)	17 (9.2%)	122 (65.9%)	185 (100%)

185개의 제안된 항목 중 163개(88.1%)는 1894년에서 1895년 사이에 작성되었고, 22개 문서(11.9%)는 1895년부터 1954년 사이에 작성되었습니다. 이 중 30개(16.2%)는 동학 농민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직접 작성한 문서이고, 16개(8.7%)는 운동을 억압한 사람들이 작성한 문서입니다. 또한 17개(9.2%)는 운동을 보고 들은 관찰자들이 작성한 문서이며, 122개(65.9%)는 조선 왕조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추가적으로, 일본 정부에 대해 대립을 유발할만한 가능성을 피하고자, 일본 정부 관리들이 작성한 문서들의 한 종류를 자발적으로 지명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결론**

이 중요한 날에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이 중요한 수집품의 국제적인 중요성에 대한 조언을 통해 작게나마 저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방문하여 130년 동안 소중히 보존되어 온 귀중한 기록물들을 직접 볼 수 있기를 매우 기대합니다. 이 기록물들은 현재 디지털화되어 오늘날 한국 국민분들과 전 세계의 학자들 및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제 발언을 마치면서,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 초대해주신 국립문화재청, 전라북도, 정읍시,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30년 동안 동학농민혁명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며, 지금은 국제기록유산 목록에 등재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고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24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국제학술대회



#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세계기록유산

좌장

허권 전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 선언 원본(1789, 1791)의 가치와 의미

셀린 파르세(Céline Parcé) 프랑스 국립기록박물관 기록관

1789년 8월 26일에 채택되어 1791년 헌법의 서문에 포함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프랑스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문서 중 하나입니다. 제헌의회의 논의에서 탄생하고 프랑스 혁명의 맥락과 깊이 연관된 이 기초 문서는 절대 군주제를 폐지하고 현대까지 이어져 온 프랑스 사회와 여러 정치 체제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 선언은 인간의 본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2003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 선언의 작성 다양한 출처

서구 세계에서 1789년의 선언은 권리를 명시한 최초의 문서는 아닙니다. 여러 외국의 문서가 그 예시가(바탕이) 되었습니다. 1689년, 명예혁명 후에 영국에서는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 제정되어 의회군주제의 원칙을 정의했습니다. 1776년, 아메리카의 영국 식민지들은 헌법을 작성하면서 여러 권리 선언을 포함시키고 독립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 독립 선언은 프랑스 제헌의회의 논의에 특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제헌의회에는 라파예트와 같이 미국 독립 전쟁에 참여한 여러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자연권 이론에 기반한 이 문서는 종종 계몽주의 정신의 구체화로 여겨집니다.

이 계몽철학적 운동은 1680년대부터 18세기 말까지 프랑스에서 확산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이름은 지식의 보급을 통해 무지의 어둠과 싸우려는 의지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사상은 관용, 자유, 평등을 옹호하며, 일반의지론(루소)과 권력 분립의 개념(몽테스키외)을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이 사상은 사법적·경찰적 자의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볼테르 관용론). 마지막으로, 이 운동은 인간으로서의 소속 때문에 모든 개인이 가지는 자연권의 정의로 이어졌습니다(백과전서파).

1789년에 이르러 프랑스 계몽주의의 위대한 철학자들은 사라졌습니다(볼테르와 루소는 1778년에, 달랑베르는 1783년에, 디드로는 1784년에 사망). 하지만 그들의 사상은 프랑스 사회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문해율이 높아지던 시기에 그들의 사상은 널리 퍼졌고, 그 영향력은 막대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여론의 형성과 구체제(앙시앙 레짐)의 해체를 촉진했으며, 이는 1789년 봄

에 루이 16세 왕이 소집한 삼부회 이후 작성된 국민의 요구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구체제 하에서 삼부회는 프랑스 왕이 정치적 또는 재정적 위기, 전쟁, 중요한 외교 문제와 같은 이례적인 상황에서 소집하는 국가 회의였습니다. 삼부회는 사회를 구성하는 세 신분(또는 계층)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신분인 귀족과 성직자는 사법 및 과세 측면에서 중요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세 번째 신분인 제3신분(Tiers état/서민)은 평민 계층(부르주아, 농민, 장인, 노동자)을 대표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각 계층의 의원들은 지방 회의에서 선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 회의는 왕에게 제출할 요청과 항의를 담은 요구서를 작성했습니다

1789년에 작성된 많은 요구서에서 귀족들은 마침내 조세 평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직자들처럼 귀족들도 자신들의 특권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반면 제3신분은 깊은 불만을 드러냈는데, 그 중 하나는 성문 헌법의 부재였습니다. 그들은 세금과 사법 제도의 개혁, 조세 및 시민의 평등, 그리고 개인의 자유 보호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낡은 제도와 스스로 개혁할 수 없는 왕권의 무능함을 비판했지만, 왕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삼부회는 왕국이 겪고 있는 재정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만 소집되었습니다. 1789년 6월 17일, 제3신분의 의원들은 스스로를 국민의회라 선포했습니다. 6월 20일, 베르사유의 실내 테니스 코트에서 그들은 프랑스에 헌법을 제정하기 전까지 해산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회는 제헌의회로 전환되었습니다. 제헌의회는 절대 군주제를 종식시키고 나라를 입헌군주제로 이끌었으며, 결국 공화국으로 전환시켰습니다.



테니스코트의 서약(쥬드폼 서약) 자크-루이 다비드/카르나발레 박물관 - 파리의 역사

## 제헌의회의 업적

제헌의회는 6월 말에 일부 귀족과 성직자 의원들의 합류를 수용했습니다. 제헌의회는 헌법 작업을 조직할 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했습니다. 7월 9일, 보고자 장-조제프 무니에는 미래 헌법 앞에 “인간의 자연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선언”을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후 라파예트가 첫 번째 초안을 제시했으며, 이어서 많은 다른 초안들이 신속히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언을 제정하자는 원칙은 의회 내에서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사상적 대립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삼부회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는 원래 제헌의회로 선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권을 선언하는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의회는 법의 화신으로 자리매김하고 자신에게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8월 4일, 의회는 권리 선언에 의무 선언을 포함하는 문제를 논의한 후, 헌법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만을 앞세우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선언 제정은 급변하는 상황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7월 파리에서의 사건, 특히 7월 14일 바스티유 점령 소식이 전해지면서 귀족들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7월 20일부터 “대공포”가 전국에 퍼졌습니다. 이 공포는 식량 부족과 맞물려 봉건 영주들을 대상으로 한 폭동을 촉발했습니다. 8월 4일 밤, 이 민중 운동의 규모와 지주들에게서 발생한 공포에 직면한 의회는 모든 봉건적 권리와 특권을 폐지했습니다. 이 결정은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근본적인 단절을 의미하며 봉건 제도의 종말을 알렸습니다. 이제 이러한 법적, 정치적, 사회적 혁명을 장엄한 선언을 통해 공식화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는 이른바 “구체제”에서 법적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특권 폐지 법령이 채택된 후, 선언 작업은 8월 12일에 재개되었습니다. 의회는 여러 선언 초안을 검토하고 이를 하나의 문서로 통합할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8월 17일에 위원회가 제시한 초안에 대해 의원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8월 19일, 의원들은 6번째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회의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타협적 표현의 텍스트를 논의의 기반으로 채택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이 텍스트는 조항별로 논의되었고, 논의 과정에서 크게 수정되었습니다. 두 개의 조항만이 수정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8월 27일, 의회는 초안의 24개 조항 중 서문과 17개 조항만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헌법 작성에 우선 집중하기 위해 논의를 중단하고, 헌법이 완성된 후에 마지막 조항들을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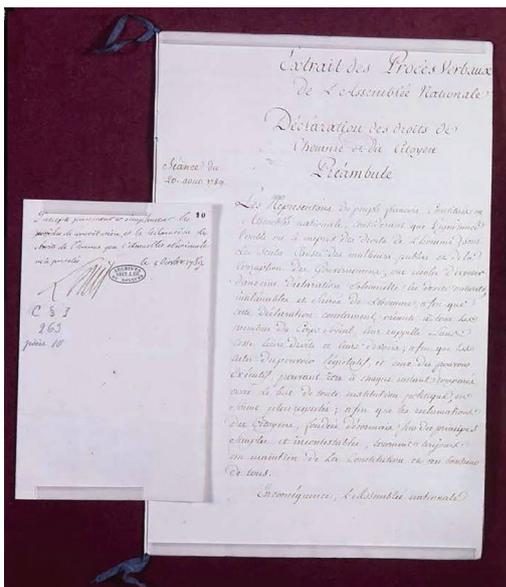
다양한 타협의 결과로 탄생한 1789년의 선언은 의회 공동의 작품입니다. 의회가 여전히 작업 절차를 정의하던 시기에 작성된 이 선언은 그 작성과 채택 과정이 진정한 의회 활동의 시험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이 텍스트가 의회에서 제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 복잡한 선포 과정

실제로, 헌법 작성 과정에서 9월 11일에 의회는 왕에게 잠정적인 거부권을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채택된 법령이 법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왕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회는 8월에 채택된 봉건 특권 폐지 법령과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시행하기 위해, 이를 루이 16세 왕에게 비준받아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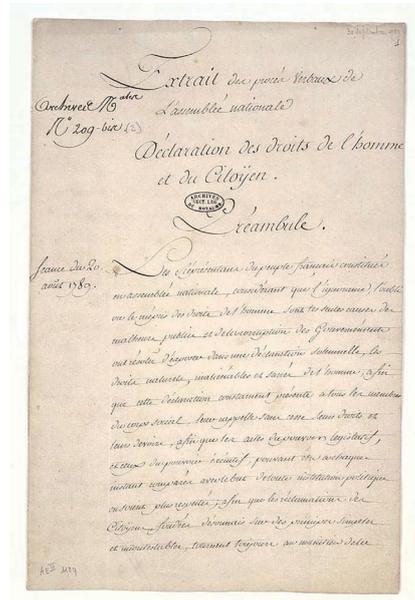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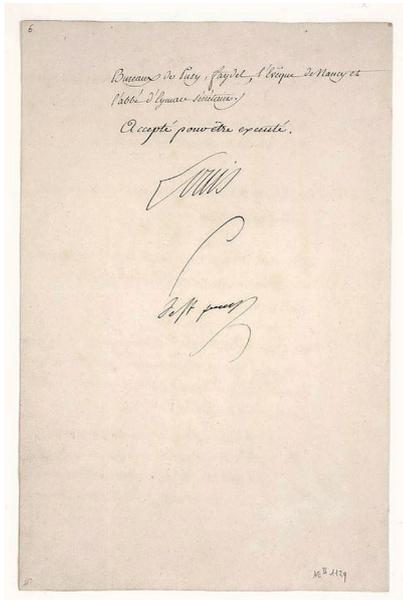
선언의 서문과 17개 조항은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의회에서 열린 여러 차례의 회의 중에 채택되었습니다. 이 조항들은 여러 개의 개별 법령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왕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이 법령들은 하나의 통합된 법령으로 재구성되었으며, 10월 2일에 의원들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같은 날, 의회 의장은 베르사유 궁전으로 가서 이 법령들과 봉건 특권 폐지에 관한 법령들을 왕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루이 16세는 이를 승인하는 데 망설였습니다. 그는 10월 5일, 의회의 압박과 빵(음식)을 요구하며 베르사유로 몰려든(대부분 여성들로 이루어진) 군중의 압박에 따라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의회는 왕의 승인을 어떤 형식으로 받아야 할지 아직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왕은 그에게 제출된 법령에 직접 서명하는 대신, 자신의 손으로 쓴 서신에 승인을 통지했습니다. 이후 관례가 되진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왕의 승인은 두 개의 문서로 구성되었습니다: 의회의 법령과 왕의 메모입니다. 그러나 두 문서는 서로 다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의회의 법령은 왕립 상서국에 보관되었고, 왕의 서신은 제헌의회에 전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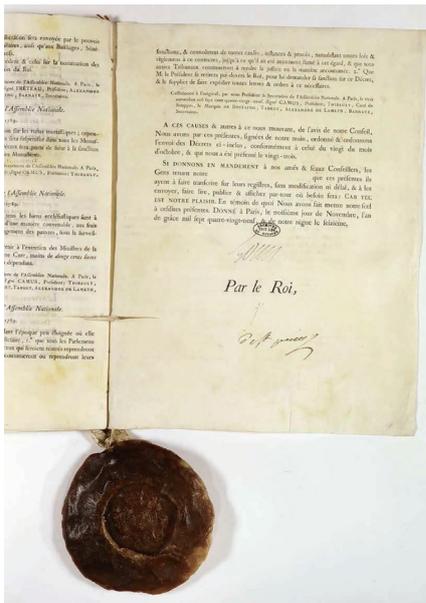
1789년 10월 2일 제헌의회 법령과 1789년 10월 5일 왕의 메모

이러한 이유로, 의회의 기록관인 아르망-가스통 카뮈는 왕립 관청에 공식 승인의 모든 조건을 갖춘 문서의 사본을 보낼 것을 요청했습니다. 1790년 5월에 그에게 단일 문서가 전달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1789년 10월 2일 의회의 법령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행을 위해 승인됨”이라는 문구와 함께 왕의 서명 및 생프리스트 왕실 장관의 부서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유효성을 갖춘 최초의 원본 선언문으로, 왕과 국가 간의 진정한 계약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1790년 3월, 모든 유효 조건을 갖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후속 복사본(프랑스 국립문서보관소)

1789년 11월 3일, 국왕의 명령에 따라 칙서로 선언문이 공포되었습니다. 이 칙서는 선언문을 모든 왕국에 공포하고, 법원과 행정기관이 이를 알고 적용할 수 있도록 발송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789년 11월 3일, 루이 16세의 칙서 (프랑스 국립문서보관소)

1791년 8월, 제헌의회는 헌법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의회는 원래 헌법의 서문으로 포함시키기 전에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의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1789년 8월부터 국민들에게 임시 형태로 알려졌으며, 이미 신성불가침한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를 훼손할 우려로, 의회는 형식적인 몇 가지 수정만 가한 후, 1791년 9월 3일에 제헌의회에서 채택된 첫 번째 프랑스 헌법의 서문으로 이 선언을 포함시켰고, 같은 달 14일 루이 16세 왕에 의해 수락되었습니다.



1791년 헌법 원본 초안,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서문으로 포함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의 원본은 단 하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1789년 제헌회의의 토론부터 1791년 헌법 공포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여섯 가지 버전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복잡한 법적 과정을 보여주는 긴밀하게 결합된 집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중 다섯 개는 프랑스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으며, 위에서 언급된 것들입니다. 여섯 번째는 1789년 여름 제헌회의에서 작성된 선언문의 첫 번째 판으로, 현재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200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 목록에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1789, 1791)”이라는 이름으로 등재되었습니다.

### 선언의 의미 혁명적인 내용

굉장히 혁명적인 이 선언문은 서문과 17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짧고 간결하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언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서문에는 신이나 종교가 언급되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최고 존재의 보호 아래 선언을 돕니다. 서문은 각자의 권리를 상기시켜 정의를 존중하고 모두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첫 번째 조항의 첫 마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는 선언의 핵심을 요약합니다. 이 조항은 가장 잘 알려진 내용으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새로운 체제의 중심에 두어, 세습과 계층 구분에 기반한 구체제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선언은 특권과 부패를 없애면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그 기본 원칙을 후속 조항에서 구체화합니다.

개인의 권리에 대한 측면에서, 이 선언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인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억압에 대한 저항권을 명시하고 정의합니다(제2조).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모든 형태로 이해되며(제1조, 제2조, 제7조에서 제11조),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5조). 일련의 조항들은 범죄와 형벌의 법적 정의(제7조와 제8조), 법의 소급 금지(제8조), 무죄 추정(제9조), 종교적 관용 및 의견의 자유(제10조)를 보장함으로써 정부로부터 개인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법 앞에서의 평등(제6조), 세금의 평등(제13조), 그리고 능력에 따른 공직 진출의 기회(제6조)가 보장됩니다.

선언은 권력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정치 체제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선언은 미래 헌법 작성과 새로운 제도 설립에 있어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들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주권은 본질적으로 모든 권력과 권위가 발현되는 국민에게 있습니다(제3조). 법은 일반의지의 표현이며(제6조), 시민들은 직접 또는 그들의 대표를 통해 법에 참여합니다(제3조, 제6조, 제14조).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분리는 공권력 조직의 기본 요소이며(제16조), 이들은 모든 시민 앞에 책임을 집니다(제15조). 선언은 절대 군주제로의 회귀를 금지하는 대의제 체제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국왕의 역할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왕이 언급되지 않은 채, 그는 국민의 이름으로 통치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선언은 의무가 아닌 권리만을 다룹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는 다양한 한계를 통해 나타납니다. 또한, 시민들은 국가 예산에 기여해야 합니다(제13조, 제14조). 법에 대한 저항은 범죄로 간주됩니다(제7조). 모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권력이 설립됩니다(제12조).

많은 수정안을 거쳐 작성된 이 텍스트는 일관성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작성된 혼란스러운 시기를 반영합니다. 이 텍스트는 초기 여러 초안에 포함되었던 생명권, 교육권, 공공 지원권, 경제적 자유와 같은 중요한 사항들을 생략했습니다. 또한 여성과 노예를 무시하여 사회의 상당 부분을 배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언의 영향력은 혁명적인 맥락을 넘어섰고, 프랑스를 인권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내용

선언의 작성과 승인 과정은 프랑스 역사에서 특정 시기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지만,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시대를 초월하고 보편적인 문서로 사료될 수 있습니다.

1791년 9월 3일 헌법이 가결된 후, 제헌의회는 입법의회로 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체제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792년 9월 21일, 군주제가 폐지되고 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새로운 제헌의회인 국민공회가 선출되었고, 이들은 루이 16세의 처형을 결의하여, 그는 1793년 1월 21일에 처형되었습니다. 왕의 승인을 받은 1791년 헌법과 그 서문은 입헌군주제를 수립했지만, 사실상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어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의 권리를 명시하는 문서에 대한 개념은 신생 프랑스 공화국의 중심 원칙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1789년의 선언문에 영감을 받은, 혁명의 중요한 순간에 두 개의 다른 선언이 작성되었습니다. 1793년 국민공회가 채택한 헌법 1년(공화력 1년 헌법)의 서문에 포함된 권리 선언은 평등을 강조하며, 노예제를 금지하고 공공 지원과 교육을 받을 권리와 같은 새로운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로베스피에르의 몰락과 공포정치 이후 1795년에 제정된 헌법 3년(공화력 3년 헌법)에 첨부된 권리 선언은 재산권과 군사 예비군(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할 때 군대를 보강할 시민들

로 구성된 군대)을 강조하며, 의무에 대한 선언도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1789년의 선언이 역사적 기준이자 후세에 전해질 중요한 문서로 간주됩니다. 이 선언은 혁명의 정신을 구현하고 공화국 모델의 기초를 마련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세대의 학생들에게 가르쳐졌으며, 오늘날 모든 프랑스인이 알고 있는 문서입니다. 이 선언은 현행 헌법의 서문에 포함되어 있으며, 1971년 공식적으로 헌법적 가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법 체계의 최상위에 위치한 이 선언은 법률의 헌법적 심사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텍스트 중 하나입니다. 채택된 지 235년이 지난 지금도, 이 선언은 여전히 프랑스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언은 한 번도 프랑스라는 이름을(단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선언은 살고 있는 시대와 사회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의 자유권과 국민 주권에 관한 보편적 의미는 이 선언을 독단적 권력에 대한 항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선언은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 법치주의의 촉진, 참여적이고 대표적인 의사결정 방식의 도입, 효율적이고 책임 있으며 투명한 기관의 발전을 장려합니다.

이 선언은 장애인 권리나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같이 사회적 변화와 사회적 문제를 반영하는 새로운 권리의 정의로 이어지는 길을 열어줍니다. 또한, 이 선언은 프랑스 국경을 넘어 유사한 문서에 영감을 주었으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1948년 유엔이 채택한 세계 인권 선언입니다.

##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과 1894-1895년 동학농민혁명

2003년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 국제 목록에 등록될 때, 1789년 선언의 원본 여섯 개 중 하나가 한국에 전달되어 서울에서 전시되었습니다. 20년 후인 2023년, 동학 농민운동과 관련된 185개의 문서가 등록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과 프랑스 혁명, 특히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사이에는 놀라운 유사점이 있습니다.

이 두 문서는 각각 약 100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약 9,000킬로미터 떨어진 세계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독특한 역사적 과정을 반영하며, 정치적 및 사회적 맥락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문서 모두 오래된 체제를 현대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려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또한 서구를 포함한 외세의 영향에 맞서 싸우려는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혁명은 각각의 국가에서 전례 없는 통치 방식을 정의하고 구현하여, 그들 모두에게 민주주의로의 길을 열었습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국민 주권의 원칙과 대표제 체제의 기초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1791년 헌법의 작성과 실행을 통해 처음 적용되었습니다. 동학 혁명가들은 1894년 한국 정부로부터 53개의 전라도 행정구역에 협력 정부(집강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자치 행정 구조는 민회라는 회의를 통해 결정을 내리며, 농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직접적으로 자치

구의 통치에 참여합니다.

마찬가지로, 1789년 선언의 조항들과 1894년에서 1896년 사이 동학 혁명의 압박 하에 조선 정부가 시행한 갑오개혁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발견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인권의 확립, 봉건 체제, 계급 시스템 및 특권의 폐지, 법 앞의 평등과 사법 접근의 보장, 세금 납부 의무의 도입.

마지막으로, 한국과 프랑스의 두 혁명은 각각 지배 계층에 맞선 민중의 봉기에서 기원을 찾으며, 장기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래된 세계(체제)를 해체하면서, 각 혁명은 현대 세계의 구조를 형성하는 기초를 마련하고 공화국으로의 길을 열었습니다. 두 혁명은 또한 자신들의 지역에서 지적 질서를 뒤흔들었고, 후속 혁명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3.1 운동과 해방 이후의 일련의 민주화 운동들이 있었고, 프랑스에서는 1830년과 1848년의 혁명, 1871년의 파리 코뮌, 그리고 1968년 5월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는 여전히 이 두 혁명의 깊은 인도주의적 이상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자결권은 오늘날 우리에게 자명한 가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들은 여전히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는 인정받지 않고 있으며, 완전히 확보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언제든지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네스코가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확산시킨 철학과 역사적 사건을 증명하고 밝히는 문서 컬렉션을 인정하는 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취약한 유산의 보존을 보장하고 국제적으로 그 지식을 장려함으로써,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 국제 목록 등록은 모방과 경각심을 촉구합니다.

## 마르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의 발단과 초기 발전상에 대한 기록물의 가치와 의미

미르코 구트자르(Mirko Gutjahr) 독일 루터박물관 관장

1521년 독일의 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신념을 옹호하기 위해 황제 찰스 5세 앞에 서야 했던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그는 100년 전 콘스탄츠 공의회에 참석했다가 화형당한 보헤미아 개혁자 얀 후스에 관한 전설을 떠올렸다고 전해진다. 전설에 따르면, 형 집행자가 장작더미에 불을 붙였을 때, 얀 후스는 그들이 그날 한 마리의 거위를 불태우고 있지만, 곧 그들의 노래를 침묵시킬 수 없는 한 마리의 백조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한다. 교회 개혁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루터는 자신이 예언된 백조라는 해석을 곧바로 받아들였다. 비록 얀 후스와 마르틴 루터의 사상은 상당히 유사했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한 것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다. 따라서 후세에 루터는 종종 백조와 함께 묘사되었다.<sup>1</sup>

이 이야기의 진위는 의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뒤에는 흥미로운 메시지가 숨어 있다. 설득력 있는 사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전달할 매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유통될 때 그것이 계속 기억되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두 가지 개념은 16세기 초기 종교개혁 지지자들에 의해 이해되었다. 그 실현 수단은 한편으로는 인쇄기였고,<sup>2</sup> 다른 한편으로는 자체적인 역사적 기초를 위한 초기 기록 보관소의 설립이었다.<sup>3</sup> 얀 후스의 개혁적 접근은 필요한 수단이 부족하여 결국 한 세기 후의 종교개혁과 같은 대중적 운동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1 마르틴 트로이, “거위와 백조. 마르틴 루터와 얀 후스의 이미지 유산,” 루터 87권 3호, 2016년, 127-141p, 하이코 A. 오버만, 루터: 신과 악마 사이의 인간(예일 대학 출판부, 1989), 183p, 리처드 마리우스, 마르틴 루터: 신과 죽음 사이의 기독교인(하버드 대학 출판부, 1999), 235-236p, 카터 린드버그, 유럽의 종교개혁(블랙웰 출판사, 2009), 92p.

2 엘리자베스 아이젠슈타인, 초기 근대 유럽에서의 인쇄 혁명(캠브리지: 캠브리지 대학 출판부, 1983)

3 스테판 미셀, 16세기 마르틴 루터 저작의 정경화(모르 지벡: 뮌헨, 2016; 베르트 뮐러, 독일의 종교개혁(뮌헨: C.H. 벡, 2005); 카를 힐레브란트, 종교개혁의 시작과 그 역사적 의미(베를린: 스프링거, 1895)

2015년 유네스코는 다양한 독일 기관의 14개 문서를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했다.<sup>4</sup> 이들은 초기 개혁 사상을 담은 기록, 면죄부에 대한 유명한 95개조 반박문,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한 기록, 보름스 제국회의 때 황제 앞에서 대담하게 자신의 견해를 밝힌 문서, 교회, 교육 및 사회의 재조직에 대한 요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14개 문서는 초기 종교개혁의 출현과 관련된 훨씬 더 크고 다양한 기록 컬렉션의 극히 제한된 선택을 나타낸다. 연대기적 선택은 자의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1513/1514년의 첫 개혁적 접근부터 1525/1526년의 교육, 교회와 사회에 관한 개혁적 저술에 이르기까지 루터의 개혁적 발전 시기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다.<sup>5</sup>

이 문서들은 비텐베르크와 그의 시대의 독일 영토를 훨씬 넘어서 확장된 종교개혁의 시작과 초기 발전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후 시대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또한 종교적, 교회적 운동이 확립된 신념에 대한 비판적 재평가를 촉진하여, 결국 더 넓은 사회적, 정치적 힘으로 발전해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선정된 텍스트들은 “종교개혁”의 본질을 명확히 하여, 인간과 신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뿌리를 둔 사회의 다면적 변혁을 강조했다.<sup>6</sup> 이 변혁은 삶의 모든 측면—종교, 정치, 사회, 문화—에 영향을 미쳐, 종교개혁을 새로운 시대의 시작으로 만들었으며, 현대의 도래를 이끌었다. 비록 후기 중세의 경향과 일정한 연속성을 유지했지만, 종교개혁은 종교적 삶, 정치적 행동, 사회 구조, 공공 조직, 윤리적 원칙, 법적 규제를 재정의하는 새로운 해석적 접근을 도입했다. 종교개혁의 영향은 유럽을 넘어 확장되어, 세계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와 관련성을 얻었다.<sup>7</sup>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문서들은 이러한 발전을 모범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은 또한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은 필사본에서 인쇄 매체로의 전환을 대표한다. 더 나아가, 다양한 매체와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활용하여 대중에 도달하고 동원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며, 개혁자들의 메시지가 어떻게 전파되고 적응되었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 문서들은 새로운 형태의 대중 신앙, 교육 및 학문적 개혁, 정치적 및 사회적 변혁,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모국어의 중요성 증대를 반영하고 있

4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록부: 종교개혁 문서. 유네스코 공식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2024년 8월 접속).

5 아이린 당겔, 헤닝 P. 뷔르겐스(편집), *종교개혁의 이정표*. 루터의 초기 활동을 보여주는 핵심 문서들(귀터슬로어 출판사: 귀터슬로, 2014).

6 한스 J. 힐러브란트, *종교개혁*(옥스포드 대학 출판부, 2008), 디아르마이드 맥컬로흐, *종교개혁: 역사*(바이킹, 2003).

7 아이린 당겔, 헤닝 P. 뷔르겐스, *역사적 서론*. 수록: 아이린 당겔, 헤닝 P. 뷔르겐스(편집), *종교개혁의 이정표*. 루터의 초기 활동에 대한 핵심 문서(귀터슬로어 출판사: 귀터슬로, 2014), 11-17p

다. 또한, 이 문서들의 생존은 새로운 개신교 운동의 고유한 역사 기록의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다.<sup>8</sup>

종교개혁 시대의 첫 번째 “자체 역사화”는 거의 불가피하게 등장했다. 교황 교회와의 갈등을 배경으로, 전통과 역사를 참조하고 역사적 연속성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립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데 이바지했다. 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의 역사적 선구자들에 대한 서사를 만들어, 새로운 교리를 도입했다는 비난을 무력화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종교개혁은 초기부터 역사 해석의 포괄적인 틀에 자신을 삽입하고, “참된 교회”의 역사적 연속성과 조화를 이루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전 개혁자들”의 문제는 점점 더 중심이 되었으며, 이러한 선구자들과 대비하여 종교개혁의 역사적 성과를 강조하는 데 기여했다.<sup>9</sup>

그러나 비텐베르크 종교개혁의 분파가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새로운 급진적 개신교 분파들이 등장하면서, 오직 하나뿐이며 원조라고 자부한 비텐베르크 동맹은 이제 분열된 개신교 분파 내에서 자신의 역사적 정당성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루터를 종교개혁의 창시자로 소환하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문서들이 대부분 개신교 개혁자들에 의해 설립된 기록 보관소와 수집물에 보존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초기 개신교 교회에서는 자체 역사와 역사 기록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이와 관련하여 초기 종교개혁 연대기 작가들, 예를 들어 루터의 동료였던 게오르그 뢰러<sup>10</sup>와 루터의 친구 요하네스 랑이 루터의 초기 원고와 인쇄물을 수집하여 그의 작품의 초기 편집본에 사용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들 둘은 모두 1517년 10월 31일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인식하고 이를 개신교 종교개혁의 중요한 순간으로 선언한 인물들이었다. 이 사건의 중요성은 최근 몇 년간 학문적 논쟁의 주제가 되어왔지만, 이 서사가 새로운 개신교 교회의 중요한 창립 신화가 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요하네스 랑<sup>11</sup>은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브로드시트 사본에 “Anno 1517 ultimo Octobris vigilie Omnium sanctorum indulgentie primum inpugnatę” / “1517년, 10월 31일, 만성절 전야, 면죄부가 처음으로 공격받다”라는 메모를 남기기까지 했다.<sup>12</sup> 이 메모로 랑은 포스터 인쇄물의 출판일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서를

8 스테판 미셸, 16세기 마르틴 루터의 저작의 정경화(모어 시백: 원헌, 2016), 117-126p.

9 비교: 볼커 레핀, “카리스마적 지도력에서 제도로,” 루터란 퀴터리 제32권(2018).

10 스테판 미셸, 크리스티안 스페어(편집), 게오르그 뢰러(1492-1557). 비텐베르크 종교개혁의 연대기(레우코레아 연구 시리즈 15), 라이프치히, 2012.

11 안드레아스 린드너, “에르푸르트의 미지의 개혁자 - 요하네스 랑,” 수록: 슈테판 라슬로프, 볼커 레핀, 토마스 A. 사이델(편집), 종교개혁의 장소(에르푸르트, 라이프치히: 2012), 44-46p.

12 마티스 라이베츠타(편집), 십자길. 호엔츨레른가와 종파 1517-1740(베를린 2017), 132-135p.

역사적 문서로 분류했다. 이 낱자 기록과 문서화 행위는 단순한 기록 보관 동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종교개혁의 위치를 더 넓은 역사적 맥락에 두려는 의도적 주장으로, 루터의 행동이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더 큰 역사적 서사의 시작임을 강화함으로써 그 중요성과 정당성을 확립하려는 의도였다. 1517년의 95개조 반박문<sup>13</sup>을 특정 역사적 틀 안에 배치함으로써, 랑은 종교개혁의 역사적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고, 이를 시간 속에서 추적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 개신교 운동의 집단 기억과 역사적 이해 속에 더욱 깊이 새겨 넣었다.<sup>14</sup> 개신교의 정체성에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로는 1521년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루터의 재판과 1522년 바르트부르크에서의 성경 번역 등이 있다.<sup>15</sup>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인간과 신의 관계를 재형성하면서, 성경을 인간주의적 접근으로 탐구할 수 있는 역사적 텍스트로 보았으며,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접근은 성별, 사회적 지위, 개인적 성취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고유한 가치를 강조하는 인류 개념을 발전시켰다. 종교개혁의 중심에는 루터의 “기독교적 자유” 개념이 있었으며, 이는 전통적인 계층 구조에 도전하고 초기 현대 사회, 나아가 오늘날의 사회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교회에 있어서는 기존 성직자 계층을 해체하고 교회법을 재정비하는 것을 의미했다. 대중적인 종교적 관행은 세상을 마법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에서 이해와 성찰을 중시하는 의례적 활동으로 변화했다. 사회적 이해는 루터의 “소명” 개념과 함께 세 가지 신분—교회, 국가, 가정—에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각 삶의 영역에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sup>16</sup> 교육은 새로운, 적절한 기준에 따라 개인의 영적 관계와 세속적 의무를 육성하는 수단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종교개혁은 기존의 제국 법에 따라 종교개혁을 용인할 수 없거나 용인할 의사가 없는 정치적 권위자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촉진했다.<sup>17</sup> 이 시기는 또한 “소수자 보호”, 자기 방어 권리, 정치 권력에 대한 저항을 정당화하는 이론 개발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 종교개혁이 기존 권위에 도전함에 따라 정치적 정당성과 개인 권리에

13 반박문 못박기의 중요성과 그 진위에 대한 논쟁은 다음을 참조: 벤자민 하셀훈, 미르코 구트자르, 사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에 대한 진실(개신교 출판사: 라이프치히 2018).

14 초기 개혁의 연대기 작성자로서의 요하네스 랑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울리히 부벤하이머, “1518년 라틴어 루터 저작의 최초 집합 인쇄본과 루터의 수도사 요한네스 랑의 주석, 피츠 신학 도서관, 애틀랜타,” <https://ph-heidelberg.academia.edu/UlrichBubenheimer>(2024년 8월 접속).

15 볼커 레핀, “카리스마적 지도력에서 제도로의 전환: 종교개혁 전체 과정에서 루터의 기념비적 의미,” 수록: 스테판 미셀, 크리스티안 스페어(편집), 게오르그 뢰러(1492-1557). 비텐베르크 종교개혁의 연대기(라이프치히 2012), 275-286p

16 유안 카메론, 유럽의 종교개혁(옥스포드 대학 출판부: 옥스포드 1991); 하인츠 실링, “종파화와 국가 이익: 종교개혁 시대,” 수록: 독일의 개신교 종파화: ‘제2의 종교개혁’ 문제(귄터슬로어 출판사: 귄터슬로 1986), 65-92p.

17 스티븐 오즈먼트, 도시의 종교개혁: 16세기 독일과 스위스에서 개신교의 매력(예일 대학 출판부: 뉴헤이븐 1975), 145-148p.

대한 더 넓은 검토를 촉발하여 정치 이론과 실천의 진화를 이끌었다. 사회가 종교개혁 사상의 함의를 다루면서, 통치자와 피통치자 사이의 권력 균형을 재평가하고, 통치와 개인 자율성에 관한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sup>18</sup>

이러한 맥락에서, 종교개혁은 작센에서의 신학적 및 교회적 개혁뿐만 아니라 유럽의 사회-정치적 지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종교개혁의 영향은 깊었으며, 그 사상은 신학적 논의를 넘어 더 넓은 사회적, 정치적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었다. 루터의 저작들이 인기를 끌면서, 그 사상은 사회적 태도와 관행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켰다. 처음에는 신학적 원칙이었던 기독교적 자유 개념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평등에 직면한 일반 민중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루터의 교회 남용에 대한 비판과 개인의 영적 자율성에 대한 강조는 다양한 사회 집단이 기존 권력 구조, 특히 봉건 체제 내의 권력 구조에 대해 질문하도록 영감을 주었다—루터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승인할 수도 없었던 일이다. 이러한 불만과 불만의 분위기는 1525년 농민 전쟁의 무대가 되었으며, 이는 1894/5년 동학 농민운동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약 350년 후 한국에서 일어난 봉기와 마찬가지로, 독일 농민 전쟁은 경제적 불만, 사회적 불평등, 새로운 종교 사상의 영향이 결합되어 일어났다. 농민들은 종교개혁의 개혁과 정의에 대한 요구에 영감을 받아 억압적인 봉건 관행과 과도한 세금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려 했다. 그들은 루터의 가르침을 사회적 및 경제적 개혁을 위한 명령으로 해석했으며, 기독교적 자유의 정신이 그들의 사회 경제적 조건에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루터는 처음에는 농민들의 불만에 동정적이었지만, 점점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그는 그들의 요구 중 일부에 공감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폭력과 급진적인 요구를 비난했다. 한때 개혁의 열망을 불러일으켰던 그의 저작들은 이제 운동의 급진적 요소들이 기존 권위와 충돌하면서 중요한 시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농민 전쟁은 종교개혁의 이상과 정치적, 사회적 권력의 가혹한 현실 사이의 긴장을 부각시켰다.<sup>19</sup>

농민 전쟁의 여파는 전환점이 되었다. 반란의 잔인한 진압(중앙 독일에서만 약 70,000명의 사망자를 초래)은 생존한 농민들에게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 전쟁은 사회 및 정치 구조에 대한 종교개혁의 영향의 한계를 강조했으며, 종교 개혁의 급진적 해석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종교개혁 후의 루터 저작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처럼, 영적 이상과 통치 및 사회 안

18 엔틴 스키너, *근대 정치 사상의 기초*. 제2권: *종교개혁 시대*(캠브리지: 캠브리지 대학 출판부, 1978), 187-194p.

19 마르틴 그레사트, “마르틴 루터의 농민전쟁에서의 태도,” *종교개혁 역사 아카이브* 제56권(1965), 31-47p; 고트프리트 마론, ‘아무도 자신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농민전쟁에서의 루터의 태도에 대한 주석, *루터 학회지* 제2권(1975), 60-75p.

정의 실질적 요구 사이에서 신중하고 신중한 개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sup>20</sup>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루터의 문서들은 마르틴 루터가 남긴 영향에 대한 질문을 염두에 두고 선정되었다.<sup>21</sup> 실제로, 이 문서들은 루터의 종교개혁이 남긴 지속적인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교회, 교육, 사회, 정치 문제에 대한 루터의 저작들은 중대한 파급 효과를 일으켰으며, 독일, 유럽,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전 세계의 많은 부분을 깊이 형성했으며, 현재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루터의 성경 번역은 심지어 통일된 독일 표준 언어 및 철자의 발전과 해방의 기초를 놓았으며, 이는 루터의 예를 따라 다른 나라에서도 자국의 모국어에 대해 반복되었다.<sup>22</sup>

이러한 문서 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따라서 엄청나게 중요한 과제이다. 기억은 과거를 현재로 가져오고, 역사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조건 짓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예리하게 만든다. 그것은 우리가 앞서간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에서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하여, 오늘날 우리의 결정을 안내하는 풍부한 통찰의 실타래를 제공한다. 더욱이, 이러한 텍스트들을 보존, 연구, 그리고 대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전 세계의 미래 세대들이 우리 문명을 형성해 온 통찰과 경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우리의 공유된 문화적, 지적 유산에 대한 더 깊은 연결을 촉진할 수 있다.

20 1525년 독일 농민 전쟁에 대한 가장 좋은 개요는 다음을 참조: 피터 블리클, 1525년의 혁명: 독일 농민전쟁의 새로운 시각(볼티모어: 존스 홉킨스 대학 출판부, 1981); 새로운 접근 방식을 보려면 린달 로퍼의 '불꽃과 피의 여름, 독일 농민 전쟁' 비교 기본서: New York 2025(곧 출시 예정).

21 아이린 딩겔, 헤닝 P. 뷔르겐스, "역사적 서론," 수록: 아이린 딩겔, 헤닝 P. 뷔르겐스(편집), 종교개혁의 이정표. 루터의 초기 활동에 대한 핵심 문서(귀터슬로어 출판사: 귀터슬로, 2014), 11-1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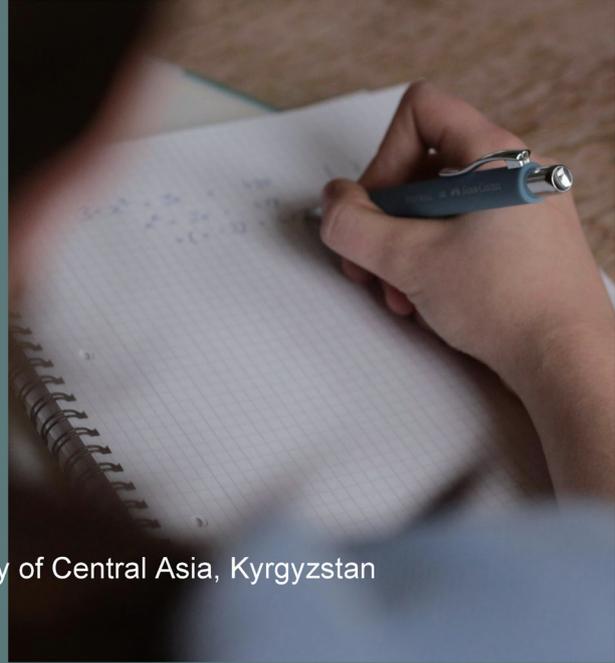
22 허버트 울프, 마르틴 루터. 독일 문헌학적 루터 연구의 입문(슈투트가르트: 메츠러, 1980), 68-92p

## 아시아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OW) 국제기록부에 등재된 기록유산의 세계적인 중요성과 의미

아이자르킨 코조베코바(Aijarkyn Kojobekova) 키르기스스탄 중앙아시아 대학교 시민사회 이니셔티브 디렉터

### 아시아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OW) 국제기록부에 등재된 기록유산의 세계적인 중요성과 의미

Dr.AijarkynKojobekova  
Civil Society Initiative Director, University of Central Asia, Kyrgyzstan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  
129개의 기록유산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oW)  
국제기록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 가치와 중요성



• 이러한 등재 유산들은 인류 문명의 중요한 측면들을 조명하고, 전 세계의 문화적 및 지적 전통에 영향을 미치며, 세계에 귀중한 교훈들을 제공합니다.



• 이 글들은 인류의 공통된 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세계적으로 이해하게 함으로써 세계적인 중요성을 지닙니다. 또한, 발상의 진화를 기록하고, 인간 표현의 다양성을 보여주며, 교육 및 문화 간 대화의 도구로서 역할을 합니다.

• 세계기록유산(MoW)에 등재됨으로써, 이 귀중한 기록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되며, 인류의 집단적 기억을 반영하면서 아시아가 세계 역사와 문화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 가치와 중요성

문화의 교차로: 세계 문명에서의 아시아의 역할

과학적 및 지적 기여

인권과 정의를 위한 세계적 운동:

세계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인 이야기

환경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교훈

a) 독립운동과 반식민 투쟁

a) 식민지 역사와 세계적인 권력 구도

a) 전통적인 생태학적 지식

b) 여성의 권리와 사회 개혁

b) 재난 대응과 회복력



## 1. 문화의 교차로: 세계 문명에서의 아시아의 역할

종교 및 철학적 사상의 전파

정치적, 문화적 관계의 발전



### 고려대장경 (고려 왕조 삼장경) (“Tripitaka Koreana”)

-한국의 삼장경(불교 경전) 모음에서 이 글들은 아시아가 종교 및 철학적 교류의 중심지로서 역사적인 역할을 했음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념이 지역 및 세계 문화형성에 미친 지속적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비루니(AI-Biruni)의 동양학 연구소의 수집품 (우즈베키스탄)

-이는 실크로드의 교차로로서의 세계적인 역할과 이슬람 과학 및 문화 발전에서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또한, 중앙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아랍에서의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 연구, 그리고 이들 간의 정치적, 외교적, 문화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 2. 세계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인 이야기

### a) 식민지 역사와 세계적인 권력 구도

#### 1)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VOC)의 기록

- 유럽 식민 세력과 지역 아시아 사회 간의 복잡한 관계
- 무역, 착취, 문화 교류가 지역 역사에 미친 영향
- 식민지 시대의 세계적인 권력, 경제적인 지배권, 문화적 상호작용의 복잡한 구도

#### 2) 청 왕조 내각 문서-서구 문화의 중국 침투

- 서양과 동양 문화가 충돌하며 세계 역사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시기
- 17세기 중국에서의 서양 성직자들의 활동과 서구 사상이 중국 사회에 침투한 과정
- 전통적인 봉건 시스템의 쇠퇴와 현대 서양 문명의 대두, 그리고 그 시기의 문화 교류와 갈등의 광범위한 세계 구도

## Slide 7

2. 세계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인 이야기  
a) 전쟁과 평화

## 난징 대학살 문서 (중국)



이 기록물에는 미국, 중국, 영국, 소련, 호주,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인도, 필리핀 등 여러 나라가 참여한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의 기록과 일본의 무조건 항복 이후 1945년 8월 중국 사법부가 진행한 난징 대학살 재판에서 드러난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48년 11월 4일에 발표된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의 판결문에는 “1937년 12월 13일 아침 일본군이 도시를 점령했을 때 모든 저항이 끝났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3. 인권과 정의를 위한 세계적 운동:

## a) 독립운동과 반식민 투쟁

제1차 비동맹 회의 (이집트, 알제리, 인도네시아, 인도, 세르비아, 루마니아)

인권 기록유산 1980년 광주에서 군사 정권에 맞선 5·18 민주화 운동 기록

- 이 회의는 가나,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 연합 공화국, 유고슬라비아의 주도로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세계 긴장을 완화하고 식민지주의, 제국주의, 인종차별의 종식을 촉구하며, 평화로운 공존과 세계 평화를 증진하려는 제3세계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의미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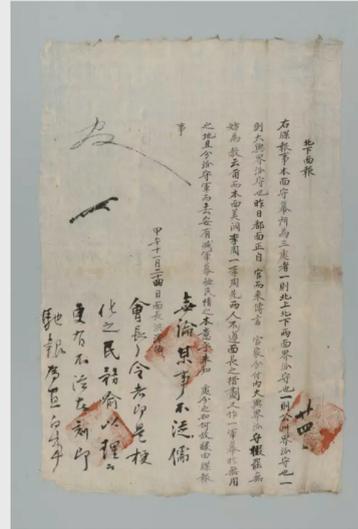
- 5·18 민주화 운동은 한국의 민주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냉전 구도를 해체하고 민주주의를 이끈 결과로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980년대 이후, 필리핀, 태국,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한국의 발자취를 따르려는 다양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 3. 인권과 정의를 위한 세계적 운동: a) 독립운동과 반식민 투쟁

#### 동학 농민 혁명 기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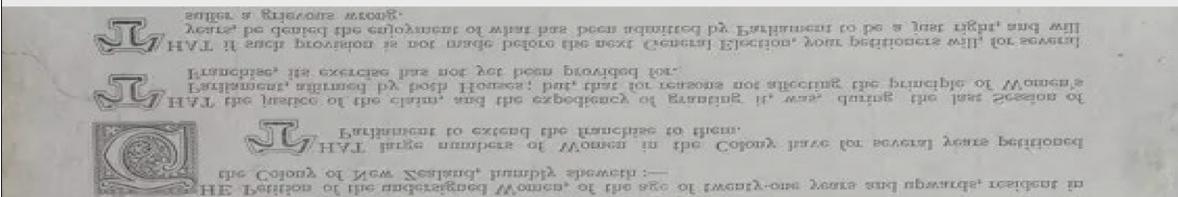
- 동학 운동은 지배층의 부패와 외세의 침략에 맞서 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의 실현을 요구한 대중적인 봉기였습니다. 이 운동은 한국이 변영하는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 기록물은 대중이 주체로서 행동하며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역사의 흐름을 이끌어 역사적인 과정을 증언하는 기억의 저장고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 3. 인권과 정의를 위한 세계적 운동: b) 여성의 권리와 사회 개혁

#### 1893년 여성 참정권 청원서

- 이는 뉴질랜드가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세계 최초의 자치 국가가 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청원서는 성인 여성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서명했으며, 당시 뉴질랜드와 다른 서구 국가들에서 서명된 가장 큰 규모의 청원서였습니다.



## 4. 과학적 및 지적 기여

[수학, 의학, 천문학의 발전 그리고 언어와 문학]

### 티베트 의학, 사부의전

사부의전은 고대 티베트에서 최고 수준의 의료 지식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티베트 초기의 인문학, 역사, 전통, 문학, 예술, 공예에 관한 연구를 반영합니다. 이의 4가지 목판본은 각각 다른 역사적 시기에 교정되고 수정된 판본이며, 금잉크의 필사본은 가장 잘 보존된 희귀본입니다.



### 리그베다(인도)

베다(Veda)는 일반적으로 힌두교 공동체의 경전으로 알려졌지만, 인류 역사상 최초의 문헌 중 하나로서 경전의 정체성을 훨씬 넘어서는 가치를 지닙니다. 네 개의 베다 중 가장 오래된 리그베다는 인도 아대륙을 넘어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일부에까지 퍼진 소위 아리아 문화의 근원입니다. 이 고대의 귀중한 보물은 인도에서 필사본 형태로 보존되어 수 세기 동안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 5. 환경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교훈



### 국제 반핵 운동 “네바다-세미팔라틴스크”의 시청각 자료 (카자흐스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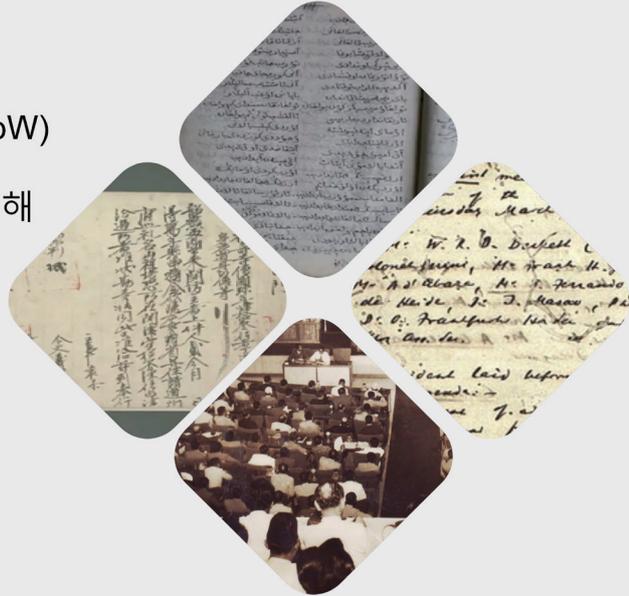
-이 자료는 카자흐스탄 사람들의 환경과 유전적 자원에 큰 피해를 주었던, 세미팔라틴스크 폴리곤에서 있었던 핵무기 실험을 종식시킨 국제 반핵 운동 “네바다-세미팔라틴스크(IAM)”의 활동에 관한 문서들을 모은 하나의 모음집입니다.



### 인도양 쓰나미 기록물

-인도양 쓰나미 기록물은 사건, 재난 대응, 그리고 재건 및 복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다양한 매체로 기록된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2개 국가에서 수집된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이 세계기록유산(MoW) 국제 등록부에 포함됨으로써, 이 귀중한 기록물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되며 인류의 집단적 기억을 반영하고, 아시아가 세계 역사와 문화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증진해줍니다.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2024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국제학술대회

1부





##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 선언 원본 (1789, 1791)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토론문

김민철 성균관대학교 교수

셀린 파르세 선생님의 대단히 흥미로운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의 역사적 배경, 채택 과정, 후대에의 의의, 동학농민혁명과의 비교까지, 촘촘하고 의미 있는 발표였습니다. 제가 발표 내용에 관한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이 학술대회의 후속 토론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돕기 위해서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보충해보고자 합니다.

PPT 19쪽의 잊힌 것들(Des oublis)이라는 섹션에서 생존권, 교육권, 공적부조권, 여성, 노예를 나열하셨습니다. 이것들이 1789년에 작성된 “선언”에서 빠졌다는 것인데, 1789년은 혁명이 이제 막 터진 극히 초반부입니다. 한편에는 계몽사상의 시대 또는 상업의 시대라 불리는 혁명 이전 18세기와, 다른 편에는 혁명이 급진화하여 프랑스 제1공화국이 수립되는 1792년 이후의 시기를 두고 그 가운데 놓인 것이 1789년입니다. 1789년이 차지하는 이러한 위치를 고려하여, “선언”을 비판하지도 옹호하지도 않으면서 ‘생존권’, ‘여성’, ‘(흑인)노예’가 선언에 들어가지 않은 배경을 이 학술대회에 참가하신 분들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 15세기부터 혁명 전 18세기까지 이어진 기독교 기반의 “자연법학(natural jurisprudence) 전통”에서 생명을 지키는 것은 권리(droits)가 아니라 의무(devoirs)로 취급되었습니다. 이 전통에서 볼 때, 神이 인간에게 내려준 ‘의무’ 체계 중에서 으뜸가는 것 즉 최고의 자연법(lex naturalis)이 ‘생명 보존’이었고, 이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들을 할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이나 자기방어권은 생명보존의무에서 도출되었습니다. 생명 보존이 ‘권리’로 본격 언급되는 것은 1792년 이후, 혁명이 급진적 공화주의로 선회하고 자코뱅 산악파가 1793~94년에 권력을 쥐게 되면서 상퀼로트 민중 투사들이 중앙 정치에 큰 영향을 발휘하게 된 다음입니다. 그래서 1789년 “선언”에는 생존이 권리로서 명시되지 않은 것이며, 오히려 생명보존이라는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간주되던 신체안전권과 소유권 등이 권리로서 명시되었던 것입니다.

2) 1789년의 “선언”은 구체제의 사형선고문입니다. 1789년 여름 베르사유에 모여서 국민의회를 선언했던 전국신분회 대표들은 18세기 프랑스의 고질적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고쳐야 할 것들, 가장 시급하게 방어해야 할 권리들에 대해서 토의했고, 의회 전반이 합의한 경우에만 “선언”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신체권과 소유권을 보장하는 法治에 기초한 정치권력을 규정하고, 정권이 法治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각종 장치를 신설하는 가운데 그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합의된 것들, 즉 표현의 자유, 합리적인 과세,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원칙을 “선언”에 기입한 것입니다. // “선언”에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동등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지녀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1789년 국민의회에서 토론하던 혁명가들이 모두 남성이었고, 그들이 ‘여성’을 ‘남성-인간(homme)’ 개념 안에 포섭했으며 여성에게 맞는 자리는 家內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언”에 흑인 노예가 백인 자유인과 동등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지녀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혁명가들이 상업적으로 영국과 경쟁하던 프랑스의 경제에서 흑인 노예들이 생산하는 생도맹그의 설탕 무역이 차지하는 커다란 비중을 의식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여성 문제와 흑인 노예 문제는 1789년 이후 두고두고 쟁점이 됩니다. 급진 공화파 혁명가들은 1794년에 유럽 최초로 “노예제 폐지”를 선포하게 되었지만, 공화파의 권력이 강고해질수록 ‘여성은 남성과 달리 정치적 덕성(virtus, 덕성-남성성 개념)을 결여한다’는 공화주의적 통념이 강하게 작동했습니다.

# “마르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의 발단과 초기 발전상에 대한 기록물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토론문

홍경만 루터대학교 교수

## 1. 서론

오늘 주제 강연에서 독일 루터박물관 관장 미르코 구트자르(Mirko Gutjahr)는 “기록물의 보존과 전파는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해하고, 후대에 그 의미를 전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동학농민혁명(1894/5)의 기록물과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가 주도한 16세기 종교개혁의 기록물은 각각 다른 역사적 배경과 지역에서 발생했지만, 두 사건 모두 사회적 개혁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논찬에서는 구트자르의 발표를 중심으로 두 사건의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유와 그 중요성을 살펴보고, 이들 기록물의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 2. 동학농민혁명과 종교개혁의 역사적 배경 비교

동학농민혁명은 조선말기의 사회적 불평등과 부패한 정치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된 대규모 농민봉기이다. 동학(東學)은 1860년대에 최제우(崔濟愚, 1824-1864)에 의해 창시된 새로운 종교운동으로, 민중의 권리를 강조하며 당시 억압적인 질서에 반대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동학농민혁명은 단순한 농민반란이 아니라, 근대적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한 중요한 사건이다.

반면, 루터의 종교개혁은 당시 로마가톨릭교회의 부패와 면죄부(免罪符, indulgence) 판매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다.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면죄부의 힘과 유효성에 관한 논쟁”(Disputatio pro declaratione virtutis indulgentiarum) 일명 “95개조 논제”를 발표하여 교회의 잘못된 관행을 비판하였다. 그 후 성경을 독일 대중적 언어로 번역하여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루터의 개혁은 신학적 논쟁을 넘어, 구트자르가 “삶의 모든 측면—종교, 정치, 사회, 문화—에 영향을 미쳐, 종교개혁을 새로운 시대의 시작으로 만들었으며, 현대의 도래를 이끌었다.”라는 것처럼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3. 기록물의 보존과 전파의 중요성

미르코 구트자르가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문서들은 이러한 발전을 모범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은 또한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은 필사본에서 인쇄 매체로의 전환을 대표한다.”라고 언급한 것처럼, 종교개혁의 성공적인 전파는 인쇄술의 발달과 기록보존소 설립을 통해 이루어졌다. 2015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독일기관의 14개 문서는 루터의 초기 개혁사상과 주요 저작물, 그리고 1521년 독일 보름스(Worms)에서 열린 신성로마제국의회에서의 입장표명 등을 포함하며, 종교개혁의 전개과정을 문서화하고 있다. 이는 개혁자들이 자신들의 사상과 운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동학농민혁명의 기록물 역시 마찬가지로, 동학농민군의 임명장, 회고록, 조선정부의 진압 관련 공문서, 민간인의 문집 및 일기 등 185건의 방대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물들은 동학농민혁명이 단지 지역적 반란이 아닌, 근대 한국사의 중요한 전환점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구트자르는 “이들은 또한 종교적, 교회적 운동이 확립된 신념에 대한 비판적 재평가를 촉진하여, 결국 더 넓은 사회적, 정치적 힘으로 발전해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라고 언급하며,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발표자의 말처럼, 대한민국 국가유산청도 “조선 백성들이 주체가 되어 자유, 평등,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 노력했던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았다.”(2023. 5. 19일 보도자료)라고 그 의의를 말하고 있다.

### 4.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 비교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은 독일뿐만 아니라 전 유럽의 정치적, 사회적 구조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종교개혁은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조직과 정치적 사상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종교개혁의 결과로 등장한 새로운 프로테스탄트(Protestant) 교회는 독자적인 역사 서술과 정체성을 구축하면서, 중세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근대적 사고방식을 도입하였다.

19세기 말 동학농민혁명은 당시 조선사회의 부조리와 불평등에 저항하여 일어난 운동으로, 조선 후기의 봉건적 질서를 붕괴시키고 근대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동학농민군은 새로운 사회적 정의와 민중의 권리를 주장하며, 기존의 권력구조에 도전하였다. 이는 이후 한국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촉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일제강점기 초기까지 이어지는 저항의 불씨가 되었다.

### 5. 결론 및 제언

미르코 구트자르의 발표는 동학농민혁명과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기록물이 각각의 시대와 지역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202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이유와 그들의 세계사적 중

요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 두 사건의 기록물에 대한 구트자르의 분석은 기록물 보존의 중요성과 그들이 후대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방향을 제공한다. 이에 논찬을 마감하면서 몇 가지 논의 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록물의 보존과 전파가 사회적 변혁에 미친 영향에 관한 주제이다. 동학농민혁명과 종교개혁 모두 기록물을 통해 그들의 이념과 목적을 널리 알렸으며, 이는 각각의 사회적 변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는 두 사건이 어떻게 기록물을 통해 자신들의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회변혁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다.

둘째, 민중운동의 성격과 그 사회적, 정치적 의미에 관한 주제이다. 두 사건 모두 민중이 주도한 운동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성격과 목표는 다르다. 동학농민혁명은 사회적 정의와 민중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반면, 종교개혁은 종교적 권위의 재분배와 개인의 신앙적 자유를 강조했다. 우리는 이러한 차이점이 두 운동의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논의할 수 있다.

셋째, 역사적 기록물의 현대적 가치와 교훈에 관한 주제이다. 동학농민혁명과 종교개혁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는 오늘날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상기시켜 준다. 이러한 기록물들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중요한 학술적, 교육적 자원이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기록물들이 현대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제시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논의할 수 있다.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를 기념하는 2024년 국제학술세미나에서, 마르코 구트자르의 발표는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며, 두 사건의 역사적 중요성과 기록물 보존의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구트자르의 발표와 이와 관련된 여러 주제의 논의를 통해 동학농민혁명과 종교개혁이 각기 다른 역사적 맥락에서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 “아시아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OW) 국제기록부에 등재된 기록유산의 세계적인 중요성과 의미”에 대한 토론문

정근식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코조베코바 박사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세계기록유산은 5개 분야에 걸쳐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총 129개의 기록유산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기록유산으로는 ‘문화의 교차로: 세계문명에서의 아시아의 역할’ 분야에서 고려대장경, ‘인권과 정의를 위한 세계적 운동: 독립운동과 반식민투쟁’ 분야에서 동학농민혁명기록물과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소개되었습니다.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제정한 세계유산은 1972년 체결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에 의거하여 등재된 유산으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리고 문화와 자연의 가치를 함께 담고 있는 복합유산이 있습니다.

이외에 무형문화유산과 세계기록유산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은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 의거한 것으로,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표목록 또는 긴급목록에 등재하는 제도입니다.

세계기록유산(MoW, Memory of the World)은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그 활용을 진흥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제정한 것으로, 서적(책)이나 문서, 편지 등 여러 종류가 포함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유산이라기보다는 ‘세계의 기억’이라는 의미여서 앞의 유산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은 1997년부터 2023년까지 총 18건이 등재되었습니다. 이들은 훈민정음(1997년), 조선왕조실록(1997년), 직지심체요절(2001년), 승정원일기(2001년),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2007년), 조선왕조의례(2007년), 동의보감(2009년), 일성록(2011년),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2011년), 난중일기(2013년), 새마을운동 기록물(2013년), 한국의 유교책판(2015),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2015),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2017), 국채보상운동기록물

(2017), 조선통신사 기록물(2017), 4.19혁명기록물(2013), 동학농민혁명기록물(2023)등 입니다.

세계기록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독일로 총 30건이 등재되었고,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한국은 폴란드와 함께 다섯 번째로 많은 18건의 기록물을 등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15건, 이란이 10건, 인도이 9건, 일본이 7건이므로 한국이 그만큼 풍부한 기록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한국이 이 제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2017년 북한 무예도보통지를 세계기록유산에 등재시켰는데, 이것이 북한에서 등재한 최초의 기록유산입니다.

세계기록유산과는 별도의 범주로 아시아태평양 수준의 세계기록유산을 별도로 등재하고 있는데, 2023년 1월 현재, 43개국 총 66건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2016년 한국의 편액, 2018년 만인의 청원 만인소, 조선왕조 궁중현판, 2022년 삼국유사, 내방가사, 태안유류피해극복 기록물 등 총 6건을 등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또는 세계의 기억 프로그램은 국가간 경쟁을 통해 우리가 문화국가라는 것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문화창조를 위해 그것의 가치를 새기고 잘 활용하려는데 참다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나라의 기록유산 또한 충분히 존중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전에서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들 또한 학교교육현장이나 문화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하고 외국에도 소개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훌륭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등재되지 못한 기록 자료들에 대하여 꾸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이 개발도상국들의 문화재 발굴이나 보존에 대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기록유산에 관해서도 이를 발굴하거나 연구를 진척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4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국제학술대회



##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사적 가치

좌장

신영우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소장



#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 내포된 가치와 의미

배항섭 성균관대학교 교수

##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 내포된 가치와 의미

배 항 섭

###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근대적 가치와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
3. 동학농민혁명과 민주주의
4. 동학농민혁명과 평등의식
5. 나가는 말

## 1. 들어가는 말

-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등재
  - ➔ 의의 :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세계적인 차원에서 확인
- 기록물이 가진 중요성(역사적/현재적 의의)
  - 외세의 주권 침해에 저항하고,
  - 인류 **보편적 가치(universal values)**인 자유(freedom), 평등(equality), 인권(human rights), 정의(justice) 등을 추구하고, 불의와 불평등(injustice and inequality)을 극복하기 위해 투쟁
  -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큰 의미 가짐
    - \* 특히 전라도 관찰사와 동학농민군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집강소(The jipgangso)**는 “한국 사회가 봉건 국가에서 **근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디딤돌** 역할을 한 독특한 통치 제도”라는 의미

- ➔ “보편적 가치”나 “민주주의”는 한편으로 여전히 추구의 대상이기도 함
- ➔ 또 동학농민군의 생각과 행동에도 그러한 요소들이 담겨있었음
- ➔ 그러나 ① ‘서구’ 및 ‘근대’에 대한 회의 : ‘보편’이라는 개념이 가진 서구중심주의(eurocentrism)와 근대중심주의(modernocentrism), 폭력성에 대한 고발
  - “근대 세계는 ‘근대’ 서구에 의한 전근대와 비서구의 정복을 통해 형성되었다. ‘보편적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수행된 그 과정에서 공간과 시간에 대한 정복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 아리프 딜릭(Arif Dirlik) : “서구는 이성과 과학으로 무장하고 “보편적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비서구의 시간과 공간을 정복”하고, 이 과정에서 장소와 시간 등을 인지해오던 전근대적이고 비서구적 방식들을 없애거나 혹은 주변부로 밀어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가 ‘진보’를 향한 인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하는 ‘보편적 역사’를 만들어 내는 데 방해가 되는 대안적 역사의 궤적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다.”

② '인류세(Anthropocene)', '자본세(Capitalocene)' 등 새로운 지질학적 시기 규정 :  
 근대 이후 인류가 살아가고 생각하는 방식=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에  
 대한 근원적 질문

→ "보편적" 역사의 단선적이고 목적론적인 패러다임(paradigm) 극복  
 복수의 시간성 내지 역사적 시간을 넘나드는(transhistorical) 방법, 혹은 트랜스  
 템포럴(transtemporal)한 방법을 통해 근대의 우월성과 전근대에 대한 특권적 지  
 위를 전복할 필요

→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 필요

→ 서구/근대의 "아류(亞流, epigone)"를 확인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 100여년 전의 프랑스 혁명, 370년 전의 독일농민전쟁

→ "서구/근대"에 의해 외면/억압되었거나 잊혀진 것들에 대한 재발견

\* 현실의 정치적 이념적 지형은 많은 부분이 역사적 경험의 축적, 경험에 대한 기억들의 상  
 호 반응의 결과이다. 역사적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하는 문제는 오늘과 미래의  
 질서와 이념이나 사유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 기존 질서 이후 그것을 대체하는 것은 다양한 구성원(행위자)들의 비전(vision),  
 비전과 이념은 기억하는 역사적 경험에 반응하고 규정되는 속에서 만들어짐
- 그러나 "패배자들은 승자들이 근대성의 정치적, 경제적 개념을 절대화하여 그 개  
 념이 상식이 되고 대안적 귀적을 주변적이거나 잔존하는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와 자본주의적 근대성에 대한 진정한 대안은 거의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Massimiliano Tomba)

→ 근대성에 의해 묻힌 것, 억압된 것에 대한 재발견 / 근대성에 대한 대안적 가능성

(An Alternative Legacy of Modernity) 추구해야 함

→ '단방향적 진보 운동(unidirectional progressive movement)으로 특징 지워지는 단  
 선적 발전의 서사(unilinear narrative) 형식과 시간관에 대한 전복적 사고 필요,

## 2. 근대적 가치와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 :

근대적 가치(자유/평등)에 대한 회의와 민주주의의 위기

- “봉건” → “근대” = (신분) 불평등으로부터의 “해방” 의미
- “근대” 역시 불평등과 차별 지속 “ : 신분 → 특히 경제적 불평등  
갈수록 확대·심화 → “세습 자본주의”/지대 자본주의 라는 표현

♣ **Thomas Piketty**: “ 모든 체제는 이데올로기를 동원해 불평등을 정당화시켰고,  
법/세금/사유재산/교육 등 통해 불평등 공고화했다” : 근대자본주의 사회도 동일

### ❖ 회의되는 근대적 가치들

- 근대민주주의의 약속은 언제나 자유였지만, 법 앞의 평등이라는 극히 형식적인 의미 말고, 근대 민주주의가 평등을 내세운 적은 결코 없다. (중략) 민주주의를 수립한 자유로운 주체가 지닌 백인, 남성, 식민지 통치자로서의 얼굴은 민주주의의 위계질서, 배제, (타자를) 예측시키기 위한 폭력을 허용하고 영속화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핵심에는 노골적이고도 필연적으로 비-자유가 존재**한다. (Wendy Brown)

- 인민주권이 가진 의미들은 상실해버렸고(Giorgio Agamben), 선거는 과두계급의 순환지배를 세탁해주는 과정이다(Jacques Ranciere)
- “민주주의는 극소수 사람들만의 통치, 그리고 말하자면 인민 없는 통치만을 허용하는 체제를 정당화하는 계급적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렸다. (중략) 이런 과두제 정부는 선택범위를 제한하는 식으로 중간계급과 상층계급이 효율적으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보호해주는 선거를 통해서 합의와 정당성을 창출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Kristin Ross)
- “민주주의 역시 (중략) 거대 다수의 수동화를 수반하는 의회주의적 형태에 의해 그 기초를 위협받는다.”(Slavoj Zizek)
- Eric Hobsbawm 등 : 민주주의는 글로벌한 차원의 문제(기후/불평등/부패 등) 대응하기에 큰 제약
  - 선진국 시민들의 안일과 욕망 충족은 후진국의 부패와 환경 파괴의 대가
  - 민주주의는 국민국가 내부에서만 작동 :

- 여전히 국민국가 내부에서만, '국민'들의 욕망에 복무하는 민주주의
  - 민주주의 선진국 → 제국주의의 길 → 식민주의와 침략에 의한 억압과 파괴
  - ➔ 여전히 제대로 반성 않고 있음 → 글로벌한 연대는 요원
- 제리 벤틀리(Jerry Bentley) : "인권과 민주주의는 유럽만의 축복이 아니다"
  - 서구만의 기준으로 재단되어선 안 됨
  - 농업처럼 다양한 시대/상황/지역/사람/방식으로 끊임없이 변화며 만들어 낸 산물
 (아마티아 센, Amartya Kumar Sen)

### 3. 동학농민혁명과 민주주의

#### 1)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새로운 질서의 가능성

- ❖ 향중공론의 변화
  - 향회(鄉會)=사족(士族)들만의 공론=사족공론(公論)
  - ➔ 19세기의 민회(民會, 里會, 洞會, 面會, 民會所)
  - = 신분적, 경제적 차별 없는 공론(천민인 노(奴)가 민란 주도하기도)
  - = 민중공론(民衆公論) ➔ 상시적인 논의 기구로 발전
- ❖ (18세기 후반 이후) 아래로부터 만들어지는 대표선출과 위임(委任)
  - 민중공론 실현을 위해 대표 내지 대리인 선정, 향중공론 위임
  - ➔ 상경(上京)하여 대궐로 가거나 감영(監營)에 가서 격쟁, 상언 등 정소 활동
  - 각 면 혹은 마을 마다 대표 1인씩 선정
  - 각 마을(각 호) 별로 비용 분담(分擔)

❖ 고성부의 <민회소(民會所)>와 <사실소(查實所)>

- 민란 일으키며 자신들의 집회를 <민회소>라 자칭
- 사족/대민(大民)이 주도하던 공론 대신 자신들의 공론(=민중공론) 제시
- 읍폐(邑弊) 개혁 추구
- 수령과 합의 하에 <사실소>를 관아에 마련, 부정부패 조사
  - : <사실소> 구성원은 향리와 <민회소> 추천 인원으로 구성
  - : <민회소> 추천 인원 = 마을, 지역 주민들의 대표
- 잘못된 점 자신들의 손으로, 자율적(自律的)으로 개혁

❖ 경상도 거제부 구조라리(舊助羅里)의 사례

- 어조(漁條 = 漁場) 배정(配定)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 방안
- 어장은 13개, 선주(船主)는 30명 : 이에 따른 갈등 심화
- 추첨 : 불만족한 결과(추첨의 결과의 편중성)
- 모든 관계자가 토론을 통해 윤정(輪定)하는 방식 결정

- 공의(公議) 형성의 절차인 동중회의(洞中會議)는 노(奴) 신분까지를 포함
- 각 호의 대표자인 남자 어른이 모두 참여하여 토론을 통해 합의
  - 마을 주민 간에 신분적, 경제적 차별 없이 대등한 상호 존중을 통한 공의 형성
  - 관아에 보고, 완문(完文 = 관아의 확인서) 발급
  - 구성원에 대한 구속성 강화

❖ 동학농민전쟁과 국가로 확장된 민회/향중공론

- 1892년 10월부터 몇 차례에 걸쳐 수천명의 동학교도와 민중들이 충청도와 전라도 감사(監司 = 觀察使)를 상대로 포교(布教)의 자유 요구
- 동학교도의 광화문 복합상소(伏閣上疏) : 1893년 2월
  - 국왕에 대한 상소는 원래 사족(士族), 양반(兩班) 만 가능
  - 국가로부터 사학(邪學)을 믿는 나쁜 집단으로 규정되어 탄압받던 동학교도들이 직접 국왕을 상대로 포교의 자유 요구

- 1893년 3월~4월에 걸친 보은집회에서는 척왜척양(斥倭斥洋)을 주장하며 스스로 자신들의 집회를 “조정의 정령(政令) 가운데 민국(民國)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회의하여 講定”하는 외국의 ‘민회’와 같은 것”으로 인식

→ ‘민회’ 경험과 인식이 향촌사회라는 국지성을 벗어나 국가적 규모로 확산

#### \* 집강소(執綱所) 시기

군현 마다 집강소를 두고 집강을 책임자로, 그 아래 書記·省察·執事·童蒙과 같은 임원 혹은 수십인 혹은 약간명의 의사원(議事員)을 두고 협의체(協議體)로 운영

→ 민회 등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민주적 질서의 가능성

← 이전부터 아래로부터 구상된 새로운 정치질서 의식의 표현

## 2) ‘근대화’에 의한 새로운 가능성의 억압

### ❖ <향회개설론>

- 1894년 갑오개혁 당시 개화파 정부에서 추진
- 기존의 향회를 조선정부가 근대적으로 제도화 추진
- 1895년 10월 당시 고위관료였던 유길준의 <향회개설론>

#### • 주요 내용

- \* 향회 구성원 : 신분 차별 배제, 그러나 세금 많이 내는 자 우대, 경제적 차별명시
  - ‘민회’나 집강소와 달리 빈부에 따른 불평등 강조
  - 면 단위 이상의 향회 구성원들은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주민들로 구성
  - “향중공론”이 재산을 많이 가진 자들에 의해 크게 좌우 될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
- \*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 역시 사실상 원천적으로 배제·억압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해당 향회보다 차상위 향회의 수장, 곧 이회의 경우 면집강, 면회의 경우 군수, 군회의 경우 관찰사가 결정)

### ❖ 동학농민혁명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재인식

#### ➤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 “민주주의는 극소수 사람들만의 통치, 인민 없는 통치만을 허용하는 체제를 정당화하는 계급적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렸다. (중략) 중간계급과 상층계급이 효율적으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보호해주는 선거를 통해서 합의와 정당성을 창출”

\* “거대 다수의 수동화를 수반하는 의회주의적 형태에 의해 그 기초를 위협받는 민주주의”

➔ 동학농민군의 집강소 활동 등에서 보이는 ‘민주적’ 질서의 가능성을 이미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서구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아류’를 지향하는 정도로 왜소화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를 위한 새로운 이해 방법을 열어나가야.

(신분적 불평등 만이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도 넘어서려 한 점 등)

### 3. 동학농민혁명과 평등의식

➤ 지금까지 ‘서구/근대’가 구성해 놓은 평등 이념의 핵심인 신분제 부정에 대해서만 강조. 그것으로 동학농민군의 근대 지향성 확인

➤ 그러나 신분적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으로 대체, 경제적 평등 없는 정치적 평등은 허구적

➔ 동학농민군의 “경제적 평등사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필요

❖ 농민군의 행동 양태에서 보이는 평등의식

➤ 동학농민군의 행동 양태에서 두드러진 점 가운데 하나는 농민들로부터 부당하게 착취해간 관곡(官穀)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고혈을 짜서 치부한 부자들의 재물만 탈취하여 빈민들을 구휼하거나 혈값에 팔았다는 사실

➔ 인민들이 농민군을 의적(義賊) 혹은 의군(義軍)으로 여겨 찬미하는 분위기  
(《大阪朝日新聞》/《주한일본공사관기록》 등)

➔ 의식 : “소수의 사람이 부를 독차지하게 할 수 없다”는 판단

## ❖ 농민군의 군사규율 12개조 가운데 평등/나눔 관련 조항들

- 困者救濟(곤경에 처한 자는 구제해준다)
- 飢者饋之(배고픈 자에게는 음식을 먹인다)
- 貧者賑恤(가난한 자에게는 진휼한다)
- 病者給藥(병든 자에게는 약을 준다)

## ❖ 농민군의 토지개혁 구상 : 토지는 평균으로 분작(分作)케 할 일

## ➢ 왕토사상과 관련 토지의 사적 소유나 매매 금지

- 근대가 구성해놓은 단계론을 고집하는 한 '사적소유'는 진보·발전의 증표
- 사적 소유를 금지하는 '공동체적 소유'나 평균분작 등은 자본주의 이전의 것, 근대화의 장애물

## ❖ 그러나 21세기의 현실은 오히려 그것과 반대되는 이해 요구

- 부의 불평등은 사회적 병리현상을 넘어 환경파괴 기후위기의 주범.
- 특히 토지의 독점은 자연과 환경 파괴를 조장
- 자본소득은 불평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

➔ 농민군의 평등주의/평균분작 : 근대적 사유제와 자연에 대한 약탈을 전제로 한 자연관/인간관과 근본적 차이

➔ 동학농민군의 토지개혁 구상도 농민군의 '농민적 소유', 곧 사적소유의 발전과 독립자영농으로의 발전이라는 서구적 경험과 유비를 통해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 오히려 평균분작이 가진 매매금지와 독점 반대에서 현재의 과제, 불평등과 기후 극복이라는 과제와 관련된 현재성을 찾는 것이 비판 역사학의 실천성 현재성에 부합 (**불평등은 경제적이기보다는 이념적 정치적 문제이다, Piketty**)

❖ 행동강령 등에서 보이는 “사람과 사물(생물과 무생물)을 죽이지 말 것(不殺人 不殺物)”, “절대로 사람과 사물을 해치지 말 것(切勿害人物)”이라는 조항은 동학 사상의 “물건마다 한울이요 일마다 한울이라(物物天 事事天)”, “한울로써 한울을 먹는다(以天食天)” 등으로 대변되는 “경물(敬物)” 사상의 표현

→ “인간 평등” 뿐만 아니라 천-인간-자연 생태계 간의 관계를 순환적, 수평적 관계로 인식한 것과 아울러 어떻게 새롭게 이해할 것인가?

♣ 근대/서구 : 物 = 자연 = 인간 욕망을 위한 착취와 통제의 대상

♣ 세계 각 지역의 다양한 종교나 원주민들의 생명관/자연관(대지)과 비교 필요

## 맺음말

- 동학농민군의 생각과 행동을 서구중심적/근대중심적 역사인식에 입각하여 이해하는 종래의 방식에 대한 재고 필요
- 다시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인식론, 다른 언어로 생각하는 것
  - 지금과는 다른 역사인식 마련하여야
  - 전근대/비근대적 경험은 다만 근대를 맞이하기 위해 억압되고 청산되어야 할 장애물이나 구닥다리 고물이 아니라, ‘근대 이후’ 혹은 ‘근대 너머’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과 가능성의 자원
  - 역사적 경험들은 단선적이거나 단방향적 시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님  
현재 및 현재의 과제와 연결, 재배치되어 대안적 체제, 또 다른 정치적 궤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 내포
  - 동학농민군의 희생/생각이 가진 풍부한 의미들을 새롭게 이해
  - 인류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도움을 주는 새로운 역사상 구축

## &lt;References&gt;

- Oh Ji-yeong, 東學史(草稿本)[Donghaksa; History of Donghak,(first draft)], 1926
- Yi Bok-yeong, 日記(南遊隨錄)(Diary of Yi Bok-yeong; Record of the Southward Journey),1894
- Kim, Yunsik, 續陰晴史(Records on sunny and cloudy days), Seoul: Kuksa p'yönch'an wiwönhoe, 1960
- 東匪討錄(Records of suppression of Tonghak bandits), 1894
- 주한일본공사관기록(Records of the Japanese Legation in Korea), Seoul: Kuksa p'yönch'an wiwönhoe, 1986
- Agamben, Giorgio 외, 민주주의는 죽었는가? : 새로운 논쟁을 위하여, 난장, 2010
- Brown, Wendy; 배충효 외, 민주주의 살해하기 : 당연한 말들 뒤에 숨은 보수주의자의 은밀한 공격, 내인생의 책, 2017
- Chakrabarty, Dipesh; 이신철행성 시대 역사의 기후, 에코리브르, 2023
- Guldi, Jo ; Armitage, David ; 안두환, 역사학 선언, 한울, 2018
- Piketty, Thomas; 안준범, 자본과 이데올로기, 문학동네, 2020
- Sen, Amartya Kumar; 이경남, 살아 있는 인도, 청림출판, 2008
- Tomba, Massimiliano, *Insurgent Universality: An Alternative Legacy of Modernity*, NY :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 Wallerstein, Immanuel; 김재오, 유럽적 보편주의:권력의 레토릭, 창비, 2008

- 배향섭, 「19세기 향촌사회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공론의 대두-아래로부터 형성되는 새로운 정치질서-」, 조선시대사학보 71, 2014
- 배향섭, 「방법으로서의 '동아시아사' 연구와 새로운 역사상의 모색-근대중심주의(modernocentrism) 비판과 트랜스히스토리칼(transhistorical)한 접근-」, 대동문화연구 112, 2020
- 배향섭, 「'새로운 민중사' 이후 민중사 연구의 진전을 위하여-19세기 말~20세기 초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48, 2022
- 배향섭, 「한국 근대사 이해의 글로벌한 전환과 식민주의 비판 -기후변동과 역사 연구의 새로운 방향 모색-」, 역사비평 145, 2023
- 송양섭, 「19세기 부세 운영과 '향중공론'의 대두」, 역사비평, 2016
- 전민영, 「18세기말~19세기 해촌의 공동납운영방식」, 고문서연구 48, 2016
- Bae, Hang seob, Foundations for the Legitimation of the Donghak Peasant Army and Awareness of a New Political Order, Acta Koreana 16:2, 2013
- Bentley, Jerry, "Europeanization of the World or Globalization of Europe," *Religions* 3, 2012
- Dirlik, Arif, "Is There History after Eurocentrism? Globalism, Postcolonialism, and the Disavowal of History", edited by Dirlik, Arif, Bahl, Vinay, Gran, Peter, *History After The Three Worlds: Post-Eurocentric Historiographies*, 2000, Lanham, Md. : Rowman & Littlefield
- Drayton, Richard, & Motadel, David, "Discussion: the futures of global history", *Journal of Global History* 13:1, 2018

##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구성과 특징

조재곤 서강대학교 연구교수

### 머리말

“동학농민혁명은 부패한 지도층과 외세의 조선 침략에 대항하여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민중이 봉기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은 집강소라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제를 설립하는 데 성공했고, 이를 통해 부패한 관리를 처벌하고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이러한 형태의 거버넌스는 당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이었다.(중략)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민중이 역사의 주체가 되어 보편적 가치를 달성하고자 전진시켜나가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는 기억의 저장소이다.”(「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내용 중)<sup>1</sup>

2023년 5월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6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동학농민혁명기록물(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이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가 결정되었다. 조선 백성들이 주체가 되어 자유·평등·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했던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는 2015년 6월 연구자·기념사업 관계자·유족·세계기록유산 전문가·관계기관 등을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한 지 8년 만의 일이다.

올해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한 지 130주년이 되는 해로, 동학농민혁명은 조선의 내전이자 국제전쟁의 성격을 지닌 역사적 사건이었다. 또한, 19세기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고 민주 시민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혁명적 사상이 담긴 운동이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세계 평화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록과 기억이자, 19세기 동아시아 역사의 전환 시기에 남겨진 기록유산이라

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3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경과보고서」, 140쪽.

는 성격을 담고 있다. 그들에 의한 민주주의의 경험은 중국의 신해혁명을 비롯한 인도·베트남 등의 동아시아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세계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외세의 개입과 청일전쟁으로 인해 동학농민혁명은 좌절되었지만, 그들의 활동과 노력이 담긴 기록물에는 지향했던 평등·자유·인권·공정 등의 가치가 담겨 있으며, 조선 정부는 물론 청국과 일본이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 취한 정책·전략과 막대한 인적 동원 등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한국 역사의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전환기에 일어난 역사적 대사건인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록이다. 동학농민혁명은 한국 현대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즉,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정신적 이념적 뿌리로서 작용하였다. 동학농민군이 이루고자 한 인간 존중과 평등사회의 구현, 식민주의에 대한 반대는 오늘날에도 인류가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이다. 이 발표문에서는 먼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185건, 13,132면의 생산 시기와 그 소장처 등 전체적인 윤곽을 알아본다. 다음으로 기록물을 1) 이 사건에 직접 참여했던 동학농민군이 직접 생산한 기록물, 2) 이와 관련하여 민간인이 남긴 문헌과 일기 및 회고록, 3) 조선 정부가 생산한 공문서와 보고서 등으로 구분하여 각기 그 구성과 특징 및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sup>2</sup>

## 1.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현황과 소장기관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오랫동안의 기억의 유산이자 다양한 기억들의 축적물이다. 1894~1895년에는 주로 조선 정부와 지배 엘리트들이 이 사건을 자신들의 시각에서 기록하였다. 1895년 이후에는 농민군의 반대편에 섰던 관료나 지식인들이 일기나 회고록 등의 기록물을 남겼다. 동학농민군은 1894년 당시에 쓴 편지와 포고문,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쓴 회고록 등의 기록물을 남겼다.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이 되는 1994년 전후에는 각종 기관과 개인을 비롯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생산한 관련 기록물이 대거 발굴되었다.

2 왕현중은 사학사적 측면에서 1994년 동학농민혁명 백주년 전후부터 시작된 자료집 간행과 사료조사와 발굴, 기록물 정리의 과정을 소개하고 주요 자료의 지속적 발굴과 정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왕현중,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대상과 자료현황」,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학술심포지엄발표문(2015. 6. 10,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최, 국립한글박물관 강당). 정성미는 개인 소장문서와 신문자료를 포함한 총 271건의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 대해 자료 및 서비스 현황과 기록물의 성격과 가치, 기록학적 검토와 제안을 시도하였다(정성미, 2016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현황과 기록학적 분석 시론」 『기록학 연구』 50, 한국기록학회). 홍성덕도 기록학적 관점에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성격과 가치를 기록의 수집과 보관, 출처주의, 보존 활용의 관점에 주안을 두어 분석하였다(홍성덕, 「기록학적 관점에서 본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가치」,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사적 가치 국제학술심포지엄(2017. 5. 29,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교육관). 선행 연구들과 달리 이 글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자료에 중점을 두어 서술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과 함께 국무총리 소속 정부 기구인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을 관련 기록물을 대대적으로 조사, 수집하였다. 2006년에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아카이브를 구축하였고, 2010년 이후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설립하여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동학농민군·조선 정부·관료·진압군·민간지식인 등 여러 주체가 직접 생산한 종합적인 역사기록이다. 이 기록물에는 동학농민군이 작성한 문서, 정부 보고서, 개인 일기와 문집, 각종 임명장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운동의 진행과정과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인간의 권리와 평등, 식민주의에 대한 반대 등을 다양한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기록물로서 희귀성이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고려대학교 도서관·국가기록원·국립고궁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국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천도교 중앙총부·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등 11개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기록물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는 이 사건에 직접 참여했던 동학농민군이 직접 생산한 기록물, 둘째는 이와 관련하여 민간인이 남긴 문헌과 일기 및 회고록, 셋째는 조선 정부가 생산한 공문서와 보고서 등이다.

### 생산 시기 및 생산 주체별 동학농민혁명기록물 현황

생산 시기	동학농민군이 생산한 기록물	동학농민혁명 관련 민간 기록물		조선정부가 생산한 보고서와 공문서	합계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사람들의 기록물	동학농민혁명 견문 기록물		
1894-1895년	26건	13건	9건	115건	163건 (88.1%)
1896-1909년	1건	-	2건	7건	10건 (5.4%)
1910-1954년	3건	3건	6건	-	12건 (6.5%)
합계	30건 (16.2%)	16건 (8.7%)	17건 (9.2%)	122건 (65.9%)	185건 (100%)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1894~1895년 조선에서 발발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기록물이다. 185건, 13,132쪽의 기록 중 생산 시기 기준으로 1894~1895년에 생산된 것이 163건(88.1%)이며, 이후 1954년까지 작성된 것이 22건(11.9%)이다. 생산 주체 기준으로는 동학농민군이 생산한 것

은 30건(16.2%),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사람들의 기록물은 16건(8.7%), 동학농민혁명 견문 기록물은 17건(9.2%), 조선 정부가 생산한 보고서와 공문서는 122건(65.9%)이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전체 185건 중 163건(88.1%)은 1894~1895년에 생산된 문서이고 122건(65.9%)은 조선 정부가 생산한 문서들이다. 그밖에 낱장으로 된 문서, 원본 촬영 사진 자료, 정부 기록문서, 개인문서 등도 원본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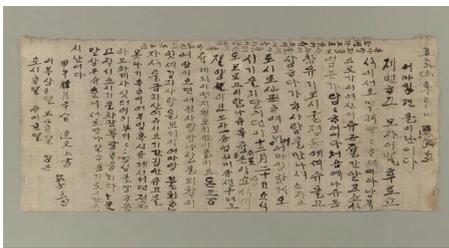
### 소장 기관 현황

연번	소장 기관	건수(건)	비율(%)	비고
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66	35.7	위탁 기록물 포함
2	고려대 도서관	29	15.7	
3	국가기록원	5	2.7	
4	국립고궁박물관	1	0.5	
5	국립중앙도서관	5	2.7	
6	국사편찬위원회	5	2.7	
7	독립기념관	2	1.1	
8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58	31.4	
9	연세대 학술문화처	3	1.6	구 학술정보원
10	천도교 중앙총부	9	4.9	
11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	1.1	
합계		18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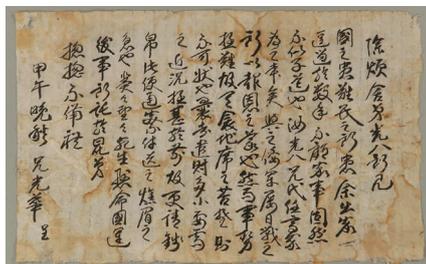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문서·도서·사진 등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총 185건 중 문서는 65건, 도서는 118건, 사진은 2건이다. 11개 기관의 문서고에 소장되어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면 원문을 열람할 수 있고 웹사이트를 통해 기본적인 서지사항 등을 검색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한국에서 생산된 주요 자료 원문과 탈초본 및 국문 번역내용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db.history.go.kr>)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동학농민혁명 종합지식정보시스템(<http://www.e-donghak.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히 후자의 동학농민혁명 사료 아카이브 웹사이트를 통해 디지털화되어 있는 기록의 원문과 번역문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검색을 통해 필요한 기록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기타 온라인 제공 자료는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등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망라해서 확보할 수 있다.

## 2. 동학농민군이 생산한 기록물

동학농민군이 직접 생산한 기록물은 1894~1895년 당시 기록물과 그 이후 기록물을 포함하여 총 30건이다. 여기에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동학농민군이 직접 작성한 편지를 비롯하여 동학농민군 최고지도자 전봉준이 작성한 글, 동학 교단의 최고 지도자 북접 법헌 최시형에 의한 각종 임명장,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난 뒤 동학농민군 자신이 직접 보거나 경험한 내용을 정리한 회고록 등이 있다. 이 기록물은 동학농민군의 활동상과 이들이 지향하는 세계관을 풍부하게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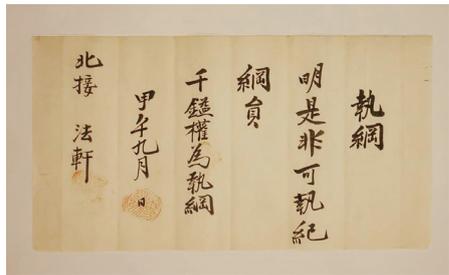
동학농민군 한달문의 편지



동학농민군 유광화의 편지



순교약력



동학농민군 천일권의 임명장



동학농민군 정성영의 임명장



남원종리원사

동학농민혁명의 주체였던 동학농민군이 생산한 유물이 가장 직접적인 동학농민혁명 문화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농민군 지도자 다수가 당시에 사망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은 유물은 많지 않다. 동학농민군 당사자가 직접 남긴 유물은 가장 중요한 문서의 하나로 분류할 수 있겠다.

주요 유물로는 먼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소장하고 있는 『나주명록』을 비롯한 동학농민군 명단, 국사편찬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동학사』 초고본과 「동도창의소고시」 등이 있다. 『나주명록』은 1894년 9월 2차 봉기 과정에서 작성된 도집, 교수, 집강을 비롯한 동학농민군의 직임과 명단, 자금조달 내역이고, 『동학사』 초고본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오지영(吳知泳)이 동학의 창도부터 동학농민혁명, 천도교 활동까지 기술한 자료이다. 「동도 창의소 고시」는 1894년 11월 동학농민군 지도부가 작성하여 배포한 고시문으로 유리원판으로 남아 있다. 이 유물들은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한 동학농민군 자신들이 생산한 유물이며 모두 동학농민혁명 전개 과정에 대한 핵심 진술을 담고

있다. 특히 『동학사』 초고본에서는 1894년 5월 농민군과 정부군 사이에 맺어진 강화, 즉 전주화약에서 체결된 폐정개혁 12개조에 대한 서술이 주목된다. 천도교 중앙총부 소장 「무장포고문」 필사본은 1894년 3월 20일 동학농민군이 전라도 무장에서 본격적인 동학농민혁명을 시작하면서 내놓은 선언서이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라는 글로 시작하는 ‘포고문’에는 동학농민군의 생생한 현실진단과 지배층에 대한 비판이 매우 선명히 제시되어 있으며,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키게 된 배경과 목표 등이 담겨 있다.<sup>3</sup>

동학농민혁명의 주체였던 동학교단이 생산한 유물, 이를테면 접주 임명장 등의 첩지로 동학농민군이 생산한 기록물 중에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동학임명장이다. 동학임명장은 당시 동학교단의 최고책임자인 최시형(崔時亨)이 북접(北接) 법헌(法軒)의 명의로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한 1894년에 발급한 임명장이다.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포함된 동학임명장을 소장처별로 보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11건, 천도교 중앙총부 6건, 독립기념관 1건이다.

###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포함된 동학임명장

순서	기록물명	생산자	생산시기	재질	소장기관
1	전성실 중정 임명장	최시형	1894년 3월	한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	김준섭 집강 임명장	최시형	1894년 7월	한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3	김창모 교수 임명장	최시형	1894년 8월	한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4	박병진 대정 임명장	최시형	1894년 8월	한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5	박순도 중정 임명장	최시형	1894년 8월	한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6	엄차생 대정 임명장	최시형	1894년 8월	한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7	황수팔 봉헌 임명장	최시형	1894년 8월	한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8	정성영 접사 임명장	최시형	1894년 8월	한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9	전일권 집강 임명장	최시형	1894년 9월	한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10	송대화 대접주 임명장	최시형	1894년 9월	한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11	전귀수 중정 임명장	최시형	1894년 10월	한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12	나동환 교장 임명장	최시형	1894년 1월	한지	천도교 중앙총부
13	이승룡 교수 임명장	최시형	1894년 7월	한지	천도교 중앙총부
14	홍재인 대정 임명장	최시형	1894년 8월	한지	천도교 중앙총부
15	정순경 교장 임명장	최시형	1894년 8월	한지	천도교 중앙총부
16	양언남 봉헌 임명장	최시형	1894년 8월	한지	천도교 중앙총부
17	이수방 접주 임명장	최시형	1894년 9월	한지	천도교 중앙총부
18	안진금 집강 임명장	최시형	1894년 7월	한지	독립기념관

3 배향섭, 2016 『동학농민군의 무장기포와 무장포고문에 대한 이해의 변천과정 고찰』 『역사와 담론』 79.

이 임명장이 만들어진 시점을 보면 주로 1894년 7~8월임이 확인된다. 이는 이 시기에 많은 조선의 농민들이 동학에 입도하고 여기에 더하여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sup>4</sup> 다만 제주 임명 이외에는 동학농민혁명 전개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정 등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현재 국가 지정 문화재로 등록된 관련 기록물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장 「유광화 편지」와 「한달문 편지」, 고궁박물관 소장 『갑오군정실기』 등 3건이 있다. 동학농민군 자신이 작성한 「한달문 편지」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여 체포된 한달문이 나주 감옥에서 고향 집의 어머니에게 구명을 요청하면서 보낸 편지다. 「유광화 편지」는 동학농민군 유광화가 동생에게 보낸 편지로, 그는 “나라가 환란에 처하면 백성도 근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두 사람은 모두 농민혁명 과정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 3. 동학농민혁명 관련 민간기록물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민간기록물은 기록물 생산 주체에 따라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사람들의 기록물’, ‘동학농민혁명 견문 기록물’로 구분된다. 이들 기록물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민간의 시선과 생각을 다양하고 자세히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동학농민군에 대한 진압은 조선 정부 및 그들이 편성한 진압군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보수 유생 및 이들을 기반으로 한 민보군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들이 생산한 유물들도 동학농민혁명 전모 파악을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된다. 민보군 및 유생이 생산한 유물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국립중앙박물관·국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등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대표적인 기록물로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유회성책』·『통유문』·『향약장정』·『난과유고』·『창계신공실기』·『춘당록』,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취의록』·『거의록』·『향약절목』·『백석서독』·『약사』·『염기』, 국사편찬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김약제일기』,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이 소장하고 있는 『남유수록』·『연파집』·『경란록』,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의산유고』·『초정집』·『시문기』,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토비대략』 등이 있다.

4 이병규,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㉔ 동학임명장 『全北日報』, 2024년 8월 9일자.

## 1) 동학농민군 진압 기록물

1894-5년 당시 일부에서는 민보군(民堡軍; 민병대)을 조직하여 직접 동학농민군 진압에 참여하였고 모두 16건의 기록을 남겼다. 그 가운데에는 진압과정을 일기로 작성하여 남긴 기록물도 있고,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뒤 직·간접적인 경험을 정리하여 발간한 문집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자신들이 진압에 참여한 이유와 진압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 중 『유회성책(儒會成冊)』은 표지에 ‘갑오년 11월 일 청면(靑面) 천동(泉洞) 유회성책(儒會成冊)’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총 10쪽으로 되어있다. 청면 천동은 정산현(定山縣, 현 청양군)으로 추정되며 문서에 관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천동 유회(儒會)의 이회장(里會長) 김학현(金學鉉)이 현감에게 보고한 문서로 보인다. 내용은 속오군 4명을 포함한 29가호의 아버지와 아들 39명을 대상으로 ‘불입(不入)’과 ‘귀화(歸化)’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다. 1894년 11월의 문서임을 고려하면 불입자는 농민봉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귀화자는 곧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후 귀화했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문서의 작성 시기인 1894년 11월은 각 군현에서 농민군 가담자를 귀화시키고 마을 단위의 오가작통 강화와 화적에 대비한 무기까지 준비하였던 때였기 때문에 가호 별로 개개인에 대한 조사가 치밀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내용을 보면, 조사 대상자 39명 가운데 귀화자는 14명으로 35.8%이다. 귀화자 14명 가운데 13명은 가장인 아버지가 참여하였으며 가장 외에 아들이 참여한 경우가 단 한 명뿐이라는 사실은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이 기록이 한 마을의 사례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 가운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다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 문건을 통해 당시 농민들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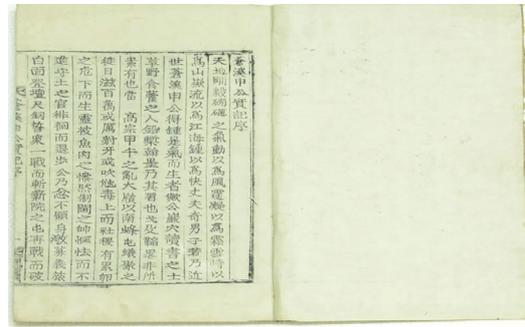
『창계신공실기(蒼溪申公實記)』는 경상도 의흥(義興)에서 동학농민군 토벌 관련 내용을 일기체로 적어 편집하여 인쇄한 책이다. 이 책의 저자는 향촌 유생 신석찬(申錫燦, 1851~1921)으로 책명을 『창계실기』라고 했으나 편집 순서를 검토해 보면 『창의록일기(倡義錄日記)』라고 해야 맞다. 이 책은 일기체로 1894년 8월부터 이해 12월까지 의흥을 중심으로 동학농민군을 토벌한 과정을 담았다. 앞에 “동도의 변고가 처음 호서와 호남에서 시작하여 봄에서 여름 사이에 더욱 퍼졌는데, 영남의 인사들도 많이 그사이에 물들어 낙동강의 좌우와 상하가 모조리 소굴이 되었으며 약탈이 끝이 없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 동학농민군이 먼저 의성에서 봉기하고 나서 이들이 8월 19일에 의흥 지방을 침입하였다고도 기록하였다. 일기 순서에 따르면, 8월 18일 신석찬은 동료들을 모아 방어의 계책을 논의하였고 의흥수령 성태영(成泰永)과도 의논하였다. 그는 의흥·칠곡·군위 세 고을의

5 신순철, 2020 『해제』 『1894년 동학농민혁명 기록문서(신국역총서 1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8~29쪽.

사족들과 민정(民丁)을 모아 수천 명의 수성군을 조직하고 양곡과 군기를 거두어 활동을 전개하였다. 신석찬은 향교의 조직에 따라 약소(約所)를 꾸려 총지휘관인 약장이 되었고, 이어 면 단위의 약장 강장(講長)을 임명하였다. 이들 수성군은 1차로 신원전투에서 동학농민군 27명을 처형한 것을 시작으로, 2차로 신녕, 3차로 효령에서 동학농민군을 소탕하였다. 이 세 곳은 모두 강좌(江左) 지역으로 김산 등 강우 지역에서 쫓겨오는 농민군을 방어하는 역할도 하였다. 또 수성군 일부를 강우로 보내 김산 등지에서 활동하게 하였다.<sup>6</sup>



유회성책



창계신공실기

서울대 규장각 소장 『향약절목(鄉約節目)』은 1894년 충청도 제천현 8개 면에 시행된 동학농민군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시된 향약(鄉約) 중 하나로 관찰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 것이다. 여기에서 열거한 향약 4조목 중 둘째, 환난상구(患難相救)에서는 “1. 방수는 이웃 동과 협력할 것, 2. 각 통에서 밀통꾼[密通軍]을 선발하여 기찰할 것, 3. 도적들에 대적하지 말고 종적만을 살필 것, 4. 총이나 창 등을 집집마다 비치하여 대비할 것, 5. 급박한 상황에 달려 나오지 않는 자가 있으면 도적과 같은 죄로 다스릴 것”이라는 구체적인 5개 조목을 두었다. 셋째, 과실상규(過失相規)에서는 향약을 어기는 자 등을 처벌하고, 이밖에 수상한 무리는 동중(洞中)에 받아들이지 말고 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sup>7</sup>

6 이이화, 2017 「해제」 『창계실기(신국역총서 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3~25쪽.

7 堤川縣 編, 『鄉約節目』, 高宗 31年, 想白古301.35-C472h.

## 2) 동학농민혁명 견문 기록물

동학농민혁명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경험하거나 보고들은 내용 등을 정리해 놓은 기록물로 17건이 있다. 대부분 일기체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며 후일 개인 문집으로 발간되었다. 동학농민혁명 및 동학농민군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당시 지식인들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약제 일기



겸산유고

충남 공주 유생 이용규(李容珪)의 『약사(略史)』는 1888년부터 1897년까지 매일매일 대소사를 기록한 일기로, 기사년 기사에서는 1893년 당시 보은취회와 민란의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갑오 2월 15일 일기에서는 의정부 초기를 인용하여 고부농민봉기의 사실을 전하고 있다. 그는 동학농민군을 ‘동비(東匪)’라고 지칭했다. 그가 동비와 마주하기 시작한 것은 7월 6일 이후였다. 그는 8일 엽전 400냥을 강제로 빼앗겼으며, 24일 동비의 대교 주둔한 것, 25일 쌀 5섬을 요구해서 1섬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일, 8월 6일·7일에는 김영국(金榮國) 포의 돈 강탈 등 피해를 빠짐없이 기록해 두었다. 7월 29일 공주 정안면 궁원(弓院)에 대규모 농민군이 모인 기록에서는 임기준(任基準) 휘하의 동학농민군과 공주 감영과의 대치 상황을 알 수 있다. 9월 중순 이후에는 가족들을 금산 땅으로 피신시켰다. 대전 등지에서 동비가 소·짐·돈·양식을 빼앗는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는 초토사 홍계훈과 전라감사 김학진, 충청감사 조병호의 행태를 각기 비난하기도 했다.<sup>8</sup> 『약사』는 갑오년 5월과 7월 사이에 벌어진 농민군 집강소의 구체적인 활동을 기록하고 있어 자료 가치가 크다.

전 4권의 『김약제일기(金若濟日記)』 중 제2권은 관직 복귀 이후의 기록으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는 1894년 2월까지 수록되어 있다. 3권은 1894년 2월부터 1895년 10월까지의 일기로 동학

8 왕현중,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④ 이용규, 약사」 『全北日報』, 2024년 6월 6일자.

농민군 활동에 대한 견문 등이 담겨 있다. 특이한 사항은 1894년 3월 20일 무장기포에 앞선 3월 8일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금산기포를 수록한 것인데, 금산은 남접 세력의 중심인물인 전봉준 등을 지도한 서장옥의 근거지였다.

“동학이류(東學異類)가 3월 봄부터 다시 일어나서 지난번보다 심해졌다. 봄에 금산읍(錦山邑)에서 접전을 하여 서로 간에 죽은 자가 제법 많았다. 전라도 고부(古阜)에서는 민란이 크게 일어나서 그 읍 수령인 조병갑(趙秉甲)이 한없는 곤경을 겪고 달아나 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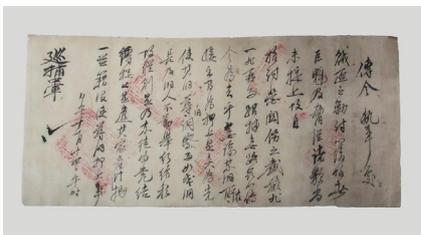
김약제는 성균관 사성을 지냈던 관료로 동학농민군에 대해서는 지극히 부정적이었다. 1차 봉기 이후인 7월 25일의 일기에서는 동학의 소요가 극심해져 내포(內浦) 전체에서 동학에 들어가지 않는 자가 거의 드물었는데, 인심이 흥흥해져 가장 먼저 봉변과 봉욕을 당한 자는 양반의 명색을 지닌 사람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동학교도는 때를 짓고 무리를 이루어서 남의 무덤을 파고 남의 집을 허물었으며 결박하여 구타하였는데, 입도하지 않은 양반으로 당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때에 조정의 명령이 갑자기 내려와서 피색장(皮色匠)이 갓을 쓰고 칠반천인(七般賤人)이 모두 면천(免賤)을 하여 양반과 상놈의 구분이 없게 되었다고 기술하였다. 갑오개혁을 추진하고 있었던 개화파 정부가 신분제 철폐를 법제적으로 마련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9</sup>

『겸산유고(謙山遺稿)』는 권 19와 권 20이 『금성정의록(錦城正義錄)』 갑을편(甲乙編)으로 전라도 나주 유생 이병수(李炳壽)가 나주와 인근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갑편에는 1893년 말 나주 목사 민종렬(閔種烈)이 부임하여 실시한 향약(鄉約) 내용부터 1894년 1차 고부농민봉기와 나주 접주(接主) 오권선(吳權善)과 농민군 지도자 최경선(崔慶善)의 활동상과 전봉준의 나주 목사 설득 사실 등을 기록하였다. 2차 봉기 후에는 손화중, 최경선, 오권선의 나주성 공격 등을 기록하였다. 또한 남평과 장흥 영암 등지의 농민군 활동상도 상세히 적고 있다. 을편은 주로 을미년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나주의 정태완(鄭台完)이 재산을 내어 반 농민군을 만들어 아전 등과 협동하여 10개월간 나주를 사수하면서 농민군을 토벌한 군공을 적은 「초토사보군공별지(招討使報軍功別紙)」 외에 「본 주의 인사가 군공에 하례하는 장문」, 「토평 후에 정(鄭) 장군에게 보낸 글」(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 「토평비명(討平碑銘) 병서(并序)」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을편 마지막 내용인 「밀조(密詔)」와 병편(丙編)은 을미의병 관련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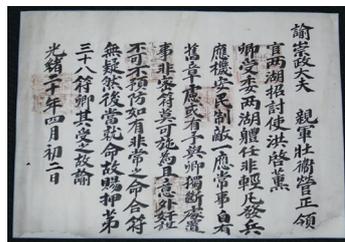
9 유바다,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④ 김약제일기』 『全北日報』, 2024년 6월 6일자.

#### 4. 조선 정부 생산 보고서와 공문서

조선 정부는 정부군과 지방 행정조직을 동원하여 동학농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122건의 기록물을 생산하였다. 이들 기록물에는 조선 정부의 논의과정을 기록한 문서, 진압과정에서 진압군이 직접 작성한 공문서와 보고서, 진압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 체포되어 재판받은 동학농민군의 판결문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동학농민군 최고 지도자인 전봉준의 재판기록은 동학농민군의 지향과 인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다.



순포중군 전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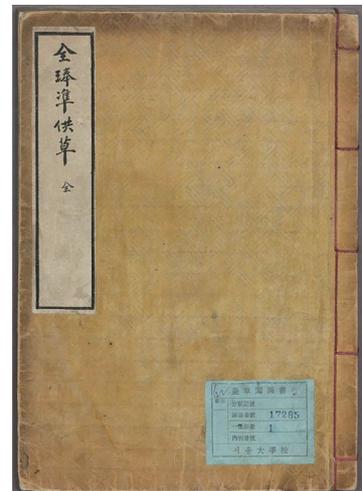
홍계훈 밑부유서



김산 소모사실



고산방 풍헌 첩보



전봉준 공초

동학농민군을 진압하였던 조선 정부가 편성한 진압군은 동학농민군에 대한 많은 기록을 남겼다. 먼저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형사재판원본』은 조선 정부에 체포되어 처벌받은 동학농민군 다수에 대한 재판기록이다. 이 중에는 「전봉준판결선고서」도 포함되어 있다. 『형사재판원본』은 갑오개혁 시기 설치된 법무아문 권설재판소·법무아문 임시재판소·법무아문 고등재판소·특별법원·고등재판소, 대한제국 시기의 고등재판소·평리원의 판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판결문에서는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동요(東擾)’로, 참여자들을 ‘비도(匪徒)’ ‘동도(東徒)’ ‘비류(匪類)’ ‘동비(東匪)’ ‘동학배(東學輩)’로 그 지도자를 ‘비괴(匪魁)’ ‘동학거괴(東學巨魁)’, 농민군 토벌을 ‘토비(討匪)’ 등으로 비하하고 있다. 그들의 활동내용도 매우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전봉준·손화중·서장옥, 대원군의 손자 이준용, 최시형 등 총 211명의 최종 판결 선고서가 포함된 판결기록으로 동학농민군 및 동학농민혁명의 실상에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이다. 농민군 진압에 소홀하였거나 결탁한 일부 지방관도 처벌을 받았다. 이 기록에서 1895년의 초기 선고에는 경성 일본영사 우치다 사다츠지

(內田定榎)가 입회 서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10</sup> 이 중 전봉준 등 동학농민군 관련 주요 인사의 판결 선고서의 핵심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호수	이름	나이	직업/신분	활동지역	선고내용	선고일	선고처
제 36 호	손화중 (孫化中)	35	농민	전라 정읍	비도의 거괴로 무리를 모아 고부의 관아로 들어가 군기를 약탈하고 정읍 등을 거쳐 전주에서 관병과 대적한 이유로 사형에 처함	1895.3.29	법무 아문 임시 재판소
제 37 호	전봉준 (全琫準)	41	농민	전라 태인	동학당 비도의 거괴이자 접주(接主)로 고부에서 처음 봉기한 이후 무장 등을 거쳐 장성에서 경군(京軍)을 격파하고 전주성에 들어가 응전. 이후 태인 귀가 후 일본군대가 대궐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다시 삼례에서 기병. 공주에서 일본군에게 크게 패한 후 순창에서 민병(民兵)에게 생포됨. 이상의 이유로 사형에 처함	1895.3.29	법무 아문 임시 재판소
	이준용 (李俊鎔) 등 23명	26	미기재	한성 북부 운현궁	동학당이 봉기하자 이들을 이용하여 경성을 습격하고, 수하를 지휘하여 김홍집 등 정부 요직인사를 살해해서 정부를 전복시키고 왕위 찬탈을 모의한 혐의로 교수형에서 1등급 감하여 종신 유배형에 처함	1895.4.19	특별 법원
	최시형 (崔時亨) 등 4명	72	평민	강원 원주	1866년 간성(杆城)에서 박춘만(朴春萬)으로부터 동학을 전수받은 이후 인민을 선동하고 무리를 규합, 법헌(法軒)의 호를 부르며 두목을 각 지방에 임명하고 포(包)와 회소(會所)를 설치. 1893년 대궐 상소와 보은에서 무리를 모음. 1894년 전봉준, 손화중 등의 활동은 피고가 주문과 부적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킨 데 연유함. 이상의 이유로 교수형에 처함	1898.7.18	고등 재판소

양호도순무영 산하 양호우선봉장이었던 이규태가 생산한 자료 다수는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동학농민군 진압 일선에 나섰던 이규태가 생산하거나 주고받은 문건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동학농민혁명의 실상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유물이다. 아울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는 양호우선봉장이었던 이규태가 남긴 『양호우선봉일기』가 소장되어 있다. 동학농민군을 전면적으로 다루면서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을 남긴 대표적 유물은 『순무사정보첩』, 『선봉진전령각진』, 『순무선봉진등록』, 『선봉진서목』 등이 있다. 다음으로 동학농민군 진압을 다루고 있으나 그밖에 다른 내용들도 포함한 유물이 해당한다. 이를테면 『소지등서책』, 『경각영공급기』, 『금영내찰』 등이 있다. 동학농민군 진압군 자신들의 내역에 대한 기록을 남긴 유물로 『창의인명록』, 『갑오십월일친군경리청장졸성책』 등이 있다.

10 조재곤,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④ 형사재판원본」 『全北日報』, 2024년 8월 15일자.

서울대학교 규장각에는 제1차 동학농민혁명 당시 양호초토사를 지냈던 홍계훈이 남긴 『양호초토등록』이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제2차 동학농민혁명 당시 우금치전투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공산초비기』가 소장되어 있다. 두 자료 모두 제1차, 제2차 동학농민혁명을 상징하는 가장 유력한 유물이다. 동학농민군 진압의 일선에 섰던 양호초토영 및 양호우선봉진, 그리고 양호우선봉진 등 조선 정부가 편성한 진압군을 통수한 양호도순무영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 정부에 있었다. 따라서 당시 조선 정부의 최고기관이었던 의정부가 및 양호도순무영의 상급 기관이었던 군무아문이 생산한 유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체포된 동학농민군에 대한 재판은 법무아문에서 담당하였다. 이 중에서 『전봉준공초』는 전봉준의 진술을 직접 담은 점에서 가장 주목할만하다. 그밖에 외무아문을 비롯하여 각종 기관이 생산한 동학농민군 진압 문서들이 있다. 먼저 동학농민군을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유물은 『전봉준공초』·『중범공초』·『동학당정토약기』·『취어』 등이 해당한다.

전 10책으로 되어있는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는 1894년 동학농민군의 9월 제2차 봉기 이후 농민군 진압을 위해 조선 정부가 편성한 양호도순무영(도순무사 신정희)에서 각급 기관과 주고받은 문서이다. 이 자료는 1894년 9월 22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작성한 것이다. 『갑오군정실기』는 1책부터 9책까지가 동학농민군 토벌내용이고, 10책은 농민군 토벌 장졸의 ‘기공(紀功)’ 내용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는 뒤늦게 2011년 일본 궁내청 소장 조선 도서 1,205책 반환서 중에 포함되어 우리에게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현재까지 유일본으로 추정되는 이 『갑오군정실기』는 초대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일본으로 반출한 자료의 하나이자 1894년 당시 동학농민군 진압과 관련한 조선 정부의 공식문서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종합보고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sup>11</sup> 이 자료를 통해 이토 히로부미의 역사기록 자료 불법 유출로 영영 사라질 뻔한 동학농민군 활약 기록을 찾아 224명의 성과 이름을 새롭게 확인하고 일부 사실을 복원할 수 있었다.

『갑오군정실기』에는 그간 전혀 확인되지 않았거나 단지 개연성만 보였던 많은 동학농민군 참여 인사들의 실명(實名)과 활동내용이 비록 정부 측의 입장이지만 자세히 나타나 있다. 예컨대 왕실의 매일 매일의 기록인 『승정원일기』를 비롯한 많은 자료에서 ‘동비거과 ○○○ 등 ○○여 명을 효수’ 또는 ‘포살’하였다든지 ‘잡힌 비도는 총 ○○’ 등등의 내용으로 되어있는 것에서 나아가 이 기록은 ‘○○여 명’ ‘총 ○○’ 중에서 여러 사람의 이름이 처음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서도 ‘○○○ 외 30명을 처형’, ‘진가(陳哥)·이가(李哥)’ 등으로만 되어있어 동학농민군에 참여하여 정부

11 『갑오군정실기』 소개와 양호순무영의 활동에 대해서는 신영우, 2014 『양호순무영과 『갑오군정실기』』(동북아역사재단·한국사 연구회 주최, ‘청일전쟁·동학농민혁명과 21세기 동아시아 미래 전망’ 학술회의 발표문(2014. 11. 21. 연세대학교 장기원 국제회의실) 참조.

군이나 민보군·일본군에 의해 살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을 전혀 알 수 없는 무명의 인사들도 적지 않다.

다음으로 동학농민군 진압의 최고위에 있었던 의정부, 법부 등이 주고받은 보고문서로 『계초존안』·『찰이전존안』·『법부래문』·『법부래거문』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동학농민군 진압군 자신들의 내역에 대한 기록을 남긴 유물 혹은 주변적인 첩보 등을 담은 유물 등이 해당한다. 이를테면 『교남수록』·『갑오군공록』·『이병휘공초』·『이준용공초』·『공문일록』·『공이공복철』 등이 있다.

## 맺음말

2023년 5월 24일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확정되기에 이르기까지 준비를 위한 내부 논의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아젠더의 수정 보완이 있었고, 제출한 등재신청서 일부 자료와 참고문헌에 대한 일본 측의 이의제기와 유네스코 세계위원회 소위원회의 수정 요구 등의 결과 최종 신청서에 이르기까지 내용도 일부 수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체적인 골간은 유지되면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게 되었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은 한국 근현대 문화유산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발표자는 앞으로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항 중심으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서 보이는 핵심 가치의 현재적 해석이 필요하다. ‘인내천(人乃天)’ ‘사인여천(事人如天)’ 등과 같은 동학사상의 해석과 현재적 의미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동학농민혁명은 그에 비하면 갈 길이 멀다. 동학에도 예컨대 거버넌스(협치)를 상징하는 ‘관민상화(官民相和)’·‘동부국난(同赴國難)’이 있었다. 동학농민군들은 일찍이 동학에서 표명한 양반과 상놈의 차별 없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베풀고 돕는 ‘유무상자(有無相資)’와 가난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서로 보살피는 나눔과 배려의 정신인 ‘빈궁상휼(貧窮相恤)’을 기꺼이 실현하고 있었다. 또한 인명 존중 사상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무장포고문』), ‘죽고 사는 것은 천명’이라면서 ‘나라가 환란에 처하면 백성도 근심해야 한다’(동학농민군 『유광화 편지』) 등 현재도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비교 불가능한 좋은 키워드가 적지 않다. 이는 차별과 배제의 현실에서도 타자를 대하는 방법에서 열린 태도(open arms)를 견지하고자 한 공존을 위한 힘없는 자들의 포용으로 이 같은 가치를 적극 확산시키고 세계무대에 부각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대체적으로 볼 때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자료는 세계성에 초점을 맞추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인류문화의 보편적 가치 추구라는 유네스코 정신에 입각한 것이 가장 일차적인 이유였고, 일본 등 우리와는 역사적 입장을 달리하는 국가의 견제를 최대한 줄이고 등재를 완수시켜야 한다는 전략적인 측면도 적지 않게 반영된 결과의 소산이기

도 하다. 그 과정에서 봉건제도 청산과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대와 전 민족적 저항이라는 전통적인 견해는 소략하게 기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후자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점도 향후 병행해서 이해하는 방향으로 적극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중요 기록물의 문화재 지정을 통한 국가 차원의 관리 필요성이다. 문화재청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노력을 통해 현재 국가 지정 문화재로 등록된 것은 기념재단 소장 『유광화 편지』와 『한달문 편지』, 고궁박물관 소장 『갑오군정실기』 등 3건이 있으며, 2024년 8월 8일에는 개인 소장의 『홍재일기(鴻齋日記)』가 국가유산청 국가등록 문화재로 등록되었다. 사발통문 등 몇 가지 문서는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강재일사(剛齋日史)』는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석남역사(石南歷事)』 등은 전라북도 문화재자료로 되어있다. 그러나 국사편찬위원회·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국가기록원 등이 소장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자료 중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적지 않다. 또한 2022년 10월 완료된 문화재청의 ‘근현대 문화유산 동학농민혁명 분야 목록화 조사연구용역 보고서’(연구책임자 배항섭)를 통해서 이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지 못한 자료 중에서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여타 기관이 소장한 새로운 자료들도 적지 않게 발굴되었다.<sup>12</sup> 중요한 자료에 대한 문화재 등록을 꾸준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번 기회를 통해 상설 기구인 동학혁명기념재단에 의한 관심과 대대적인 자료 발굴과 조사가 필요하다. 일본과 중국 등 국내 외는 물론 개인 소장자료까지 포함해서 향후 전면적인 자료의 심층 조사와 지속적인 발굴, 재정리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확정 이후인 최근에 건양~광무 연간 법부 검사국·사리국·형사국 등에서 생산한 『기안(起案)』·『소장(訴狀)』·『훈지기안(訓指起案)』·『사법조첩(司法照牒)』·『훈령(訓令)』 등 여러 자료에서 190여 명 이상의 미발굴 동학농민군의 명단과 그들의 구체적인 활동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12 이 보고서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신청 대상 11개 기관 외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전주),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충남역사박물관,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고창군립도서관, 고창판소리박물관,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강릉선교장(장서각 기탁), 교회사연구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및 홍재일기 등 개인 자료까지 포함한 방문 조사를 통한 동학농민혁명 유물 현황과 개별 서지사항 및 가치평가 내역이 건별로 정리되어 있다.

## # 부록: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총목록

## 1. 동학농민군이 생산한 기록물(30건, 269면)

연번	소장기관	기록물명	한자명	생산자	생산연도	수량	재질	크기	형태	대상선정 이유
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한달문 편지	韓達文簡札	한달문	1894	1면	한지	40×21	문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여 체포된 한달문이 나주 감옥에서 고향집의 어머니에게 구명을 요청하면서 보낸 편지
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광화 편지	劉光華簡札	유광화	1894	1면	한지	29×24	문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유광화가 고향에 있는 동생에게 군자금을 보내달라고 보낸 편지
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송대화 임명장	宋大和任命狀	최시형	1894	1면	한지	36×27	문서	1894년 9월 송대화를 대접주에 임명하는 임명장
4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천귀수 임명장	千貴壽任命狀	최시형	1894	1면	한지	25.5×45	문서	1894년 10월 천귀수를 중정으로 임명하는 임명장
5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김창모 임명장	金昌模任命狀	최시형	1894	1면	한지	33.5×48	문서	1894년 8월에 김창모를 교수로 임명하는 임명장
6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박병진 임명장	朴炳振任命狀	최시형	1894	1면	한지	29.5×45	문서	박병진(朴炳振)을 대정으로 임명하는 임명장
7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박순도 임명장	朴順道任命狀	최시형	1894	1면	한지	30×41	문서	박순도(朴順道)를 중정으로 임명하는 임명장
8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천일권 임명장	千鎰權任命狀	최시형	1894	1면	한지	25.5×44.5	문서	1894년 9월 천일권을 집강에 임명하는 임명장
9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성실 임명장	全成實任命狀	최시형	1894	1면	한지	26×42	문서	1894년 3월에 전성실을 중정을 겸한 도집에 임명하는 임명장
10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엄차생 임명장	嚴次生任命狀	최시형	1894	1면	한지	26.5×42.5	문서	1894년 8월 엄차생을 대정에 임명하는 임명장
1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황수팔 임명장	黃綉八任命狀	최시형	1894	1면	한지	41.5×27	문서	1894년 8월에 황수팔을 봉헌에 임명하는 임명장
1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성영 임명장	鄭聖英任命狀	최시형	1894	1면	한지	41×31.5	문서	1894년 정성영을 접사에 임명하는 임명장
1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김준섭 임명장	金浚燮任命狀	최시형	1894	1면	한지	41×31	문서	1894년 7월 김준섭을 집강으로 임명하는 임명장
14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나주명록	羅州名錄	농민군	1894	1면	한지	22×162	문서	1894년 9월 나주지역에서 작성된 집강소 관련 명단
15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명록	名錄	농민군	1894	1면	한지	20.5×19.5	문서	1894년 9월 작성된 동학농민군 관련 명단
16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함평갈동명록	咸平葛洞名錄	농민군	1894	1면	한지	23×25	문서	1894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함평갈동의 동학농민군 명단

연번	소장기관	기록물명	한자명	생산자	생산 연도	수량	재질	크기	형태	대상선정 이유
17	국사편찬위원회	동도 창의소 고시	東道 倡義所 告示	농민군	1894	1면	유리 원판	16.5×12	사진	1894년 11월 동학농민군 지도 부에서 작성하여 배포한 고시문으로, 1927년 경 조선사편수회에서 이를 촬영하여 현재 유리원판의 형태로 남아 있음
18	국사편찬위원회	전봉준 상서	全琫準 上書	全琫準	1894	1면	유리 원판	16.5×12	사진	양호 창의영수 전봉준이 충청도 관찰사에게 올린 상서로, 1927년경 조선사편수회에서 이를 촬영하여 현재 유리원판 형태로 남아 있음
19	천도교 중앙총부	무장 포고문 필사본	茂長 布告文	농민군	1894	1면	한지	36.5×21	문서	무장동학포고문 필사본
20	천도교 중앙총부	나동환 교장 임명장	羅東煥 敎長 任命狀	최시형	1894	1면	한지	26.5×38.5	문서	1894년 나동환을 교장으로 임명하는 임명장
21	천도교 중앙총부	홍재인 대정 임명장	洪在寅 大正 任命狀	최시형	1894	1면	한지	26×40	문서	1894년 홍재인을 대정으로 임명하는 임명장
22	천도교 중앙총부	정순경 교장 임명장	鄭淳敬 敎長 任命狀	최시형	1894	1면	한지	26×42	문서	1894년 정순경을 교장으로 임명하는 임명장
23	천도교 중앙총부	이승룡 교수 임명장	李承龍 敎授 任命狀	최시형	1894	1면	한지	28×44.5	문서	1894년 이승룡을 교수로 임명하는 임명장
24	천도교 중앙총부	양언남 봉헌 임명장	梁彦男 奉軒 任命狀	최시형	1894	1면	한지	29×44	문서	1894년 양언남을 봉헌으로 임명하는 임명장
25	천도교 중앙총부	이수방 접주 임명장	李洙芳 接主 任命狀	최시형	1894	1면	한지	28.5×45	문서	1894년 이수방을 접주로 임명하는 임명장
26	독립기념관	안진금 집강 임명장	安鎭金 執綱 任命狀	최시형	1894	1면	한지	38×23	문서	1894년 안진금을 집강으로 임명하는 임명장
27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발 통문	沙鉢 通文	농민군	1900년대	1면	한지	42×30	문서	전봉준 등이 전라감영을 함락하고 서울로 진격하겠다는 봉기계획을 세워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통문으로 1900년대 필사한 것으로 추정됨
28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순교 약력	殉敎 略歷	최병현	1923	1책 61면	한지	16×24	도서	동학농민혁명에 직접 참여한 유태흥의 진술을 남원군종리사 최병현이 1923년 정리한 자료로, 남원 동학농민군의 활동 현황을 알 수 있음
29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남원 종리 원사	南原 宗理 院史	최병현	1924	1책 47면	한지	17×24.5	도서	동학농민혁명에 직접 참여한 유태흥의 진술을 1924년 남원군 주임 종리사 최병현이 기술하여 정리한 자료로, 남원 동학농민혁명사를 알 수 있음
30	국사편찬위원회	동학사 (초고본)	東學史 (草稿本)	吳知泳	1926	4책 134면	지류	26×18	도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오지영이 東學의 創道에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 천도교활동까지 기술한 자료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전체 상황 파악 가능함.

## 2.1. 동학농민혁명 관련 민간기록물: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사람들의 기록물(16건, 751면)

연번	소장기관	기록물명	한자명	생산자	생산연도	수량	재질	크기	형태	대상선정 이유
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통	私通	도통장	1894	1면	한지	29.5×77	문서	1894년 동학도를 잡아들인 후, 그 과정을 적어 보고하라는 내용의도 통장 통문
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상서	上書	구분협등	1894	1면	한지	61×98	문서	1894년 12월에 능주군 한천면에 살고 있는 구분협, 구달모, 구길모 등이 초토사 민중렬에게 올린 상서
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회성책	儒會成冊	청명천동유회	1894	1책 10면	한지	21×19.5	도서	1894년 청면 천동의 유회에서 작성된 유회성책. 갑오년 동학농민혁명에 참가했던 자와 참가하지 않았던 자를 구분하여 작성한 마을 성분조사서
4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통유문	通諭文	오준상 등	1894	1면	한지	37×25	문서	1894년 갑오 8월에 화순의 향약장으로 있던 오준상 등이 작성한 통유문을 필사한 문서. 동학교도들의 소란이 심해지고 있으니 합심하여 동학을 토벌해야 한다는 내용 포함
5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향약안	鄉約案	未詳	1894	1책 68면	한지	22.5×25	문서	1894년 작성된 향약안으로 동학농민군 진압관련 내용이 수록됨
6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향약장정	鄉約章程	未詳	1894	1책 20면	한지	20×32	도서	완산초안국에서 간행된 책. 동학농민군의 체포와 처벌 등 현실 상황에 적극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간행
7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지	所志	박근순 등	1894	1면	한지	57×80	문서	1894년(갑오) 12월에 수곡리의 박근순 등 10명이 올린 소지
8	고려대 도서관	기문록	記聞錄	未詳	1894	1책 76면	한지	29×19	도서	충청도 영동과 충청도 남부 및 경상도 북부지역 일대에서 발생한 동학농민군의 활동에 대한 기록
9	국립중앙 도서관	토비대략	討匪大略	金爽中	1894	1책 62면	한지	29×20	도서	경상도 상주의 유생 김석중이 상주에서 농민군 토벌을 위한 소모영의 유격장으로 임명되어 농민군을 토벌한 진중일기
10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취의록	聚義錄	興德縣	1894	1책 44면	한지	24.5×21.5	도서	전라도 흥덕 고창의 농민군 토벌을 벌인 수성군의 명단을 적은 기록
11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거의록	舉義錄	姜泳重, 朴胤和, 姜宇重	1894	1책 27면	한지	31×21.5	도서	동학농민군 진압에 참여한 민보군의 활동내용을 모아 놓은 자료
12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향약절목	鄉約節目	堤川縣	1894	1책 7면	한지	29.7×20.5	도서	1894년 충청도 제천현에서 시행된 향약으로, 동학농민군에 대비하기 위하여 삼남지방에서 실시된 향약
13	천도교 중앙총부	오세용 부참모장 임명장	吳世鎔 副參謀長 任命狀	민보군	1894	1면	한지	35×37	문서	1894년 오세용을 수성부참모장으로 임명하는 임명장

연번	소장기관	기록물명	한자명	생산자	생산연도	수량	재질	크기	형태	대상선정 이유
14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난파유고	蘭坡遺稿	鄭錫珍	1913	1책 165면	한지	19×30	도서	난파 정석진이 편찬한 문집으로 정석진은 나주의 도통장으로 있으면서 동학농민군을 토벌했던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
15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창계신공실기	蒼溪申公實記	신석찬	1915	2책 142면	한지	29×20	도서	경상도 의흥·군위·칠곡 지역에서 민간 활동을 한 신석찬의 문집
16	국립중앙도서관	의산유고	義山遺稿	文錫鳳	1934	2책 125면	한지	27.5×19	도서	민보군으로 동학농민군 진압에 참여한 문석봉이 자신의 활동 내용을 정리한 자료

## 2.2. 동학농민혁명 관련 민간기록물: 동학농민혁명 견문기록물(17건, 2,531면)

연번	소장기관	기록물명	한자명	생산자	생산연도	수량	재질	크기	형태	대상선정 이유
1	국립중앙도서관	시문기	時間記	李丹石	1894	1책 35면	한지	27×18	도서	충청도 유생 이단석이 동학농민혁명의 배경과 진행과정에 대해 듣고 경험한 내용을 기록한 자료
2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남정일기	南征日記	李重夏	1894	1책 20면	한지	19×19	도서	1894년 5월 초부터 6월 27일까지 지청병의 진주 사실과 동태를 보고한 일기
3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백석서독	白石書牘	李容穆	1894	1책 248면	한지	25×17	도서	이용목의 편지를 모은 자료로 1892년부터 동학당 또는 농민군의 동정을 기록한 자료
4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갑오실기	甲午實記	未詳	1894	1책 42면	한지	30.5×22	도서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 청일전쟁, 갑오개혁에 관한 내용 자세히 기록
5	연세대 학술정보원	이복영 일기 (남유수록)	李復榮日記 (南遊隨錄)	李復榮	1894	1책 160면	한지	30×20	도서	이복영이 자신이 살았던 부여, 공주 등 충남일대 집강소의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
6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편지	簡札	미상	1894	1면	한지	24×37	문서	충청도 옥천군에 사는 형이 1894년 4월 2일 동생에게 보낸 편지로 동학농민혁명 상황을 설명함
7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편지	簡札	미상	1894	1면	한지	24×37	문서	충청도 옥천군에 사는 형이 1894년 4월 20일 동생에게 보낸 편지로 1894년 동학농민혁명 상황을 설명함
8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편지	簡札	미상	1894	1면	한지	24×37	문서	충청도 옥천군에 사는 형이 1894년 5월 9일 동생에게 보낸 편지로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한 상황을 설명함
9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편지	簡札	미상	1894	1면	한지	24×37	문서	1894년 5월 경에 작성된 편지로 농민군의 전주성 점령 이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10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약사	若史	李容珪	1897	4책 97면	한지	31.5×19	도서	공주유생 이용규가 1888년부터 1897년까지 매일매일 대소사를 기록하고 歲末에 그해 歲評을 기록한 일기로 1894년 상황이 상세하게 기록

연번	소장 기관	기록물명	한자명	생산자	생산 연도	수량	재질	크기	형태	대상선정 이유
11	동학 농민혁명 기념재단	춘당록	春塘錄	양생	1900 년대	3책 376면	한지	18.5× 27.5	도서	여산 유생 양생이 1900년대 작 성한 것으로 동학농민혁명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12	연세대 학술 정보원	연파집	蓮坡集	金炳輝	1913	1책 35면	한지	31× 20	도서	강진 유생 김병휘의문집으로 1894 년 12월의 장흥 강진 및 병영전투 와 관련된 사실이 상세하게 기록
13	연세대 학술 정보원	확재집 (경란록)	確齋集 (經亂錄)	李範奭	1919	1책 63면	한지	31×21	도서	이범석이 1860년대부터 1919 년에 이르는 시기에 일어난 사건 들을 기록하고 평가해 놓은 것으 로,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상세하 게 기록
14	국사편찬 위원회	김약제 일기	金若濟 日記	金若濟	1930	4책 108면	한지	27× 19.5	도서	김약제가 성균관에 재직하면서 작성한 자료로, 1894년 동학농 민혁명 당시 서울의 관직자들과 중앙 정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15	국립중앙 도서관	초정집	草亭集	金星圭	1937	6책 1187면	한지	24.5×18	도서	김성규의 문집으로 동학농민혁명 에 대해 언급
16	동학 농민혁명 기념재단	겸산유고 (금성 정의록)	謙山遺稿 (錦城 正義錄)	李炳壽	1946	1책 88면	한지	19.5× 28.5	도서	겸산이병수가 편찬한 문집. 나주 와 인근지역 동학농민군의 움직 임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
17	동학 농민혁명 기념재단	석남 역사	石南 歷史	박문규	1954	1책 68면	한지	18×21.5	도서	전봉준의 서당에 다녔던 박문 규가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 시 고부봉기와 황토현전투 등을 1953년에 기록해 놓은 회고록

### 3. 조선정부가 생산한 보고서와 공문서(122건, 9,581면)

연번	소장 기관	기록물명	한자명	생산자	생산 연도	수량	재질	크기	형태	대상선정 이유
1	동학 농민혁명 기념재단	흥선 대원군 효유문	興宣 大院君 曉諭文	조선 정부	1894	1면	한지	117× 27	문서	1894년 9월 흥선대원군의 이름 으로 작성되어 배포된 동학농민 군들의 해산을 촉구하는 효유문
2	동학 농민혁명 기념재단	표	表	전라 관찰사	1894	1면	한지	13× 15.5	문서	1894년 12월 전라관찰사가 한 학모에게 작성해 준 표
3	동학 농민혁명 기념재단	오통 절목	五統 節目	전라 관찰사	1894	1책 20면	한지	20×33	도서	1894년 전라도관찰사가 배포한 오통절목. 동학농민혁명에 가담 한 자들을 감시하고 색출하기 위 한 수단으로 활용
4	동학 농민혁명 기념재단	향약 장정	鄉約 章程	전라 관찰사	1894	1책 20면	한지	21×32	도서	1894년 전라도관찰사가 배포한 향약장정. 동학농민혁명으로 흥 흥해진 민심을 바로잡고, 안정시 키기 위해 조선정부가 배포
5	동학 농민혁명 기념재단	홍우전 물침첩	洪祐銓 勿侵帖	나주목	1894	1면	한지	15× 23.5	문서	1894년 11월 나주목에서 홍우 전에게 발급해준 물침첩

연번	소장기관	기록물명	한자명	생산자	생산연도	수량	재질	크기	형태	대상선정 이유
6	동학 농민혁명 기념재단	물침첩	勿侵帖	조선 정부	1894	17면	한지	23×24	문서	1894년 12월에 작성된 물침첩으로 동학농민혁명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 17명의 인적사항이 기록
7	동학 농민혁명 기념재단	이정돈 물침첩	李廷燾 勿侵帖	남평현	1894	1면	한지	29×22	문서	1894년(갑오) 12월 29일에 작성된 이정돈의 물침첩
8	동학 농민혁명 기념재단	완문	完文	어상천 면장	1894	1면	한지	27.5× 110	문서	1894년 12월에 어상천면장이 발급한 완문. 어상천면 연위리 이 건재가 접주로서 집을 버리고 도피하여 그 집과 전토 등을 척매하여 고을에 주기로 하였다는 내용
9	동학 농민혁명 기념재단	전령	傳令	순무영	1894	1면	한지	19×83	문서	1894년 4월 4일에 순영문에서 보낸 전령. 불법을 저지르는 동학 교도들을 체포하라는 내용
10	동학 농민혁명 기념재단	전령	傳令	순포 중군	1894	1면	한지	21×45	문서	1894년 11월 14일 순포중군이 상부에 보낸 전령
11	동학 농민혁명 기념재단	전령	傳令	조선 정부	1894	1면	한지	21×45	문서	1894년 접주를 잡아들라는 전령
12	동학 농민혁명 기념재단	홍계훈 밀부유서	洪啓薰 密符諭書	고종	1894	1면	한지	67×58	문서	1894년 4월 2일 고종이 양호초 토사에 임명된 홍계훈에게 내려준 밀부유서
13	동학 농민혁명 기념재단	양호 전기	兩湖 電記	洪啓薰	1894	1책 74면	한지	21× 32.5	도서	1894년 4월 3일에서 5월 28일까지 초토사 홍계훈이 각기관과 주고 받은 전보를 날짜 순서로 수록한 자료
14	동학 농민혁명 기념재단	완문	完文	나주목	1894	1면	한지	57×46	문서	1894년 11월 나주목에서 작성한 완문
15	동학 농민혁명 기념재단	북하 면보	北下 面報	洪淳喆	1894	1면	한지	31.5× 50	문서	1894년 11월 10일 예산군 북하면회장 홍순철이 작성하여 예산군에 보낸 보고서
16	동학 농민혁명 기념재단	북하 면보	北下 面報	洪淳喆	1894	1면	한지	37.5× 51	문서	1894년 11월 13일 유시에 예산군 북하면장 홍순철이 작성하여 예산군에 보낸 보고서
17	동학 농민혁명 기념재단	북하 면보	北下 面報	洪淳喆	1894	1면	한지	37.5× 57	문서	1894년 11월 15일 묘시에 예산군 북하면장 홍순철이 작성하여 예산군에 보낸 보고서
18	동학 농민혁명 기념재단	북하 면보	北下 面報	洪淳喆	1894	1면	한지	38×60	문서	1894년 11월 15일 술시에 예산군 북하면장 홍순철이 작성하여 예산군에 보낸 보고서
19	동학 농민혁명 기념재단	북하 면보	北下 面報	洪淳喆	1894	1면	한지	39.5× 59.5	문서	1894년 11월 16일 신시에 예산군 북하면장 홍순철이 작성하여 예산군에 보낸 보고서
20	동학 농민혁명 기념재단	북하 면보	北下 面報	洪淳喆	1894	1면	한지	37.5× 58	문서	1894년 11월 17일 인시에 예산군 북하면장 홍순철이 작성하여 예산군에 보낸 보고서

연번	소장기관	기록물명	한자명	생산자	생산연도	수량	재질	크기	형태	대상선정 이유
21	동학 농민혁명 기념재단	북하 면보	北下 面報	洪淳喆	1894	1면	한지	37.5× 56	문서	1894년 11월 17일 유시에 예 산군 북하면장 홍순철이 작성하 여 예산군에 보낸 보고서
22	동학 농민혁명 기념재단	북하 면보	北下 面報	洪淳喆	1894	1면	한지	38× 52.5	문서	1894년 11월 24일 예산군 북 하면장 홍순철이 작성하여 예산 군에 보낸 보고서
23	동학 농민혁명 기념재단	북하 면보	北下 面報	成夏東	1894	1면	한지	33.5× 52	문서	1894년 12월 3일에 예산군 북 하면 도면정 성하동이 작성하여 예산군에 보낸 보고서
24	동학 농민혁명 기념재단	북하 면보	北下 面報	洪淳喆	1894	1면	한지	37×55	문서	1894년 12월 12일 예산군 북 하면장 홍순철이 작성하여 예산 군에 보낸 보고서
25	동학 농민혁명 기념재단	북하 면보	北下 面報	洪淳喆	1894	1면	한지	32×51	문서	1894년 12월 12일 오시에 예 산군 북하면장 홍순철이 작성하 여 예산군에 보낸 보고서
26	동학 농민혁명 기념재단	북하 면보	北下 面報	洪淳喆	1894	1면	한지	32× 52.5	문서	1894년 12월 15일 예산군 북 하면장 홍순철이 작성하여 예산 군에 보낸 보고서
27	고려대 도서관	관감 치부책	關甘 置簿冊	조선 정부	1894	1책 34면	한지	30×19	도서	1894년 1월부터 6월까지 작성 한 세금에 관한 장부
28	고려대 도서관	진안현각 양상납월 당전목수 호납미납 성책	鎭安縣各 樣上納月 當錢木數 交納未納 成冊	진안현	1894	1책 17면	한지	30×20	도서	1894년 6월 진안현에서 작성한 것으로 상급기관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액과 미납액으로 정 리한 자료
29	고려대 도서관	민장 초개책	民狀 抄槩冊	보성군	1894	1책 60면	한지	33×20	도서	1894년 보성군에서 작성한 것으 로 각 면별로 백성들이 올린 장계 와 그 처리결과를 정리한 자료
30	고려대 도서관	순무사 정보첩	巡撫使 呈報牒	李圭泰	1894	1책 150면	한지	30×22	도서	1894년 10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양호선봉장 이규태가 농민군을 진압 토벌하는 과정에 서 순무사 신정희에게 보낸 첩보 를 수록한 자료
31	고려대 도서관	소지 등서책	所志 騰書冊	조선 정부	1894	1책 64면	한지	32×20	도서	동학농민혁명 2차봉기 과정에서 조선정부가 낸 선유문과 전봉준 등이 충청감사에게 올린 글, 民人 의 所志 등을 모아 등서한 자료
32	고려대 도서관	경각영 공급기	京各營 供給記	조선 정부	1894	1책 139면	한지	26×25	도서	1894년 10월 동학농민군 토벌 에 참여한 선봉진 예하의 경리 청, 장위영, 통위영, 교도소 등 각 부에 공급한 물자들을 기록해 놓 은 자료
33	고려대 도서관	죄인군 물성책	罪人軍 物成冊	조선 정부	1894	1책 150면	한지	27×25	도서	1894년 10월 동학농민군 토벌 과정에서 확인한 동학농민군 명 단과 물자를 기록한 자료
34	고려대 도서관	갑오십월 일교도소 출주장병 성책	甲午十月 日矯導所 出駐將兵 成冊	조선 정부	1894	1책 38면	한지	32×21	도서	1894년 10월 동학농민군 토벌 에 참여한 교도소 장병의 성명과 직위를 기록한 자료

연번	소장기관	기록물명	한자명	생산자	생산연도	수량	재질	크기	형태	대상선정 이유
35	고려대 도서관	갑오십월 일선봉진 출정장졸 성명급기 복마실수 성책	甲午十月日先鋒陣出征將卒姓名及其服馬實數成冊	조선 정부	1894	1책 10면	한지	26×26	도서	1894년 10월 동학농민군 토벌에 참여한 先鋒陣 장병의 성명과 물자를 기록한 자료
36	고려대 도서관	본진 별군관 차출기	本陣別軍官差出記	조선 정부	1894	1책 28면	한지	26×25	도서	1894년 10월 동학농민군 토벌에 참여한 별군관 차출 내용을 기록한 자료.
37	고려대 도서관	창의 인명록	倡義人名錄	조선 정부	1894	1책 36면	한지	25×25	도서	1894년 민간에서 동학농민혁명 진압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
38	고려대 도서관	친군장위 영장졸실 수성책	親軍壯衛營將卒實數成冊	조선 정부	1894	1책 75면	한지	32×22	도서	1894년 동학농민군 진압에 참여한 친군영 장졸 명단
39	고려대 도서관	물금 첩기	勿禁帖記	조선 정부	1894	1책 88면	한지	28×25	도서	1894년 동학농민군 진압과정에서 체포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을 정리해 놓은 명단
40	고려대 도서관	서산미변 면간월도 유희성책	瑞山미변면看月島儒會成冊	간월도 유희군	1894	1책 8면	한지	26×25	도서	1894년 서산 미변도 간월도의 유희 참여 명단
41	고려대 도서관	서산영 풍창면 우길리 유희성명성책	瑞山永豐倉面牛吉里儒會姓名成冊	우길리 유희군	1894	1책 6면	한지	26×25	도서	1894년 서산 영풍창면 우길리의 유희 참여 명단
42	고려대 도서관	양호순 무선봉장이공 규태묘 비명	兩湖巡撫先鋒將李公圭泰墓碑銘	이승욱 등	1894	1책 10면	한지	28×22	도서	선봉장 이규태의 묘지명과 1894년 10월, 11월 동학농민군 토벌 기간 중의 이규태와 각 부대 지휘관, 친지(親知) 및 가정 사이에 왕복한 사신(私信)을 수록한 자료
43	고려대 도서관	금영 내찰	錦營來札	金弘集, 金允植	1894	1책 75면	한지	33×23	도서	1894년 8월부터 12월까지 김홍집과 김윤식이 충청감사인 박제순에게 보낸 서한을 수록한 자료
44	고려대 도서관	선봉진 전령각진	先鋒陳傳令各陣	李圭泰	1894	1책 62면	한지	31×21	도서	1894년 10월 14일부터 12월 26일까지 양호순무 좌선봉장 이규태가 장위 통위영의 영관, 부영관, 영관, 대관 등 지휘관 및 각지의병소에게 내린 전령을 수록한 자료
45	고려대 도서관	친군통위 영갑오십월일출주 장졸성책	親軍統衛營甲午十月日出駐將卒成冊	조선 정부	1894	1책 40면	한지	28×22	도서	1894년 친군 통위영 출진 장졸 명단
46	고려대 도서관	갑오십월 일친군경리청장졸 성책	甲午十月日親軍經理廳將卒成冊	조선 정부	1894	1책 48면	한지	28×25	도서	1894년 친군 경리청 출진 장졸 명단
47	고려대 도서관	갑오 십월일 경리청	甲午十月日經理廳	조선 정부	1894	1책 12면	한지	26×26	도서	1894년 친군 경리청 출진 장졸 명단

연번	소장기관	기록물명	한자명	생산자	생산연도	수량	재질	크기	형태	대상선정 이유
48	국립중앙도서관	금번 집략	錦藩集略	李穗永	1894	1책 51면	한지	29×30	도서	1894년 당시 충청감사를 지낸 이헌영이 충청도 지역에서 일어난 동학농민군의 동향과 청일전쟁에 대해서 정부에 보고한 문서 및 각 군에 내린 감결 등을 모은 자료
49	국사편찬위원회	홍양 기사	洪陽紀事	洪健	1894	1책 124면	한지	34×20.5	도서	남양사람 홍건이 기록한 홍주 일대의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에 대한 기록
50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공산 초비기	公山剿匪記	조선 정부	1894	1책 9면	한지	35.5×25	도서	1894년 10월 공주 우금치의 동학농민군과 관군의 전투를 기록한 자료
51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양호 초토 등록	兩湖招討謄錄	양호 초토영	1894	1책 41면	한지	42×24	도서	양호초토사 홍계훈이 장위영군과 강화영군 등 경군을 인솔하고 서울을 출발한 4월 3일부터 전주성을 수복한 5월 16일까지 양호초토사가 한 일을 일기체로 작성한 자료
52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순천부 포착동도 성명성책	順天府捕捉東徒姓名成冊	統里衙門	1894	1책 3면	한지	35×25.5	도서	1894년 12월 전라도 순천에서 잡힌 동학도들의 성명 및 낱짜, 처리사항을 중앙에 보고하기 위해 기록한 자료
53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광양현 포착동도 성명성책	光陽縣捕捉東徒姓名成冊	統里衙門	1894	1책 8면	한지	35×25.5	도서	1894년 12월 전라도 광양현에서 잡힌 동학도들의 성명, 낱짜 및 처리사항을 중앙에 보고하기 위해 기록한 자료
54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교남 수록	嶠南隨錄	慶尙監營	1894	1책 72면	한지	29.5×19	도서	1894년 8월 28일부터 12월 24일까지 경상도 상주, 안의, 김산 등 여러 군을 행군하면서 소모한 경비내역을 모아 기록한 자료
55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계초 존안	啓草存案	議政府	1894	1책 95면	한지	29.5×20	도서	1894년 7월 21일부터 11월 20일 사이에 의정부에 보고된 내용을 의정부 기록국이 기록한 자료
56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동학당 정토인록	東學黨征討人錄	軍部	1894	1책 42면	한지	29×19.5	도서	동학농민혁명 당시 진압에 참여하여 큰 공을 세운 사람 766명을 6분야로 나누어서 이름, 직위 및 역할을 기록한 자료
57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갑오 군공록	甲午軍功錄	軍部	1894	1책 21면	한지	26×18	도서	동학농민혁명 당시 진압, 토벌에 종사하여 공을 세운 사람 411명의 이름, 직위, 군공을 기록
58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광양 섬계역 포착동도 성명성책	光陽蟾溪驛捕捉東徒姓名成冊	統里衙門	1894	1책 3면	한지	35×25.5	도서	1894년 12월 10일 전라도 광양현 섬계역 상동민인이 동학도를 잡아올려 이들의 성명 및 처리사항을 중앙에 보고하기 위해 기록한 자료

연번	소장기관	기록물명	한자명	생산자	생산연도	수량	재질	크기	형태	대상선정 이유
59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이병휘 공초	李秉輝 供草	法部	1894	1책 33면	한지	28.5×20.3	도서	1894년 10월 5일, 10월 7일, 10월 8일 세 차례에 걸친 이병휘에 대한 신문 기록. 이병휘는 농민군의 복상을 재촉하는 대원군의 밀서를 전달한 혐의로 9월 2일 체포된 인물임
60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이준용 공초	李俊鎔 供草	法部	1894	3책 172면	한지	32.8×20.3	도서	1894년 갑오개혁시 범부협판 김학우의 피살과 이준용 등의 모반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들의 공초를 수록한 자료.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와 대원군 관련성 파악
61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공문 일록	公文 日錄	東萊府	1894~1895	5책 150면	한지	35×27	도서	1857년부터 1895년까지 동래부와 순영·병영·통영, 중앙관청, 각면 사이에 오고간 관문·감결·문상·전령·사통 등을 동래부에서 날짜순으로 기록한 자료
62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모관 슬포군상 경시양근 군삼참공 궤식상여 소입전실 수성책	召募官 率砲軍 上京時楊根郡三站供饋食床與所入錢實數成冊	楊根郡	1894	1책 2면	한지	24×20	도서	1894년에 경기도 양근군에서 소모관이 이끄는 포군의 식비와 초혜, 남초 등을 마련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적어 놓은 자료
63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정사	政事	조선 정부	1894	1책 13면	한지	29.4×19.8	도서	1894년 조선정부의 인사 발령 기록
64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진위현거 료월삭일 본병진하 래시소용 곡물성책	振威縣去 六月朔日 本兵陣下 來時所用 穀物成冊	振威縣	1894	1책 2면	한지	20.5×20.5	도서	1894년 진위현에 주둔한 일본군이 사용한 물자내역을 정리한 자료
65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진위현 상하내 병진 공궤도 성책	振威縣 上下來 兵陣 供饋都 成冊	振威縣	1894	1책 12면	한지	20.4×20.4	도서	1894년(고종31)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정부군 및 일본군이 경기도 진위현을 통과할 때 이들을 대접한 경비내역을 정리한 자료
66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각전	各電	統理 交涉通 商事務 衙門	1894	1책 102면	한지	32×28.5	도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 각 지방 및 東京, 天津 등 해외 공사관에 보낸 전보의 내용을 모아 기록한 자료
67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예방색래 보관록	禮房色 來報關錄	東萊府	1894	2책 256면	한지	30×24	도서	1892년부터 1894년까지 동래부 소속 예방에서 예전에 관한 관문과 첩보의 내용을 편철한 자료
68	천도교 중앙총부	최운 용표	崔雲 龍表	결성현	1894	1면	한지	16×15.5	문서	결성현이 최운용에게 발급해 준 표
69	한국학중앙연구원	고성부 총새록	固城府 叢瑣錄	吳弘默	1894	2책 193면	한지	34.7×25.5	도서	오형목이 1893년 2월부터 1894년 11월까지 경상도 고성부사로 재직하면서 쓴 일기

연번	소장기관	기록물명	한자명	생산자	생산연도	수량	재질	크기	형태	대상선정 이유
70	고려대 도서관	갑오 십이월 민장책	甲午十二月民狀冊	조선 정부	1894~1895	1책 160면	한지	31×21	도서	1894-1895 사이에 관내 백성들이 올린 장계와 그 처리결과를 정리해 놓은 자료
71	고려대 도서관	선봉진 각읍료발 관급감결	先鋒陣各邑了發關及甘結	李圭泰	1894~1895	1책 139면	한지	30×20	도서	1894년 12월 12일부터 1895년 2월 4일까지 선봉장 이규태가 동학농민군을 소탕하기 위해 충청, 전라도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예하 각부대장과 각부면동에 발송한 관문과 감결, 전령, 방시문 등을 수록한 자료
72	고려대 도서관	순무 선봉진 등록	巡撫先鋒陣騰錄	李圭泰 外	1894~1895	7책 810면	한지	31×21	도서	1894년 10월 11일에서 1895년 2월까지 양호선봉장 이규태가 동학농민혁명 진압과정에서 각 기관과 주고받은 공문을 모아 놓은 자료
73	고려대 도서관	선봉진 상순무 사서	先鋒陣上巡撫使書	李圭泰	1894~1895	1책 41면	한지	31×21	도서	1894년 10월 21일에서 1895년 3월 5일까지 선봉장 이규태가 신정희에게 올린 서신과 기타 잡기를 수록한 자료
74	고려대 도서관	선봉진 서목	先鋒陣書目	李圭泰	1894~1895	1책 34면	한지	32×22	문서	1894년 10월 11일부터 1895년 3월 22일까지 선봉장 이규태가 동학농민군 토벌에 관한 전략과 군량, 군기에 대한 조처를 양호도순무영과 친군경리청, 친군총어영, 군부아문 등 관청에 보고한 문서
75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거전	去電	外務衙門	1894~1895	1책 79면	한지	30.3×19	도서	1894년 8월부터 1895년 11월 사이에 중앙정부에서 지방 및 해외공관으로 보낸 전보의 내용을 기록한 자료로 동학농민군의 활동내용이 포함됨
76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공이 공복철	公移公復綴	法務衙門	1894~1895	10책 300면	한지	30×27.5	도서	1894-1895년 법무아문에서 의정부, 외무아문, 군부아문 등과 주고받은 문서를 모아 놓은 자료
77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전신 존근	電信存根	外務衙門	1894~1895	1책 56면	한지	31×27	도서	1894년 10월부터 1895년 1월까지 조선정부가 지방에 보낸 전보의 내용을 기록한 자료
78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전신 존근	電信存根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1894~1895	1책 93면	한지	31×27	도서	1894년 10월부터 1895년 1월까지 조선정부가 지방에 보낸 전보의 내용을 기록한 자료
79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정유 신간 시수책	丁酉新刊時囚冊	義禁府	1894~1895	13책 390면	한지	34.5×23	도서	1810년 9월~1895년 3월 사이에 의금부에 수감·피죄된 전·현관원들의 피죄관계사항을 수록한 자료
80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래전	來電	外部衙門	1894~1895	1책 73면	한지	30.4×19	도서	1894년 9월부터 1895년 11월 사이에 지방 및 해외 공관에서 중앙 정부에 보낸 전보의 내용을 기록한 자료

연번	소장기관	기록물명	한자명	생산자	생산연도	수량	재질	크기	형태	대상선정 이유
81	한국학 중앙연구원	양호 우선봉 일기	兩湖右先鋒日記	李斗璜	1894~1895	2책 414면	한지	34.8×22.6	도서	순무영 예하 선봉장 이두황의 진중일기로 1894년 9월 10일부터 1895년 2월 18일까지의 일기체기록
82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찰이 전존안	札移電存案	議政府	1894~1896	1책 69면	한지	30×20.8	도서	의정부가 1894년 8월 10일에서 1896년 1월 21일 사이에 각 기관에 보낸 공문과 각 기관이 의정부에 보낸 공문을 모아 놓은 자료
83	독립기념관	고종과 흥계훈 문답문서	高宗과 洪啟薰 問答文書	조선 정부	1894	1면	한지		문서	1894년 양호초토사 흥계훈이 조정에게 복귀해서 고종에게 동학 농민군과의 전투과정에 대해 묻고 답한 내용을 필사본으로 정리한 기록
84	동학 농민혁명 기념재단	소모 사실	召募事實	조시영	1894~1895	1책 136면	한지	27×30	도서	1894년 11월부터 1895년 1월까지 김산 소모영에서 생산된 문서와 각급기관에서 김산소모영에 보낸 문서를 소모사 조시영이 날짜순으로 정리한 자료
85	동학 농민혁명 기념재단	차호규 첩정	車昊奎 牒呈	차호규	1895	1면	한지	42×56	문서	1895년 2월 9일에 여산군 북삼면에 살던 차호규 등이 관에 발송한 첩정
86	동학 농민혁명 기념재단	방수장 서목	防守將 書目	防守將	1895	1면	한지	28×30	문서	1895년 정월 3일에 적량면 방수장이 수성관에게 발송한 서목
87	동학 농민혁명 기념재단	외귀방 풍헌 첩정	外貴坊 風憲 牒呈	外貴坊 風憲	1895	1면	한지	36×31	문서	1895년 외귀방 풍헌이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한 첩정
88	동학 농민혁명 기념재단	고산방 풍헌 첩보	高山坊 風憲 牒呈	高山坊 風憲	1895	1면	한지	36×31	문서	1895년 4월 19일 고산방 풍헌이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한 첩정
89	고려대 도서관	전령군내 면아일통	傳令郡內 面衙一通	조선 정부	1895	1책 10면	한지	31×22	도서	1895년 어느 군에서 군내 면아에 보낸 전령
90	고려대 도서관	관지책	官旨冊	임실현	1895	1책 26면	한지	30×19	도서	1895년 전라도 임실현에서 작성한 세금 관련 자료
91	국가 기록원	형사재판 원본 1895	刑事裁判 原本	법무 아문	1895	190면	한지	28×19	도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동학농민군 171명에 대한 재판 판결문
92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취어	聚語	조선 정부	1895	1책 77면	한지	26.5×15	도서	1893년 보은집회 주요내용과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발발 및 전개과정을 기록한 자료
93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전라도각 읍소획동 도수효급 장령성명 병록성책	全羅道各 邑所獲東 徒數及 將領姓名 竝錄成冊	閔種烈	1895	1책 5면	한지	34×21.5	도서	1895년 1월 호남초토사 민중열이 전라도 각지에서 체포한 동학도들의 성명 및 수효와 그 처리사항, 노획품의 수량 및 그 노획자 이름 등을 중앙에 보고하기 위하여 기록한 자료

연번	소장기관	기록물명	한자명	생산자	생산연도	수량	재질	크기	형태	대상선정 이유
94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호연초토 영각읍절의열행인성명성책	湖沿招討營各邑節義烈行人姓名成冊	湖沿招討營	1895	1책 3면	한지	37×26	도서	1895년 2월 호연초토영에서 동학농민군 진압과정에서 농민군에 대항해서 싸운 절의 11명과 열행 2명을 기록한 자료
95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전주부전 전라도각 읍상납중 비류소탈 전목미태 구별성책	全州府前全羅道各邑上納中匪類所奪錢木米太區別成冊	全州府	1895	1책 12면	한지	31×19.5	도서	1895년 8월 전라도내 각군에서 동학농민군들에게 빼앗긴 전세를 비롯한 각종 상납의 내역이 군별로 파악 기재된 자료
96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전라도각 읍매사읍 작통규모 관사조약 별록성책	全羅道各邑每四邑作統規模關辭條約別錄成冊	湖南招討營	1895	1책 5면	한지	34.5×20	도서	1895년 전라도 초토영의 초토사 민중열이 영하 각읍의 작통을 실시하면서 각읍에 보낸 관사, 작통조약, 작통내용을 수록한 자료
97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전봉준 공초	全琫準供招	法部	1895	1책 41면	한지	39×21	도서	1894년 12월 2일 전봉준이 체포된 후 1895년 2월 9일부터, 2월 11일, 2월 19일, 3월 7일, 3월 10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던 신문 기록
98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전주부 보고서	全州府報告書	全羅道觀察使	1895	1책 2면	한지	32.1×21.7	도서	1895년 7월에 전라도 관찰사 李道宰가 法部の 訓諭에 의거하여 올린 보고서로, 동학농민군의 定配에 관한 내용을 수록
99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검사 직제	檢事職制	法務衙門	1895	1책 4면	한지	29×20	도서	1895년 4월 15일 법무령 제2호로 반포된 검사의 직제에 관한 규정을 적은 자료
100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각부 보고서	各府報告書	法部	1895	1책 32면	한지	30.5×19.4	도서	1895년 7월에서 9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法部に 올린 報告書 13건과 實稟書 5건 등 18건의 文件을 모아서 묶은 문서철로 동학농민혁명 내용이 포함됨
101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보방조례조회통첩식	保放條例照會通牒式	法部	1895	1책 12면	한지	29×20	도서	1895년 사법제도를 개혁하면서 제정한 [保放條例]와 각 정부기관 사이에 왕래하는 문서의 양식을 분류하고 설명한 [照會通牒式]
102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용인현 갑오년 청인일 병각영 병정과 거시공 궤소입 전금 전망병 정담군 고가전 성책	龍仁縣甲午年清人日兵各營兵丁過去時供饋所入錢及戰亡兵丁擔軍雇價錢成冊	龍仁縣	1895	1책 4면	한지	30.5×20.5	도서	1894년 용인현을 거쳐 간 청나라 군대와 일본군에 제공한 물자 내역을 정리한 자료

연번	소장기관	기록물명	한자명	생산자	생산연도	수량	재질	크기	형태	대상선정 이유
103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용인현일 병경군마 병과거공 궤소입전 성책	龍仁縣日兵京軍馬兵過去供饋所入錢成冊	龍仁縣	1895	1책 4면	한지	30.5×20.5	도서	1895년 용인현에서 경군과 일본군에 제공한 물자 내역을 정리한 자료
104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정배안	定配案	法部	1895	1책 9면	한지	28.4×19.4	도서	1895년 3월~1896년 4월간에 유배된 자의 죄목과 유배지 등이 기록된 자료로 趙秉甲, 金文鉉, 李容泰, 閔泳駿(閔泳徵), 閔炯植, 閔應植 등이 포함됨
105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첩보	牒報	法部	1895	1책 14면	한지	54×26.4	도서	1895년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전국 각도에서 법부로 보내온 첩보들을 철한 자료
106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첩보	牒報	法部	1895	1책 14면	한지	26.7×71.7	도서	1895년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전국 각도에서 법부로 보내온 첩보들을 철한 자료
107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첩보	牒報	法部	1895	1책 5면	한지	29.3×69.7	도서	1895년 8월 각 지방에서 법부로 보내온 첩보를 철한 것으로 1894년 동학농민혁명 전후 사회상과 범죄 유형들을 살필 수 있는 자료
108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충청도목 천현전소 모진적산 실수성책	忠淸道木川縣前召募陣籍産實數成冊	忠淸監營	1895	1책 6면	한지	31×21.9	도서	충청도관찰사경순찰사가 목천현 전소모진에서 동학농민군으로부터 몰수한 재산 내역을 내무아문에 보고한 자료
109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한성 재판소 이수록	漢城裁判所移囚錄	漢城裁判所	1895	1책 2면	한지	32×21	도서	1895년 5월 초부터 하순까지 한성재판소에서 각 기관이나 각 군에서 죄수들을 이관해온 상황을 기록한 문서
110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호남초토 영참모관 별군관천 보성명 성책	湖南招討營參謀官別軍官薦報姓名成冊	湖南招討營	1895	1책 2면	한지	35.9×21.1	도서	1895년 1월 호남초토영의 참모관과 별군관을 추천·보고한 자료
111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법부 청의서	法部請議書	內閣編錄課	1895~1896	2책 60면	한지	28.6×29	도서	1895년 4월부터 1896년 9월까지 법부에서 각의에 제출한 청의서를 모은 자료로 동학농민군 관련내용이 수록됨
112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중범 공초	重犯供草	法部	1895~1899	9책 30면	한지	31.7×20.4	도서	동학농민혁명 이후 황해도 산간 지역에서 산포라는 형태로 재기를 도모하던 농민군이었던 전양근, 백기정, 김계조, 김의순, 백낙규 등에 대한 신문 기록
113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법부 래문	法部來文	法部	1894~1902	17책 510면	한지	26.5×17.5	도서	1894년~1902년 사이의 法部에서 자체내의 인사·봉급·후생 등과 기타 법률 문제에 대해 내각에 문의한 문건을 모은 자료로 동학농민군 관련 내용이 수록됨

연번	소장기관	기록물명	한자명	생산자	생산 연도	수량	재질	크기	형태	대상선정 이유
114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법부 래거문	法部 來去文	外部	1895~1906	13책 390면	한지	27.6×18	도서	1895년~1906년 사이의 外部에서 외국인의 형사·민사 관계의 법률적용에 대해 법부에 문의한 조회와 그 조복을 모은 자료로 동학농민군 관련 내용이 수록됨
115	고궁 박물관	갑오군 정실기	甲午軍 政實記	조선정부	1895	10책 923면	한지		도서	1894년 9월 22일 신정희(申正熙)를 도순무사(都巡撫使)에 임명하고 양호도순무영(兩湖都巡撫營)을 설치한 후 같은해 12월 27일 폐지할 때까지 각급기관과 주고받은 공문과 보고서를 모아 놓은 기록
116	국가 기록원	형사재판 원본 1896	刑事裁判 原本	고등 재판소	1896	1책 291면	한지	28×19	도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동학농민군 39명에 대한 재판판결문
117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성 재판소 형명부	漢城 裁判所 刑名簿	漢城 裁判所	1896~1907	1책 32면	한지	30.8×30	도서	한성(부)재판소가 1896년 7월부터 1907년 12월까지 총 138개월간 판결선고한 죄수들의 형명부
118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개성 재판소 형명부	開城 裁判所 刑名簿	開城 裁判所	1896	1책 9면	한지	32×28.2	도서	경기도 開城裁判所에서 관리하는 죄수들의 인적사항을 정리한 문서철로 동학농민군과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119	국가 기록원	형사재판 원본	刑事裁判 原本	고등 재판소	1897~1898	1책 514면	한지	28×19	도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동학농민군 31명에 대한 재판판결문
120	국가 기록원	형사재판 원본	刑事裁判 原本	고등 재판소	1898~1899	1책 648면	한지	28×19	도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동학농민군 10명에 대한 재판판결문
121	국가 기록원	형사재판 원본	刑事裁判 原本	평리원	1900	1책 178면	한지	28×19	도서	이 자료는 갑오년 농민전쟁 당시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동학농민군 79명에 대한 재판판결문
122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염기	廉記	조선 정부	1900	1책 10면	한지	22×23.5	도서	1900년 10월 전라남도 순천·여수·광주·영광·담양 등지 효자 및 토호·향유들의 성명 및 민간 토색을 기록한 자료로 동학농민혁명 당시 접주들이 민간토색 내용 기록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 방안

홍성덕 전주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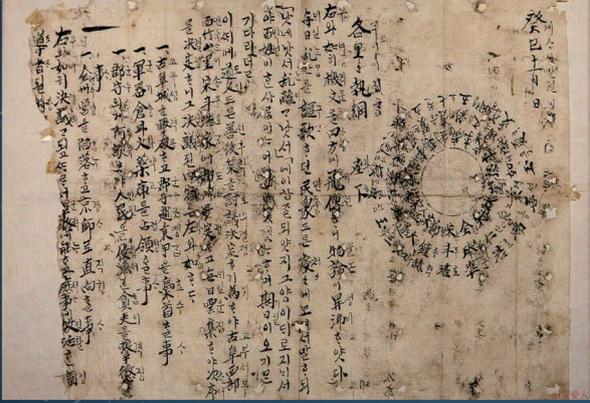
국제학술대회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가치, 세계로 미래로”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 방안

홍성덕 Hong, Seongduk  
Jeonju University



 순서

- I. 머리말
- II.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 현황
- III.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 방안
- IV. 맺음말



## I. 머리말

- 2023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자유, 평등,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했던 기록물로 세계사적 중요성을 평가 받았다.
- 세계기록유산의 등재는 동학농민혁명의 세계사적 의미에 대한 국제적 평가이다.
- 동학농민혁명을 1894년 조선에서 일어난 농민혁명을 넘어 세계사적 의미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세계기록유산을 중심으로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세계문화유산이나 인류무형문화유산과 달리 세계기록유산은 등재된 사실만으로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 따라서 기록유산의 세계화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I. 머리말

- '세계화(世界化)는 상호 교류를 통한 보편적 차이의 공유나 통합을 의미한다.
- 따라서 세계화를 위해서는 상호 교류를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 교류는 상호간 상대를 이해를 위한 '인식 공유'과정이 있어야 하며, 그것은 공통된 언어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 언어화는 곧 세계화를 위한 첫 걸음이다.
- 그러나 기록유산의 경우 해당 국가의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지극히 학문적일 수 밖에 없다.
- 기록물의 세계 언어화 현황과 방향에 대한 검토를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II.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 현황

- 웹 속에 동학농민혁명과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 대한 세계화 현황
  - ✓ 세계기록유산인 '동학농민혁명기록물(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에 대한 다국어 소개현황 – 국내외 주요 기관(유네스코, 국가유산청, 기록소장기관 등)
  - ✓ 포털사이트(Google) 내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기록물 검색 결과
  - ✓ 백사사전(Britannica, Wikipedia) 동학농민혁명 관련 표제어 검토

## II.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 현황

- 유네스코([www.unesco.org](http://www.unesco.org))

Nomination for the Memory of the World International Register

###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 nominated heritage is a collection of 185 documents associated with the Donghak Peasant Movement. The Donghak movement was a popular uprising against both corruption in the ruling class and encroachment on Korea by foreign powers, demanding the establishment of a more just and equal society. Over the course of the movement, the Donghak army succeeded in establishing a cooperative governing unit known as a jipgangsso through which corrupt officials could be punished and unfair government practices rectified. This unit of governance was a novel experiment in democracy with parallels rarely found anywhere in the world at the time. The Donghak movement paved the way for Korea to develop into a flourishing democracy. The nominated documents serve as a reservoir of memories testifying to the historical processes through which the public acted as a protagonist in history and impelled the course of events toward the achievement of universal values.

'동학농민혁명기록물(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은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문서 185건을 모아 놓은 컬렉션이다. 동학운동은 지배계급의 부패와 외세의 침략에 맞서 더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할 것을 요구한 민중봉기였다. 이 과정에서 동학군은 부패한 관료들을 응징하고 불공정한 조정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집강소'라는 협동 통치 단위를 설립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통치 단위는 당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이었다. 동학운동은 한국이 번영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기록물은 대중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보편적 가치 실현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적 과정을 증언하는 기억의 저장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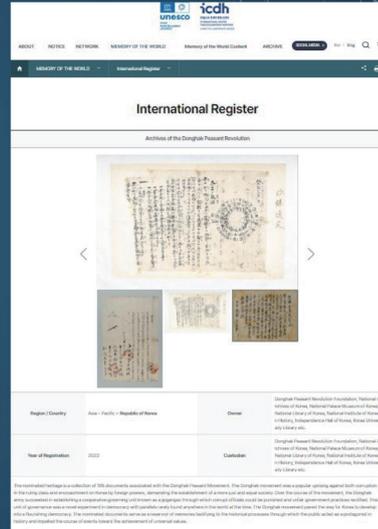
## II.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 현황

- 유네스코 국제유산센터(/www.unescoicdh.org)

✓ 한국어, 영어

Region / Country	Asia - Pacific > Republic of Korea	Owner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National Library of Korea,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Independence Hall of Korea, Korea University Library etc.
Year of Registration	2023	Custodian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National Library of Korea,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Independence Hall of Korea, Korea University Library etc.

The nominated heritage is a collection of 185 documents associated with the Donghak Peasant Movement. The Donghak movement was a popular uprising against both corruption in the ruling class and encroachment on Korea by foreign powers, demanding the establishment of a more just and equal society. Over the course of the movement, the Donghak army succeeded in establishing a cooperative governing unit known as a jipgangsso through which corrupt officials could be punished and unfair government practices rectified. This unit of governance was a novel experiment in democracy with parallels rarely found anywhere in the world at the time. The Donghak movement paved the way for Korea to develop into a flourishing democracy. The nominated documents serve as a reservoir of memories testifying to the historical processes through which the public acted as a protagonist in history and impelled the course of events toward the achievement of universal values.



## II.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 현황

- 국가유산청 국제유산센터(/www.heritage.go.kr)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联合国教科文组织世界遗产 > 世界记录遗产

### 世界记录遗产

韩国的世界记录遗产

东学农民革命记录 (2023)

《图片来源：东学农民革命纪念财团》

《东学农民革命记录》是与1894年至1895年朝鲜爆发的东学农民革命相关的记录物。东学农民革命是民众反抗腐败领导阶层和外来侵略，为建设平等公正的社会而起义的事件。

为韩国迈向宪法的民主主义奠定了基础，对类似国家的帝国主义、民族主义、近代主义运动产生了影响。在此过程中，东学农民军在全罗道蔚山设立了负责治安和行政的民、官合作（治理）机构“执事所”。

东学农民革命档案包括东学农民编制的文件、政府报告、个人日记和文集、各种任命书等。通过这些资料，可以从多种角度找到农民运动的进行过程及其意义。特别是作为朝鲜时间和场所，从多种角度综合反映人类权利平等、反对殖民主义等的记录物，具有稀有性。

通过联合国教科文组织世界记录遗产的收录，《东学农民革命记录物》作为朝鲜百姓追求自由、平等、人权普世价值的记忆存储库，获得了世界历史重要性的认可。

Korea Heritage Service

News & Events | Explore Heritage | UNESCO Heritage | About Us | FAQ

### Memory of the World

Memory of the World, Republic of Korea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 nominated heritage is a collection of 185 documents associated with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 Donghak revolution was a popular uprising against both corruption in the ruling class and encroachment on Korea by foreign powers, demanding the establishment of a more just and equal society. Over the course of the revolution, the Donghak army succeeded in establishing a cooperative governing unit known as a jipgangsso through which corrupt officials could be punished and unfair government practices rectified. This unit of governance was a novel experiment in democracy with parallels rarely found anywhere in the world at the time. The Donghak revolution paved the way for Korea to develop into a flourishing democracy. The revolution inspired the First Sino-Japanese War and laid the groundwork for the proclamation of the First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nominated documents serve as a reservoir of memories testifying to the historical processes through which the public acted as a protagonist in history and impelled the course of events toward the achievement of universal val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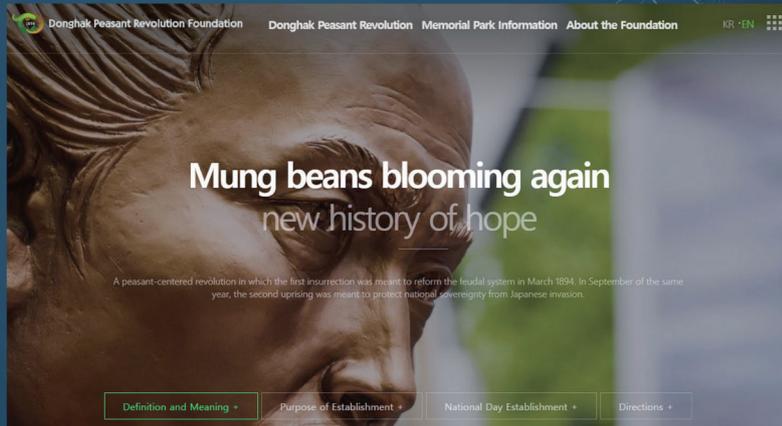
Materials produced by members of the Donghak Peasant Army No. 3 (Letter written in Jeongju by Han Dal-mun to the 'madam' back home)

Materials produced by members of the Donghak Peasant Army No. 3 (Letter from the 9th month of 1894 appointing Chooa Jo-gwon to be a jipgangsso local administrative official)

## II.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 현황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www.1894.or.kr)

- ✓ 한국어, 영어
- ✓ 기록물에 대한 내용 부재



## II.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 현황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소장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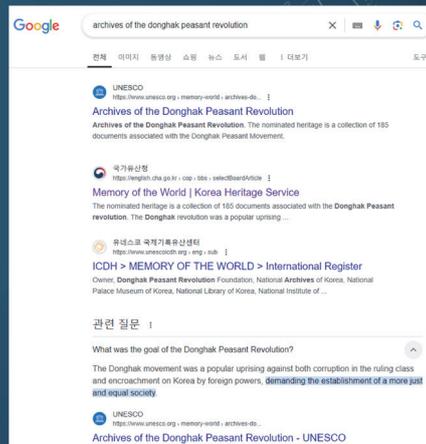
- ✓ 기관 내 소장 자료가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사실 홍보 부재
- ✓ 소장 기록물에 대한 개별 자료 설명 다양

연번	소장기관	건수(건)	비율(%)
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66	35.7
2	고려대 도서관	29	15.7
3	국가기록원	5	2.7
4	국립고궁박물관	1	0.5
5	국립중앙도서관	5	2.7
6	국사편찬위원회	5	2.7
7	독립기념관	2	1.1
8	서울대 규장각	58	31.4
9	연세대 <u>학술문화처</u>	3	1.6
10	천도교 중앙총부	9	4.9
11	한국학중앙연구원	2	1.1
	합계	185	100

## II.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 현황

- Google 검색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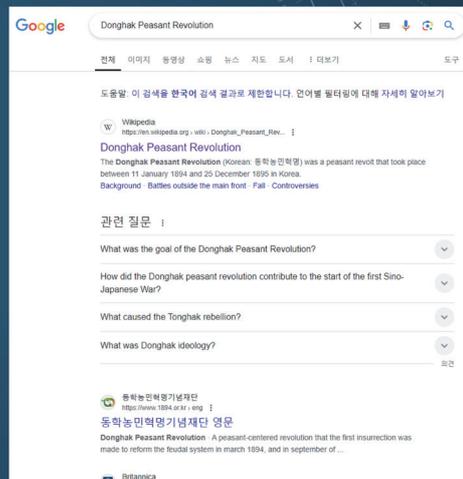
- ✓ 검색결과 유네스코,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가 가장 먼저 도출
- ✓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관한 국내 언론의 영문 뉴스, 소장기관의 영문 소식지 등



## II.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 현황

- Google 검색 “Donghak Peasant Revolution”

- ✓ 검색결과 위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브리테니카, 유네스코, 국가유산청 등이 먼저 도출
- ✓ 이외 뉴스, VISIT KOREA, Korea net 등 한국 홍보 관련 사이트



## Ⅱ.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 현황

### • Wikipedia 검색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 ✓ 위키 내에서는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항목은 작성되어 있지 않으며,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항목 내에 상위 10위 내 한국 (5위)이 표시되어 있고, 유네스코 직지상(Jikji Memory of the World Prize) 소개와 직지 이미지가 서술되어 있다.

- ✓ MOW 항목은 49개 언어로 위키에 수록

Top 10 countries by number of inscriptions [ edit ]

Rank	Country	Number of inscriptions
1	Germany	30
2	United Kingdom	24
3	Netherlands	21
4	France	20
5	Poland	18
5	South Korea	18
7	Austria	16
8	China	15
8	Russia	15
10	Spain	14

Jikji Prize [ edit ]

The Jikji Prize was established in 2004 in cooperation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further promote the objectives of the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and to commemorate the 2001 Inscription of the country's Jikji on the Register.<sup>[65][6]</sup> The award, which includes a cash prize of \$30,000 from the Korean government, recognizes institutions that have contributed to the preservation and accessibility of documentary heritage.<sup>[6]</sup>

The prize has been awarded biannually since 2005 during the meeting of the IAC.<sup>[6]</sup>

Recipients [ edit ]

- 2005: Czech National Library (Prague)<sup>[67][6]</sup>
- 2007: Phonogrammarchiv of the Austrian Academy of Sciences
- 2009: National Archives of Malaysia (Kuala Lumpur)<sup>[68]</sup>



The Jikji is the earliest known book printed with movable metal type in 1377.

## Ⅱ.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 현황

### • Wikipedia 검색 “Donghak Peasant Revolution”

- ✓ 동학농민혁명 항목은 22개 언어로 수록
- ✓ 영문의 경우 Background, Gyojo Shinwon movement, Gobu Revolt, First revolt, Toggle First revolt subsection, Summer of 1894 등 17개 목차로 구성
- ✓ 언어별로 목차와 내용 구성이 상이
- ✓ 일본어의 경우 세계기록유산등재 내용 포함

世界の記憶 [ 編集 ]

東学農民革命のアーカイブは2023年に世界の記憶に登録された[26]。

The screenshot shows the English Wikipedia article for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 article text is partially visible, discussing the revolt in 1894. On the right side, there is a 'Commanders and leaders' table listing various figures involved in the movement, such as Kim Gae-nam, Kim Gae-ryung, and others. Below the table, there is a 'Strength' section with a bar chart comparing the number of Korean and Japanese soldiers.

## Ⅱ.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 현황

- **Wikipedia** 검색 “Donghak Peasant Revolution”

✓ 카테고리

Categories: 1894 in Korea | 19th-century revolutions | Conflicts in 1894 | Donghak Peasant Revolution | Invasions of Korea | Korean nationalism | Protests in Korea | Rebellions in Asia

カテゴリ: 東学 | 李氏朝鮮 | 1894年の戦闘 | 1894年の朝鮮 | 1895年の戦闘 | 1895年の朝鮮 | 農民反乱 | 朝鮮の戦争 | 宗教戦争 | ユネスコ記憶遺産

分类: 朝鮮王朝戰爭 | 1890年代亞洲 | 朝鮮王朝叛亂 | 東學 | 1894年 | 1895年 | 农民起义

Catégories: Corée au XIXe siècle | Révolution au XIXe siècle | 1894 en Asie [+]

Categorías: Manifestaciones y protestas en Corea | Corea en 1894 | Revoluciones del siglo XIX | Dinastía Joseon | Conflictos en 1894

## Ⅱ.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 현황

- **Britannica** 검색 “Donghak Peasant Revolution”

✓ 동학농민혁명의 표제어는 [Donghak Uprising \(Korean history\)](#)

**Donghak Uprising**, (1894) Korean mass revolt that sparked the first Sino-Japanese War (1894–95). Despite being persecuted for it, impoverished Koreans turned increasingly to Donghak (“Eastern Learning”; see *Cheondogyo*), a syncretic, nationalistic religion that opposed Western culture and espoused equality of all people. When demonstrations staged by Donghak followers calling for social reform met with a negative government response, the masses united with them in a rebellion that succeeded in defeating government troops in southern Korea. The government called on *China* for aid; *Japan* sent in troops without being asked, and China and Japan clashed. The rebels laid down their arms to defuse tensions; nevertheless, the Sino-Japanese War ensued. The leaders of the uprising, including *Choe Si-hyeong*, were executed.

The screenshot shows the Britannica search results page for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 search bar at the top contains the text "Donghak Peasant Revolution". Below the search bar, the results are listed as follows:

- Donghak Uprising (Korean history)**: The Donghak Uprising was a Korean mass revolt that sparked the first Sino-Japanese War (1894-95). Despite being persecuted for it ...
- Choe Si-hyeong (Korean religious leader)**: ... Donghak founder and calling for administrative reform. In 1894 he led the so-called Donghak Revolt against the "corrupt government." The ...
- Korea (historical nation, Asia)**: The Donghak Uprising and government reform - The international power struggle and Korea's resistance - Korea under Japanese rule - Military control - The March ...
- First Sino-Japanese War (1894-1895)**: Date: August 1, 1894 - April 17, 1895 ; Location: China - Manchuria - Korea ; Participants: China - Japan ; Major Events: Donghak Uprising - Battle ...

## Ⅱ.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 현황

- ❖ 세계기록유산인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 대한 소개는 유네스코(영어, 프랑스어),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영어), 국가유산청(영어, 중국어, 일어)에 불과하다.
- ❖ 구글 내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검색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네스코 외 한국 관련 홍보 사이트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뉴스 기사만 도출된다.
- ❖ 동학농민혁명(Donghak Peasant Revolution)은 위키에서 22개 언어로 소개되고 있으나 언어별로 내용의 편차가 크다.
- ❖ 브리टे니카 백과사전에서는 Donghak Uprising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다.
- ❖ 이외 한국 관련 외국어 누리집에서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소개는 없다.

## Ⅲ.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 방안

-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를 위해서는 먼저 동학농민혁명과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 대한 인식을 넓혀 나가야 하며 다음으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가지는 세계사적 보편성을 공유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 인식 확대와 가치 공유는 단계별 절차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식 확대는 세계의 보편적 가치가 수반될 때 유용하기 때문이다. 즉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 대한 정보 전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정보의 소개 이외에 세계인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 ❖ 이러한 과정은 세계인만이 아닌 한국인에 대해서도 필요하다.

### Ⅲ.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 방안

❖ 세계화를 위한 전략 방안(김형민, 「한국문화의 세계화 전략방안」 『독일언어문학』 54, 2011)

- 1) 세계문화의 일원으로 한국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
- 2) 국제 문화교류 전담기구와 일관성 있는 정책 개발
- 3)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 강화
- 4) 외국에 알릴 수 있는 한국의 '문화요소' 발굴
- 5) 민족주의적 색채 지양
- 6) 세계화 과정의 저해 요소 개선 또는 제거
- 7) 국제사회의 예의범절과 외국어 학습
- 8) 국외 한국학 연구소 및 한국문화원 설립 지원
- 9) 외국 유학생과 한국어 학습자 양성
- 10) 해외 교포의 한국문화 이미지 조성
- 11) 한국문화 소개 책자 개발 보급
- 12) 한국문학작품의 외국어 번역 소개
- 13) 대중매체의 적극적 활용
- 14) 국가브랜드 상승을 위한 현대 생산기술문물 홍보
- 15) 문화 관광 상품 보급
- 16) 국내 우수 기업의 참여 확대

### Ⅲ.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 방안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에 대한 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

- 첫째, 세계화의 내용 \_ 무엇을 세계화 하는가?
- 둘째, 세계화의 대상 \_ 누구를 대상으로 세계화 하는가?
- 셋째, 세계화의 주체 \_ 구체적인 실행의 주체는 누구인가?

세계화의 내용은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역사적 가치와 세계 보편적 가치이다.

세계화의 대상은 한국인을 포함한 세계인이며, 대상에 따른 다양성이 필요하다.

세계화의 주체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실행 주체를 설정해야 한다.

세계화 방안은 위 세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 Ⅲ.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 방안

### ❖ 세계화 내용에 따른 세계화 방안

#### 1.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등 한국세계기록유산 설명자료(on-off) 제작(다언어)

- 한국 세계기록유산 누리집 제작 또는 확대
  - 국가유산청 세계기록유산 내용 확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누리집 내 동학농민혁명기록물 DB 구축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등재 기록별 자료 소개
  - 등재 목록 자료의 맥락 설명자료 구축
-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역사적 가치와 세계사적 의미 설명
  - 학술자료의 인식 확대를 위한 대중화 작업

## Ⅲ.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 방안

### ❖ 세계화 내용에 따른 세계화 방안

#### 2. 국제적 웹 정보 확충 및 활용 강화

- 위키, 브리टे니카 등 웹 백과사전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분석
  - 2020년 세계 309개 언어커뮤니티 중 1위 문서 생산은 영어권 위키
  - 내용 유무 및 정합성, 카테고리 등 분석
- 웹 백과사전 내용 확충
  - 오류 수정 및 내용 보완, 언어별 내용의 동질성 확보
- 주요 국가별 한국 관련 Influencer 대상 정보 제공
  - 온라인 콘텐츠 생산자에 기록유산 및 연계 관광정보 등 제공

## Ⅲ.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 방안

### ❖ 세계화 내용에 따른 세계화 방안

#### 3. 동학농민혁명 국제네트워크 협력 강화

- 국제학술회의
  - 동학농민혁명의 연구 확산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지속적 개최
  - 학술회의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국외연구 확산과 보편적 가치 국제 비교 등을 중심으로 운용
- 혁명도시 네트워크
  - 근현대 민주주의 관련 혁명 주도 도시(지역) 협력

## Ⅲ.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 방안

### ❖ 세계화 대상에 따른 세계화 방안

#### 1. 국외 한국 연구자 및 학생

- 국외대학 한국학 현황
  - 2023년 107개국 1,408개 대학에서 한국학 프로그램 개설  
(551개 대학 한국학 학위과정 운영, 857개 대학 한국학 교양어학원 프로그램 운영)
- 한국학 교육과정 중 한국근현대사 교육 지원
  - 국외대학 한국학(역사) 교수 대상 동학농민혁명 연구교육자료 제공
- 한국학 개설 국외대학에 동학농민혁명 관련 도서 보급
  - 한국학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551개 대학 도서관에 도서 보급

## Ⅲ.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 방안

### ❖ 세계화 대상에 따른 세계화 방안

#### 2. 재외 한국인 및 친 한국 외국인

- 재외동포청 협력 사업 발굴
  -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및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 사업 참여
- 한국 소개 웹 사이트 정보 구축 및 제공
  - Korea net, Study Korean, Visit Korea, 재외교육기관포털(OKEP) 등
  - 교육 및 설명자료 제공 및 구축협력
- 지자체 연계 협력 사업
  - 재외동포 및 국내 유학생 대상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참여 활용

## Ⅲ.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 방안

### ❖ 세계화 대상에 따른 세계화 방안

#### 3. 한국학 관련 박물관 등 기관 협력

- 한국문화원 및 세종학당 자료 보급
  - 85개국 248개소 세종학당 운영
  - 30개국 35개 한국문화원 운영
- 해외 박물관 내 한국관 운영 박물관 전시 지원
  - 국립중앙박물관 '국회박물관 한국실 지원사업' 협력(24년 9개국 21개관 지원)
  - 동학농민혁명기념물 포함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해외특별전 개최
  - 주요 기록물 복본 제공

### Ⅲ.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 방안

#### ❖ 세계화 주체에 따른 세계화 방안

##### 1. 문화체육관광부

-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해외홍보 추진 계획(2024-2027)”



추진전략	추진과제
<b>통합성</b> 핵심가치 중심의 해외홍보	1-1 핵심가치 중심의 해외홍보컨셉 설계
	1-2 글로벌 공감형 홍보의제와 선도적 담론 발굴
	1-3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대외메시지 발신
<b>개방성</b> 공신력 있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2-1 AI 기반 외신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2-2 디지털 한국정보의 중심, 'K-Info Hub'
	2-3 핵심 웹사이트 내 바른 한국정보 유통 촉진
	2-4 정부대표 다국어 뉴스채널의 품질 제고
<b>연결성</b> 새로운 파트너십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	3-1 파급력 있는 비제도권 뉴미디어 협력 확대
	3-2 한국에 대한 관심 외신과 지원채널 확장
	3-3 세계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한국홍보콘텐츠
	3-4 국제방송을 통한 국가홍보 역할 강화

### Ⅲ.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 방안

#### ❖ 세계화 주체에 따른 세계화 방안

##### 1. 문화체육관광부

- 「위키피디아」 등 주요채널 통한 한국정보의 체계적 제공
  - 영문 위키피디아 내 한국 정보 유통 현황 조사, 누락 정보확인
  - 전문가 집단, 기관과 연계 정확한 정보 등재 및 기술 확대
  - 외국인 이용 핵심 채널의 정보 연계 활성화 및 유효성 검증 (주요 검색 엔진, 생성형 AI, 관련 부처·공공기관 누리집)
- 접근 경로별 다각적 정보의 제공·관리
  - 종합적인 한국정보 현황 파악, 모니터링 분석 관련 자료 제공

## Ⅲ.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 방안

### ❖ 세계화 주체에 따른 세계화 방안

#### 1. 문화체육관광부

- 비제도권 소셜미디어 협력 대상 확대
  - 주한 외국인 오피니언 리더, 디지털 저널리스트, 인플루언서 등
  - 초청 및 지원
- 소셜미디어 한국홍보 지원 및 활용 체계화
  - 글로벌 인플루언서 DB 구축 활용
  - 협업 가이드라인 마련
  - 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 제작

## Ⅲ.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 방안

### ❖ 세계화 주체에 따른 세계화 방안

#### 1. 문화체육관광부

- 해외 거주 외국인의 한국문화 홍보 활동 독려
  - K-인플루언서 유튜버 전문가 과정 교육 - 한국 전문 유튜버 육성
  - 국제 공모전, 외국인 시각의 한국 홍보 콘텐츠 제작
- 주한·방한 외국인 그룹과의 파트너십 구축
  - 글로벌 한국홍보 네트워크 신설\_ 주한 외교단, 외신, 관련 학계, 유학생
  - 언어권별, 그룹 특성별 주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생활 지침서' 제작 제공
  - 주한 외국미디어 네트워크

## Ⅲ.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 방안

### ❖ 세계화 주체에 따른 세계화 방안

#### 2.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포털 내 유네스코 등재유산 내용 확충
  - 국가유산포털 내 유네스코 등재유산(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개괄 소개
  - 세계기록유산의 경우 '세계기록유산이란?'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등 2개 항목(외국어의 경우 한국세계기록유산만 소개) 각 기록유산 내 기록 개요와 4종의 기록물 소개
  - \* 유네스코는 등재신청서 제공
-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동학기념재단 누리집에 연계하여 서비스할 수 있도록 고도화

## Ⅲ.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 방안

### ❖ 세계화 주체에 따른 세계화 방안

#### 2. 국가유산청

- 세계기록유산별 도록 제작 보급
  - 세계기록유산 영문 도록을 제작하여 보급(기록성격, 수량 등을 고려 통합 제작)
  - 도록은 E-Book으로 국가유산포털에 탑재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등 세계기록유산 복본 제작\_ 전시활용
  - 세계기록유산 중 복본이 제작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 전시 교육 등의 활용을 위한 주요 기록물 복본 사업 추진

## Ⅲ.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 방안

### ❖ 세계화 주체에 따른 세계화 방안

#### 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세계기록유산 신청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소장 기관협의회 운영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관리 및 국내외 확산 방안 협력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관리 종합계획 수립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소장기관의 관리 실태
  - 외국어 소개 현황 조사 분석
  - 교육 및 연구 추진 계획, 홍보 등 대중화 계획

## Ⅲ.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 방안

### ❖ 세계화 주체에 따른 세계화 방안

#### 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DB구축
  - 동학농민혁명 사료 아카이브 고도화
  - 세계기록유산 등재 목록 내용 구성 및 DB연계
  -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원문이미지 및 텍스트, 번역문 등 종합 구축
  - 세계기록유산 등재 목록 외국어 사이트 단계별 구축 구축(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등)

## Ⅲ.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 방안

### ❖ 세계화 주체에 따른 세계화 방안

#### 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주요 동학농민혁명기록 외국어 번역 추진
  - 국외에 소개할 대표적인 동학농민혁명기록(무장포고문, 폐정개혁안, 전봉준공초 등)의 외국어 번역
- 국외 보급 소개 설명자료 제작 및 배포
  - 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도서 제작(외국어)
- 웹 데이터 구축
  - 위키피디아 항목구축(한국어 구축 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추진)
  - 위키의 세계기록유산 내 기록물 항목이 있는 것은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동의보감, 일성록, 난중일기,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한국의 유교책판 등 8개

## IV. 맺음말

- 세계유산이나 인류무형유산과 달리 세계기록유산은 특성상 유산 자체의 홍보와 활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세계기록유산인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도서나 누리집이 없는 상황에서 세계화 방안을 논하는 것은 성급한 면이 없지 않다.
- 세계유산인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어떻게 관리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이 먼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앞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위키피디아와 같은 글로벌 사이트 내 정보 구축이다. 도서나 웹사이트 구축과 달리 위키는 정보의 수정이 용이하며, 번역을 통해 다국어 버전이 가능하다. 또한 위키 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정보의 오류와 왜곡을 바로 잡아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지자체 등의 사업과 연계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4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국제학술대회

## 2부





##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 내포된 가치와 의미”에 대한 토론문

김양식 청주대학교 교수

본 발표는 서구 중심적인 근대 가치와 민주주의를 비판하면서, 동학농민혁명과 민주주의 및 평등주의에 대한 대안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동학농민군의 죽음 속에 담긴 풍부한 의미들을 새롭게 이해하고 현 인류사회의 과제에 도움을 주는 실천적인 새로운 역사상을 구축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앞으로 동학농민혁명 이해와 연구에 새로운 문제의식과 연구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큰 연구지평을 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발표자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좀더 논의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발표의 주제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 내포된 가치와 의미’이나, 실제 발표 내용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성에 관해 집중되어 있다. 물론 포괄적인 측면에서 발표주제와 내용이 상이한 것은 아니지만,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의미’와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가치와 의미’ 주제는 분명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발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어떻게 다루고 기억해야 하는지 보충 설명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둘째,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총 185건으로, 그 가운데 동학농민군 진압 기록물이 138건 74.6%나 된다. 이들 기록물은 동학농민군을 무력 진압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것으로, 지배계급과 국가권력의 폭력을 수반한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동학농민군의 체제 전복 가능성이 높았다는 반증인 동시에, 적대 계급과 권력의 폭력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폭력성을 은폐하기 위해 정치개혁을 단행하고 법·제도적 근대성으로 위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계급적·국가적 폭력을 불러일으킨 동학농민군의 저항과 체제 균열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셋째, 1893-1894년에 분출된 민중들의 민회 등은 19세기에 밑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축적된 공론 경험과 그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질서 수립을 위한 저항이나, 그것이 개화파들의 향회 개설론으로 민으로부터의 공론체계가 해체와 수용을 겪으면서 주체의 전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구도, 즉, 밑으로부터 이루어진 지역 중심의 민회(자치회) 움직임과 이를 위로부터 이용·수용하고 관제화하려는 시도는 적어도 1960년대까지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며, 1970년대 독재 권력에 의해 추진된 새마을운동이 전개되면서, 19-20세기 장기간에 걸친 밑으로부터의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민회의 지속가능성과 역사적 에네르지는 완전히 해체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기에 분출된 민회와 집강소 설치의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할 때 발표자가 기대하는 동학농민군의 집강소 활동 등에서 민주주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뿐만 아니라 집강소의 지향성은 신분과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서려는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민중들의 공론에 기반한 자치권력과 아래로부터의 정치질서 수립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오늘날 추진되고 있는 읍면단위의 주민자치회 운영과도 역사적인 맥이 통한다.

넷째, 발표 소주제인 ‘동학농민혁명과 평등의식’에서 동학농민군의 경제적 평등사상은 여러모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곡 등을 빈민에게 헐값에 판 것, 농민군을 의군으로 찬미한 것을 소수 사람이 부를 독차지하게 할 수 없다는 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군사 규율과 평균분작 등에 대한 해석 역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평균분작’은 폐정개혁안 12개조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 만큼 선택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서 동학농민군의 평균분작 활동은 찾아보기 힘들다. 평균분작은 역둔토의 경우 농민층의 강력한 요구사항으로, 1900년 전후 농민층이 올린 소장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런 만큼 1894년에도 역둔토·균전의 경우 비록 기록물에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동학농민군이 요구하고 실천하였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동학농민군이 평균분작을 통해 지향한 경제적 평등주의를 실제 역사 사실로 볼 수 있는지, 국공유지·사유지를 비롯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등이 추가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분명한 사실은 서구적 평등주의와는 개념적 이해를 달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동학의 유무상 자라든가, 동학농민군의 행동강령, 이천식천, 3경사상 등은 경제적 평등관을 넘어선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 속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홍익인간사상, 삼재사상, 성리학의 세계관과 생명사상, 유학의 의리론 등이 복합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할 때 발표자의 주장처럼 서구중심적/근대중심적 역사인식에 벗어나 보다 주체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역사상을 재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말해주는 냉혹한 진실은 계급모순의 폭력성이다. 많은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보여주는 내용은 극단의 계급관계, 계급갈등, 계급인식 등이다. 계급적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심지어 외세를 끌어들이어 계급적 이해관계와 권력을 재생산한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이와 같은 계급적 폭력성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평등주의의 최대의 적으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통해 계급모순의 작동방식을 분석하고 비판적 대안을 찾아내는 것은 발표자가 강조한 ‘인류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도움을 주는 새로운 역사상 구축’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 나타난 계급문제를 발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 싶다.

##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구성과 특징”에 대한 토론문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2015년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이래로 8년에 걸친 노력 끝에 마침내 2023년 5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등재추진위원회의 간사의 역할을 수행한 당사자로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만열 등재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추진위원들께서 진심으로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등재될 때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이와 관련하여 해야할 많은 일들이 추가적으로 생겼고, 국민들은 기록물뿐만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를 잘 활용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기록유산 추진의 실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간단한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토론자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조재곤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구성과 특징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재곤 선생님 역시 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조재곤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자께서는 기록물의 현황 그리고 생산주체별로 동학농민군 생산기록물, 민간기록물(진압, 건문), 조선정부 생산보고서와 공문서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물의 구성과 특징을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등재추진위원회에서는 기록물의 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많은 논의 끝에 생산주체별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동학농민혁명의 주체인 동학농민군, 이를 진압한 조선정부, 그리고 제3자인 민간에서 각각 자기들의 관점에서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여기에 참여한 주체별로 정리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분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류

가 아닌 다른 분류도 의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지류, 사진, 영상 등 기록물의 형태별로 분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분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다른 방법으로 분류한다면 어떤 분류체계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분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대상과 범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번에 등재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185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이 185건 이외에도 훨씬 많은 기록물이 있습니다. 등재추진위원회에서 등재 대상을 결정할 때 문화재청의 의견, 전문가의 자문을 참고하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것은 등재추진 대상 기록물은 국가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보존과 관리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185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정되지 않은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어느 정도나 되며 그중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록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세계기록유산(2023년 기준)으로 등재된 기록물은 총 494건이며 우리나라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포함하여 총 18건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독일이 30건으로 가장 많고, 영국 24건, 네덜란드 21건, 프랑스 20건, 대한민국 18건으로 5번째로 많은 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등재 기록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자께서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자체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셨고 다른 세계기록유산과 비교를 통해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가치와 의미를 설명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세계기록유산 등재기준의 독창성과 희귀성이라는 기준에서 다른 기록물(세계, 우리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독창성과 희귀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의미부여를 할 수 있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 방안”에 대한 토론문

이동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선임전문관

세계기록유산은 유네스코의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 주요 사업이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에게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기록물을 등재하는 것은 물론 이를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보존·관리하고 일반 대중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적극적 활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사업은 상술한(국제목록) '등재(Inscription)' 과정 및 결과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도 그 존재와 중요성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 등 유네스코의 여타 지정유산 사업과의 명확한 구분을 힘들어하는 문제점은 있지만, 이와 별개로 한국의 오래되고 체계적인 기록문화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이름으로 등재되면서 일반 대중의 관심이 제고되는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2017년부터 4년간 유네스코는 세계기록유산 제도를 개편한다는 명목으로 잠시 신규 등재를 중단하기도 하였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2021년 제도 개편 직후 재개된 국제목록 등재심사과정을 거쳐 4.19혁명기록물과 함께 등재에 성공하였고, 장장 6년만의 신규 등재여서 그 기쁨과 의의가 더욱 크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준상 보편적 가치를 아우르는 세계적 중요성(World significance)을 인정받았음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비롯한 세계기록유산 등재 건은 등재를 계기로 향후 보다 확장·확대된 인식 제고와 활용을 위한 다양하고 가시적인 일련의 활동을 전개해야 하는 일종의 의무를 지니게 된다. 아울러 이러한 세계적 중요성에 기반한 국제목록 등재 건은 필연적으로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저변 확대, 기록물 내용과 그 의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체계적인 교육·홍보, 국내외 여하한 교류 협력 활성화 등을 목표로 상시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이미 기록물에 담긴 세계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기록유산에 등재되었지만, 이는 전문가적 시각에서 기록물에 담긴 이러한 가치를 평가하고 확인한 것이어서 일반 대중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고 비전문가적 시각 및 접근법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등재 이후 세계화 방안은 해당 기록물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거나 미미한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정확한 정보를 학습하여 향후 자발적으로 유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심화 학습 및 활동까지 이어지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 방안”에서 접근하고 있는 현황과 방안은 전체적으로 시의적절하고 가용한 자원상 접근과 현행 경향성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발표 초반 지적과 같이 세계기록유산이 다른 유네스코 지정유산과 달리 등재 자체만으로 ‘세계화’를 담보할 수 없으며, 기록물이 19세기 말 한반도와 이를 둘러싼 지정학적 배경 하에서 생산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정보가 부족할 경우 개별 기록물은 물론 기록유산이 갖는 의미와 인식 공유가 어렵다는 점은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비롯한 기록유산 전반적으로 향후 세계화 과정 중 짊어져야 할 어려운 숙제이다. 다행히 지금까지의 세계화 과정과 이를 견인한 기술 발전은 직접 이동 없이도 원하는 언어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또한 등재 당시 준비했던 영문 등재신청서는 물론 기록물을 둘러싼 역사적 배경과 의의, 개별 기록물에 대한 심화 연구 내용 등을 어렵지 않게 온라인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오늘날 절대 다수의 정보 검색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및 웹 자원에 기반한 원격 접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웹사이트를 활용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화 또한 현존하는 정보의 질적 향상과 개선, 그리고 다양한 모듈과 미디어를 동원한 양적 확대 방안이 집중해야 할 것이다.

질적 향상 및 개선이라 함은,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온라인 상 동학농민혁명 및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 대한 다국어 정보가 정확하게, 그리고 일반 대중의 인식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아울러 타국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부정확성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관련하여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구글 검색창이나 유네스코, 위키피디아를 비롯한 세계기록유산 관련 정보 제공 플랫폼 상의 현행 정보를 폭넓게 확인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이며 또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구글의 일반 검색창 외에도 Google Books, Google Scholar 등 세부 검색 방식에서도 해당 내용 및 성과 등이 어떻게 검색되는지를 살펴보고 모니터링 하는 것도 보완적 차원에서 제고가 필요하다. 한국 검색 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네이버에서의 검색 결과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식인 코너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일반 대중의 궁금증 해소를 적시에, 그리고 최대한 정확하게 제공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언어의 다양성은 최대한 많이 추구해도 좋겠지만 무작정 제공 언어 수를 늘리기보다는 효율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일종의 기준(예: UN의 6대 공용 언어인 영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아랍어를 기본으로 하되, 예산 제약상 선택해야 한다면 영어, 불어, 중국어 정도는 필수 제공, 만약 추가한다면 동북아 관계사적 측면에서 일본어 추가)을 갖고 접근할 것을 권장한다. 아울러 현재 접근 가능

한 정보간 내용 편차를 줄이면서 한국 바깥에서 제공하는 정보 중 부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즉시 합법적 범위와 방식 하에서 수정을 요구하여 지체 없이 정확한 정보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과 관련한 1차 자료가 처음 웹 정보로 제공될 때 정확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함과 동시에 원 자료의 게재 및 가공시 원작자 및 저작권 표기를 명기하여 처음 제공한 자료의 무분별한 수정 과정 중 잘못된 정보가 나갈 가능성을 최대한 막을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모듈을 동원한 양적 확대라 함은,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정보들에 더해 다양한 층위(기본 정보 및 연령·교육·흥미에 따라 가공한 정보 등)와 표현방식(아날로그와 디지털 형식을 막론한 구현 가능한 모든 미디어 활용)을 고려한 전방위적 정보 제공을 의미한다. 사실 전문적인 연구자가 아니라면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구성하는 개별 기록에 대해 세세히 알기도 어렵고 굳이 알 필요도 없다. 다만 국내외 일반 대중 공히 정확한 사실관계와 인과관계, 그리고 그 역사적, 현재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에 동 발표에서 제시한 일종의 지한파(知韓派) 양성 과정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반드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방안임에 틀림없으며, 이와 함께 오늘날 대중에게 널리 받아들여지는 미디어 플랫폼과 양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즉, SNS에서 유통할 수 있는 짧은 호흡의 미디어 포맷(쇼츠, 릴스) 형태로 정보 제공 및 흥미 유발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대중 전문 강연 프로그램이나 정보 제공 목적의 시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전문가와 인플루언서가 함께 하는 1회성, 혹은 길지 않은 시리즈 형식의 영상 제작, 유치등부를 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시리즈 제작 및 보급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에 언급한 내용들은 아주 깊은 수준의 정보 제공은 어렵지만 일반 대중이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처음부터 영어를 기본 제공언어로 하거나 다언어 자막을 동시에 제공·배포한다면 그 성과가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고 적극 확산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화 방안 제고를 위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중심이 되어 유관 부처 및 기관, 지자체, 전문가 계층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세계화자문(소)위원회(가제)” 구성을 통해 동 발표에서 제기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보다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와 함께 기록물의 세계화와 관련하여 국내에 소재한 기 등재 기록유산들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국내외 다양한 사례들을 둘러봤을 때 기록유산의 세계화 작업은 1년 단위 예산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 증진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3-5년 단위의 중장기적 시각에서 예산 배정 및 사업 운용을 계획하는 접근법 또한 필요할 것이다.



202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O THE WORLD





202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Expanded Resources for Global History

Suh kyung Ho chair National MOW committee

##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EXPANDED RESOURCES FOR GLOBAL HISTORY

Kyung Ho Suh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Chair, National MOW committee, Republic of Korea

### OVERVIEW

The MOW Programme celebrated its 30th Anniversary in 2022.

Aim of the Programme

- To safeguard documentary heritage in danger.
- To preserve documentary heritage as shared property of humankind
- To raise awareness on the significance of documentary heritage
- To enhance access of public audience to documentary heritage

## **KEY STRATEGY**

Inscription of significant documentary heritage to International, Regional and National Registers.

Since the inscription began in 1997, 494 records have been inscribed on the International List.

## **EFFECTS OF INSCRIPTION**

National pride by international recognition

Increased awareness and access

Better environment for preservation

Efforts to locate neglected documents

Alternative interpretation of historical value

## **UNPREDICTED OUTCOME**

MOW as a platform to demonstrate the contribution to development of civilization by each community.

MOW as a platform to illuminate sociocultural commonality and diversity across the world.

MOW as a platform to bring new historical knowledge beyond the existing historical narrative.

## **MOW'S CONTRIBUTION TO BROADENING HISTORICAL HORIZON**

More knowledge on details of the slavery system.

Advancing the memories of colonial past.

Anxiety of the rulers encountering European advance.

The process of nation building in the post-colonial period.

## **MOW'S 30 YEARS COINCIDES WITH EMERGENCE OF ALTERNATIVE HISTORICAL NARRATIVE**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by Benedict Anderson, 1991

*The great divergence : China, Europe,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economy,* by Kenneth Pomeranz, 2000

*Sapiens: A Brief History of Humankind,* by Yuval Noah Harari, 2014

*How the world made the West: a 4,000-year history,* by Josephine Quinn,  
2024

## **THE ARCHIVE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A document that illuminate peculiar orientation of religious  
communities in East Asia

A document that represent one of the religion-based uprisings in  
East Asia.

## EARLIER CASES OF UPRISING BY RELIGIOUS SECTS IN EAST ASIA

**Yellow Turban Rebellion** in the 2nd century, led by secret society leaders who mobilized an army of peasants with the peculiar Taoist doctrine of the sect, lasted for 20 years and brought the fall of the Han Dynasty.

**White Lotus sect**, born in the 5th century as esoteric religion that blended Buddhism and Taoism, fueled the impetus for the Red Turban Rebellions in the 1340s. Another revolt by this sect erupted in the 1790s that had eroded the power of the Qing Dynasty.

**The Taiping Rebellion** in 1850, led by Hong Xiuqian, a frustrated candidate for the civil exam, who organized a new religious group with the impoverished peasants of southwest China. A dynasty, Taiping Tianguo (Heavenly Kingdom of Great Peace), was proclaimed, introducing communal ownership of property. China suffered 20 million casualties, devastating 17 provinces during a decade.

## DONGHAK PEASANT REVOLUTION : SHARED ASPIRATION FOR IDEAL SOCIETY

Concept of Communal Property

Social Equality

Gender Equality

Reminder: Das Kapital by Karl Marx first published in 1867.

## **ROLE OF RELIGIOUS FAITH IN EAST ASIA**

Religious Community for Collective salvation of the oppressed.

Religious teaching developed into the impetus for social reform

## **MOW'S IMPLICATION FOR GLOBAL HISTORY**

Understanding on the cultural diversity can enrich the global history.

Existing norms can be revisited with new evidence.

Alternative narrative with broadened horizon of history can be written by embracing elements of non-European cultures.

# The world historical value and meaning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rchives

**Helen Jarvis**

Chair of the Register Subcommittee of the Memory of the World Committee for Asia and the Pacific(MOWCAP)

One hundred and thirty years ago, in 1894, an amazing and ultimately world-significant event took place here in Jeonbuk Provin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common people rose up to demand a new society – the abolition of caste and class divisions in society, including the final abolition of the nobi(slave status); abolition of repressive taxation; mandatory trials before imposition of punishments; and the complete reorientation of government to recognise that “people are as valuable as heaven” and to place the welfare of citizens as its guiding principle.

Although long recognised in Korea, it took until last year(2023) for the significance of this event to be recognised at an international level when the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were inscribed on the International Register of UNESCO’s Memory of the World program.

We meet here today in Jeonbuk Province to celebrate this inscription. In doing so, we honour the memory of those who conceived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those who struggled to achieve its goals, even sacrificing their lives to do so. At the same time, we commend the efforts of hundreds of people who collected many hundreds of documents, preserving them for over more than a century to constitute this archive -- a treasure trove that proves that these events took place. And finally, we recognise and express appreciation for the wisdom and efforts of those who successfully managed to bring 185 documents from this history of Donghak onto the world stage with recognition as Memory of the World.

## Memory of the World

The Memory of the World(MoW) programme was established in 1972. It proclaims:

The world’s documentary heritage belongs to all, should be fully preserved and protected for all and, with due recognition of cultural mores and practicalities, should be permanently accessible to all without hindrance.

### **The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aims to:**

- Facilitate preservation of the world's documentary heritage, particularly in areas affected by conflict and/or natural disaster
- Enable universal access to documentary heritage worldwide
- Enhance public awareness about the significant of documentary heritage among the wider public

Perhaps the most visible aspect of MoW, although not by any means its only activity, is the series of registers of items of documentary heritage at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There is no hierarchy between these levels; the scope of the item's significance determines on which register it can be inscribed. Therefore, inscription on the International Register means that the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join 495 other items or collections of documentary heritage considered to be of world-wide significance, along with 19 others from Korea.

### **Inscription of the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 journey towards inscription on the International Register was long and complicated. It began with the 1994 commemoration of the centenary of the revolution, which focused attention on the value of any and all surviving documents. In 2004,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Special Act on the Restoration of Honor for Participants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conducted an extensive state-level survey on collecting records related to the event. In 2006, an archive of the Donghak Peasant Movement was compiled, and in 2010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was launched to systematically manage the materials. Five years later, the Committee for Inscription of the Archive of the Donghak Peasant Movement on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was formed in June 2015 to work towards nomination of this documentary heritage. A large number of national, regional and local institutions and individuals, both government and private, worked assiduously to this end, producing a nomination form, select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for submission for inscription on the International Register in 2017.

Coincidentally, an entirely separate process inside UNESCO led to a five-year freeze on the International Register, pending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and so the Donghak nomination was evaluated only in 2022, and eventually successfully inscribed by the Executive Committee of UNESCO in May 2023.

I will leave it to other speakers to outline the progress and object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failure to achieve its goal of overthrowing the Joseon Dynasty; but ultimate success in causing the adoption of many of its aims and having a profound impact on Korean society, many consider to be still influential today. I will limit my further remarks to the international significance of Donghak, and also some comments on the nature of the documents now placed on the International Register.

### International significance of the Donghak Archives

It is true to say that probably few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of Memory of the World, let alone the Executive Committee of UNESCO, who voted to inscribe the Archives had previously heard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is leads us to ask how can they be considered of international significance? Such a question can be asked of many, if not most of the 496 items or collections on the International Register. It is therefore a major challenge for the nominators to establish and to convince the evaluators of their case.

#### **For the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 following justifications were made:**

“The Donghak Peasant Movement was a significant event in the history of Korea but also in that of East Asia. This 19th-century uprising marked a transitional stage for Korea on its way from a feudal state to a modern democracy. The ideals expressed by the Donghak army were not immediately achieved in their complete form in the face of the domestic and foreign efforts to crush the movement. However, it holds great significance in the global history of democracy as an example of people rising up to fight to establish equality and justice in their society, as well as resisting encroachments on their sovereignty by foreign powers.”

“First, the Donghak Peasant Movement was a novel experiment in democracy that occurred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in Korea as it abandoned feudal practices to adopt a modern system. The movement realized a people-centered governance known as a jipgangso and brought about a series of modernizing reforms implemented by the Joseon government....

“Second, the Donghak Peasant Movement was mainly inspired by domestic concerns, but it developed into an international conflict and ultimately led to a shift in the longstanding geopolitical order in East Asia. The series of events triggered by the Donghak Peasant Movement led to the collapse of the longstanding Sino-centric order in East Asia and the emergence of Japan as a new superpower in the region....”

“Third, the Donghak Peasant Movement laid a foundation for developing democracy in Korea. The

Donghak Peasant Movement provided critical inspiration for subsequent social movements in Korea, such as the national opposition to Japanese colonial rule known as the March First Movement and, after liberation, a series of the human rights and pro-democracy movement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nominators go on to draw out the international scope of its significance: “This 19th-century peasant uprising of Korea finds ideological parallels in similar event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that were inspired by anti-imperialist, pro-independence, and modernizing desires. The nominated documents serve as a reservoir of memories testifying to historical processes through which people acted as the protagonists of history and impelled it toward the achievement of universal values.”

Clearly, the members of the Register Sub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Register, the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and the Executive Committee of UNESCO were so convinced, and voted to inscribe the nominated documents. In fact, through examining the 496 items and collections on the International Register, one’s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significance can be considerably broadened from what any one of us may have developed from the perspective of our own country. And it is in this way that the earlier heavily Eurocentric composition of the International Register is being gradually broadened to include items of significance to people of Africa, Asia and Latin and South America, as well as indigenous and marginalised peoples from all countries.

The same process is taking place in UNESCO’s other flagship heritage programs – World Heritag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oth World Heritage and Memory of the World programs assert their “universal” scope, but numerous studies have demonstrated the dramatic inequity in inscriptions on their respective lists and registers, and both programs seek to redress this.

Clearly, the continuing relative wealth and power of the former colonising countries enables them to devote more resources to participating in these programs and indeed to the ongoing challenges of identifying, preserving and providing access to their own heritage sites and documents. But another factor has been differing views as to what constitutes “value” or “negative aspects”.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has grappled with this, especially over the past decade. Nominations considered problematic were frozen, and only now are emerging from exile through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 Open-Ended Working Group(OEWG) on sites of memory associated with recent conflict. Following spirited interventions, led by African countries, three such sites were successfully inscribed in July 2023 in Argentina; France and Belgium; and Rwanda’s Genocide Sites, with South Africa’s Mandela sites recently inscribed in July 2024.

Meanwhile, a similar challenge wracked Memory of the World, leading(as mentioned above) even to freezing the International Register and Regional Registers 2017-2021, while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program was undertaken and new processes introduced for nomination, including possible contestation.

Increasingly, we can expect to see more sites of memory evaluated on their merits, and not just on their familiarity from European history books, and without this there can be no hope of achieving a representative list of world heritage, and the same imperative applies for documentary heritage.

### Distinctive Nature of the Donghak Archives

The nominated heritage is a collection of 185 documents associated with the Donghak Peasant Movement. Among the 185 nominated items, there are 65 papers, 118 books and 2 photographs/images.

Of particular interest, and in contrast to many documentary collections, the nominated collection consists of documents showing a number of very different perspectives, especially by direct participants as itemised below:

- (1) Documents produced by participants in the movement
- (2) Documents produced by other members of the Korean public
  - Documents produced by persons who suppressed the movement
  - Documents produced by persons who observed the movement
- (3) Documents produced by the Joseon Dynasty government

Date	Documents by participants in the movement	Documents by other members of the Korean public		Documents by the Joseon government	Total
		Documents by persons suppressing the movement	Documents by persons observing the movement		
1894-1895	26	13	9	115	163 (88.1%)
1896-1909	1	-	2	7	10 (5.4%)
1910-1954	3	3	6	-	12 (6.5%)
Total	30 (16.2%)	16 (8.7%)	17 (9.2%)	122 (65.9%)	185 (100%)

Among the 185 nominated items, 163(88.1%) were produced in 1894-1895 and 22 documents(11.9%) were produced from 1895 to 1954. Thirty(16.2%) were produced by participants in the Donghak Peasant Movement, 16(8.7%) by those who suppressed the movement, 17(9.2%) by observers based on what they saw and heard, and 122(65.9%) by the government of the Joseon Dynasty.

(It might be added parenthetically here that, in order to avoid any possibility of the nomination being seen as confrontational to Japan, the nominators voluntarily excluded one category of documents in their collection from nomination for inscription on the International Register in order to avoid the possibility a contestation to the nomination because these documents were produced by officials of the Japanese government).

### Conclusion

I am privileged and proud to be with you on this day and to have been able to play a small part in advising the nominators on aspects of international significance of this important collection. I very much look forward to our visit 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and to see some examples of the precious archives that have been so carefully preserved for 130 years, and are now being digitised and made publicly available to today's Korean population and to scholars and interested people around the world.

May I conclude my remarks by expressing my appreciation to our hosts, the National Heritage Administration, Jeonbuk Province, Jeongeup-si/ and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for my invitation to participate in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for the care and attention given over the past thirty years by so many people in collecting, preserving and now inscribing the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on the International Register.

202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Universal values of humanity and  
Memory of the World

Chair

**Heo Kwon** Former Secretary-General of the Asia-Pacific Center for  
the Preserv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Valeur et signification de la Déclaration originale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1789, 1791)

Céline Parcé Archivist of National Archives Museum

Adoptée le 26 août 1789 et placée en préambule de la Constitution de 1791, la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est l'un des textes les plus emblématiques de l'histoire de France. Né des discussions de l'Assemblée constituante et profondément lié au context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ce texte fondateur a aboli la Monarchie absolue et posé les bases de la société et des différents régimes politiques qui se sont succédé jusqu'à aujourd'hui en France. Parce qu'il s'adresse à l'homme dans son essence même, il a été inscrit sur le registre international de la Mémoire du monde de l'Unesco en 2003.

## L'élaboration de la Déclaration

### Des sources multiples

Dans le monde occidental, la Déclaration de 1789 n'est pas le premier acte à énoncer des droits. Plusieurs textes étrangers lui ont servi d'exemples. En 1689, suite à la Glorieuse révolution, la Charte des droits (« Bill of Rights ») définit les principes de la monarchie parlementaire en Grande-Bretagne. En 1776, les colonies anglaises d'Amérique rédigent des constitutions dont plusieurs comportent une déclaration des droits, et adoptent leur Déclaration d'indépendance. Cette dernière a particulièrement influencé les débats de l'Assemblée constituante française qui compte plusieurs députés ayant participé à la guerre d'indépendance américaine, comme La Fayette. S'appuyant sur la théorie des droits naturels, ce texte est souvent considéré comme la concrétisation de l'esprit des Lumières.

Ce mouvement philosophique s'étend en France des années 1680 à la fin du XVIIIe siècle. Il tire son nom de la volonté de combattre les ténèbres de l'ignorance par la diffusion du savoir. Cette pensée défend la tolérance, la liberté et l'égalité. Elle développe la théorie de la volonté générale (Rousseau) et l'idée de la séparation des pouvoirs (Montesquieu). Elle se soucie de la protection de l'individu contre l'arbitraire judiciaire et policier (Voltaire). Enfin, elle aboutit à la définition de droits naturels que chaque individu possède du fait de son appartenance à l'humanité (Encyclopédistes).

En 1789, les grands philosophes français des Lumières ont disparu (Voltaire et Rousseau en 1778, d'Alembert en 1783, Diderot en 1784), mais leurs idées ont profondément imprégné la société française. Largement diffusées à une époque où l'alphabétisation progresse, leur impact est considérable. Elles favorisent l'émergence d'une opinion publique et la désacralisation du système de l'Ancien Régime, comme en témoignent les cahiers de doléances rédigés suite à la convocation des états généraux par le roi Louis XVI au printemps 1789.

Sous l'Ancien Régime, les états généraux étaient des assemblées générales de la nation convoquées par le roi de France dans des circonstances exceptionnelles (crise politique ou financière, guerre, question diplomatique majeure). Ils réunissaient les trois ordres (ou états) qui composaient la société. Les deux premiers ordres, la noblesse et le clergé, bénéficiaient d'importants privilèges, notamment sur le plan de la justice et de la fiscalité. Le troisième ordre – appelé le tiers état – représentait les roturiers laïques (bourgeois, paysans, artisans, ouvriers), soit la très grande majorité de la population. Les députés de

chaque ordre étaient élus par des assemblées locales qui consignaient à cette occasion dans des cahiers de doléances les demandes et protestations qu'elles adressaient au roi.



Le Serment du Jeu de paume, par Jacques-Louis David, après 1791 (Musée Carnavalet – Histoire de Paris)

Dans de nombreux cahiers rédigés en 1789, la noblesse se résout à l'égalité fiscale. Mais, comme le clergé, elle n'entend pas remettre en cause ses privilèges. Le tiers état montre pour sa part un mécontentement profond dont l'une des sources est l'absence de constitution écrite. Il réclame la réforme de l'impôt et de la

justice, l'égalité fiscale et civile, et la protection de la liberté individuelle. Il dénonce ainsi le vieillissement des institutions et l'incapacité de la monarchie à se réformer, sans pour autant la remettre en cause.

Mais les états généraux ne sont convoqués que pour trouver une solution à la crise financière que traverse le royaume. Le 17 juin 1789, les députés du tiers état se proclament Assemblée nationale. Le 20 juin, dans la salle du Jeu de paume à Versailles, ils prêtent le serment de ne pas se séparer avant d'avoir donné une constitution à la France. L'Assemblée nationale devient alors constituante. Elle mettra fin à la monarchie absolue et conduira le pays vers une monarchie constitutionnelle, qui deviendra à terme une République.

### Une œuvre de l'Assemblée constituante

L'Assemblée constituante est rejointe fin juin par une partie des députés de la noblesse et du clergé. Elle nomme rapidement un comité chargé d'organiser le travail sur la Constitution. Le 9 juillet, son rapporteur Jean-Joseph Mounié propose de faire précéder la future Constitution d'une « déclaration des droits naturels et imprescriptibles de l'homme ». Un premier projet est présenté par La Fayette deux jours plus tard. Il est rapidement suivi de nombreux autres.

Mais le principe d'une déclaration ne fait pas l'unanimité au sein de l'Assemblée. Les débats sont vifs entre ses partisans et ses adversaires. Les enjeux dépassent le débat d'idées. L'Assemblée, qui est composée des députés des états généraux, n'a en effet à l'origine pas été élue pour être constituante. Adopter une déclaration proclamant les droits naturels lui permettrait de s'ériger en incarnation de la loi et lui donnerait une légitimité. Le 4 août, après avoir discuté de la question de doubler la déclaration des droits d'une déclaration des devoirs, l'Assemblée décrète que la constitution sera précédée d'une déclaration des seul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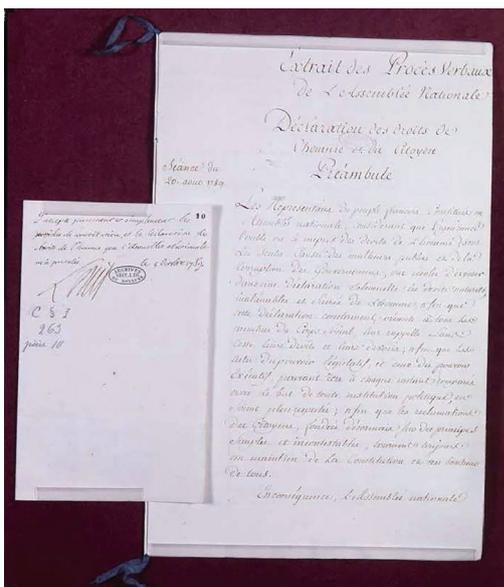
Ces travaux sont interrompus le soir même par les circonstances. En effet, l'annonce des événements parisiens du mois de juillet, et notamment de la prise de la Bastille le 14 juillet, avait engendré la crainte de représailles de l'aristocratie. La « Grande Peur » a déferlé sur le pays à partir du 20 juillet. Conjugée à une pénurie alimentaire, elle a provoqué des émeutes qui s'en prennent le plus souvent aux seigneurs. Dans la nuit du 4 août, face à l'ampleur de ce mouvement populaire et à l'effroi qu'il a provoqué chez les propriétaires fonciers, l'Assemblée abolit tous les droits et les privilèges féodaux. Si cette décision contribue à l'apaisement, elle marque surtout une rupture fondamentale et la disparition du régime féodal. Il convient alors de consacrer par une proclamation solennelle cette révolution juridique, politique et sociale qui marque le passage de ce que l'on appelle désormais l'« Ancien Régime » à une ère nouvelle, basée sur l'égalité juridique.

Le travail sur la déclaration reprend le 12 août, après l'adoption des décrets sur l'abolition des privilèges. L'Assemblée charge un comité d'examiner les nombreux projets de déclaration et de les fondre en un seul. Mais les députés sont peu satisfaits du projet présenté par celui-ci le 17 août. Le 19 août, ils adoptent comme base de discussion le texte aux formules conciliatrices, élaboré par l'un des bureaux chargés de préparer le travail de l'Assemblée avant les séances, le 6<sup>e</sup> bureau. Entre le 20 et le 26 août, ce texte est discuté article par article et ressort profondément modifié du débat. Deux articles seulement sont conservés sans modification. Le 27 août, seuls le préambule et 17 articles sont adoptés sur les 24 du projet initial. Mais l'Assemblée décide de suspendre la discussion pour s'occuper en priorité de la rédaction de la constitution, et de reprendre l'examen des derniers articles lorsque celle-ci sera achevée.

Résultat de divers compromis, la Déclaration de 1789 est l'œuvre collective de l'Assemblée. Élaborée alors que celle-ci définit encore ses procédures de travail, le processus qui préside à sa rédaction et à son adoption constitue une véritable expérimentation du travail parlementaire. Mais il ne suffit pas que le texte soit décrété par l'Assemblée pour qu'il puisse être appliqué.

## Un processus de proclamation complexe

En effet, le 11 septembre, dans le cadre de l'élaboration de la constitution, l'Assemblée accorde au roi un droit de veto suspensif. Par conséquent, pour que les décrets adoptés par l'Assemblée puissent devenir des lois, ceux-ci doivent au préalable être acceptés par le Roi. L'Assemblée doit donc faire ratifier par le roi Louis



Décret de l'Assemblée constituante du 2 octobre 1789 et billet du roi du 5 octobre 1789 (Archives nationales de France, cotes AE/II/2982 et E/II/2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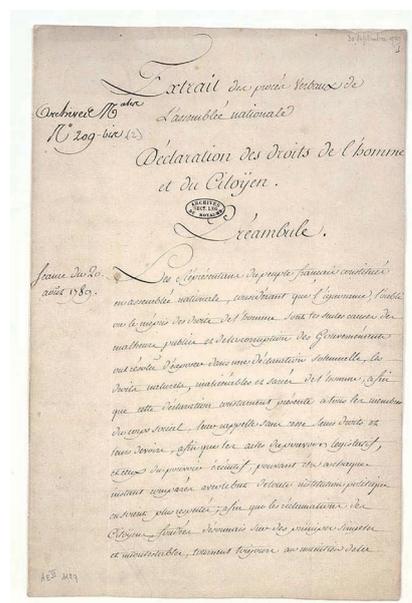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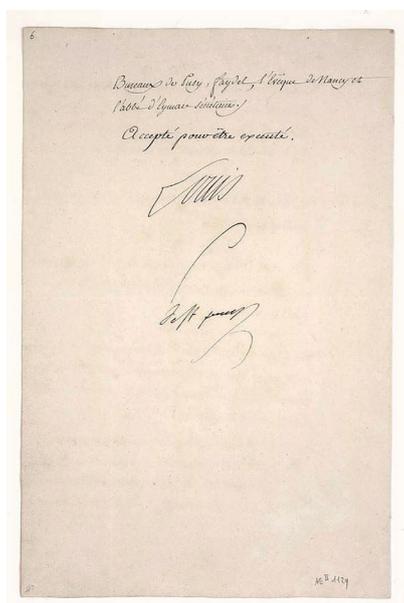
XVI les décrets adoptés au mois d'août sur l'abolition des privilèges féodaux et la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afin de pouvoir les mettre en vigueur.

Le préambule et les 17 articles de la Déclaration ont été adoptés au cours de plusieurs séances de l'Assemblée, entre le 20 et le 26 août. Ils font donc l'objet de plusieurs décrets distincts. Afin de pouvoir être présentés au Roi, ceux-ci sont regroupés et organisés au sein

d'un seul et unique décret qui est adopté par les députés le 2 octobre. Le jour même, le président de l'Assemblée se rend au château de Versailles pour le présenter au Roi, avec les décrets relatifs à l'abolition des privilèges féodaux.

Mais Louis XVI hésite à les approuver. Il ne s'y résout que le 5 octobre, sous la pression de l'Assemblée et d'une foule – essentiellement féminine – accourue à Versailles pour réclamer du pain. À cette date, l'Assemblée n'a pas encore défini les formes que doit prendre l'acceptation royale. Le Roi notifie donc son acceptation sur un billet écrit de sa main, et non directement sur le décret qui lui est présenté, comme ce sera l'usage par la suite. C'est par conséquent un ensemble de deux documents qui forme l'acceptation royale : le décret de l'Assemblée et le billet du roi. Cependant, les documents ne suivent pas le même sort : le décret de l'Assemblée est conservé par la Chancellerie royale, tandis que le billet du roi est remis à l'Assemblée constituan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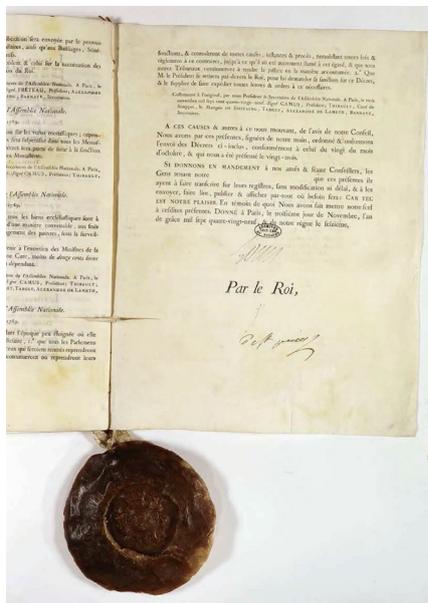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l'archiviste de l'Assemblée, Armand-Gaston Camus, demande à la Chancellerie royale de lui envoyer une copie du texte réunissant toutes les conditions d'un acte formel d'acceptation. Un document unique lui est adressé en mai 1790. Celui-ci reprend le décret de l'Assemblée du 2 octobre 1789, suivi de la mention « Accepté pour être exécuté » et de la signature du roi, avec le contresignt du ministre secrétaire d'État de la Maison du roi de Saint-Priest. C'est le premier texte original de la Déclaration qui réunit toutes les conditions de validité. Il constitue ainsi un véritable contrat entre le roi et la Nation.



Copie ultérieure de la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réunissant toutes les conditions de validité, mars 1790(Archives nationales de France, cote AE/II/1129)

Le 3 novembre 1789, la Déclaration est promulguée sur ordre du roi par des lettres patentes. Celles-ci ordonnent sa publication et son envoi dans tout le Royaume, afin qu'elle puisse être connue de tous et

appliquée par les tribunaux et les administr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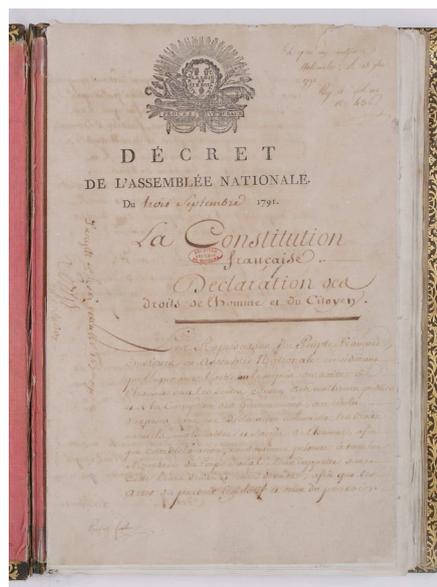


Lettres patentes du roi Louis XVI, 3 novembre 1789(Archives nationales de France, cote AE/II/1629)

En août 1791, l'Assemblée constituante a achevé la rédaction de la Constitution. Elle avait initialement prévu de revoir et de corriger le texte de la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avant de l'incorporer en préambule. Mais, celui-ci est connu du peuple sous son état provisoire depuis le mois d'août 1789, et il est déjà auréolé d'un caractère sacré. Par crainte de le dénaturer, l'Assemblée ne lui apporte que quelques modifications de forme avant de le placer en préambule de la première Constitution française qui est adoptée par l'Assemblée le 3 septembre 1791 et acceptée par le roi Louis XVI le 14 du même mois.

Contrairement à l'idée reçue, il n'existe donc pas un seul texte original de la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Il en existe six états différents, depuis les débats de l'Assemblée

constituante en 1789 jusqu'à la promulgation de la Constitution de 1791. Ils forment un ensemble cohérent qui retrace un processus juridique complexe. Cinq sont conservés par les Archives nationales de France. Il s'agit de ceux présentés ci-dessus. Le sixième est la première édition de la Déclaration réalisée durant l'été 1789 par l'Assemblée constituante et aujourd'hui conservée par la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Ils ont tous été inscrits sur le registre international de la Mémoire du monde de l'UNESCO en 2003 sous l'appellation «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1789, 1791) ».



Minute originale de la Constitution de 1791 précédée de la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Archives nationales de France, cote AE/I/10)

## La portée de la Déclaration

### Un contenu révolutionnaire

Profondément révolutionnaire, le texte de la Déclaration se compose d'un préambule et de 17 articles. Il est court et simple, rédigé dans une langue claire et compréhensible par tous.

Le préambule ne mentionne ni Dieu ni la religion, et place la Déclaration sous les auspices d'un Être suprême, acceptable par tous. Il annonce son projet, de rappeler à chacun ses droits, pour garantir le respect de la justice et assurer le bonheur de tous. Les premiers mots de l'article 1er, « les hommes naissent et demeurent libres et égaux en droits », résument la Déclaration. Il s'agit de l'article le plus connu, car il place la liberté individuelle et l'égalité au centre du nouveau régime, et signifie ainsi la fin de l'Ancien Régime qui était fondé sur l'hérédité et le cloisonnement. En détruisant les privilèges et les abus, la Déclaration instaure un ordre nouveau dont elle précise les principes fondamentaux dans les articles suivants.

Sur le plan des droits individuels, elle énonce et définit les droits naturels et imprescriptibles de l'homme que sont la liberté, la propriété, la sûreté et la résistance à l'oppression(art. 2). La liberté est entendue sous toutes ses formes(art. 1, 2, 7 à 11), tant qu'elle ne nuit pas à autrui(art. 4), et ne peut être limitée que par la loi(art. 5). Une série de dispositions assure la sûreté des individus face au gouvernement, en garantissant une définition légale des délits et des peines(art. 7 et 8), la non-rétroactivité des lois(art. 8), la présomption d'innocence(art. 9), la tolérance religieuse et la liberté des opinions(art. 10). L'égalité de tous devant la loi(art. 6), l'impôt(art. 13) et, selon les capacités, l'accès aux emplois publics(art. 6) est garantie.

La Déclaration précise également la nature du pouvoir et pose les bases d'une nouvelle organisation politique. Elle énonce les grands principes qui doivent présider à la rédaction de la future constitution et à la fondation des nouvelles institutions. Ainsi, la souveraineté réside par essence dans la Nation dont émanent tout pouvoir et toute autorité(art. 3). La loi est l'expression de la volonté générale(art. 6). Les citoyens y participent personnellement ou par leurs représentants(art. 3, 6 et 14). La séparation des pouvoirs législatif, exécutif et judiciaire est l'élément fondamental de l'organisation des pouvoirs publics(art. 16) qui sont responsables devant tous les citoyens(art.15). La Déclaration pose ainsi les bases d'un système représentatif qui proscrit tout retour à la monarchie absolue. La fonction du roi n'est pas pour autant remise en cause, mais il est sous-entendu que celui-ci, qui n'est pas mentionné, gouverne au nom de la Nation.

La Déclaration ne traite que des droits, et non des devoirs. Mais ces derniers apparaissent à travers les diverses bornes qui sont posées. Par ailleurs, les citoyens doivent contribuer au budget de l'État(art. 13 et 14). La résistance à la loi est tenue pour un crime(art. 7). Une force publique est instaurée pour garantir l'ensemble des droits énoncés(art. 12).

Élaboré à grand renfort d'amendements, le texte n'est pas un ensemble cohérent, mais le reflet de la période troublée pendant laquelle il est rédigé. Il omet des points importants qui figuraient dans de nombreux projets initiaux, tels que les droits à la vie, à l'instruction et à l'assistance publiques, ou la liberté économique. Il ignore les femmes et les esclaves, laissant de côté des parties entières de la société. Mais, malgré tout, son impact dépasse le contexte révolutionnaire, faisant de la France le pays des droits de l'homme.

### Un texte intemporel et universel

Autant le processus de rédaction et d'approbation de la Déclaration s'inscrit profondément dans un moment précis de l'histoire de France, autant la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peut être considérée comme intemporelle et universelle.

Après le vote de la Constitution le 3 septembre 1791, l'Assemblée constituante est remplacée par l'Assemblée législative. Mais le nouveau régime ne dure pas. Le 21 septembre 1792, la monarchie est abolie et remplacée par une République. Une nouvelle assemblée constituante est élue, la Convention nationale. Elle vote la mort du roi Louis XVI qui est exécuté le 21 janvier 1793. La Constitution de 1791 et son préambule, qui étaient marqués de l'approbation du roi et instauraient une monarchie constitutionnelle, sont de fait obsolètes et abandonnés.

Mais l'idée d'un texte affirmant les droits de tous les hommes reste un principe central pour la République française naissante. Deux autres déclarations, inspirées du texte de 1789, sont rédigées lors de moments clés de la Révolution. La Déclaration des droits placée en préambule de la Constitution de l'an I adoptée en 1793 par la Convention nationale met l'accent sur l'égalité, interdit l'esclavage et énonce de nouveaux droits, comme les droits aux secours publics et à l'instruction. Après la Terreur et la chute de Robespierre, la Déclaration des droits qui est jointe à la Constitution de l'an III en 1795 insiste quant à elle sur la propriété, la réserve militaire (constituée de citoyens formés pour renforcer, si besoin, les forces armées afin de défendre de la Patrie), et s'accompagne d'une déclaration des devoirs.

Mais c'est finalement la Déclaration de 1789 qui est considérée comme le texte historique de référence et transmis à la postérité. C'est en effet elle qui incarne l'esprit de la Révolution et qui a posé les bases du modèle républicain. Enseignée à des générations d'écoliers, elle est aujourd'hui connue de tous les Français. Elle figure en préambule de l'actuelle Constitution. Sa valeur constitutionnelle est reconnue officiellement en 1971. Ainsi placée au plus haut niveau de la hiérarchie des normes, elle est l'un des textes les plus invoqués lors du contrôle de la constitutionnalité des lois. Deux cent trente-cinq ans après son adoption, la

Déclaration a encore un impact considérable en France.

Pour autant, elle ne mentionne à aucun moment la France. Elle s'adresse de fait à tous les hommes, quelles que soient l'époque et la société dans laquelle ils vivent. Sa portée universelle, quant au droit à la liberté individuelle et à la souveraineté des peuples, en fait un plaidoyer contre l'arbitraire. Elle encourage la protection des libertés fondamentales, la promotion de l'État de droit, l'instauration de modalités de prise de décision participatives et représentatives, ainsi que le développement d'institutions efficaces, responsables et transparentes.

Elle ouvre ainsi la porte à la définition de nouveaux droits témoignant de l'évolution des mœurs et des questions de société, comme les droits des personnes handicapées et le droit à vivre dans un environnement sain. Enfin, elle inspire des textes similaires au-delà des frontières françaises dont le plus célèbre est la Déclaration universelle des droits de l'Homme adopté par les Nations unies en 1948.

### ***La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e 1789 et la Révolution paysanne du Donghak de 1894-1895***

À l'occasion de son inscription sur le registre international de la Mémoire du monde par l'Unesco en 2003, l'une des six versions originales de la Déclaration a voyagé jusqu'en Corée pour être présentée à Séoul. Vingt ans plus tard, en 2023, 185 documents se rapportant à la Révolution paysanne du Donghak sont inscrits à leur tour. Les similitudes entre la Révolution du Donghak et la Révolution française, et plus spécifiquement la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e 1789, sont saisissantes.

Les deux ensembles de documents inscrits reflètent chacun des processus historiques distincts survenus à un siècle d'écart, dans des régions du monde éloignées de près de 9 000 km, et dans des contextes politiques et sociaux différents. Pourtant, ils convergent vers le même objectif : moderniser un régime séculaire, et instaurer une société plus juste et égalitaire. La Révolution du Donghak présente en outre une autre particularité forte qui vise à lutter contre l'influence des puissances étrangères, notamment occidentales.

Les deux Révolutions définissent et mettent en place des modes de gouvernance inédits dans leurs pays respectifs, leur ouvrant ainsi la voie à la démocratie. La Déclaration pose le principe de la souveraineté nationale et les fondations d'un système représentatif qui trouveront leur première application avec la rédaction et la mise en œuvre de la Constitution de 1791. Les révolutionnaires du Donghak obtiennent du Gouvernement coréen la mise en place de gouvernements coopératifs(jipgangso) dans 53 circonscriptions administratives de la juridiction de Jeolla-Do en 1894. Ces structures d'auto- administration prennent

leurs décisions par l'intermédiaire d'une assemblée (Minhoe) au sein de laquelle les paysans expriment leurs opinions et participent directement à la gouvernance de leur district.

De la même manière, on retrouve beaucoup de similitudes entre les articles de la Déclaration et les Réformes de l'année Gabo mises en place par le gouvernement de Joseon sous la pression de la Révolution du Donghak entre 1894 et 1896. On peut ainsi citer : la consécration des droits humains, l'abolition du régime féodal, du système de classes et des privilèges, l'affirmation de l'égalité de tous devant la loi et l'accès à la justice, et l'instauration de l'obligation du vote de l'impôt.

Enfin, les deux Révolutions, coréenne et française, qui trouvent leur origine dans des soulèvements populaires dirigés contre les classes dirigeantes, ont des conséquences à long terme. En démantelant des mondes anciens, elles ont chacune jeté les bases des structures du monde contemporain et frayé un chemin à la République. Toutes deux ont par ailleurs bouleversé l'ordre géopolitique de leur région et inspiré des révolutions postérieures (la Révolution du 1er mars, et une série de soulèvements pro-démocratiques après la Libération en Corée ; les Révolutions de 1830 et 1848, la Commune de 1871, et les événements de Mai 1968 en France).

La Corée du Sud et la France bénéficient encore de l'héritage de ces deux Révolutions aux idéaux profondément humanistes. Les droits humains, la démocratie, et la liberté des peuples à disposer d'eux-mêmes nous semblent aujourd'hui des évidences. Pourtant, bien qu'universelles, ces valeurs ne sont toujours pas reconnues dans certaines parties du

monde. Et même lorsqu'elles semblent définitivement acquises, elles peuvent toujours être remises en cause.

C'est pourquoi la reconnaissance par l'Unesco de collections documentaires qui attestent et éclairent des philosophies et des événements historiques qui ont permis la diffusion de telles valeurs universelles est particulièrement importante. En assurant la préservation de ce patrimoine fragile et en encourageant sa connaissance à l'international, l'inscription au registre international de la Mémoire du monde par l'Unesco invite à l'émulation et à la vigilance.

# The value and meaning of records documenting the origins and early development of the Reformation initiated by Martin Luther

Mirko Gutjahr Director of the Luther museums

Allegedly, during the Diet of Worms in 1521, where the German reformer Martin Luther had to defend his beliefs before Emperor Charles V, he recalled a legend about Jan Hus, a Bohemian reformer who had attended the Council of Constance a century earlier and was ultimately burned at the stake. According to the legend, as the executioner lit the pyre, Jan Hus prophesied that while they were burning a goose that day, a swan would soon arise whose song they would be unable to silence. Given the similarities in their ideas about church reform, Luther quickly embraced the interpretation that he was the foretold swan. Although the ideas of Jan Hus and Martin Luther were quite similar, it was Martin Luther's Reformation that ultimately prevailed. Therefore, in the following centuries Luther often was depicted accompanied by a swan.<sup>1</sup>

While the authenticity of the narrative is dubious, there still is an interesting message behind the story. As convincing as they might be, ideas still need a medium of distribution. And when distributed they need a way to stay in constant memory. Both notions had been understood by the proponents of the early reformation in the 16<sup>th</sup> century. The means for their realisation were, on the one hand, the printing press,<sup>2</sup> and on the other, the establishment of early archives as the basis for an own historic foundation.<sup>3</sup> Jan Hus's reformist approach, lacking the necessary means, ultimately fell short of laying the foundation for a wide-

---

1 Martin Treu, "Die Gans und der Schwan. Martin Luther und Jan Hus im Vermächtnis der Bilder", in *Luther*, 87, 3, 2016, pp.127-141; Heiko A. Oberman, *Luther: Man Between God and the Devil*(Yale University Press, 1989), p. 183; Richard Marius, *Martin Luther: The Christian Between God and Death*(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pp. 235-236; Carter Lindberg, *The European Reformations*(Blackwell Publishing, 2009), p. 92.

2 For a comprehensive overview of how the printing press revolutionized the distribution of Reformation ideas, see Elizabeth Eisenstein, *The Printing Revolution in Early Modern Europe*(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3 On the establishment of early archives and their role in the Reformation's historical foundation, consult Stefan Michel, *Die Kanonisierung der Werke Martin Luthers im 16. Jh.*(Mohr Siebeck: München 2016); Bernd Moeller, *Die Reformation in Deutschland*(München: C.H. Beck, 2005), and Karl Hillebrand, *Die Anfänge der Reformation und ihre geschichtliche Bedeutung*(Berlin: Springer, 1895).

spread popular movement like the Reformation that followed a century later.

In 2015, UNESCO added 14 documents from various German institutions to the International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which underline this conclusion.<sup>4</sup> They include records of his early reformist views, the famous 95 Theses against indulgences, his translation of the Bible into the vernacular, his major programmatic writings, documents related to his audacious stand before the Emperor at the Diet of Worms, as well as his demands for a reorganization of the Church, education, and society. The 14 documents represent only a very limited selection of a much larger and more diverse collection of records related to the emergence of the early Reformation. While the chronological selection might seem arbitrary, it accurately captures the period of Luther's own reformative development by focusing on the time between his first reformistic approaches in 1513/1514 and his writings on consequential reforms regarding education, church and society in 1525/1526.<sup>5</sup>

These documents chronicle the inception and early development of the Reformation, which then extended far beyond Wittenberg and the German territories of his time, leaving a profound impact on subsequent eras. They also illustrate how a religious and ecclesiastical movement catalyzed critical reassessments of established beliefs, eventually evolving into a broader societal and political force with global ramifications. The selected texts clarify the essence of "Reformation," highlighting its multifaceted transformation of society, rooted in the fundamental question of humanity's relationship with God.<sup>6</sup> This transformation influenced all aspects of life—religion, politics, society, and culture—marking the Reformation as the dawn of a new epoch that led to the modern era. Although it retained some continuity with trends from the Late Middle Ages, the Reformation introduced new interpretative approaches that redefined religious life, political actions, social structures, public organization, ethical principles, and legal regulations. The impact of the Reformation extended beyond Europe, gaining global historical significance and relevance.<sup>7</sup>

---

4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Documents of the Reformation. Available at UNESCO's official site (accessed August 2024).

5 For a comprehensive overview of the 14 documents consult: Irene Dingel, Henning P. Jürgens (eds.), *Meilensteine der Reformation. Schlüsseldokumente der frühen Wirksamkeit Luthers* (Gütersloher Verlagshaus: Gütersloh 2014).

6 Hans J. Hillerbrand, *The Reform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Diarmaid MacCulloch, *The Reformation: A History*. Viking, 2003.

7 Irene Dingel, Henning P. Jürgens, *Historische Einführung*. In: Irene Dingel, Henning P. Jürgens (eds.), *Meilensteine der Reformation. Schlüsseldokumente der frühen Wirksamkeit Luthers* (Gütersloher Verlagshaus: Gütersloh 2014), 11-17.

The documents recognized in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exemplify these developments in an exemplary manner. They also represent the shift from manuscript to print media, a transition significantly influenced by Luther's Reformation. Furthermore, they underscore the use of various media and communication methods designed to reach and mobilize the masses, showcasing how the reformers' messages were disseminated and adapted. These documents reflect the shaping of new forms of popular piety, educational and scholarly reforms, political and societal transformations, and the growing importance of vernacular languages in everyday life. The survival of these documents however is also a hint for an emerging need of a own historiography of the new protestant movements.<sup>8</sup>

The first Reformation-era "self-historicizations" emerged almost inevitably: Against the backdrop of conflict with the Papal Church, referencing tradition and history, as well as positioning within a historical continuum, served to legitimize their own stance. Reformers crafted a narrative of historical precursors to the Reformation, thereby neutralizing the accusation of introducing a new doctrine. In this way, the Reformation inscribed itself from the outset into a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of history and aligned itself with the historical continuum characteristic of the "true Church." Over time, the question of the "pre-Reformers" became increasingly central, also to highlight the historical achievements of the Reformation in contrast to these predecessors.<sup>9</sup>

As, however, during the course of the stabilization of the Wittenberg branch of the Reformation, new and radical Protestant factions suddenly emerged, the Wittenberg alliance, which understood itself as the only and original one, now also needed its own historical legitimacy within the diverging Protestant branches and therefore invoked Luther as the originator of the Reformation itself. It is likely no coincidence that most of the documents mentioned before have been preserved in archives and collections established by the Protestant reformers themselves. For the early Protestant Church, developing its own history and historiography was of utmost importance. In this context, it is unsurprising that early chroniclers of the Reformation, such as for example Luther collaborator Georg Rörer<sup>10</sup> and Luthers friend Johannes Lang<sup>11</sup> in Erfurt,

8 Stefan Michel, *Die Kanonisierung der Werke Martin Luthers im 16. Jh.* (Mohr Siebeck: München 2016), pp 117-126.

9 Compare: Volker Leppin, *From Charismatic Leadership to Institution*, in: *Lutheran quarterly*, Vol. 32(2018)

10 Stefan Michel und Christian Speer(eds.), *Georg Rörer(1492-1557). Der Chronist der Wittenberger Reformation*(Leuco-rea-Studien zur Geschichte der Reformation und der Lutherischen Orthodoxie 15), Leipzig 2012.

11 Andreas Lindner, *Der unbekannt Reformatoren Erfurts – Johannes Lang*, in: Steffen Raßloff, Volker Leppin, Thomas A. Seidel(eds.), *Orte der Reformation*(Erfurt, Leipzig: 2012) pp 44–46.

were also collectors of Luther's early manuscripts and prints, which they used in some of the earliest compilations of his works. Both, incidentally, are among those who early on recognized Luther's Nailing of the Theses on October 31, 1517, as a historical fact and declared it the seminal moment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 Although the significance of the event has been the subject of ongoing scholarly debate in recent years, it remains undisputed that this narrative has become a crucial founding myth for the new Protestant Church. Johannes Lang even went this far to leave a note on his copy of Martin Luthers broadsheet of 95 Theses stating: "Anno 1517 ultimo Octobris vigilie Omnium sanctorum indulgentie primum inpugnate" / "In the year 1517, on October 31, the eve of All Saints' Day, when the indulgences were first contested".<sup>12</sup> With this note, Lang not only dated his edition of the poster print but also categorized the paper as a historical document. This act of dating and documenting was not merely an archival gesture; it was a deliberate assertion of the Reformation's place within a broader historical context. Lang's annotation reinforced the idea that Luther's action was not an isolated incident but the beginning of a larger historical narrative, thus cementing its significance and legitimacy. By positioning the 95 Theses of 1517<sup>13</sup> within a specific historical framework, Lang contributed to the construction of a historical identity for the Reformation that could be traced and validated through time, further embedding it into the collective memory and historical understanding of the Protestant movement.<sup>14</sup> Additional historical milestones that were crucial for the Protestant self-identity included Luther's trial at the Diet of Worms in 1521 and his translation of the Bible at the Wartburg in 1522.<sup>15</sup>

Martin Luther's Reformation reshaped the divine-human relationship by advocating for the Holy Scripture as a historical text that could be explored through humanistic approaches and made accessible to everyone. This approach fostered a conception of humanity that emphasized the inherent worth of each person, irrespective of gender, social status, or personal achievements. Central to the Reformation

12 Mathis Leibetseder(ed.): *Kreuzwege. Die Hohenzollern und die Konfessionen 1517-1740*(Berlin 2017) pp 132-135.

13 For the significance of the Nailing of the Theses and the debate about its authenticity see: Benjamin Hasselhorn, Mirko Gutjahr, *Tatsache! Die Wahrheit über Luthers Thesenanschlag*(Evangelische Verlagsanstalt: Leipzig 2018).

14 For Johannes Lang's role as chronicler of the early reformation see: Ulrich Bubenheimer, *Der erste Sammeldruck lateinischer Luther-Schriften von 1518 mit Notizen von Luthers Ordensbruder Johannes Lang in der Pitts Theology Library in Atlanta* <https://ph-heideberg.academia.edu/UlrichBubenheimer>(accessed August 2024).

15 Volker Leppin, *Von charismatischer Leitung zur Institutionalisierung. Die Bedeutung der Monumentalisierung Luthers im Gesamtgeschehen der Reformation* - Stefan Michel, Christian Speer(ed.), Georg Rörer(1492-1557). *Der Chronist der Wittenberger Reformation*(Leipzig 2012), p. 275-286.

was Luther's concept of "Christian freedom," which challenged traditional hierarchies and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early modern societies and even contemporary ones. For the Church, this meant dismantling the established clerical hierarchy and reorienting ecclesiastical law. Popular religious practices saw a shift from magical interpretations of the world to an emphasis on comprehension and reflection in ritual activities. Social understanding evolved to focus on the roles within the three "estates"—church, state, and family—aligning with Luther's notion of "calling" and highlighting individual responsibilities within each sphere of life.<sup>16</sup> Education was envisioned as a means to nurture this individual's spiritual relationship and worldly duties according to new, relevant standards. Additionally, the Reformation spurred critical reflection on the role of political authorities, who, according to existing imperial law, were either unable or unwilling to tolerate the Reformation.<sup>17</sup> This period also catalyzed discussions on "minority protection," self-defense rights, and the development of a theory justifying resistance against political powers. The Reformation's challenge to existing authorities prompted a broader examination of political legitimacy and individual rights, contributing to the evolution of political theory and practice. As societies grappled with the implications of Reformation ideas, they began to reassess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rulers and the ruled, fostering new debates about governance and personal autonomy.<sup>18</sup>

In this context, the Reformation not only influenced theological and ecclesiastical reforms in Saxony but also left a lasting imprint on the socio-political landscape of Europe. The Reformation's impact was profound, and its ideas quickly extended beyond theological discussions into broader social and political realms. As Luther's writings gained traction, they also catalyzed significant shifts in societal attitudes and practices. The notion of Christian freedom, initially a theological principle, began to resonate with the common people who faced economic hardships and social inequalities. Luther's critique of ecclesiastical abuses and his emphasis on individual spiritual autonomy inspired various social groups to question existing power structures, including those within the feudal system – something Luther neither intended

---

16 Euan Cameron, *The European Reform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1991); Heinz Schilling, *Konfessionalisierung und Staatsinteressen im Reformationszeitalter*. In: *Die Reformierte Konfessionalisierung in Deutschland: Das Problem der, Zweiten Reformation* (Gütersloher Verlagshaus: Gütersloh 1986) pp. 65-92.

17 Steven Ozment, *The Reformation in the Cities: The Appeal of Protestantism to Sixteenth-Century Germany and Switzerland*.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1975) pp. 145-148.

18 Quentin Skinner, *The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Vol. 2: The Age of Reform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pp. 187-194.

nor could approve of. This climate of unrest and dissatisfaction set the stage for the Peasants' War of 1525 — a movement with many parallels 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of 1894/5.

Similarly to the uprising three and a half centuries later in Korea, the German Peasant's War was driven by a combination of economic grievances, social inequalities, and the influence of new religious ideas. The peasants, inspired by the Reformation's call for reform and justice, sought to address their grievances against oppressive feudal practices and heavy taxation. They interpreted Luther's teachings as a mandate for social and economic reform, believing that the spirit of Christian freedom should extend to their socio-economic conditions.

Luther's initial support for the peasants' grievances was tempered by his growing concern for maintaining social order. Although he sympathized with some of their demands, he ultimately condemned the violence and radical demands of the insurgents. His writings, which had once fueled the desire for reform, now faced a critical test as the movement's radical elements clashed with established authorities. The Peasants' War thus highlighted the tensions between the Reformation's ideals and the harsh realities of political and social power.<sup>19</sup>

The aftermath of the Peasants' War marked a turning point. The brutal suppression of the rebellion — which resulted in nearly 70,000 deaths in central Germany alone—had significant consequences for the surviving peasants. The war underscored the limits of the Reformation's influence on social and political structures and demonstrated the dangers of radical interpretations of religious reform. It further emphasized the necessity for a more cautious and deliberate approach to reform, one that carefully balances spiritual ideals with the practical demands of governance and social stability—a shift that is also evident in Luther's writings after 1525.<sup>20</sup>

The documents of Luther inscribed in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ry were selected with the question in mind of what impact Martin Luther left behind.<sup>21</sup> Indeed, they reflect the lasting consequences

19 Martin Greschat, *Martin Luthers Haltung im Bauernkrieg*. *Archiv für Reformationgeschichte - Archive for Reformation History*, Volume 56(jg): 31-47 – Dec 1, 1965; Gottfried Maron: »Niemand soll sein eigener Richter sein«. *Eine Bemerkung zu Luthers Haltung im Bauernkrieg*, in: *Zeitschrift der Luther-Gesellschaft* 2(1975), pp. 60-75.

20 For still the best overview on the German Peasant's War of 1525 see: Peter Blickle, *The Revolution of 1525: The German Peasants War from a New Perspective*(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1). For a new approach compare Lyndal Roper, *The Summer of Fire and Blood. The German Peasant's War*. Basic Books: New York 2025(forthcoming).

21 Irene Dingel, Henning P. Jürgens, *Historische Einführung*. In: Irene Dingel, Henning P. Jürgens(eds.), *Meilensteine der Reformation. Schlüsseldokumente der frühen Wirksamkeit Luthers*(Gütersloher Verlagshaus: Gütersloh 2014), 11-17.

of Luther's Reformation: To this day, Luther's writings on church, education, social, and political issues have had significant repercussions, triggering developments that have profoundly shaped Germany, Europe, and undoubtedly large parts of the world, and continue to influence the present. Luther's Bible translation even laid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and emancipation of a unified German standard language and spelling, something that, following Luther's example, was also replicated in other countries for their respective vernacular language.<sup>22</sup>

Preserving this written heritage is therefore a task of monumental importance. For remembering brings the past into the present and sharpens our understanding of how history conditions both the present and the future. It allows us to draw lessons from the successes and failures of those who came before us, offering a rich tapestry of insights that guide our decisions today. Moreover, by safeguarding, researching and making these texts available to the public, we ensure that future generations all over the world can access the insights and experiences that have shaped our civilization, fostering a deeper connection to our shared cultural and intellectual legacy.

---

22 Herbert Wolf, *Martin Luther. Eine Einführung in germanistische Luther-Studien.*(Stuttgart: Metzler 1980), pp. 68-92.

## The world significant value and meaning of documentary heritage in Asia listed o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MOW) International Register

Aijarkyn Kojobekova Civil Society Initiative Director, University of Central Asia, Kyrgyzstan

The world significant value and meaning of documentary heritage in Asia listed o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MOW) International Register

Dr. Aijarkyn Kojobekova  
Civil Society Initiative Director, University of Central Asia, Kyrgyzstan



129 documentary heritage collections from Asia and the Pacific in the UNESCO's MOW International Register.



## Value and Significance



- These nominations illuminate critical aspects of human civilization, influence global cultural and intellectual traditions, and provide valuable lessons for the world



- These inscriptions hold world significance because they preserve and promote a global understanding of humanity's shared heritage. They document the evolution of ideas, showcase the diversity of human expression, and serve as tools for education and cross-cultural dialogue.
- Their inclusion in the MoW Register ensures that these invaluable records are preserved for future generations, reflecting the collective memory of humanity while enhancing our understanding of Asia's crucial role in global history and culture.

## Value and Significance

**Cultural Crossroads:  
The Role of Asia in  
Global Civilization**

**Scientific and Intellectual  
Contributions**

**Historical Narratives  
with Global Impact**

**Global Movements for Human  
Rights and Justice:**

**Lessons i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a) Independence Movements and Anti-Colonial Struggles
- b) Women's Rights and Social Reforms

- a) Colonial history and Global Power Dynamics

- a) 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
- b) Disaster Response and Resilience



**1. Cultural Crossroads:  
The Role of Asia in Global  
Civilization**

Transmission of Religious  
and Philosophical Thought;

Development of Political,  
Cultural Relations



**The Goryeo Daejanggyeong (Goryeo dynasty Tripitaka) (the  
“Tripitaka Koreana”)**

Korean collection of the Tripitaka (Buddhist scriptures). This inscription not only reflects the historical role of Asia as a center of religious and philosophical exchange but also highlights the enduring significance of these ideas in the shaping of regional and global culture



**The Collection of the AI -Biruni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Uzbekistan)**

It reflects the role of this part of the world as a cross -roads of the Silk Road and its importance in the development of Islamic science and culture. The Collection is of great significance for the study of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peoples of Central Asia, India, Pakistan, Afghanistan, Iran and the Arab world, and of the political, diplomatic and cultural relations between them.

**2. Historical Narratives  
with Global Impact**

**a) Colonial history  
and  
Global Power Dynamics**



**1) “The Archives of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VOC)”**

- the complex relationships between European colonial powers and local Asian societies,
- how trade, exploitation, and cultural exchange shaped the region's history.
- the intricate dynamics of global power, economic control, and cultural interaction during the colonial era.

**2) Records of the Qing's Grand Secretariat - Infiltration of Western Culture in China**

- crucial period where Western and Eastern cultures clashed, influencing the course of world history.
- Western priests' activities in 17th-century China, the infiltration of Western ideas into Chinese society.
- the decline of traditional feudal systems in favor of modern Western civilization, the broader global dynamics of cultural exchange and conflict during that peri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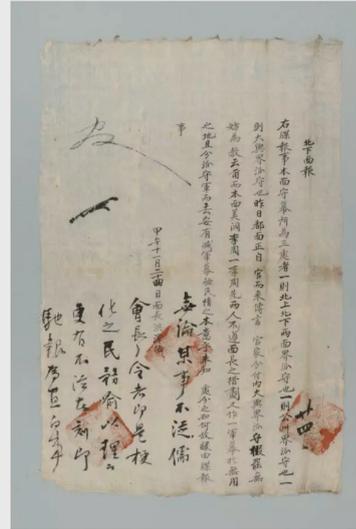
### 3. Global Movements for Human Rights and Justice

#### a) Independence Movements and Anti-Colonial Struggles

#####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 Donghak movement was a popular uprising against both corruption in the ruling class and encroachment on Korea by foreign powers, demanding the establishment of a more just and equal society.

The Donghak movement paved the way for Korea to develop into a flourishing democracy. The nominated documents serve as a reservoir of memories testifying to the historical processes through which the public acted as a protagonist in history and impelled the course of events toward the achievement of universal val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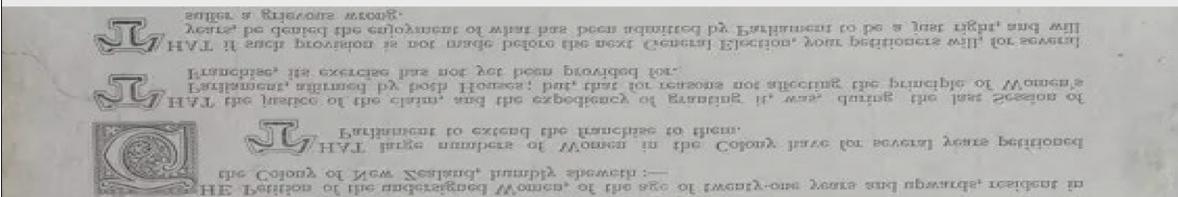


### 3. Global Movements for Human Rights and Justice

#### b) Women's Rights and Social Reforms

##### The 1893 Women's Suffrage Petition

The 1893 Women's Suffrage Petition led to New Zealand becoming the first self-governing nation in the world where women won the right to vote. It was signed by close to one quarter of the female adult population and was, at that time, the largest petition of its kind signed in New Zealand and other Western countries.



## 4. Scientific and Intellectual Contributions

### Advances in Mathematics, Medicine, and Astronomy as well as Language and Literature

#### The four treatises of Tibetan Medicine

The Four Treatises not only represents the highest level of medical care in Tibet in ancient times, but also reflects the study of humanities, history, tradition, literature, art, and craft in earlier period of Tibet. Four xylograph versions of the Four Treatises are the proofread and revised editions in different historical phases, while the one gold-ink manuscript version is the best-preserved rare book.



#### Rigveda (India)

The Vedas are generally known as the scriptures of the Hindu community. However, being among the first literary documents in the history of humankind, they transcend far beyond their identity as scriptures. The Rigveda, the oldest among the four Vedas, is the fountain source of the so-called Aryan culture in all its manifestations that spread beyond the Indian subcontinent to large parts of South and South East Asia, as well as parts of Central Asia. This valuable treasure of the ancient world has been preserved in the form of manuscripts in India, and handed down over centurie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 5. Lessons i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Audiovisual documents of the International antinuclear movement “Nevada-Semipalatinsk” (Kazakhstan)

It is a single collection of documents concerning the action of the international antinuclear movement (IAM) “Nevada-Semipalatinsk” that put an end to nuclear arms tests at the Semipalatinsk Polygon that had caused great harm to the environment and genetic pool of the people of Kazakhstan.



#### The Indian Ocean Tsunami Archives

The Indian Ocean Tsunami Archives are a set of archives in any medium that recorded the event, disaster response, and mostly about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and 12 other countries.

The inclusion of such documents in the MoW International Register ensures that these invaluable records are preserved for future generations, reflecting the collective memory of humanity while enhancing our understanding of Asia's crucial role in global history and culture



---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

**202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Part 1**





## Discussion Paper: Céline Parcé's 'Valeur et signification de la Déclaration originale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1789, 1791)'

Kim Min Chul Professor of Sungkyunkwan University

I greatly appreciated the highly engaging presentation by Archivist Céline PARCÉ. The presentation on 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 was exceptionally thorough and meaningful, covering its historical background, adoption process, significance for subsequent generations, and even providing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ather than posing questions about the presentation, I wish to offer a brief supplementary commentary to contribute to the depth and richness of the ensuing discussions at this academic conference.

In the section titled "Des oublis" (Forgotten Elements) on slide 19 of Archivist PARCÉ's presentation, she listed the rights to subsistence, education, public assistance, as well as issues concerning women and slaves. These were notably absent from the "Declaration" drafted in 1789, a time when the revolution had just begun and was still in its nascent stages. Considering that 1789 represents a transitional period between the Enlightenment era, or the age of commerce, preceding the revolution, and the period following the revolution's radicalization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French Republic in 1792, it is crucial to understand the context of this interim period. In light of this positioning of 1789, I would like to provide a supplementary explanation to the participants of this academic conference on why the "Declaration" did not include rights related to subsistence, women, and (black) slaves, without necessarily critiquing or defending the "Declaration" itself.

## Discussion

1) From the 15th century through the 18th century, prior to the revolution, the Christian-based tradition of "natural jurisprudence" treated the preservation of life not as a right (droits) but as a duty (devoirs). In this tradition, the foremost duty given by God to humanity, the highest natural law (lex naturalis), was the preservation of life. The right to perform actions necessary to fulfill this duty arose from this principle. Consequently, rights such as property ownership and self-defense were derived from the duty to preserve life. In this tradition, the foremost duty given by God to humanity, the highest natural law (lex naturalis), was the 'preservation of life.' The 'right' to perform actions necessary to fulfill this duty arose from this principle. Consequently, rights such as property ownership and self-defense were derived from the duty to preserve life. It was not until after 1792, when the revolution shifted towards radical republicanism and the Jacobin Montagnards came to power between 1793 and 1794, that the concept of life preservation as a 'right' began to be explicitly addressed. During this period, the Sans-culottes, who had gained significant influence in central politics, played a crucial role in shaping these developments. Thus, the "Declaration" of 1789 did not explicitly enumerate the right to subsistence, but instead, it specified rights such as bodily safety and property rights, which were considered essential for fulfilling the duty of preserving life.

2) The "Declaration" of 1789 can be seen as a pronouncement of the death sentence. During the summer of 1789, the representatives of the National Assembly, who gathered in Versailles and declared themselves as such, focused on addressing the most pressing issues and protecting the most urgent rights among the chronic problems of 18th-century France. Only those issues and rights that received consensus from the entire assembly were included in the "Declaration." They established a framework for political power based on the rule of law, ensuring that the government could not deviate from legal norms. The most crucial elements agreed upon,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reasonable taxation, the principle of legality in crimes and penalties, and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were incorporated into the "Declaration." // The absence of claims in the "Declaration" asserting that women should have equal civil and political rights as men is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all the revolutionaries deliberating in the National Assembly in 1789 were male. They considered women to be encompassed within the broader concept of 'man (homme)' and believed that a woman's place was within the domestic sphere.

## Discussion

Furthermore, the omission of claims in the "Declaration" asserting that black slaves should have equal civil and political rights as white free citizens can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revolutionaries were acutely aware of the significant role played by the sugar trade, produced by enslaved blacks, in the French economy, which was in commercial competition with Britain. This economic dependence made it highly unlikely that such claims could be agreed upon at the time. // The issues of women and black slaves continued to be contentious after 1789. Radical republican revolutionaries did declare the "abolition of slavery" in Europe in 1794, but as the power of the republicans solidified, the prevailing republican belief that 'women lacked the political virtue (virtus) that men possessed' became more pronounced.

# Discussion Paper: Mirko Gutjahr's 'The value and meaning of records documenting the origins and early development of the Reformation initiated by Martin Luther'

Hong Kyeong Man Professor of Luther University

## 1. Introduction

In today's keynote lecture, Dr. Mirko Gutjahr, Director of the Luther Museum in Germany, emphasized that "the preservation and dissemination of records play a pivotal role in understanding crucial turning points in history and conveying their significance to future generations." While the record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1894/5) and those related to the 16th-century Protestant Reformation led by Martin Luther(1483-1546) originated in different historical contexts and regions, both events share a significant commonality: they each aimed at profound social reform. This commentary will focus on Dr. Gutjahr's presentation by examining the reasons behind the inclusion of these records i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exploring their historical significance, and discussing their contemporary relevance.

## 2. Comparison of the Historical Background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the Reformati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was a large-scale peasant uprising that emerged as a response to social inequality and a corrupt political system in late Joseon Korea. Donghak(Eastern Learning), founded by Choi Je-woo(1824-1864) in the 1860s, was a new religious movement that emphasized the rights of the common people and opposed the oppressive order of the time. Within this context,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was not merely a peasant revolt but a significant event that catalyzed the transition towards a more modern society.

In contrast, Martin Luther's Protestant Reformation began as a reaction to the corruption within the Roman Catholic Church, particularly the sale of indulgences. On October 31, 1517, Luther published the "Disputation on the Power and Efficacy of Indulgences," commonly known as the "95 Theses," which criticized the Church's malpractices. Subsequently, Luther translated the Bible into the vernacular German, making it accessible to the general populace, among his many significant achievements. Luther's Reformation extended beyond theological debate; as Gutjahr noted, "it influenced all aspects of life—religion, politics, society, and culture—marking the beginning of a new era and continuing to exert a profound impact on the modern world."

### 3.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and Disseminating Historical Records

As Mirko Gutjahr emphasized, "Documents inscribed o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exemplify this development. They also represent the transition from manuscripts to print media, significantly influenced by Luther's Reformation." The successful dissemination of the Reformation was made possible through the advancement of printing technology and the establishment of archival institutions. The 14 documents from German institutions, inscribed as UNESCO Memory of the World in 2015, include Luther's early Reformation ideas, his major works, and his stance at the 1521 Diet of Worms in the Holy Roman Empire. These documents chronicle the progression of the Reformation, demonstrating the reformers' intention to systematically record and preserve their ideas and movement.

Similarly, the record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consist of an extensive collection of 185 documents, including appointment letters of the Donghak leaders, memoirs, official government documents related to the suppression, and private collections such as diaries and anthologies. These records serve as crucial evidence that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was not merely a regional uprising but a significant turning point in modern Korean history. Gutjahr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these records by stating, "They also show how religious and ecclesiastical movements promoted a critical reassessment of established beliefs, eventually evolving into broader social and political forces with profound global impact." In line with the speaker's perspective,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also recognized their significance, (stating in a press release on May 19, 2023), that "the global historical importance of the efforts by the people of Joseon to strive for universal values of freedom, equality, and human rights has been acknowledged."

### 4. Social and Political Influence

The Protestant Reformation led by Martin Luther in the 16th century had a profound impact not only on Germany but also on the political and social structures across Europe. The Reformation challenged existing authorities and became a catalyst for establishing new forms of social organization and political thought. As a result of the Reformation, the emergence of the Protestant Church marked the development of a distinct historical narrative and identity, contributing to the shift from medieval to modern ways of thinking.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emerged as a movement in response to the injustices and inequalities of the time in Joseon society. This movement played a critical role in dismantling the feudal order of late Joseon and accelerating the transition to a modern society. The Donghak Peasant Army advocated for new social justice and the rights of the common people, directly challenging the existing power structures. This movement not only catalyzed significant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in Korean society but also became a spark for continued resistance that extended into the early years of Japanese colonial rule.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emerged as a movement in response to the injustices and inequalities of the time in Joseon society. This movement played a critical role in dismantling the feudal order of late Joseon and accelerating the transition to a modern society. The Donghak Peasant Army advocated for new social justice and the rights of the common people, directly challenging the existing power structures. This movement not only catalyzed significant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in Korean society but also became a spark for continued resistance that extended into the early years of Japanese colonial rule.

### 5.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Mirko Gutjahr's presentation effectively elucidates the significance of the record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Martin Luther's Reformation as pivotal historical events within their respective eras and regions, highlighting the reasons for their inscription as UNESCO World Heritage in 2023 and their global historical importance. Gutjahr's analysis of these records underscores the critical importance of preserving such documents and offers valuable insights into understanding their lasting impact on future generations. In closing this discussion, I would like to propose several topics for further consideration.

## Discussion

Firstly, the topic concerns the impact of the preservation and dissemination of records on social transformation. Both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the Reformation utilized records to widely communicate their ideologies and objectives, playing a crucial role in advancing their respective social changes. We can compare and analyze how these two events used records to convey their messages to the public and how this contributed to social transformation.

Secondly, the topic concerns the nature of popular movements and their social and political significance. Both events share the commonality of being popular movements led by the people, yet their nature and objectives diffe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cused on social justice and the rights of the people, while the Reformation emphasized the redistribution of religious authority and individual religious freedom.

Secondly, the topic concerns the nature of popular movements and their social and political significance. Both events share the commonality of being popular movements led by the people, yet their nature and objectives diffe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cused on social justice and the rights of the people, while the Reformation emphasized the redistribution of religious authority and individual religious freedom.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cused on social justice and the rights of the people, while the Reformation emphasized the redistribution of religious authority and individual religious freedom.

Thirdly, the topic concerns the contemporary value and lessons of historical records. The UNESCO listing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Reformation records reminds us of the lessons we can learn from the past today. These records are not merely relics of history but are significant academic and educational resources for the present and future. We can discuss how these historical records can be utilized in contemporary society and what lessons they offer.

At the 2024 International Academic Seminar commemorating the UNESCO inscription of these records, Mirko Gutjahr's presentation provides a foundational basis for in-depth discussion on these topics, highlighting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both events and the value of record preservation. Through Gutjahr's presentation and the discussions on related subjects, we have the opportunity to explore and further develop the significance and importance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the Reformation within their distinct historical contexts.

## **Discussion Paper: Aijarkyn Kojobekova's 'The world significant value and meaning of documentary heritage in Asia listed o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MOW) International Register'**

Jung Keun Sik Emeritus Profess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 thoroughly appreciated Dr. Kojobekova's presentation. According to her, the World Documentary Heritage is categorized into five areas, with a total of 129 documentary heritages listed in Asia. Among these, Korea's documentary heritages include the Goryeo Tripitaka in the category of 'Crossroads of Cultures: Asia's Role in World Civilizations' and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and the Gwangju Uprising Records in the category of 'Global Movements for Human Rights and Justice: Independence Movements and Anti-Colonial Struggles.'

The UNESCO World Heritage, established by 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signed in 1972, includes sites listed under cultural heritage, natural heritage, and mixed heritage that encompasses both cultural and natural values.

In additi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world documentary heritage are separately establish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governed by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dopted by UNESCO in 2003. This system is designed to ensure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creativity by listing items on either the Representative List or th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The Memory of the World(MoW) program, established by UNESCO in 1997, is designed to systematically preserve and promote the use of records of global significance. This includes a variety of materials such as books, documents, and letters. Strictly speaking, it differs from

the aforementioned heritage categories in that it is more about 'the memory of the world' rather than heritage per se.

From 1997 to 2023, a total of 18 records from Korea have been inscribed on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These include: Hunminjeongeum(1997), Annals of the Joseon Dynasty(1997), Jikji Simche Yojeol: Anthology of Great Buddhist Priests' Zen Teachings(2001), Seungjeongwon Ilgi, the Diaries of the Royal Secretariat(2001), Haeinsa Tripitaka Koreana and the Pandect(2007), Uigwe: The Roy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2007), Donguibogam(Principles and Practice of Eastern Medicine)(2009), Ilseongnok: Records of Daily Reflections(2011), Archives of the 5.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2011), Nanjung Ilgi(War Diary of Yi Sunsin)(2013), Archives of Saemaul Undong(New Community Movement) (2013), Confucian Printing Woodblocks in Korea(2015), Archives of KBS Special Live Broadcast 'Finding Separated Families'(2015), Joseon Royal Family's Seal and Royal Edicts(2017), Archives of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2017), Records of the Joseon Tongsinisa(Korean Envoys to Japan)(2017), Archives of the April 19 Revolution(2013), and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2023).

Germany holds the highest number of inscriptions on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with a total of 30 entries. Following Germany are the United Kingdom, the Netherlands, and France. Korea, along with Poland, ranks fifth with 18 recorded items. China has 15 entries, Iran has 10, India has 9, and Japan has 7. While this indicates that Korea possesses a rich documentary heritage, it may also reflect Korea's greater engagement with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program. In 2017, North Korea's Comprehensive Illustrated Manual of Martial arts was inscribed on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marking it as the first record from North Korea to achieve this status.

Distinct from the global Memory of the World, there is a separate category for the Asia-Pacific region's documentary heritage. As of January 2023, 66 items from 43 countries have been inscribed in this category. Korea has had six entries in this regional list: Korean Calligraphic Tablets(2016), Maninso(Petition of the People)(2018), Joseon Dynasty Palace Hyeonpan(2018), Samguk Yusa(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2022), Naebang Gasa(Songs of Inner Room)(2022), and Tae'an Oil Spill Recovery Records(2022).

## Discussion

Programs such as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and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are not meant to be instruments of national competition or mere symbols of cultural pride. Rather, they serve the true purpose of preserving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and ensuring its effective utilization for future cultural creation. In this context, it is crucial to show adequate respect and attention to the documentary heritage of other nations as well. In this regard, materials related 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should also be actively utilized in educational settings and the cultural industry, and they should be introduced to international audiences.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o maintain consistent attention to records that, despite possessing significant value, may not be fully recognized or listed due to various reasons. While Korea has already provided substantial support for the excavation and pre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in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numerous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s, it is also essential to explore ways to assist in the discovery and research of documentary heritage. This would further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such efforts.

202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World historical value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Chair

**Shin Young Ou** Director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search Institute



# The Values and Significance Embedded in the Record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Bae, Hang Seop Professor of Sungkyunkwan University

## The Values and Significance Embedded in the Record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Bae, Hang Seop

### Table of Contents

1. Introduction
2. Reconsideration on Modern Values and Democracy
3.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Democracy
4.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the Awareness of Equality
5. Conclusion

## 1. Introduction

- Registration of the Record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s Memory of the World
  - ➔ Significance: Confirming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on a Global Scale
- The Importance of the Records (Historical and Contemporary Significance)
  - The resistance against foreign infringements on sovereignty
  - The pursuit of **universal values** such as freedom, equality, human rights, and justice, and the struggle to overcome injustice and inequality
  - The meaning in the history of global democracy
    - \* **Jipgangso**, established through an agreement between the Jeolla-do governor and the Donghak peasant army, signifies a unique governance system that played a **pivotal role** in Korea's transition from a feudal state to modern democracy.

- ➔ "Universal values" and "Democracy" are still objects of pursuit.
- ➔ Included in the thoughts and actions of the Donghak peasant army
- ➔ However, ① **Skepticism about the West and Modernity: Critique of Eurocentrism and Modernocentrism inherent in the concept of "universality," and denunciation of their associated violence**
  - "The modern world was formed through the conquest of pre-modern and non-Western societies by 'modern' Western powers. In the process carried out under the banner of 'universal reason,' both spatial and temporal conquests were simultaneously underway."
  - Arif Dirlik: "The West, armed with reason and science, conquered the time and space of the non-Western world under the name of 'universal reason'. In this process, pre-modern and non-Western ways of perceiving places and times were either eradicated or pushed to the margins. This was to control alternative historical trajectories that might obstruct the creation of a 'universal history' which purportedly aligns human history with the demand for 'progress' and development."

- ② New geological epochs such as 'Anthropocene', and 'Capitalocene'  
 Since the modern era, the ways humanity lives and thinks  
 = fundamental questions about anthropocentrism

→ Overcoming the linear and teleological paradigm of "universal" history  
 The need to subvert the superiority of modernity and the privileged status of pre-modernity through transhistorical or transtemporal approaches

→ More than merely identifying the 'epigones' (imitators or followers) of the West/modernity  
 \*The French revolution (About 100 years ago) and the German Peasants' War (370 years ago)

→ **Rediscovery of what was overlooked, suppressed, or forgotten by the 'West/modernity'**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landscape of reality is largely the result of the accumulation of historical experiences and the interplay of memories of those experiences. How we understand and remember historical experiences is a crucial factor in shaping the order and ideologies or thought processes of today and the future.

- What replaces an existing order is shaped by the visions of various actors. These visions and ideologies are formed in response to and are defined by remembered historical experiences.
- However, "The losers have been unable to imagine a true alternative to the state and capitalist modernity because the winners have absolutized the political and economic concepts of modernity, making these concepts common sense and relegating alternative trajectories to the periphery or as remnants".

(Massimiliano Tomba)

→ Rediscovery of what was suppressed and buried by modernity / Alternative possibilities to modernity

The need to pursue an alternative legacy of modernity

→ The need for subversive thinking about the unilinear narrative form and temporal perspective characterized by a unidirectional progressive movement

## 2. Reconsideration on Modern Values and Democracy:

Skepticism about Modern Values (Freedom/Equality) and the Crisis of Democracy

- "Feudal" → "Modern" = means "liberation" from (class) inequality
- "Modern" continued inequality and discrimination: class → In particular, expansion and intensification of economic inequality → "inheritance capitalism" / "rental capitalism"

♣ **Thomas Piketty**: "All systems have used ideology to justify inequality and have solidified it through laws, taxes, private property, education, and other means": **Modern capitalist societies are the same.**

### ❖ Questioned Modern Values

- The promise of modern democracy has always been freedom, but beyond the very formal notion of equality before the law, **modern democracy has never truly championed equality.** (Omitted) The free subjects who established democracy—white, male, colonial rulers—permitted and perpetuated hierarchical structures, exclusion, and violence to subjugate others. Therefore, at the core of democracy, **there exists an overt and inevitable element of non-freedom.** (Wendy Brown)

- The meaning of popular sovereignty has been lost (Giorgio Agamben), and elections have become a process that legitimizes the cyclical domination of the oligarchy. (Jacques Ranciere)
- "Democracy has become a class ideology that justifies a system of governance by a tiny minority, essentially a governance without the people. (Omitted) This oligarchic government possesses the ability to **generate consensus and legitimacy through elections**, which, by limiting the range of choices, **effectively protect the dominant position of the middle and upper classes.**" (Kristin Ross)
- "The foundation of democracy is also (omitted) **threatened by the parliamentary form, which entails the passivization of the vast majority.**"(Slavoj Zizek)
- Eric Hobsbawm and others: **Democracy faces significant limitations in addressing global issues (climate change, inequality, corruption, and others).**
  - The comfort and fulfillment of desires by citizens in developed countries coming at the cost of corruption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in developing nations
  - Democracy operating only within the confines of the nation-state

- Democracy serving the desires of 'citizens' within the confines of the nation-state
  - advanced democracies → the path of imperialism → oppression and destruction through colonialism and aggression
  - ➔ not sufficiently reflected → distant global solidarity
  
- Jerry Bentley: "Human rights and democracy are not just Europe's blessings."
  - should not be judged solely by Western standards
  - products continuously shaped and transformed by diverse eras, circumstances, regions, peoples, and methods, like agriculture (Amartya Kumar Sen)

### 3.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Democracy

#### 1) The Potential for a New Order Formed from Below

- ❖ Transformation of Hyanjunggongron (Local Public Opinion)
  - Hyanghoe(鄉會)= Public opinion limited Sajok(士族) = Sajok Public Opinion
  - ➔ 19<sup>th</sup> century Minhoe(民會, 里會, 洞會, 面會, 民會所)
  - = Public opinion without class or economic discrimination (even led uprisings by noh(奴), a slave class)
  - = Minjung Public Opinion(民衆公論) ➔ Developed into a permanent forum for public discussion

(After the late 18<sup>th</sup> century) Representative selection and delegation from below

- To realize the public opinion of the people (Minjung Public Opinion), representatives or proxies were selected, and local public opinion was delegated to them.
  - ➔ to engage in political activities such as Gyeokjaeng (presenting grievances) or Sang-eon (petitions) in the palaces or local government offices
- Selection of one representative in each myeon and village
- Sharing the costs of activities according to each village(each household)

- ❖ Gosung-bu's <Minhoeso(民會所)> and <Sasilso(查實所)>
  - After starting an uprising, they called their gatherings <Minhoeso>.
  - ➔ Presented their own public opinion instead of the public opinion led by the nobility/commoners
  - ➔ Pursued reforms of local malpractices (邑弊)
  - ➔ Established <Sasilso> in the government office with the consent of the magistrate to investigate corruption
    - : The members of <Sasilso> composed of local officials and members recommended by <Minhoeso>
    - : The members recommended by <Minhoeso>
      - = Representatives of the villages and local residents
  - ➔ Sought to reform wrong practices autonomously
  
- ❖ Case of Gujora-ri in Geoje-bu, Gyeongsangdo
  - Solutions to issues related to the allocation of fishing grounds (漁條 = 漁場)
  - 13 fishing grounds and 30 boat owners, leading to intensified conflicts
  - ➔ Draw: Dissatisfaction with the result (due to the bias in the results of the draw)
  - ➔ Decided on a rotational method (輪定) through all parties' discussion

- The procedure for forming public opinion, Dongjunghoeu(洞中會議), included even the slave class
- Consensus through discussion all male elders of each household participated
  - ➔ Formation of public opinion through equal mutual respect among village residents, without discrimination based on social status or economic standing
  - ➔ Reported to the government office, and an official document (完文) was later issued.
  - ➔ Strengthened binding force among members.
  
- ❖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the Expansion of Minhoe (民會) and Hyangjung Public Opinion to the State
  - From October 1892, thousands of Donghak followers and commoners demanded freedom of religion from the governors of Chungcheong and Jeolla provinces.
  - Donghak followers' Gwanghwamun appeal (伏閣上疏) in February 1893
    - ➔ Appeals to the king only allowed by the aristocracy (士族) and yangban (兩班)
    - ➔ Donghak followers, oppressed by the state as a group following a "heretical" belief, directly demanded religious freedom from the king

- During the Boeun Assembly held from March to April 1893, the participants advocated for anti-Japanese and anti-Western sentiments (斥倭斥洋), and they recognized their gathering as being similar to foreign 'people's association,' stating, "If there is anything inconvenient to the people within the decrees of the government, we will discuss and decide (講定)."
- The experience and awareness of 'Minhoe' spread from the local community level to a national scale, breaking free from the locality of rural society

\* **The Period of Jibgangso (執綱所)**

A Jibgangso was established in each Gun and Hyeon district, with a Jibgang as the person in charge. Under the Jibgang, there were officials such as clerks (書記), inspectors (省察), stewards (執事), and educators (童蒙) and its organization operated as a council (協議體) with several officials or sometimes a few elected members (議事員).

- ➔ Potential for democratic order formed based on experiences through Minhoe
- ← **The expression of a newly conceived political order from the grassroots**

**2) Suppression of New Possibilities by "Modernization"**

❖ Hanghoe Gaeseolron (Theory of Establishing Local Assemblies)

- Conducted by the Gabo reformist government of the Joseon Dynasty in 1894
- Promote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existing *Hyanghoe* (local assemblies) into a modern system
- In October 1895, a high-ranking official, *Yu, Gil-jun's Hanghoe Gaeseolron*

• Key Contents

- \* Hyanghoe Members: The exclusion of status-based discrimination, but explicitly favored those who paid higher taxes, thereby institutionalizing economic discrimination
  - ➔ Unlike the *Minhoe* or *Jibgangso*, the *Hyanghoe* highlighted inequalities based on wealth.
  - ➔ Members of the *Hyanghoe* at the Myeon level or higher composed of residents who paid significant taxes
  - ➔ It implies that "Hyangjung Gongron" (local public opinion) was inevitably influenced by those with substantial property.
- \* The function of checking and monitoring power suppressed and excluded from the outset (When agreements could not be reached, decisions were made by the head of the next higher assembly (e.g., myeon-jipgang for ri-assemblies, county governor for myeon-assemblies, and the provincial governor for county assemblies).

### ❖ Reconsideration 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Democracy

- The crisis of democracy
  - \* "Democracy has become an ideology that justifies a system of governance by a small elite, excluding the majority of the people. (Omitted) Generation of consensus and legitimacy primarily through elections, which effectively protect the dominant positions of the middle and upper classes"
  - \* "The foundation of democracy threatened by the parliamentary system, resulting in the passivity of the vast majority"
  - ➔ The activities of the Donghak Peasant Army, particularly through the *Jibgangso* should be considered the potential to renew democracy, rather than diminishing these efforts as merely a lesser imitation of Western representative democracy. (Sought to transcend economic inequality as well as status-based inequality)

### 3.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the Consciousness of Equality

- Emphasis only on the denial of the social status system, which is the core of the equality ideology constructed by the 'West/Modernity'. The confirmation of the modern orientation of the Donghak Peasant Army
- However, social inequality replaced by economic inequality
  - Political equality without economic equality is fictitious.
  - ➔ A new understanding of the Donghak Peasant Army's "economic equality ideology" is required.
- ❖ Equality Consciousness Evident in the Behavior Patterns of the Peasant Army
  - Confiscated only the government grain that had been unjustly exploited from farmers and the wealth accumulated by the rich through the exploitation of the poor. This confiscated wealth was used to aid the impoverished or sold at low prices.
  - ➔ A prevailing atmosphere where the people regarded and praised the peasant army as "righteous thieves (義賊)" or "righteous army (義軍)"  
(Osaka Asahi Newspaper and Records of the Japanese Legation in Korea)
  - ➔ **Consciousness:** The judgment that "wealth should not be monopolized by a minority."

- ❖ Provisions Related to Equality/Sharing in the Donghak Peasant Army's 12 Military Regulations
  - 困者救濟(Assist those who are in distress.)
  - 飢者饋之(Provide food to those who are hungry.)
  - 貧者賑恤(Offer relief to the poor.)
  - 病者給藥(Provide medicine to the sick.)
  
- ❖ The Donghak Peasant Movement's Land Reform Concept: Land to be redistributed equally among people
  - The King's land ideology and prohibition of private land ownership or sales
    - Private ownership as a symbol of progress and development based on the modern stage theory
    - The concept of 'community ownership' or equal land distribution, which prohibits private ownership, is considered a pre-capitalist idea and an obstacle to modernization.

- ❖ The realities in the 21<sup>st</sup> century
  - The inequality of wealth leading to not only a social pathology but also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climate crisis
  - The monopolization of land promoting the destruction of nature and the environment
  - Capital income contributing to inequality
  
- ➔ The egalitarianism and equal land distribution: the fundamental contrast to the modern concept of private property and the exploitative view of nature
- ➔ The Donghak Peasant Movement's land reform ideas should not be interpreted through the lens of Western experiences of 'peasant ownership' and the development of private property leading to independent farming.
- ➔ Instead, the relevance of equal land distribution, with its prohibition on buying and selling and opposition to monopolization, should be found in addressing contemporary issues such as inequality and climate change. This aligns with the practical relevance of critical historiography. **(Inequality is more of an ideological and political issue than a purely economic one, Piketty)**

❖ The provisions in codes of conduct such as “Do not kill people or things (living and non-living) (不殺人 不殺物)”, and “Never harm people or things (切勿害人物)” can be seen as expressions of the “respect for objects (敬物)” philosophy in Donghak thought, which is represented by the concepts such as “Everything is Heaven and everything in events is Heaven (物物天 事事天)”, “Heaven feeds on Heaven (以天食天)”

- ➔ How should we understand these concepts in the context of not only “human equality”, but also the cyclical and horizontal relationship among Heaven, humans, and the natural ecosystem?
- ♣ Modern and western perspective: object(物) = nature = targets of human desire, exploitation, and control
- ♣ The necessity to compare this with the diverse life and nature views from various religions and indigenous cultures around the world

## Conclusion

- Reconsideration of the traditional approach of understanding the Donghak Peasant Army's thoughts and actions from a Western-centric or modern-centric historical perspective is required.
- Reconsidering means thinking in different epistemologies and languages
  - ➔ must establish a new historical understanding that differs from the current one.
  - ➔ Pre-modern and non-modern experiences should not be viewed merely as obstacles or outdated relics to be suppressed and discarded in the face of modernity. Instead, they represent resources for new imagination and possibilities 'beyond modernity' or 'after modernity.'
  - ➔ Historical experiences are not confined to linear or one-directional time. They can be connected, reconfigured with current issues, and hold the potential to create alternative systems and different political trajectories.
  - ➔ A new understanding of the rich meanings in the sacrifices and thoughts of the Donghak Peasant Army
  - ➔ Building a new historical perspective that helps address the challenges faced by humanity

## &lt;References&gt;

- Oh, Ji yeong, 東學史(草稿本) [Donghaksa; History of Donghak,(first draft)], 1926
- Yi, Bok yeong, 日記(南遊隨錄) (Diary of Yi Bok-yeong; Record of the Southward Journey),1894
- Kim, Yun sik, 續陰晴史 (Records on sunny and cloudy days), Seoul: Committee of National History Compilation, 1960
- 東匪討錄(Records of suppression of Tonghak bandits), 1894
- 주한일본공사관기록(Records of the Japanese Legation in Korea), Seoul: Committee of National History Compilation, 1986
- Agamben, Giorgio et al, "Is democracy dead? : For a new debate" , Nanjang, 2010
- Brown, Wendy; Bae, Chung hyo, et al., Murders of Democracy: A Conservative's Secret Attack Hiding Behind Obvious Statements, Book of My Life, 2017
- Chakrabarty, Dipesh; Lee, Shin cheol, Climate of Planetary Age History , Eco Libre, 2023
- Guldi, Jo ; Armitage, David; Ahn, Doo hwan, Declaration of History, Hanul, 2018
- Piketty, Thomas; Ahn, Jun beom, Capital and Ideology, Munhakdongne, 2020
- Sen, Amartya Kumar; Lee, Gyeong nam, Living India, Cheonglim Publishing, 2008
- Tomba, Massimiliano, *Insurgent Universality: An Alternative Legacy of Modernity*, NY :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 Wallerstein, Immanuel; Kim, Jae oh, European Universalism: Rhetoric of Power, Changbi, 2008

- Bae, Hang seob, 「Changes in rural social order in the 19th century and the rise of new public opinion - a new political order formed from below-」, Joseon Dynasty History Journal 71, 2014
- Bae, Hang seob, 「The Study of East Asian History as a Research Method and the Search for New History—Criticism of Moderno-centrism and a Trans-historical Approach」, Daedong Cultural Studies 112, 2020
- Bae, Hang seob, 「 For the advancement of research on people's history after the 'new people's history' - focusing o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Historical Issues Research 48, 2022
- Bae, Hang seob, 「The Global Turn in Understanding Korean Modern History and the Critique of Colonialism: Climate change and new directions in historical research」, Historical Criticism 145, 2023
- Song, Yang seop, 「Tax Administrations in the 19th Century and the Rise of 'Hyangjunggongron(鄉中公論)' 」, historical criticism, 2016
- Jeon, Min young, 「The Operational Methods of Joint Tax Payments at a Coastal Village in the Late 18th Century and 19th Century- With a focus on the old documents of Gujorari of Geoje -」, Old documents research 48, 2016
- Bae, Hang seob, Foundations for the Legitimation of the Donghak Peasant Army and Awareness of a New Political Order, Acta Koreana 16:2, 2013
- Bentley, Jerry, "Europeanization of the World or Globalization of Europe," *Religions* 3, 2012
- Dirlik, Arif, "Is There History after Eurocentrism? Globalism, Postcolonialism, and the Disavowal of History", edited by Dirlik, Arif, Bahl, Vinay, Gran, Peter, *History After The Three Worlds: Post-Eurocentric Historiographies*, 2000, Lanham, Md. : Rowman & Littlefield
- Drayton, Richard, & Motadel, David, "Discussion: the futures of global history", *Journal of Global History* 13:1, 2018

# The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Cho Jae Gon Research Professor of Sogang University

## Introducti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was an uprising of the people against the corrupt ruling class and the foreign invasion of Joseon, with the goal of establishing a just and equal society. In this process, the Donghak Peasant Army succeeded in establishing a governance system called ‘Jipgangsso,’ which was a cooperative governance structure between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 Through this system, they were able to punish corrupt officials and correct unjust practices. This form of governance was a new experiment in democracy that could not be found anywhere else in the world at that time.(Omitted) The record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re a repository of memory that shows the historical process of the people becoming the subjects of history and advancing to achieve universal values.”(Excerpt from the “Application for the Inscription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o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sup>1</sup>

On May 24, 2023, at the 216th session of the UNESCO Executive Board held in Paris, France, it was decided that the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would be registered o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This recognition highlights the global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Joseon people, who were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revolution, aiming for universal values such as freedom, equality, and human rights. This achievement comes eight years after the formation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Memory of the World Inscription Committee in June 2015, which included researchers, memorial project participants, descendants,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experts, and related organizations.

---

1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Foundation. Progress Report on the Inscription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o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2023, p. 140.

This year marks the 130th anniversary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which broke out in 1894. The revolution was a historical event characterized by both civil war within Joseon and an international conflict. Moreover, it was a movement embodying revolutionary ideas aimed at resisting 19th-century imperialist invasions and establishing a democratic civil society. Therefore, the record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re not only documents and memories of universal values of world peace but also a record heritage from a pivotal moment in 19th-century East Asian history. The democratic experiences of the revolution are historically significant, as they are connected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the Chinese Xinhai Revolution, as well as in India and Vietnam. Although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was thwarted by foreign intervention and the Sino-Japanese War, the records of their activities and efforts encapsulate the values of equality, freedom, human rights, and justice that they aspired to. These records also document the policies, strategies, and massive mobilization efforts undertaken by the Joseon government, Qing China, and Japan to suppress the Donghak Peasant Army.

The record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document a major historical event that occurred during the transition from a pre-modern to a modern society in Korean history. The revolution had a profound impact on modern Korean history, serving as the ideological and spiritual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influencing movements such as the March 1st Movement, the April 19th Revolution, the May 18th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June 10th Democratic Uprising. The Donghak Peasant Army's pursuit of human dignity, the realization of an equal society, and opposition to colonialism remain universal values that humanity should continue to strive for today. This paper will first provide an overview of the 185 records and 13,132 pages of documents related 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at have been inscribed o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including their production period and current locations. Following this, the records will b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1) records directly produced by the Donghak Peasant Army who directly participated in the event, 2) literature, diaries, and memoirs left by civilians related to the event, and 3) official documents and reports produced by the Joseon government. Each group's composition, characteristics, and historical significance will be examined.<sup>2</sup>

---

2 Hyun-jong Wang introduced the process of compiling and organizing materials, conducting investigations, and discovering records that began around the centennial anniversary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1994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He emphasized the ongoing need for the discovery and organization of significant materials(Wang, Hyun-jong, "The Scope and Status of Materials 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presented at the Symposium on the Inscription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o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 1. The Current Status and Archiving Institutions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The record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re a legacy of long-standing memories and a cumulative collection of various recollections. During 1894-1895, the Joseon government and the ruling elites primarily recorded this event from their own perspectives. After 1895, officials or intellectuals who opposed the peasant army left behind records such as diaries and memoirs. The Donghak Peasant Army itself left letters, proclamations written in 1894, and memoirs written later. Around the centennial anniversary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1994, a large number of related records produced by various institutions and individuals were discovered.

In 2004,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Special Act on the Restoration of Honor for Participants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established the Honor Restoration Review Committee for Donghak Peasant Revolution Participants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At the national level, this committee conducted extensive investigations and collections of records related 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2006, an archive fo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was established, and since 2010,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Foundation has been systematically managing these records.

The record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re a comprehensive historical record produced by various parties, including the Donghak Peasant Army, the Joseon government, officials, suppression forces, and private intellectuals. These records include documents written by the Donghak Peasant Army, government reports, personal diaries and anthologies, various certificates of appointment, and more. Through these materials, the process and significance of the movement can be explored from various perspectives. These records are particularly valuable as they transcend time and place, providing a comprehensive view of human rights, equality, and opposition to colonialism from diverse perspectives, making them rare and unique.

---

Register, June 10, 2015, hosted by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Foundation, National Hangeul Museum Auditorium). Seong-mi Jeong attempted an archival and scholarly review and proposal for a total of 271 record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cluding private documents and newspaper articles(Jeong, Seong-mi, 2016, "An Overview and Archival Analysis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Journal of Korean Archival Studies 50,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Seong-deok Hong also analyzed the nature and value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from an archival perspective, focusing on the aspects of collection, preservation, provenance, and utilization of records(Hong, Seong-deok, "The Value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from an Archival Perspective,"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Global Historical Significance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May 29, 2017, hosted by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Foundation,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Hall Education Center).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materials that have been inscribed o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The record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re housed in 11 institutions, includ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Foundation, Korea University Library,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th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Yonsei University Library, the Central Headquarters of Cheondoism, and the Jangseogak Archives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ese records are broadly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first, records directly produced by the Donghak Peasant Army, who directly participated in the event; second, literature, diaries, and memoirs left by civilians related to the event; and third, official documents and reports produced by the Joseon government.

#### Production Period and Producer-wise Status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Production Period	Records Produced by the Donghak Peasant Army	Private Records Related 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ports and Official Documents Produced by the Joseon Government	Total
		Records of Those Who Suppressed the Donghak Peasant Army	Records of Observation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1894-1895	26	13	9	115	163 (88.1%)
1896-1909	1	-	2	7	10 (5.4%)
1910-1954	3	3	6	-	12 (6.5%)
Total	30 (16.2%)	16 (8.7%)	17 (9.2%)	122 (65.9%)	185 (100%)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are related 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at occurred in Joseon from 1894 to 1895. Among the 185 records totaling 13,132 pages, 163 records(88.1%) were produced during the years 1894-1895, and 22 records(11.9%) were later created up until 1954. Based on the production entities, 30 records(16.2%) were produced by the Donghak Peasant Army and 16 records(8.7%) were produced by those who suppressed the Donghak Peasant Army. In addition, 17 records(9.2%) were by observation account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122 records(65.9%) were reports and official documents produced by the Joseon government. Of the total 185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163 records(88.1%) were produced during the years 1894-1895, and 122 records(65.9%) were produced by the Joseon government. Additionally, there are documents in single-page format, original photographs,

government documents, and personal documents preserved in their original forms.

### Status of the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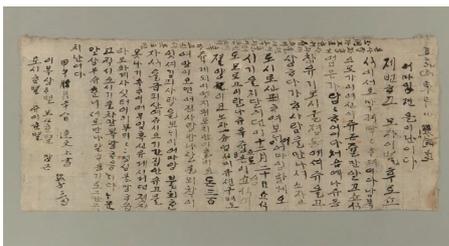
No.	Institution	Number of Records	Percentage(%)	Notes
1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Foundation	66	35.7	Includes entrusted records
2	Korea University Library	29	15.7	
3	National Archives of Korea	5	2.7	
4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1	0.5	
5	National Library of Korea	5	2.7	
6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5	2.7	
7	Independence Hall of Korea	2	1.1	
8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58	31.4	
9	Yonsei University Library	3	1.6	Formerly Academic Information Center
10	Central Headquarters of Cheondoism	9	4.9	
11	Jangseogak Archives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	1.1	
Total		185	100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can be categorized into documents, books, and photographs. Out of the total 185 records documents are 65 records, books are 118 records, and photographs are 2 records, respectively. These records are housed in the archives of 11 institutions. To access the original documents, one must visit the respective institutions in person. Basic bibliographic information can be searched through their websites. The original texts, transcriptions, and Korean translations of key materials produced dur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Korea can be accessed through the following platforms: The Korean History Information System provid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http://db.history.go.kr>) and The Comprehensive Knowledge Information System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maintained by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Foundation(<http://www.e-donghak.go.kr>). The latter website, in particular, offers a digital archive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allowing users to view both original texts and translations simultaneously. It also provides various search options to retrieve necessary record information. Additionally, other online materials can be accessed through the websites of institutions such as th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Jangseogak Archives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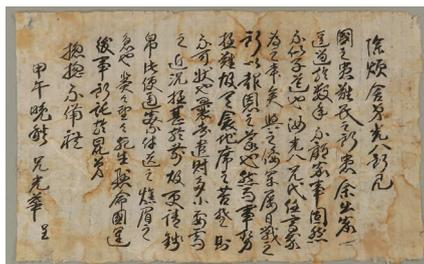
## 2. Records produced by the Donghak Peasant Army

The records directly produced by the Donghak Peasant Army include a total of 30 items, encompassing documents from 1894-1895 as well as those created afterward. These records include: 1) Letters written by members of the Donghak Peasant Army who participated in the revolution 2) Writings by Jeon, Bong-jun, the supreme leader of the Donghak Peasant Army 3) Various appointment certificates issued by Choi, Si-hyeong, the supreme leader of the Northern Branch of the Donghak religious order. 4) Memoirs compiled by the Donghak Peasant Army, summarizing their experiences and observations following the end of the revolution.

These records provide a rich insight into the activities of the Donghak Peasant Army and their worldview, offering detailed information on their organizational activities and ideological aspir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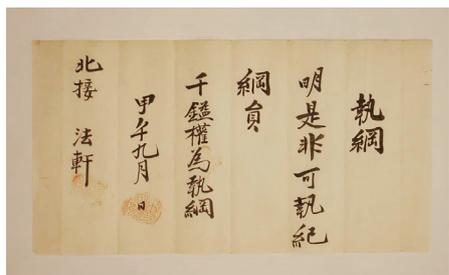
Han Dal-mun's Letter



Yu Kwang-hwa's 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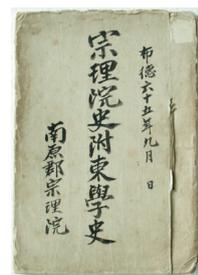
Martyrdom Profile (Sunkyoangreok)



Appointment Certificate of Cheon, Il-gwon



Appointment Certificate of Cheong, Sung-young



Namwon Jongri Wonsa

The artifacts produced by the Donghak Peasant Army, which were the main actors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re considered the most direct cultural heritage of the revolution. However, due to the death of many of the Donghak Peasant Army leaders, including Jeon, Bong-jun, there are not many surviving artifacts. Artifacts directly left by the Donghak Peasant Army members can be classifi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documents.

Among key artifacts, there are Naju Myongrok and Lists of Donghak Peasant Army members held by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Foundation, Donghaksa First Draft and Dongdo Changui Sogosi kept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Naju Myongrok* was compiled during the second uprising in September 1894. It includes lists of Donghak Peasant Army members, such as *dojip*, *gyosu*, and *jipgang*, as well as details of their roles and fund procurement. *Donghaksa First Draft* written by Oh, Ji-yong, who participated in Donghak Peasant Revolution describes the history of the Donghak movement from its founding through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the subsequent activities of Cheondogyo. *Dongdo Changui Sogosi* which survives in a glass plate version was drafted and distributed by the Donghak Peasant Army leadership in November 1894. These artifacts were produced by the Donghak Peasant Army themselves and contain essential statements about the development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Notably, the *Donghaksa first draft* provides significant details about the armistice agreement made between the peasant army and government forces in May 1894, including the 12 reform clauses established at the Jeonju Treaty. The *Mujang Pogomun Manuscript*, held by the Cheondogyo Central Headquarters, is a declaration issued on March 20, 1894, marking the official start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Mujang, Jeolla Province. This proclamation begins with the phrase “The most precious thing in the world is a person” and vividly presents the Donghak Peasant Army’s realistic assessment of the situation, their criticism of the ruling class, and the background and goals of the revolution..<sup>3</sup>

The documents produced by the Donghak Gyo-dan dur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clude various artifacts, such as the Jeopju Appointment Certificates. Among the records produced by the Donghak Peasant Army, the Donghak Appointment Certificates are the most numerous. These certificates were issued by Choi, Si-hyeong, the highest authority of the Donghak Gyo-dan at the time, under the name of Bukjeop Beopheon(the North Branch Law Office), during the outbreak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1894. The Donghak Appointment Certificates included i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list are held by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Foundation(11 certificates), Cheondogyo Central Headquarters(6 certificates), and Independence Memorial Hall(1 certificate).

---

3 Bae, Hang-seop, 2016. *A Study on the Evolution of Understanding of the Donghak Peasant Army’s Armistice Declaration and Armed Proclamation*. *History and Discourse*, 79.

### The Donghak Appointment Certificates, included i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No.	Record Name	Producer	Production Date	Material	Holding Institution
1	Jeon, Seong-sil Jungjeong Appointment Certificate	Choi, Si-hyeong	March, 1894	Hanji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2	Kim, Jun-seop Jipgang Appointment Certificate	Choi, Si-hyeong	July, 1894	Hanji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3	Kim, Chang-mo Gyosu Appointment Certificate	Choi, Si-hyeong	August, 1894	Hanji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4	Park, Byeong-jin Daejeong Appointment Certificate	Choi, Si-hyeong	August, 1894	Hanji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5	Park, Sun-do Jungjeong Appointment Certificate	Choi, Si-hyeong	August, 1894	Hanji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6	Um, Cha-sang Daejeong Appointment Certificate	Choi, Si-hyeong	August, 1894	Hanji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7	Hwang, Su-pal Bongheon Appointment Certificate	Choi, Si-hyeong	August, 1894	Hanji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8	Cheong, Seong-young Jipsa Appointment Certificate	Choi, Si-hyeong	August, 1894	Hanji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9	Jeon, Il-kwon Jipgang Appointment Certificate	Choi, Si-hyeong	September, 1894	Hanji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10	Song, Dae-hwa Daejeopju Appointment Certificate	Choi, Si-hyeong	September, 1894	Hanji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11	Jeon, Gui-su Jungjeong Appointment Certificate	Choi, Si-hyeong	October, 1894	Hanji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12	Nadonghwan Gyojang Appointment Certificate	Choi, Si-hyeong	January, 1894	Hanji	Cheondogyo Central Headquarters
13	Lee, Seung-ryoung Gyosu Appointment Certificate	Choi, Si-hyeong	July, 1894	Hanji	Cheondogyo Central Headquarters
14	Hong, Jae-in Daejeong Appointment Certificate	Choi, Si-hyeong	August, 1894	Hanji	Cheondogyo Central Headquarters
15	Jeong, Sun-kyeong Gyojang Appointment Certificate	Choi, Si-hyeong	August, 1894	Hanji	Cheondogyo Central Headquarters
16	Yang, Eon-nam Bongheon Appointment Certificate	Choi, Si-hyeong	August, 1894	Hanji	Cheondogyo Central Headquarters
17	Lee, Su-bang Jeopju Appointment Certificate	Choi, Si-hyeong	September, 1894	Hanji	Cheondogyo Central Headquarters
18	An, Jin-geum Jipgang Appointment Certificate	Choi, Si-hyeong	July, 1894	Hanji	Independence Hall of Korea

The appointment certificates for positions with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were primarily

issued during July and August of 1894. This timing is significant as it coincides with a period when many Korean farmers joined the Donghak movement and became active participants in the revolution.<sup>4</sup> While these certificates are valuable historical documents showing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y have limitations. Aside from the appointment of Jeopju(Chief Secretary), there are insufficient records to understand the broader dynamics of the revolution's development.

Currently, the three records designated as cultural heritage in South Korea related 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re Yu, Gwang-hwa's Letter, Han, Dal-mun's Letter, and Gabogunjeong Silgi kept by Gogung Museum. Han, Dal-mun's Letter was written by Han Dal-mun, who was captured during the revolution, pleading for help from his mother while imprisoned in Naju. Yu, Gwang-hwa's Letter was addressed to his young brother, including the message of "When the country is in distress, the people must also be concerned". Both Yu, Gwang-hwa and Han, Dal-mun were executed dur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 3. Private Records Related 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Private records related 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can b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based on the producers: 'Records by Those Who Suppressed the Donghak Peasant Army' and 'Records of Observations 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se records are significant because they provide diverse and detailed insights into the public's perspective and thoughts 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 suppression of the Donghak Peasant Army was carried out not only by the Joseon government and the military forces it organized but also by conservative Confucian scholars and local militia groups. Therefore, artifacts produced by these groups are crucial for understanding the full scope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rtifacts from local militias and Confucian scholars are distributed among institutions such as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Found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s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and Yonsei University's Library.

4 Lee, Byeong-gyu,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registered as World Heritage Records © Donghak Appointment Certificates. Jeonbuk Ilbo, August 9, 2024.

**Notable records kept by various institutions are as follows:**

-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Foundation: Yuhweseongchaek, Tongyumun, Hyangyakjangjeong, Nanpayugo, Changgye Shingong Silgi, and Chungdangrok
-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hwiuirok, Geoeuirok, Hyangyak Jeolmok, Baekseokseorok, Yaksa, and Yeomgi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Kim Yakje Ilgi
- Yonsei University Library: Namyusurok, Yeonpajip and Gyeongranrok
- National Library of Korea: Eusanyugo, Chojeongjip, and Simungi
- National Museum of Korea: Tobidaeryak

**1) Records on the Suppression of the Donghak Peasant Army**

During 1894-1895, some groups organized local militia units(Minbo-gun) to participate directly in suppressing the Donghak Peasant Army, leaving behind a total of 16 records. These records include diaries documenting the suppression process and collected writings published afte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flecting both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s. They provide detailed accounts of their reasons for participating in the suppression and the process itself.

Among these records, Yuhweseongchaek is labeled with the cover of “November Gabo-nyeon, Cheong-myeon Cheongdong Yuhweseongchaek, and it consists of 10 pages. Cheongmyeon Cheondong is presumed to be in Jeongsan County(currently Cheongyang County). The document has a seal, indicating it was submitted by Kim, Hak-hyeon, the head of the Confucian society in Cheondong, to the local magistrate. The content of the document classifies 39 individuals, 29 household’s fathers and sons, including 4 members of the local militia, into two categories: ‘Not Entered’ and ‘Naturalized.’ Considering that the document is from November 1894, Not Entered people refer to those who did not participate in the peasant uprising, while Naturalized people indicate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later surrendered or were reintegrated. The fact that this document was written in November 1894 indicates that it was a time when local authorities were working to reintegrate those who had joined the peasant army, strengthening the neighborhood watch system and preparing weapons to defend against bandits. This suggests that a thorough investigation was conducted on an individual household basis. The content reveals that among the 39 individuals surveyed, 14 were classified as “Naturalized,” making up 35.8% of the total. Of these 14 naturalized individuals, 13 were fathers and the case where both the father and son were involved was only one. This suggests that there were likely

various considerations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Even though this record represents just one village, considering that many participants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were unable to return to their hometowns, this document offers insight into the expectations and aspirations that the peasants held for the revolution at that time.<sup>5</sup>

Changgye Shingong Silgi is a book written in diary format, documenting the suppression of the Donghak Peasant Army in Uiheung of Gyeongsang Province. The author, a local Confucian scholar named Shin, Seok-chan(1851–1921), originally titled the book Changgye Silgi, though, based on the order of the contents, it would be more accurate to call it Changuirok Ilgi. The book covers the period from August to December 1894 and primarily focuses on the efforts to suppress the Donghak Peasant Army in the Uiheung region. At the beginning, it describes how the “disturbance of the Eastern Way(Dongdo, referring to the Donghak movement) began in Hoseo and Honam regions, spreading further from spring to summer, affecting many people in Yeongnam. The left and right banks of the Nakdong River, as well as its upstream and downstream areas, became dens of rebellion, and looting knew no end.” The diary records that after the Donghak Peasant Army first rose in Uiseong, they invaded the Uiheung area on August 19. On August 18, a day before the invasion, Shin, Seok-chan gathered his colleagues to discuss defense strategies and consulted with the local magistrate, Seong, Tae-young. Together with the local elites and civilians from Uiheung, Chilgok, and Gunwi, they organized a defense force numbering in the thousands, collecting grain and military supplies to aid their efforts. Shin, Seok-chan, following the structure of the local Confucian school, established a Yakso(a meeting place or headquarters) and became its Yakjang(chief commander). He also appointed Gangjang(district commanders) for each township. The defense force first engaged the Donghak Peasant Army in a battle at Sinwon, where they executed 27 members of the rebel forces. Subsequent battles took place in Sinnyung and Hyoryeong, where they continued their efforts to suppress the Donghak Peasant Army. These three locations were all in the Gangjwa region(the left area of the river), and they also played a role in defending against rebel forces retreating from Kimsan and other areas. Additionally, some of the defense forces were sent to the Gangwoo region(the right area of the river) to engage in activities around Kimsan and its surroundings.<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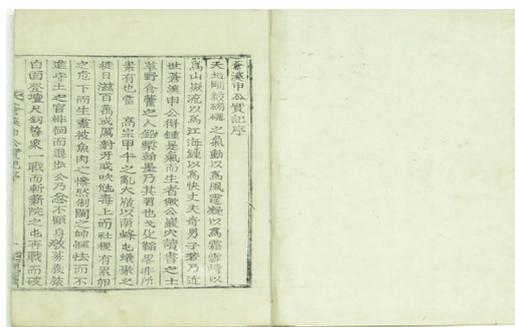
---

5 Shin, Sun-cheol, 2020. Preface. Documents of the 1894 Donghak Peasant Revolution(Shingukheok 12),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Foundation. pp. 28~29.

6 Lee, Yi-hwa, 2017. Preface. Changgye Silgi(Shingukyeok Series 2),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Foundation. pp. 23~25.



Yuhweseongchaek



Changgye Shingong Silgi

Hyangyak Jeolmok, housed in Seoul National University's Kyujanggak, is a document outlining community covenants implemented in 1894 across eight townships in Jecheon-hyeon, Chungcheong Province. These covenants were established as part of the local response to the Donghak Peasant Army and were enforced under the orders of the provincial governor. Among the four provisions listed in the covenant, the second one, titled “Mutual Aid in Times of Crisis”(Hwannansanggu), includes five specific measures: 1) Neighboring villages should cooperate in defending against attacks. 2) Each village should select spies(Miltongkkun) to monitor for suspicious activity. 3) Residents should avoid direct confrontation with thieves but keep track of their movements. 4) Every household should be equipped with weapons such as guns and spears for defense. 5) Anyone who fails to respond in an emergency should be punished as if they were a thief. The third provision, titled “Mutual Correction of Mistakes”(Gwaseilsanggyu), stipulates that violators of the covenant should be punished. Additionally, it specifies that any suspicious individuals should not be allowed into the village and must be reported to the authorities.<sup>7</sup>

## 2) Records of Observations 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of observations related 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clude 17 items compiled by individuals who did not directly participate in the movement but recorded their experiences or reports about it. Most of these records are written in diary format and were later published as personal collections. These records are significant because they provide a range of information about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the Donghak Peasant Army, offering insights into the thoughts and perspectives of contemporary intellectuals.

<sup>7</sup> Hyanghak Jeolmok, Compiled by Jecheon-hyeon, the 31st year of King Gojong's reign, Sangbaek-go 301.35-C472h.



Kim, Yak-je Diary



Gyeomsanyugo

Yaksa written by Yi, Yong-kyu, a Confucian scholar from Gongju, Chungcheongnam-do is a daily diary kept from 1888 to 1897, recording both significant and mundane events. The diary notes the trends of peasant uprisings and disturbances in Boeun(a county in Chungcheong Province) during 1893. The diary written on February 15, 1894 reports the Gobu Peasant Uprising citing early records from Uijeongbu(State Council). He refers to the Donghak Peasant Army as “Dongbi(eastern bandits)”. He notes that his direct encounters with the Donghak Peasant Army began after July 6, 1894. On July 8, Yi, Yong-kyu was forcibly robbed of 400 nyang(a Korean currency unit) by the Donghak Peasant Army and on July 24 the Donghak Peasant Army established a camp at Daegyo. He records that on July 25 the Donghak Peasant Army demanded rice 5 seoms(a unit of rice measurement) of rice, and Yi, Yong-kyu was only able to provide 1 seom and on August 6 and 7 he underwent the incidents of theft involving money and property by Kim, Yong-guk’s forces. On July 29, he recorded that a large assembly of Donghak Peasant Army forces gathered in Gungwon, Jeongan-myeon, Gongju and the confrontation occurred between the Donghak Peasant Army under the command of Im, Gi-jun and the Gongju Gamyong(government office). After mid-septemebr, he evacuated his family to Geumsan, as Dongbi was reportedly seizing cattle, goods, money, and provisions in Daejeon and surrounding areas. He also criticized the actions of various officials, including Choto-sa Hong, Gye-hun, Jeolla Province Governor Kim, Hak-jin, and Chungcheong Province Governor Jo, Byeong-ho.<sup>8</sup> Yaksa provides significant historical value in that it includes etailed activities of Jipgangso(Donghak Peasant Army’s local governing bodies) between May and July of 1894.

Kim, Yak-je’s Diary consists of four volumes, with Volume 2 covering records from after his return to office up until February 1894, whe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began. Volume 3 spans from

8 Wang, Hyun-jong. *The World Documentary Heritage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④ Yi Yong-kyu’s Yaksa*, Jeonbuk Ilbo, June 6, 2024.

February 1894 to October 1895 and includes accounts of Donghak Peasant Army activities. Notably, Volume 3 contains records of the Gumsan Uprising which is suspected to have occurred on March 8, 1894, prior to the Mujan Uprising on March 20, 1894. Gumsan was a base of Seo, Jang-ok, who guided Jeon, Bong-jun, a key figure of Namjeop.

“The Donghak movement began to rise again in the spring of March, and it became more severe than before. There was a significant clash in Geumsan-eup, resulting in a considerable number of casualties on both sides. In Jeolla Province’s Gobu, a major peasant uprising occurred, causing the local magistrate, Jo, Byeong-gap, to suffer immense difficulties and eventually flee for his life.”

Kim, Yak-je, who had served as a Saseong(Senior Scholar) at Sungkyunkwan, was extremely negative towards the Donghak Peasant Army. In his diary entry from July 25, after the first uprising, he claimed that the Donghak unrest had become so severe that it was rare to find anyone in the entire Naepo region who had not joined the movement. Public sentiment had become so turbulent that those who first suffered from the chaos were individuals who, despite their pretensions, were of the yangban(noble) class. Donghak followers banded together, digging up others’ graves and demolishing their houses, and they bound and beat those who had not joined the movement, making it impossible for anyone who was not a Donghak adherent to escape such treatment. However, during this period, a sudden order from the court decreed that commoners, including artisans(who had a lower status), could wear gat(Korean traditional hat) and that all types of lowly people were granted exemption from their previous status, thereby eliminating distinctions between yangban and commoners. This reflects the fact that the reformist government of the Gabo Reform was in the process of legally abolishing the class system.<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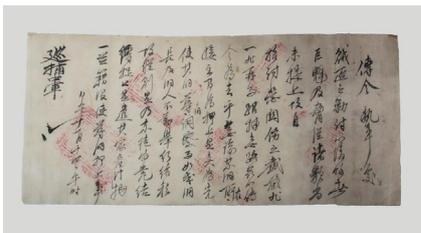
The volumes 19 and 20, titled Geumsung Jeonguirok of Gyeomsanyugo published in the Gap and Eul editions are documents that Yi, Byeong-su, a local scholar from Naju, Jeollado, wrote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Naju and the surrounding areas. The Gap edition covers the period from late 1893, detailing the implementation of Hyangyak(the local code) by the Naju governor Min, Jong-ryeol upon his appointment. It includes records of the first Gobu Peasant Uprising of 1894, the activities of Naju’s contact leader Oh, Gwon-seon and peasant army leader Choi, Gyeong-seon, and the efforts to persuade Jeon, Bong-jun to take up the role of Naju governor. It also records events after the second uprising, including attacks on Naju Castle by Son, Hwa-jung, Choi, Gyeong-seon, and Oh, Gwon-seon, and details

<sup>9</sup> Yu, Ba-da, *The World Documentary Heritag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 Kim, Yak-je’s Diary, Jeonbuk Ilbo, June 6,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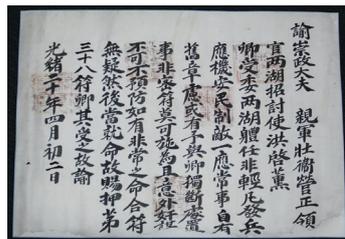
of peasant army activities in Nampyeong and Jangheung, as well as Yeongam. The Eul edition primarily documents the events of 1895, including Chotosa Bogun Gongbyeolji on the actions of Jeong, Tae-wan in Naju, who contributed his wealth to form a counter-peasant army and worked with local officials to defend Naju for ten months and suppress the peasant forces. It also includes documents such as The Long Text of the Local Dignitaries Offering Their Compliments for Military Achievements, A Letter Sent to General Jeong, Songsa Gi Uman, and Topyeongbimyong Byeongseo. The final parts of the Eul edition, Miljo and Byeongpyeon cover the content related to Eulmi Uibyeong.

#### 4. Reports and Official Documents Produced by the Joseon Government

The Joseon government, mobilizing its military and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forcibly suppressed the Donghak Peasant Army, producing a total of 122 records in the process. These records include documents on government discussions, official documents and reports which government forces created during the suppression, lists of individuals involved in the suppression, and court documents related to the trials and judgments of captured Donghak Peasant Army members. Particularly notable are the trial records of Jeon, Bong-jun, the supreme leader of the Donghak Peasant Army because these records are crucial for understanding the goals and perspectives of the peasant ar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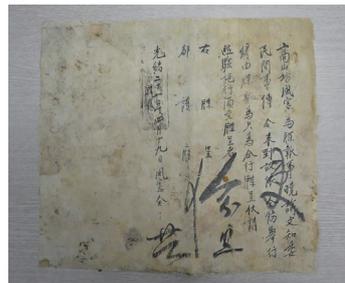
Sunpojunggun Jeonrye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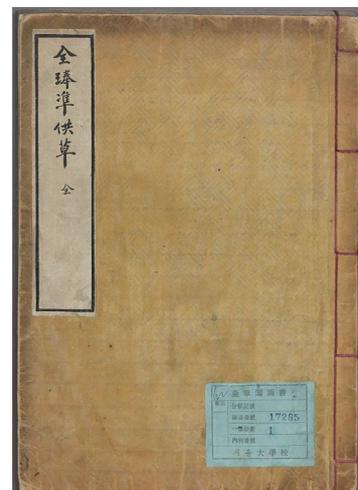
Hong, Gye-un's Milbuyuseo



Kim, San Somo Sasil



Gosanbang Pungheon Cheopbo



Jeon Bong-jun Gongcho

The Joseon government, which suppressed the Donghak Peasant Army, produced a substantial amount of records regarding their activities. Among these, the Heyongsa Jaepan Wonbon(Criminal Court Records), held by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is a significant document. It includes trial records of many Donghak Peasant Army members who were arrested and punished by the Joseon government. This collection contains the Verdict on Jeon, Bong-jun, among others.

Heyongsa Jaepan Wonbon consists of verdicts from various judicial bodies established during the Gabo Reform period, including the Ministry of Law’s judicial offices, the Ministry of Law’s temporary courts, the Ministry of Law’s high courts, special courts, and the Daehan Empire’s high courts and peace courts. These documents derogatorily refer to the Donghak Peasant Army’s activities using terms like Donggyo(Eastern Disturbance), participants as Bido(Outlaws), Dongdo(Eastern Followers), Biryu(Bandits), Dongbi(Eastern Bandits), and their leaders as Bigoe(Bandit Leader), Donghak Geogoe(Giant of Donghak). The suppression of the peasant army is referred to as Tobi(Suppression of Bandits), reflecting the negative perception of their activities. The verdicts include final judgment records for a total of 211 prominent figures such as Jeon, Bong-jun, Son, Hwa-jung, Seo, Jang-ok, Lee, Jun-yong(the grandson of the Daewongun), and Choi, Si-hyung. These documents are invaluable for understanding the realities of the Donghak Peasant Army and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dditionally, some local officials who neglected their duties or were complicit with the peasant army were also punished. The early verdicts of 1895 show that Uchida Sadatsuchi, the Japanese Consul in Seoul, signed as a witness.<sup>10</sup> The key contents on the verdicts on major figures of the Donghak Peasant Army are briefly summarized as follows:

Case No.	Name	Age	Occupation/ Staus	Activity Region	Verdict	Date of Verdict	Court
36	Son, Hwa-jung	35	Peasant	Jeongeup, Jeolla	Executed for leading a band of bandits to attack the government office in Gobu, plundering military supplies, and clashing with government forces in Jeong-eup and Jeonju.	March 29, 1895	Ministry of Justice Temporary Court
37	Jeon, Bong-jun	41	Peasant	Taein, Jeolla	Executed for being a leader of the Donghak Peasant Army and engaging in multiple conflicts, including the initial uprising in Gobu, defeating government forces in Jangseong, attacking Jeonju Castle, and ultimately being captured by Japanese forces in Sunchang after a defeat in Gongju	March 29, 1895	Ministry of Justice Temporary Court

10 Jo, Jae-gon, *The World Documentary Heritag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④ Heyongsa Jaepan Wonbon, Jeonbuk Ilbo, August 15, 2024.

Lee, Jun-yong and 22 others	26	Not specified	Unhyeongung, Hanseong Bukpu	Given a life sentence with reduced severity from the death penalty for using the Donghak uprising to attack Seoul, leading a group to assassinate government officials including Kim, Hong-jip, and plotting to overthrow the government and usurp the throne.	April 19, 1895	Special Court
Choi, Si-hyeong and 3 others	72	Commoner	Wonju, Ganwon	Executed for propagating Donghak teachings received from Park, Chun-man, inciting and organizing followers, appointing local leaders, establishing associations, and participating in uprisings including the 1893 petition to the palace and the assembly in Boeun. Accused of misleading people through charms and orders.	July 18, 1898	High Court

Materials produced by Lee, Gyu-tae, who was the Commander of the First Vanguard of the Yanghou(Defense) Troops, are preserved in the library of Korea University. These documents, created or exchanged by Lee, Gyu-tae during the suppression of the Donghak Peasant Army, provide valuable insights into the reality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dditionally, the Jangseogak Library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holds the Yanghou’s First Vanguard Diary left by Lee, Gyu-tae. Key artifacts that offer direct records on the Donghak Peasant Army include Sunmusa Jeongbocheop, Seonbongjin Jeonryeong Gakjin, Sunmu Seonbongjin Deungnok, and Seonbongjin Seo-mok. Other materials related to the suppression of the Donghak Peasant Army, but containing additional content, include Sojideung Seochae, Gyeonggak Yeong Gonggeup Gi, and Geum Yeong Naechal. Records documenting the activities of the suppression forces themselves are found in items such as Chang-ui Inmyeongnok and Gabo Sibwolil Chin Gun Gyeongni Cheongjang Jolsungchaek.

At Seoul National University’s Kyujanggak, there are important records related to the Donghak Peasant Movements. Yangho Choto Deungrok from Hong, Gye-hun, who served as the Yangho Chief of Suppression during the First Donghak Peasant Revolution, is preserved there. Additionally, Gongsancho Bigi, which provides a detailed account of the Battle of Ugeumchi during the Second Donghak Peasant Revolution, is also housed at Kyujanggak. These documents are among the most significant artifacts representing the First and Second Donghak Peasant Revolutions. The command of the suppression forces, including the Yangho Chief of Suppression and Yangho Vanguard, as well as the Yangho Vanguard itself, was under the authority of the Joseon governmen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focus on the artifacts produced by the Joseon government’s highest institution, the Uijeongbu, and its superior body,

Gunmuamun(the Military Affairs Bureau). Furthermore, the trials of captured Donghak peasants were overseen by Beopmuamun(the Ministry of Justice). Among these, Jeon Bong-jun Gongcho, which contains direct testimonies from Jeon, Bong-jun, is particularly noteworthy. Other significant documents related to the suppression of the Donghak Peasant Movement were produced by various institutions, including Oimuamun(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Notable representative artifacts that comprehensively cover the Donghak Peasant Movement include the Jeon Bong-jun Gongcho, Jungbeom Gongcho, Donghakdang Jeongto Yaggi, and Chwi-eo.

Gabogunjeong Silgi, consisting of ten volumes, documents the communications between the various institutions of the Yangho Defense Command(under the command of the Defense Commander Shin, Jeong-hui) and the Joseon government during the Donghak Peasant Rebellions. This record covers the period from September 22, 1894, to December 28, 1894, detailing the suppression of the Donghak Peasant Army following the second uprising in September 1894. Volumes 1 through 9 focus on the activities related to suppressing the Donghak Peasant Army, while Volume 10 provides an account of the “meritorious deeds” of the soldiers involved in the suppression. This significant collection was first brought to light in 2011 as part of the 1,205 volumes of Korean books returned from the Japanese Imperial Household Agency, marking its initial introduction to scholars and researchers.

Gabogunjeong Silgi, believed to be the only existing copy, is considered one of the materials taken to Japan by the first Resident-General, Ito Hirobumi. It serves as an official document of the Joseon government, detailing the suppression of the Donghak Peasant Army in 1894, and carries the significance of a comprehensive report 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sup>11</sup> Through this document, which was nearly lost due to Ito Hirobumi’s illegal extraction of historical records, the activities of the Donghak Peasant Army were rediscovered, including the names of 224 individuals, allowing for the restoration of some historical facts.

Gabogunjeong Silgi contains detailed accounts, albeit from the government’s perspective, of many individuals who participated in the Donghak Peasant Army. These names and activities had either never been confirmed or were only speculated upon until this document came to light. For example, while

---

11 For further information on the introduction of Gabogunjeong Silgi and the activities of the Yangho Defense Command, refer to Shin, Young-woo’s 2014 proceeding titled Yangho Defense Command and Gabogunjeong Silgi at the academic conference “The Sino-Japanese Wa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the Future Prospects of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hosted by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d the Korean History Research Society(held on November 21, 2014, at the Janggiwon International Conference Room, Yonsei University).

records like the *Seungjeongwon Ilgi* (the Daily Records of the Royal Secretariat) often mention executions or beheadings of “the leader of the Donghak rebels, ○○○, and ○○ others,” or note “a total of ○○ rebels captured,” this document provides the actual names of several of these individuals for the first time. However, even in this record, many are still referred to only as “○○○ and 29 others executed” or as “Jin-ga (family name, Jin) and Lee-ga (family name, Lee),” leaving many participants in the Donghak Peasant Army, who were killed by government forces, the *Minbogun* (local militia), or Japanese troops, anonymous and unknown.

Additionally, there are several documents exchanged between the highest authorities in the Donghak Peasant Army suppression, such as *Uijeongbu* and *Beibbu* (Ministry of Justice, which include *Gyechojonnang*, *Chalijeonjonnang*, *Beobburaemun*, and *Beobburaegeomun*). Lastly, other records and artifacts that document the activities of the suppression forces or contain peripheral intelligence include *Gyonamsurok*, *Gabogun Gongrok*, *Yi Byeong-hwi Gongcho*, *Yi Jun-yong Gongcho*, *Gongmun Ilrok*, and *Gonggongbokcheol*.

## Conclusion

On May 24, 2023, the inclusion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in the UNESCO World Cultural Heritage list was officially confirmed. The process leading up to this achievement involved multiple rounds of internal discussions, during which the agenda was revised and supplemented several times. Additionally, the Japanese side raised objections to certain materials and references in the submitted nomination dossier, and the UNESCO World Committee’s subcommittee requested further modifications. As a result, some content in the final submission was adjusted, though the overall structure remained intact, leading to a successful outcome. The inscription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as a UNESCO World Heritage holds significant importance among Korea’s modern and contemporary cultural heritage, reflecting global recognition of its value. The speaker believes that there are several aspects that need further expansion and will present some suggestions focused on these areas.

First, there is a need for a contemporary interpretation of the core values evident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While the philosophical tenets of Donghak, such as “*Innaechon*” (Man is Heaven) and “*Sainyeocheon*” (Serve People as Heaven), are well known to us,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tself requires further exploration and understanding. Donghak also advocated for principles like governance through cooperation, symbolized by “*Gwanmin Sanghwa*” (Harmony between Officials and the People) and “*Dongbuguknan*” (Together Facing National Crisis). Without discrimination

between yangban(nobles) and sangnom(commoners), the Donghak Peasant Army embodied the values expressed in Donghak, such as “Yumusangja”(Mutual Aid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Bingungsanghyul”(Compassion and Aid for the Poor and Needy), which reflected a spirit of sharing, caring, and social equity. Additionally,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emphasized the sanctity of human life, with ideas like “Human life is the most precious in the world”(from the “Mujang Proclamation”) and “Life and death are determined by fate” coupled with “When the nation faces calamity, the people must also be concerned”(as expressed in a letter by the Donghak Peasant Army to Yu, Gwanghwa). These are powerful, timeless keywords that remain relevant today. They embody an inclusive attitude towards others and the coexistence of the powerless, striving for a world where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are overcome. There is a pressing need to actively promote and highlight these values on the global stage.

Secondly, it can be generally evaluated that the inclusion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in UNESCO’s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was achieved by focusing on their global significance. The primary reason for this focus was the pursuit of universal values in human culture, which aligns with UNESCO’s principles. Additionally, there was a strategic aspect to minimizing opposition from countries like Japan, which have a different historical perspective, in order to ensure successful registration. In this process, the traditional views on the elimination of feudalism, resistance to imperialist invasion, and nationwide resistance were somewhat underemphasized. However, these aspects should not be neglected and must be actively addressed alongside the global significance in future discussions.

Thirdly, there is a need for national-level management through the designation of significant records as cultural heritage. Thanks to the efforts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Foundation, several records have already been registered as national cultural heritage. These include Yu Gwang-hwa’s Letter and Han Dal-mun’s Letter, both held by the Memorial Foundation, as well as Gabogunjeong Silgi housed at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Additionally, on August 8, 2024, Hongjae Ilgi, privately owned, was registered as a National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ther documents, such as Sabaltongmun(circular letters), have been designated as 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Jeollabuk-do, Gangjae Ilsa as 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Jeollanam-do, and Seoknam Yiksa as cultural heritage materials by Jeollabuk-do. However, many items with significant cultural heritage value that are part of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fo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housed in institutions like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s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and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have yet to be designated as cultural heritage. Furthermore, a report commission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itled “Research on the Cataloging of Modern Cultural Heritage Related 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completed in October 2022(with research led by Bae, Hang-seop), uncovered many new documents held by various institutions that were not included i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but have sufficient value to be recognized as cultural heritage.<sup>12</sup> There is a continuous need to proceed with the registration of important materials as cultural heritage.

Fourthly, this moment presents an opportunity fo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Foundation, a permanent organization, to focus on comprehensive material excavation and investigation. It is essential to conduct thorough and continuous research, reorganization, and discovery of materials, not only within Korea but also from abroad, including Japan and China, as well as privately held collections. Since the UNESCO inscription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new information has been uncovered in documents such as Gian(Proposals), Sojang(Petitions), Hunji Gian(Instruction Proposals), Sabop Jochoep(Judicial Certificates), and Hunryeong(Directives). These documents, produced by the Prosecution Bureau, Judicial Bureau, and Criminal Bureau of the Ministry of Justice during the Geonyang to Gwangmu years, have revealed the names and specific activities of more than 190 previously unknown members of the Donghak Peasant Army.

---

12 The report includes a comprehensive survey of artifacts related 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cross institutions not involved in the UNESCO nomination, such as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Hall(Jeonju), Gunsan Modern History Museum, Chungnam History Museum, Taean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Hall, Gochang County Library, Gochang Pansori Museum, Jangheung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Hall, Gangneung Seongyojang(deposited at Jangseogak), the Church History Research Institute, the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the Army Museum of the Korea Military Academy,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Gwangju National Museum, and private collections like the Hongjae Diary. This report details the current state of these artifacts, their bibliographic information, and value assessments on an item-by-item basis.

## [Appendix 1] Catalogue of Documentary Materials Related with the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 1. Civilian Materials 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Materials produced by members of the Donghak Peasant Army(30 items; 269 pages)

No.	Provenance	Name of Material	Name in Chinese Characters	Producer	Date	Volume	Material	Size (cm)	Form	Reason for Selection
1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Han Dal-mun's Letter	韓達文簡札	Han Dal-mun	1894	1 page	Hanji (Korean handmade paper)	40 x 21	Written document	Letter from Han Dal-mun, Donghak Peasant Revolution arrestee, sent from Naju Prison to his mother, asking her to try and save him
2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Yu Gwang-hwa's Letter	劉光華簡札	Yu Gwang-hwa	1894	1 page	Hanji	29 x 24	Written document	Letter from Yu Gwang-hwa, Donghak Peasant Revolution participant, asking his younger brother to send money to help fund the peasant army
3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Letter of Appointment for Song Dae-hwa	宋大和任命狀	Choe Si-hyeong	1894	1 page	Hanji	36 x 27	Written document	Letter from the 9 <sup>th</sup> month of 1894, appointing Song Dae-hwa to be a daejeopju(head of Donghak units called jeop)
4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Letter of Appointment for Cheon Gwi-su	千貴壽任命狀	Choe Si-hyeong	1894	1 page	Hanji	25.5 x 45	Written document	Letter from the 10 <sup>th</sup> month of 1894, appointing Cheon Gwi-su to be a jungjeong(advisor, one of six leadership positions in the Donghak order)
5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Letter of Appointment for Kim Chang-mo	金昌模任命狀	Choe Si-hyeong	1894	1 page	Hanji	33.5 x 48	Written document	Letter from the 8 <sup>th</sup> month of 1894, appointing Kim Chang-mo to be a gyosu(teacher, one of six leadership positions in the Donghak order)
6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Letter of Appointment for Park Byeong-jin	朴炳振任命狀	Choe Si-hyeong	1894	1 page	Hanji	29.5 x 45	Written document	Letter appointing Park Byeong-jin to be a daejeong(counselor, one of six leadership positions in the Donghak order)
7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Letter of Appointment for Park Sun-do	朴順道任命狀	Choe Si-hyeong	1894	1 page	Hanji	30 x 41	Written document	Letter appointing Park Sun-do to be a jungjeong(advisor, one of six leadership positions in the Donghak order)
8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Letter of Appointment for Cheon Il-gwon	千鎰權任命狀	Choe Si-hyeong	1894	1 page	Hanji	25.5 x 44.5	Written document	Letter from the 9 <sup>th</sup> month of 1894, appointing Cheon Il-gwon to be a jipgang(judge, one of six leadership positions in the Donghak order)
9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Letter of Appointment for Jeon Seong-sil	全成實任命狀	Choe Si-hyeong	1894	1 page	Hanji	26 x 42	Written document	Letter from the 3 <sup>rd</sup> month of 1894, appointing Jeon Seong-sil to be a jungjeong(advisor, one of six leadership positions in the Donghak order) and dojip(Chief administrator)
10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Letter of Appointment for Eom Cha-saeng	嚴次生任命狀	Choe Si-hyeong	1894	1 page	Hanji	26.5 x 42.5	Written document	Letter from the 8 <sup>th</sup> month of 1894, appointing Eom Cha-saeng to be a daejeong(counselor, one of six leadership positions in the Donghak order)

No.	Provenance	Name of Material	Name in Chinese Characters	Producer	Date	Volume	Material	Size (cm)	Form	Reason for Selection
11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Letter of Appointment for Hwang Su-pal	黃綉八任命狀	Choe Si-hyeong	1894	1 page	Hanji	41.5 x 27	Written document	Letter from the 8 <sup>th</sup> month of 1894, appointing Hwang Su-pal to be a bongheon
12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Letter of Appointment for Jeong Seong-yeong	鄭聖英任命狀	Choe Si-hyeong	1894	1 page	Hanji	41 x 31.5	Written document	Letter from 1894 appointing Jeong Seong-yeong to be a jeopsa(Donghak council leader)
13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Letter of Appointment for Kim Jun-seop	金浚燮任命狀	Choe Si-hyeong	1894	1 page	Hanji	41 x 31	Written document	Letter from the 7 <sup>th</sup> month of 1894, appointing Kim Jun-seop to be a jipgang(local administrative coordinator, one of six leadership positions in the Donghak order)
14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Naju Roster	羅州名錄	Peasant army member	1894	1 page	Hanji	22 x 162	Written document	Roster related to the jipgangs(local administrative coordination office), written in the Naju region in the 9 <sup>th</sup> month of 1894
15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Roster	名錄	Peasant army member	1894	1 page	Hanji	20.5 x 19.5	Written document	Donghak Peasant Army roster written in the 9 <sup>th</sup> month of 1894
16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Gal-dong, Hampyeong County Roster	咸平葛洞名錄	Peasant army member	1894	1 page	Hanji	23 x 25	Written document	Donghak Peasant Army roster of Gal-dong, Hampyeong County, presumably written in 1894
17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Dongdo Changuiso (Militia Office) Notice	東道倡義所告示	Peasant army member	1894	1 page	Glass plate	16.5 x 12	Photograph	Notice written and distributed by the leadership of the Donghak Peasant Army in the 11 <sup>th</sup> month of 1894. A photograph of it by the Korean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in 1927 is preserved as a glass-plate negative.
18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Jeon Bong-jun's Letter of Appeal	全捧準上書	Jeon Bong-jun	1894	1 page	Glass plate	16.5 x 12	Photograph	Letter of appeal written by Jeong Bong-jun, leader of the Donghak forces from the Honam and Hoseo regions, to the governor of Chungcheong-do Province. A 1927 photograph of the letter by the Korean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is preserved as a glass-plate negative.
19	Cheondogyo (Religion of the Heavenly Way) Central Headquarters	Handwritten Copy of Mujang Proclamation	茂長布告文	Peasant army member	1894	1 page	Hanji	36.5 x 21	Written document	Handwritten copy of the Donghak proclamation in Mujang(present-day Gochang)
20	Cheondogyo Central Headquarters	Letter of Appointment for Na Dong-hwan to be a Gyojang	羅東煥教長任命狀	Choe Si-hyeong	1894	1 page	Hanji	26.5 x 38.5	Written document	Letter appointing Na Dong-hwan to be a gyojang(chief inspector, one of six leadership positions in the Donghak order)

21	Cheonodogyo Central Headquarters	Letter of Appointment for Hong Jae-in to be a Daejang	洪在寅 大正 任命狀	Choe Si-hyeong	1894	1 page	Hanji	26 x 40	Written document	Letter appointing Hong Jae-in to be a dae-jeong(counselor, one of six leadership positions in the Donghak order)
22	Cheonodogyo Central Headquarters	Letter of Appointment for Jeong Sun-gyeong to be a Gyojang	鄭淳敬 教長 任命狀	Choe Si-hyeong	1894	1 page	Hanji	26 x 42	Written document	Letter appointing Jeong Sun-gyeong to be a gyo-jeong(chief inspector, one of six leadership positions in the Donghak order)
23	Cheonodogyo Central Headquarters	Letter of Appointment for Yi Seung-ryong to be a Gyosu	李承龍 教授 任命狀	Choe Si-hyeong	1894	1 page	Hanji	28 x 44.5	Written document	Letter appointing Yi Seung-ryong to be a gyo-su(teacher, one of six leadership positions in the Donghak order)
24	Cheonodogyo Central Headquarters	Letter of Appointment for Yang Eon-nam to be a Bongheon	梁彦男 奉軒 任命狀	Choe Si-hyeong	1894	1 page	Hanji	29 x 44	Written document	Letter appointing Yang Eon-nam to be a bongheon
25	Cheonodogyo Central Headquarters	Letter of Appointment for Yi Su-bang to be a Jeopju	李洙芳 接主 任命狀	Choe Si-hyeong	1894	1 page	Hanji	28.5 x 45	Written document	Letter appointing Yi Su-bang to be a jeopju(head of a Donghak unit called jeop)
26	Independence Hall of Korea	Letter of Appointment for An Jin-geum to be a Jipgang	安鎭金 執綱 任命狀	Choe Si-hyeong	1894	1 page	Hanji	38 x 23	Written document	Letter appointing An Jin-geum to be a jipgang(local administrative coordinator, one of six leadership positions in the Donghak order)
27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Circular	沙鉢 通文	Peasant army member	1900s	1 page	Hanji	42 x 30	Written document	Circular notice, presumably written in the 1900s, regarding a plan to advance to Seoul after Jeon Bong-jun and others occupy the Jeolla provincial office
28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Sungyo yangnyeok (Record on Martyrs)	殉教 略歷	Choe Byeong-hyeon	1923	1 volume (61 pages)	Hanji	16 x 24	Book	Book written in 1923 by Choi Byeong-hyeon, Namwon County division leader of Cheonodogyo. Based on the testimony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participant Yu Tae-heung, it describes activities of the peasant army members based in Namwon.
29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Namwon jongni wonsa (History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the Namwon Region)	南原 宗理 院史	Choe Byeong-hyeon	1924	1 volume (47 pages)	Hanji	17 x 24.5	Book	Book by Choe Byeong-hyeon, Namwon County division leader of Cheonodogyo. Based on the testimony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participant Yu Tae-heung, it traces what occurred in the Namwon area during the revolt.
30	National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Donghaksa (History of Donghak) (first draft)	東學史 (草稿本)	Oh Ji-yeong	1926	4 volumes (134 pages)	Paper	26 x 18	Book	Record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from the birth of Donghak to the revolution and activities of Cheonodogyo

### 2.1. Civilian Materials 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Materials produced by those who suppressed the Donghak Peasant Army(16 items; 751 pages)

No.	Provenance	Name of Material	Name in Chinese characters	Producer	Date	Volume	Material	Size (cm)	Form	Reason for Selection
1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Private correspondence	私通	Lieutenant-governor	1894	1 page	Hanji	29.5 x 77	Written document	Private letter written in 1894 by a dotongjang(lieu-tenant-governor) ordering militia members to capture Donghak forces and report on the outcome.
2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Letter of Appeal	上書	Gu Bon-hyeop et al.	1894	1 page	Hanji	61 x 98	Written document	Letter of appeal written to the chotosa(provisional military commissioner) Min Jong-ryeol in the 12th month of 1894 by Gu Bon-hyeop, Gu Dal-mo and Gu Gil-mo living in Hancheon-myeon, Neungju county
3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Village Survey of Participants in the Revolution	儒會成冊		1894	1 volume (10 pages)	Hanji	37 x 25	Book	1894 poll by the Confucian association of Cheong-dong, Cheong-myeon to identify who did and did not jo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4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Administrative Command	通諭文	Oh Jun-sang et al.	1894	1 page	Hanji	22.5 x 25	Written document	Document written by Oh Jun-sang, the village chief of Hwasun, and others in the 8 <sup>th</sup> month of 1894. It calls on everyone to cooperate in suppressing the disturbance by Donghak followers.
5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Hyangyak an (Draft Village Code)	鄉約案	Unknown	1894	1 volume (68 pages)	Hanji	20 x 32	Written document	Draft village code written in 1894, which makes reference to suppression of the Donghak Peasant Army
6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Hyangyakjangjeong (Village Code Rules and Regulations)	鄉約章程	Unknown	1894	1 volume (20 pages)	Hanji	57 x 80	Book	Book from the office of Wansan Choanguk, urging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s on arrest and punishment of Donghak Peasant Army members
7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Notice	所志	Park Geun-sun et al.	1894	1 page	Hanji	29 x 19	Written document	Notice issued by ten people, including Park Geun-sun from Suguk-ri, in the 12 <sup>th</sup> month of 1894
8	Korea University Library	Recorded Testimonies	記聞錄	Unknown	1894	1 volume (76 pages)	Hanji	29 x 19	Book	Record of the movements of the Donghak Peasant Army in Yeongdong and the southern parts of Chungcheong-do Province and the northern part of Gyeongsang-do Province

9	National Library of Korea	Tobi daenyak (Record of Suppression)	討匪大略	Kim Seok-jeung	1894	1 volume (62 pages)	Hanji	29 x 20	Book	Journal written by Confucian scholar Kim Seok-jeung of Sangju, Gyeongsang-do Province, who was appointed head of a base camp in Sangju that was established to suppress the peasant army
10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huiuirok (Record of Justice)	聚義錄	Heungdeok County	1894	1 volume (44 pages)	Hanji	24.5 x 21.5	Book	Roster of participants in the suppression of the peasant army in Gochang, Heungdeok County, Jeolla-do Province
11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Geouirok (Militia Record)	學義錄	Kang Yeong-jeung, Park Yun-hwa, Kang U-jeung	1894	1 volume (27 pages)	Hanji	31 x 21.5	Book	Collected materials on the activities civilian recruits to suppress the peasant army
12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Hyangyak jeolmok (Village Code Regulations)	鄉約節目	Je Cheon-hyeon	1894	1 volume (7 pages)	Hanji	29.7 x 20.5	Book	Village regulations implemented in 1894 in Jecheon, Chungcheong-do Province. The same village code was to be used in the three southern provinces in preparation to fight the peasant army.
13	Cheondogyo Central Headquarters	Letter of Appointment for Oh Se-yong to be Deputy Chief of Staff	吳世鏞副參謀長任命狀	Civilian Reserve Force	1894	1p	Hanji	35 x 37	Written document	Letter appointing Oh Se-yong to be deputy chief of staff of the defense forces (suseongbu) in 1894
14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Posthumous Writings of Nanpa	蘭坡遺稿	Jeong Seok-jin	1913	1 volume (165 pages)	Hanji	19 x 30	Book	Detailed accounts by Jeong Seok-jin (pen name Nanpa) of fighting the Donghak Peasant Army in Naju when he was dotongjang (lieutenant-governor of the militia)
15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Changgye Singong silgi (True Record of Changgye)	蒼溪申公實記	Shin Seok-chan	1915	2 volumes (142 pages)	Hanji	29 x 20	Book	Writings of Shin Seok-chan (pen name Changgye), who was active in subduing the peasant army in the Uiheung, Gunwi, and Chilgok areas of Gyeong-sang-do Province
16	National Library of Korea	Uisan yugo (Posthumous Writings of Uisan)	義山遺稿	Mun Seok-bong	1934	2 volumes (125 pages)	Hanji	27.5 x 19	Book	Mun Seok-bong's account of his role in fighting the Donghak Peasant Army as a member of the civilian reserve force (minbogun). Uisan was Mun's pen name.

## 2.2. Civilian Materials 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Materials produced by observer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17 items; 2,531 pages)

No.	Provenance	Name of Material	Name in Chinese Characters	Producer	Date	Pages	Material	Size (cm)	Form	Reason for selection
1	National Library of Korea	Simungi (Record of Current Observations)	時間記	Yi Nan-seok	1894	1 volume (35 pages)	Hanji (Korean paper)	27 x 18	Book	Record of the background and progression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s experienced by Yi Dam-seok, a Confucian scholar in Chungcheong-do Province
2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Namjeong ilgi (Diary of the Southern Expedition)	南征日記	Yi Jung-ha	1894	1 volume (20 pages)	Hanji	19 x 19	Book	Diary that reports on the stationing of Qing troops in Korea and their movements from early in the 5 <sup>th</sup> month to the 27 <sup>th</sup> day of the 6 <sup>th</sup> month of 1894
3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Baekseok seodok (Letters of Yi Yong-mok)	白石書牘	Yi Yong-mok	1894	1 volume (248 pages)	Hanji	25 x 17	Book	A collection of letters written by Yi Yong-mok that describe the movements of the Donghak followers in 1892
4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Gabo silgi (Real Account of 1894)	甲午實記	Unknown	1894	1 volume (42 pages)	Hanji	30.5 x 22	Book	Detailed account of developments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Gabo Reform
5	Yonsei University Library	Diary of Yi Bok-yeong (Record of the Southward Journey)	李復榮日記 (南遊隨錄)	Yi Bok-yeong	1894	1 volume (160 pages)	Hanji	30 x 20	Book	Detailed account of the situation at the Jipgangso in Buyeo, where Yi Bok-yeong resided, and in other parts of Chungcheong-do Province
6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Letter	簡札	Unknown	1894	1 page	Hanji	24 x 37	Book	Letter written by a man from Okcheon County, Chungcheong-do Province, to his younger brother on the 2nd day of the 4 <sup>th</sup> month of 1894, explaining the situation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7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Letter	簡札	Unknown	1894	1 page	Hanji	24 x 37	Book	Letter from a man in Okcheon County, Chungcheong-do Province, to his younger brother on the 20 <sup>th</sup> day of the 4 <sup>th</sup> month of 1894, explaining the situation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8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Letter	簡札	Unknown	1894	1 page	Hanji	24 x 37	Book	Letter from a man in Okcheon County, Chungcheong-do Province, to his younger brother on the 9 <sup>th</sup> day of the 5 <sup>th</sup> month of 1894, explaining the Donghak Peasant Army's capture of Jeonju Fortress
9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Letter	簡札	Unknown	1894	1 page	Hanji	24 x 37	Book	Letter written around the 5 <sup>th</sup> month of 1894, explaining the situation following the Donghak Peasant Army's capture of Jeonju Fortress

No.	Provenance	Name of Material	Name in Chinese Characters	Producer	Date	Pages	Material	Size (cm)	Form	Reason for selection
10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Yaksa (An Abbreviated History)	若史	Yi Yong-gyu	1897	4 volumes (97 pages)	Hanji	31.5 x 19	Book	Diary recording all matters, big and small, and year-end evaluation of events, written daily from 1888 to 1897 by Yi Yong-gyu, a Confucian scholar from Gongju
11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Chundangnok (Record of Chundang)	春塘錄	Yang Saeng	1900	3 volumes (376 pages)	Hanji	18.5 x 27.5	Book	Writings by Yang Saeng, a Confucian scholar from Yeosan, which contains an account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Chundang was his pen name.
12	Yonsei University Library	Yeonpajip (Collected Writings of Kim Byeong-hwi)	蓮坡集	Kim Byeong-hwi	1913	1 volume (36 pages)	Hanji	31 x 20	Book	Collected writings of Kim Byeong-hwi, a Confucian scholar from Gangjin, which contains details of the battles in Jangheung and Gangjin in the 12 <sup>th</sup> month of 1894
13	Yonsei University Library	Hwakjaejip (Gyeongnannok) (Collected Writings of Yi Beom-seok) (War Record)	確齋集 (經亂錄)	Yi Beom-seok	1919	1 volume (63 pages)	Hanji	31 x 21	Book	Record of events that occurred in Korea between 1860 and 1919 and evaluation of them by scholar Yi Beom-seok, which contains detailed accounts of activities of the Donghak Peasant Army
14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Diary of Kim Yak-je	金若濟日記	Kim Yak-je	1930	4 volumes (108 pages)	Hanji	27 x 19.5	Book	Diary entries by Kim Yak-je, professor at Seonggyungwan(National Confucian Academy) on the political situation in the capital and among officials dur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15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Chocheongjip (Collected Writings of Kim Seong-gyu)	草亭集	Kim Seong-gyu	1937	6 volumes (1,187 pages)	Hanji	24.5 x 18	Book	Anthology of writings by scholar Kim Seong-gyu, which makes reference 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16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Gyeomsan yugo (Geumseong jeonguirok) (Posthumous Writings of Yi Byeong-su) (Record of Righteous Armies in the Naju Area)	謙山遺稿 (錦城正義錄)	Yi Byeong-su	1946	1 volume (88 pages)	Hanji	19.5 x 28.5	Book	Collected writings of Yi Byeong-su(pen name Gyeomsan), which contains valuable information that sheds light on the movements of the Donghak Peasant Army
17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Seongnam yeoksa (A History by Park Mun-gyu)	石南歷史	Park Mun-gyu	1954	1 volume (68 pages)	Hanji	18 x 21.5	Book	Memoir written in 1953 by Park Mun-gyu, who had attended the school where Jeon Bong-jun(leader of the Donghak Peasant Army) taught. It contains an account of the outbreak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the Battle of Hwangto County. Seongnam was Park's pen name.

### 3. Reports and Official Documents Produced by the Joseon Dynasty Government(122 items; 9,581 pages)

No.	Provenance	Name of Material	Name in Chinese characters	Producer	Date	Pages	Material	Size (cm)	Form	Reason for Selection
1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Admonition from Regent Heungseon	興宣大院君曉諭文	Joseon Dynasty Government	1894	1 page	Harji (Korean paper)	117 x 27	Written document	Admonition written and distributed in the name of the Regent Heungseon in the 9 <sup>th</sup> month of 1894, urging dissolution of the Donghak Peasant Army
2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Chart	表	Jeolla Province Governor	1894	1 page	Harji	13 x 15.5	Written document	Chart produced by the governor of Jeolla-do Province for Han Hakmo in the 12 <sup>th</sup> month of 1894
3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Otong jeolmok (Rules of Five-Household Surveillance Unit)	五統節目	Jeolla Province Governor	1894	1 volume (20 pages)	Harji	20 x 33	Book	Village rules distributed by the governor of Jeolla-do Province to monitor residents and track down participants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4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Hyangyak jangjeong (Village Code Rules and Regulations)	鄉約章程	Jeolla Province Governor	1894	1 volume (20 pages)	Harji	21 x 32	Book	Village regulations distributed by the governor of Jeolla-do Province, which was used by the government of the Joseon Dynasty to calm public fears ove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5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Hong U-jeon's Certificate of Non-participation(mulchimcheop)	洪祐鎔勿侵帖	Naju County	1894	1 page	Harji	15 x 23.5	Written document	Certificate issued to Hong U-jeon in the 11 <sup>th</sup> month of 1894 by the government of Naju County, stating that the holder did not take part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6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Certificate of Non-participation(mulchimcheop)	勿侵帖	Joseon Dynasty Government	1894	17 pages	Harji	23 x 24	Written document	Profiles of 17 individuals who didn't participate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produced in the 12 <sup>th</sup> month of 1894
7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Yi Jeong-don's Certificate of Non-participation(mulchimcheop)	李廷墩勿侵帖	Nambyeong County	1894	1 page	Harji	29 x 22	Written document	Certificate issued to Yi Jeong-don, verifying that he didn't participate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produced on the 29 <sup>th</sup> day of the 12 <sup>th</sup> month of 1894
8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Official Document	完文	Eosangcheon village chief	1894	1 page	Harji	27.5 x 110	Written document	Official document issued by the chief of Eosangcheon village in the 12 <sup>th</sup> month of 1894, stating that Yi Geon-jae, leader of a Donghak unit, had fled his village and that the proceeds from the urgent sale of his house and land would be donated to the village.
9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Official Edict	傳令	Summuyeong	1894	1 page	Harji	19 x 83	Written document	Official edict issued by summuyeong(provisional military camp) on the 4 <sup>th</sup> day of the 4 <sup>th</sup> month of 1894, stating that any Donghak followers breaking the law must be arrested

10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Official Edict	傳令	Officer of Sunmyeong	1894	1 page	Hanji	21 x 45	Written document	Official edict sent on the 14 <sup>th</sup> day of the 11 <sup>th</sup> month of 1894 from a sunmyeong(provisional military camp) officer to a higher office
11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Official Edict	傳令	Joseon Dynasty Government	1894	1 page	Hanji	21 x 45	Written document	Official edict issued in 1894 ordering the capture of all leaders of Donghak jeep units
12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Confidential Royal Instruction to Hong Gye-hun	洪啓薰密符諭書	Gojong	1894	1 page	Hanji	67 x 58	Written document	King Gojong's confidential instruction to Hong Gye-hun, appointed as special provisional military commissioner(chotosa) of the Chungcheong and Jeolla regions, dated the 2 <sup>nd</sup> day of the 4 <sup>th</sup> month of 1894
13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Yangho jeonggi (Telegrams from the Honam and Hoseo Regions)	兩湖電記	Hong Gye-hun	1894	1 volume (74 pages)	Hanji	21 x 32.5	Book	Telegrams exchanged between Hong Gye-hun and government offices in the 4 <sup>th</sup> and 5 <sup>th</sup> months of 1894, compiled in chronological order
14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Official Document	完文	Naju County	1894	1 page	Hanji	57 x 46	Written document	Official document produced in the 11 <sup>th</sup> month of 1894 by the Naju County office
15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Bukha-myeon Village Report	北下面報	Hong Sun-cheol	1894	1 page	Hanji	31.5 x 50	Written document	Report sent to Yesan County office on the 10 <sup>th</sup> day of the 11 <sup>th</sup> month of 1894, written by Hong Sun-cheol, village head of Bukha-myeon in Yesan County
16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Bukha-myeon Village Report	北下面報	Hong Sun-cheol	1894	1 page	Hanji	37.5 x 51	Written document	Report sent to Yesan County office in the hour of the rooster(5-7 p.m.) on the 13 <sup>th</sup> day of the 11 <sup>th</sup> month of 1894, written by Hong Sun-cheol, village head of Bukha-myeon in Yesan County
17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Bukha-myeon Village Report	北下面報	Hong Sun-cheol	1894	1 page	Hanji	37.5 x 57	Written document	Report sent to Yesan County office in the hour of the rabbit(5-7 a.m.) on the 15 <sup>th</sup> day of the 11 <sup>th</sup> month of 1894, written by Hong Sun-cheol, village head of Bukha-myeon in Yesan County
18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Bukha-myeon Village Report	北下面報	Hong Sun-cheol	1894	1 page	Hanji	38 x 60	Written document	Report sent to Yesan County office in the hour of the dog(7-9 p.m.) on the 15 <sup>th</sup> day of the 11 <sup>th</sup> month of 1894, written by Hong Sun-cheol, village head of Bukha-myeon in Yesan County
19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Bukha-myeon Village Report	北下面報	Hong Sun-cheol	1894	1 page	Hanji	39.5 x 59.5	Written document	Report sent to Yesan County office in the hour of the monkey(3-5 p.m.) on the 16 <sup>th</sup> day of the 11 <sup>th</sup> month of 1894, written by Hong Sun-cheol, village head of Bukha-myeon in Yesan County
20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Bukha-myeon Village Report	北下面報	Hong Sun-cheol	1894	1 page	Hanji	37.5 x 58	Written document	Report sent to Yesan County office in the hour of the tiger(3-5 a.m.) on the 17 <sup>th</sup> day of the 11 <sup>th</sup> month of 1894, written by Hong Sun-cheol, village head of Bukha-myeon in Yesan County
21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Bukha-myeon Village Report	北下面報	Hong Sun-cheol	1894	1 page	Hanji	37.5 x 56	Written document	Report sent to Yesan County office in the hour of the rooster(5-7 p.m.) on the 17 <sup>th</sup> day of the 11 <sup>th</sup> month of 1894, written by Hong Sun-cheol, village head of Bukha-myeon in Yesan County

No.	Provenance	Name of Material	Name in Chinese characters	Producer	Date	Pages	Material	Size (cm)	Form	Reason for Selection
22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Bukha-myeon Village Report	北下面報	Hong Sun-cheol	1894	1 page	Hanji	38 x 52.5	Written document	Report sent to Yesan County office on the 24 <sup>th</sup> day of the 11 <sup>th</sup> month of 1894, written by Hong Sun-cheol, village head of Bukha-myeon in Yesan County
23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Bukha-myeon Village Report	北下面報	Hong Sun-cheol	1894	1 page	Hanji	33.5 x 52	Written document	Report sent to Yesan County office on the 3 <sup>rd</sup> day of the 12 <sup>th</sup> month of 1894, written by Hong Sun-cheol, village head of Bukha-myeon in Yesan County
24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Bukha-myeon Village Report	北下面報	Hong Sun-cheol	1894	1 page	Hanji	37 x 55	Written document	Report sent to Yesan County office on the 12 <sup>th</sup> day of the 12 <sup>th</sup> month of 1894, written by Hong Sun-cheol, village head of Bukha-myeon in Yesan County
25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Bukha-myeon Village Report	北下面報	Hong Sun-cheol	1894	1 page	Hanji	32 x 51	Written document	Report sent to Yesan County office in the hour of the horse(11 a.m. - 1 p.m.) on the 12 <sup>th</sup> day of the 12 <sup>th</sup> month of 1894, written by Hong Sun-cheol, village head of Bukha-myeon in Yesan County
26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Bukha-myeon Village Report	北下面報	Hong Sun-cheol	1894	1 page	Hanji	32 x 52.5	Written document	Report sent to Yesan County office on the 15 <sup>th</sup> day of the 12 <sup>th</sup> month of 1894, written by Hong Sun-cheol, village head of Bukha-myeon in Yesan County
27	Korea University Library	Gwangam chibuchaek (Tax ledger)	關甘置簿冊 鎮安縣各樣上納月當錢木數交納未納成冊	Joseon Dynasty Government	1894	1 volume (34 pages)	Hanji	30 x 19	Book	Tax ledger compiled from the 1 <sup>st</sup> to the 6 <sup>th</sup> month of 1894
28	Korea University Library	Jinan County Tax Ledger		Jinan County	1894	1 volume 17(pages)	Hanji	30 x 20	Book	Tax ledger of Jinan County, showing paid and unpaid taxes in the 6 <sup>th</sup> month of 1894
29	Korea University Library	Compilation of Civil Petitions	民狀抄繫冊	Boseong County	1894	1 volume (60 pages)	Hanji	33 x 20	Book	Civil petitions from each village in Boseong County and their outcomes, in 1894
30	Korea University Library	Chief Field Commander's Intelligence File	巡撫使呈報牒	Yi Gyu-tae	1894	1 volume(150 pages)	Hanji	30 x 22	Book	Intelligence on the Donghak Peasant Army, written in the 11th and 12th months of 1894 by Yi Gyu-tae, seonbongjang(chief field commander) in the Chungcheong and Jeolla regions and sent to Shin Jeong-hui, special military commissioner
31	Korea University Library	Collection of Hand-copied Petitions	所志牒書冊	Joseon Dynasty Government	1894	1 volume(64 pages)	Hanji	32 x 20	Book	Civil petitions and admonitions issued by the Joseon government during the second revolt of the Donghak Peasant Army, letters from Jeon Bong-jun(Donghak leader) and others to the governor of Chungcheong-do Province
32	Korea University Library	Record of Supplies to Military Camps Protecting the Capital	京各營供給記	Joseon Dynasty Government	1894	1 volume (139 pages)	Hanji	26 x 25	Book	Record of supplies sent to military organizations involved in the suppression of the Donghak Peasant Army, compiled in the 10 <sup>th</sup> month of 1894

33	Korea University Library	List of Peasant Army Members and Supplies	罪人軍物成冊	Joseon Dynasty Government	1894	1 volume (150 pages)	Hanji	27 x 25	Book	List of supplies and convicted members of the Donghak Peasant Army, compiled in the 10 <sup>th</sup> month of 1894
34	Korea University Library	Roster of Stationed Prison Officers in the Tenth Month of the Gabo Year	甲午十月日矯導所出駐將兵成冊	Joseon Dynasty Government	1894	1 volume (38 pages)	Hanji	32 x 21	Book	List of the names and positions of prison officers who participated in the suppression of the Donghak Peasant Army in the 10 <sup>th</sup> month of 1894
35	Korea University Library	List of Officers at the Vanguard in the Tenth Month of the Gabo Year	甲午十月日先鋒陣出征將卒姓名及其服馬實數成冊	Joseon Dynasty Government	1894	1 volume (10 pages)	Hanji	26 x 26	Book	List of supplies and names of officers and soldiers who were at the forefront in suppressing the Donghak Peasant Army in the 10 <sup>th</sup> month of 1894
36	Korea University Library	Roster of Conscripted Militia Officers	本陣別軍官差出記	Joseon Dynasty Government	1894	1 volume (28 pages)	Hanji	26 x 25	Book	Roster of conscripted militia officers who took part in suppressing the Donghak Peasant Army in the 10 <sup>th</sup> month of 1894
37	Korea University Library	Civilian Militia Roster	倡義人名錄	Joseon Dynasty Government	1894	1 volume (36 pages)	Hanji	25 x 25	Book	Roster of civilian recruits who took part in suppress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1894
38	Korea University Library	Roster of Officers and Soldiers of the Capital Guards Command	親軍壯衛營將卒實數成冊	Joseon Dynasty Government	1894	1 volume (75 pages)	Hanji	32 x 22	Book	Roster of officers and soldiers of the Chinguryeong(Capital Guards Command) who took part in suppressing the Donghak Peasant Army in 1894
39	Korea University Library	Mulgeumcheop (Note on Prohibition)	勿禁帖記	Joseon Dynasty Government	1894	1 volume (88 pages)	Hanji	28 x 25	Book	Roster of people to be excluded from arrest during suppression of the Donghak Peasant Army in 1894
40	Korea University Library	Roster of Confucian Association Meeting in Mbyeondo and Ganwoldo in Seosan	瑞山口邑面看月島儒會成冊	Confucian Forces of Ganwoldo	1894	1 volume (8 pages)	Hanji	26 x 25	Book	Roster of attendees at a meeting of the local Confucian association of Ganwoldo Island, Mbyeon-myeon, Seosan, held in 1894
41	Korea University Library	Roster of participants at the Confucian Association Meeting in Ugli-ri, Yeongpungchang-myeon, Seosan	瑞山永豐倉面牛吉里儒會姓名成冊	Confucian Forces of Ugli-ri	1894	1 volume (6 pages)	Hanji	26 x 25	Book	Roster of attendees at a local Confucian association meeting held in 1894 in Ugli-ri village, Yeongpungchang-myeon, Seosan
42	Korea University Library	Chuncheon and Jeolla Commander Yi Gyu-tae's Epitaph	兩湖巡撫先鋒將李公圭泰墓碑銘	Yi Seung-uk et al.	1894	1 volume (10 pages)	Hanji	28 x 22	Book	Epitaph of Yi Gyu-tae(chief field commander), and his letters exchanged with military unit commanders, acquaintances and family in the 10 <sup>th</sup> and 11 <sup>th</sup> months of 1894, during suppression of the Donghak Peasant Army
43	Korea University Library	Incoming Letters at the Chungcheong Governor's Office	錦營來札	Kim Hong-jip, Kim Yun-sik	1894	1 volume (75 pages)	Hanji	33 x 23	Book	Compilation of letters sent by Kim Hongjip and Kim Yun-sik to the governor of Chungcheong-do Province between the 8 <sup>th</sup> month and 12 <sup>th</sup> month of 1894

No.	Provenance	Name of Material	Name in Chinese characters	Producer	Date	Pages	Material	Size (cm)	Form	Reason for Selection
44	Korea University Library	Official Edicts from the Advance Guard	先鋒陳傳令各陣	Yi Gyu-tae	1894	1 volume (62 pages)	Hanji	31 x 21	Book	Official edicts sent by chief field commander Yi Gyu-tae to the commanders of various militia units and camps between the 10 <sup>th</sup> and 12 <sup>th</sup> months of 1894
45	Korea University Library	Roster of Officers and Soldiers of Tongwiyeong Mobilized in the Gabo Year(1894)	親軍統衛營甲午十月出駐將卒成冊	Joseon Dynasty Government	1894	1 volume (40 pages)	Hanji	28 x 22	Book	Roster of officers and soldiers of Tongwiyeong(united royal guards) deployed to the battlefield in 1894
46	Korea University Library	Roster of Officers and Soldiers of Gyeongnicheong Mobilized in the Gabo Year(1894)	甲午十月日親軍經理廳將卒成冊	Joseon Dynasty Government	1894	1 volume (48 pages)	Hanji	28 x 25	Book	Roster of officers and soldiers of Gyeongnicheong(Bukhan Mountain Fortress defense unit) sent to the battlefield in 1894
47	Korea University Library	Gyeongnicheong in the Tenth Month of the Gabo Year(1894)	甲午十月日經理廳	Joseon Dynasty Government	1894	1 volume (12 pages)	Hanji	26 x 26	Book	Roster of officers and soldiers of Gyeongnicheong(Bukhan Mountain Fortress defense unit) sent to the battlefield in 1894
48	National Library of Korea	Geumbeon jimnyak (The Collected Documents of Chungcheong Governor's Office)	錦藩集略	Yi Heon-yeong	1894	1 volume (51 pages)	Hanji	29 x 30	Book	Collection of reports to the government from Yi Heon-yeong, governor of Chungcheong-do Province, on Donghak Peasant Army activity in the province and on the Sino-Japanese War as well as official documents sent to military units
49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Hongyang gisa (Records of Hong from Namyang)	洪陽紀事	Hong Geon	1894	1 volume (124 pages)	Hanji	34 x 20.5	Book	Records of Hong Geon, from Namyang, 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the Sino-Japanese War in the Hongju area, present-day Hongseong County, Chungcheongnam-do Province
50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Gongsan Chobigi (Record of Suppression of Rebels in Gongju)	公山剿匪記	Joseon Dynasty Government	1894	1 volume (9 pages)	Hanji	35.5 x 25	Book	Record of the Battle of Ugeumchi, Gongju, between the Donghak Peasant Army and government forces in the 10 <sup>th</sup> month of 1894
51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Yangcho deungnok (Record of Special Mission in Chungcheong and Jeolla Regions)	兩湖招討牘錄	Special Military Command of Chungcheong and Jeolla Regions	1894	1 volume (41 pages)	Hanji	42 x 24	Book	Diary of the activities of Hong Gye-hun, special military commissioner of the Chungcheong and Jeolla regions from the 3 <sup>rd</sup> day of the 4 <sup>th</sup> month to the 16 <sup>th</sup> day of the 5 <sup>th</sup> month in 1894, when Hong led forces from Seoul to reclaim the Jeonju Fortress

52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List of Donghak Captives in Suncheon City	順天府 捕捉東徒 姓名成冊	Office of Foreign Affairs	1894	1 volume (3 pages)	Hanji	35 x 25.5	Book	Names of Donghak followers who were captured in the 12 <sup>th</sup> month of 1894 in Suncheon, Jeolla-do Province, dates of their arrest, and details on how they were handled, compiled for report to the central government
53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List of Donghak Captives in Gwangyang County	光陽縣 捕捉東徒 姓名成冊	Office of Foreign Affairs	1894	1 volume (8 pages)	Hanji	35 x 25.5	Book	Names of Donghak followers who were captured in the 12 <sup>th</sup> month of 1894 in Gwangyang County, Jeolla-do Province, dates of their arrest, and details on how they were handled, compiled for report to the central government
54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Gyonam surok (Record of Gyeongsang-do Province)	嶠南 隨錄	Gyeongsang-do Provincial Office	1894	1 volume (72 pages)	Hanji	29.5 x 19	Book	Expenditures of military units in Gyeongsang-do Province while on the march through the counties of Sangju, Anui and Gimsan, between the 28 <sup>th</sup> day of the 8 <sup>th</sup> month and the 24 <sup>th</sup> day of the 12 <sup>th</sup> month of 1894
55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Gyecho jonan (Reports to the Throne)	啓草 存案	State Council	1894	1 volume (95 pages)	Hanji	29.5 x 20	Book	Reports made to Uijeongbu, the state council of Joseon, between the 21 <sup>st</sup> day of the 7 <sup>th</sup> month and the 20 <sup>th</sup> day of the 11 <sup>th</sup> month of 1894, compiled by the record-keeping division of Uijeongbu
56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onghakdang jeongto inmok(Record of Subjugators of the Donghak Party)	東學黨 征討人錄	Ministry of Military Affairs	1894	1 volume (42 pages)	Hanji	29.5 x 19.5	Book	Record of 766 people(divided into six groups) who were recognized for their role in suppress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1894
57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Gabo gungongnok (Record of Military Achievements of 1894)	甲午 軍功錄	Ministry of Military Affairs	1894	1 volume (21 pages)	Hanji	26 x 18	Book	Record of the names, positions, and military achievements of 411 people who helped suppress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58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onghak Captives from Seomye Station in Gwangyang County	光陽 蟾溪驛捕 捉東徒姓 名成冊	Office of Foreign Affairs	1894	1 volume (3 pages)	Hanji	35 x 25.5	Book	Names of Donghak followers who were captured by a civilian on the 10 <sup>th</sup> day of the 12 <sup>th</sup> month of 1894 at Seomye Station in Gwangyang County, Jeolla-do Province, and details on how they were handled, compiled for report to the central government
59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Yi Byeong-hwi's Statement	光陽 蟾溪驛捕 捉東徒姓 名成冊	Ministry of Law	1894	1 volume (33 pages)	Hanji	28.5 x 20.3	Book	Record of interrogation of Yi Byeong-hwi on three occasions(5 <sup>th</sup> , 7 <sup>th</sup> , and 8 <sup>th</sup> day of the 10 <sup>th</sup> month of 1894). Yi was arrested on the 2 <sup>nd</sup> day of the 9 <sup>th</sup> month on charges of delivering a secret letter from Regent Heungseon urging the peasant army to march north.
60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Questioning of Yi Jun-yong	李秉輝 供草	Ministry of Law	1894	3 volumes (172 pages)	Hanji	32.8 x 20.3	Book	Records on the interrogation of suspects in the murder of Kim Hak-u, vice-minister of law, at the time of the Gabo Reform in 1894 as well as suspects in the plot to put Yi Jun-yong(grandson of Regent Heungseon) on the throne. These records give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regent's role in the second revolt of the Donghak Peasant Army.
61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List of Official Documents	李竣鎔 供草	Dongnae City Office	1894-1895	5 volumes (150 pages)	Hanji	35 x 27	Book	Compilation of correspondence between the city office of Dongnae(today's Busan), neighboring areas, and the central government, as well as documents sent to lower offices, official edicts, and private letters, organized in chronological order by the Dongnae city office

No.	Provenance	Name of Material	Name in Chinese characters	Producer	Date	Pages	Material	Size (cm)	Form	Reason for Selection
62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Ledger of Expenses of the Army Forces in Yanggeun County	召募官率 砲軍上京 時楊根郡 二站供饋 食床與所 入錢實數 成冊	Yanggeun County	1894	1 volume (2 pages)	Harji	24 x 20	Book	Record of money spent to provide food, straw shoes and tobacco to artillerymen in Yanggeun County, Gyeonggi-do Province, led by the emergency recruiting officer in 1894
63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Jeongsa (Governance Affairs)	政事	Joseon Dynasty Government	1894	1 volume (13 pages)	Harji	29.4 x 19.8	Book	Record of personnel appointments made by the government of the Joseon Dynasty in 1894
64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visions Supplied to Japanese Soldiers Stationed in Jinwi County	振威縣去 六月朔日 本兵陣下 來時所用 穀物成冊	Jinwi County Office	1894	1 volume (2 pages)	Harji	20.5 x 20.5	Book	Records of the provisions supplied to Japanese soldiers stationed in Jinwi County, in 1894.
65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Ledger of Expenses for Soldiers in Jinwi County	振威縣 上下來兵 陣供饋都 成冊	Jinwi County Office	1894	1 volume (12 pages)	Harji	20.4 x 20.4	Book	Record of costs to feed government forces and Japanese soldiers when they stopped at Jinwi County, Gyeonggi-do Province, on their way to suppress the Donghak Peasant Army in 1894
66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cted Telegrams	各電	Office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1894	1 volume (102 pages)	Harji	32 x 28.5	Book	Office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telegrams sent to regional government offices and legations in Tokyo and Tianjin
67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ords of the Protocol Department	禮房色來 報關錄	Dongnae City Office	1894	2 volumes (256 pages)	Harji	30 x 24	Book	Official documents and intelligence reports regarding protocol, compiled by the Protocol Department of the Dongnae City Office
68	Cheomdogyo Central Headquarters	Choe Un-yong's Certificate	崔雲 龍表	Gyeolsong County Office	1894	1 page	Harji	31 x 21	Book	Certificate(pyŏ) issued to Choe Un-yong by the Gyeolsong County Office
69	Korea University Library	Goseongbu chongsoerok (Journal in the City of Goseong)	固城府 叢瑣錄	Oh Hoeng-muk	1894	2 volumes (193 pages)	Harji	34.7 x 25.5	Book	Diary of the magistrate of Goseong City in Gyeongsang-do Province, written between the 2 <sup>nd</sup> month of 1893 and the 11 <sup>th</sup> month of 1894

70	Korea University Library	Civil Petitions in the Twelfth Month of the Gabo Year	甲午十二月民狀冊	Joseon Dynasty Government	1894-1895	1 volume (160 pages)	Hanji	31 x 21	Book	Civil petitions submitted by people under jurisdiction in 1894-1895 and the results
71	Korea University Library	Official Documents from the Advance Guard	先鋒陣各邑了發關及甘結	Yi Gyu-tae	1894-1895	1 volume (139 pages)	Hanji	30 x 20	Book	Official documents, edicts, and bulletins sent by Yi Gyu-tae, advance guard commander, between the 12 <sup>th</sup> month of 1894 and the 4 <sup>th</sup> month of 1895 to unit commanders and small administrative offices in the Chungcheong and Jeolla regions while suppressing the Donghak Peasant Army
72	Korea University Library	Records of the Advance Guard on Tour	巡撫先鋒陣騰錄	Yi Gyu-tae et al.	1894-1895	7 volumes (810 pages)	Hanji	31 x 21	Book	Official documents exchanged between Yi Gyu-tae, advance guard commander, and government offices, from the 10 <sup>th</sup> month of 1894 to the 2 <sup>nd</sup> month of 1895 during suppression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73	Korea University Library	Letters From the Advance Guard Commander to the Special Military Commissioner	先鋒陣上巡撫使書	Yi Gyu-tae	1894-1895	1 volume (41 pages)	Hanji	31 x 21	Book	Collection of letters sent by Yi Gyu-tae, advance guard commander, to the special military commissioner Shin Jeong-hui between the 10 <sup>th</sup> month of 1894 and the 3 <sup>rd</sup> month of 1895, as well as other writings
74	Korea University Library	Documents of the Advance Guard Camp	先鋒陣書目	Yi Gyu-tae	1894-1895	1 volume (34 pages)	Hanji	32 x 22	Book	Reports by Yi Gyu-tae, advance guard commander, on strategies, orders, and disciplinary action in regard to suppression of the Donghak Peasant Army, written between the 10 <sup>th</sup> month of 1894 and the 3 <sup>rd</sup> month of 1895 and sent to provisional military camps of Chungcheong and Jeolla provinces, the Royal Guard Command, and the Ministry of Military Affairs
75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Outgoing Telegrams	去電	Office of Foreign Affairs	1894-1895	1 volume (79 pages)	Hanji	30.3 x 19	Book	Content of telegrams sent by the central government to regional offices and overseas legations between the 8 <sup>th</sup> month of 1894 and the 11 <sup>th</sup> month of 1895, containing information on the movements of the Donghak Peasant Army.
76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ction of Official Documents	公移公復綴	Office of Law	1894-1895	10 volumes (300 pages)	Hanji	30 x 27.5	Book	Documents exchanged between 1894 and 1895 by the Office of Law and the State Council, Office of Foreign Affairs, and the Office of Military Affairs
77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ction of Telegrams	電信存根	Office of Foreign Affairs	1894-1895	1 volume (56 pages)	Hanji	31 x 27	Book	Content of telegrams sent by the central government of the Joseon Dynasty to regional government offices between the 10 <sup>th</sup> month of 1894 and the 1 <sup>st</sup> month of 1895.
78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ction of Telegrams	電信存根	Office of Foreign Affairs	1894-1895	1 volume (93 pages)	Hanji	31 x 27	Book	Content of telegrams sent by the central government of the Joseon Dynasty to regional offices between the 10 <sup>th</sup> month of 1894 and the 1 <sup>st</sup> month of 1895

No.	Provenance	Name of Material	Name in Chinese characters	Producer	Date	Pages	Material	Size (cm)	Form	Reason for Selection
79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Revised List of Imprisoned Criminals of the Jeongyu Year	丁酉新刊時囚冊	State Tribunal	1894-1895	13 volumes (390 pages)	Harji	34.5 x 23	Book	List of current and ex-government officials imprisoned/accused of crime by the State Tribunal between the 9 <sup>th</sup> month of 1810 and the 3 <sup>rd</sup> month of 1895
80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coming Telegrams	來電	Office of Foreign Affairs	1894-1895	1 volume (73 pages)	Harji	30.4 x 19	Book	Content of telegrams sent by regional government offices and overseas legations to the central government between the 9 <sup>th</sup> month of 1894 and the 11 <sup>th</sup> month of 1895
81	Academy of Korean Studies	Diary of the Advance Guard Commander in Honam and Hoseo Regions	兩湖右先鋒日記	Yi Du-hwang	1894-1895	2 volumes (414 pages)	Harji	34.8 x 22.6	Book	Diary of Yi Du-hwang, provisional military camp commander, written between the 9 <sup>th</sup> month of 1894 and the 2 <sup>nd</sup> month of 1895
82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cted Official Documents	札移電存案	State Council	1894-1895	1 volume (69 pages)	Harji	30 x 20.8	Book	Official documents exchanged between the State Council and other government offices from between the 10 <sup>th</sup> day of the 8 <sup>th</sup> month of 1894 and the 21 <sup>st</sup> day of the 1 <sup>st</sup> month of 1895
83	Independence Hall	Questions and Answers Between King Gojong and Hong Gye-hun	高宗과洪啟薰問答文書	Joseon Dynasty Government	1894	1 page	Harji		Hand-copied document	Questions and answers about fighting the Donghak Peasant Army, exchanged between King Gojong and the special military commissioner who returned from his mission in Chungcheong and Jeolla provinces
84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Somo sasil (Record on Emergency Recruitment)	召募事費	Jo Si-yeong	1894-1895	1 volume (136 pages)	Harji	27 x 30	Book	Documents exchanged between the emergency recruitment camp in Gimsan and various government offices from the 11 <sup>th</sup> month of 1894 to the 1 <sup>st</sup> month of 1895, compiled in chronological order by the camp commander, Jo Si-yeong
85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Documents of Cha Ho-gyu	車昊奎牒呈	Cha Ho-gyu	1895	1 page	Harji	42 x 56	Book	Documents sent on the 9 <sup>th</sup> day of the 2 <sup>nd</sup> month of 1895 by Cha Ho-gyu and others living in Buksam-myeon (township) in Yeosan County to the local government office
86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Local Defense Commander's Document	防守將書目	Local defense commander	1895	1 page	Harji	28 x 30	Book	Document sent on the 3 <sup>rd</sup> day of the 1 <sup>st</sup> month of 1895 by the local defense commander (bansujiang) of Jeongryang-myeon to the town officer (susonggwang)
87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Report of the Inspector in Oegwibang	外真坊風憲牒呈	Inspector in Oegwibang	1895	1 page	Harji	36 x 31	Book	Report of the inspector (pungcheon) in Oegwibang (today's Manpo City, Jagang Province), sent to a higher office in 1895
88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Report of the Inspector in Gosanbang	高山坊風憲牒呈	Inspector in Gosanbang	1895	1 page	Harji	36 x 31	Book	Report of the inspector (pungcheon) in Gosanbang, Ganggye County, sent to a higher office on the 19 <sup>th</sup> day of the 4 <sup>th</sup> month in 1895

89	Korea University Library	Official Edicts to Township in the County	傳令郡內面衙一通	Joseon Dynasty Government	1895	1 volume (10 pages)	Hanji	31 x 22	Book	Official edicts sent in 1895 to a township(myeon) office under a county's jurisdiction
90	Korea University Library	Official Reports	官旨冊	Imsil County Office	1895	1 volume (26 pages)	Hanji	30 x 19	Book	Collection of tax-related documents compiled in 1895 by the Imsil County Office in Jeolla-do Province
91	National Archives of Korea	Original Criminal Trial Records of 1895	刑事裁判原本	Office of Law	1895	1 volume (190 pages)	Hanji	28 x 19	Book	Verdicts of the trials of 171 members of the Donghak Peasant Army who had participated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of 1894
92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hwiewo (Collected Remarks)	聚語	Joseon Dynasty Government	1895	1 volume (77 pages)	Hanji	26.5 x 15	Book	Collection of records of the Boeun Rally in 1893 and the outbreak and progression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1894
93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Book on Seized Donghak Followers and Robbed Items in Towns around Jeolla-do Province	全羅道各邑所獲東徒數文及將領姓名並錄成冊	Min Jong-yeol	1895	1 volume (5 pages)	Hanji	34 x 21.5	Book	Details on Donghak followers captured in various towns across Jeolla-do Province, and how they were handled, as well as details on robbers and stolen items; written in the 1 <sup>st</sup> month of 1895 by a special military commissioner(chotosa) dispatched to the Honam(-Jeolla) region, reported to the central government
94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ord of Men of Integrity and Virtuous Women of the Provisional Military Camp in Hoyoeng	湖沿招討營各邑節義烈行人姓名成冊	Hoyoeng Chotoyeong	1895	1 volume (3 pages)	Hanji	37 x 26	Book	Record written in the 2 <sup>nd</sup> month of 1895 regarding 11 men of integrity and two virtuous women who were based at the provisional camp in Hoyoeng, Chungcheong-do Province, during suppression of the Donghak Peasant Army
95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ax Funds Seized in the Counties of Jeolla-do Province	全州府前全羅道各邑上納中匪類所奪錢木米太區別成冊	Jeonju City Office	1895	1 volume (12 pages)	Hanji	31 x 19.5	Book	Record of tax revenue and other funds and various goods seized by members of the Donghak Peasant Army in the counties of Jeolla-do Province in the 8 <sup>th</sup> month of 1894
96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Organization of Towns into Tong Units in Jeolla-do Province	全羅道各邑每四邑作統規模關辭條約別錄成冊	Honam Chotoyeong (Honam Provisional Military Camp)	1895	1 volume (5 pages)	Hanji	34.5 x 20	Book	Records regarding reorganization of towns into units of five households(tong) in the 8 <sup>th</sup> month of 1895, in an area controlled by Min Jong-yeol, the provisional military commissioner of Jeolla-do Province
97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Jeon Bongjun's Statement	全奉準供招	Ministry of Law	1895	1 volume (41 pages)	Hanji	39 x 21	Book	Records of the interrogations of Donghak leader Jeon Bongjun on five occasions during the 2 <sup>nd</sup> and 3 <sup>rd</sup> months of 1895, following his arrest in the 12 <sup>th</sup> month of 1894
98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Jeonju City Report	全州府報告書	Governor of Jeolla-do Province	1895	1 volume (2 pages)	Hanji	32.1 x 21.7	Book	Report made in the 7 <sup>th</sup> month of 1895 by Yi Do-jae, governor of Jeolla-do Province, regarding the banishment of Donghak Peasant Army members on orders from the Ministry of Law

No.	Provenance	Name of Material	Name in Chinese characters	Producer	Date	Pages	Material	Size (cm)	Form	Reason for Selection
99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Organization of the Prosecution	檢事職制	Ministry of Law	1895	1 volume (4 pages)	Harji	29 x 20	Book	Records regarding organization of the prosecution according to Ministry of Law Ordinance No. 2, issued on the 15 <sup>th</sup> day of the 4 <sup>th</sup> month of 1895
100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orts of Various Government Offices	各府報告書	Ministry of Law	1895	1 volume (32 pages)	Harji	30.5 x 19.4	Book	Collection of 13 reports and five queries sent to the Ministry of Law from throughout the nation between the 7 <sup>th</sup> and 9 <sup>th</sup> months of 1895, containing information 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101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Bobang jonye Johoe tongcheopsik (Regulations on Release on Bail and Official Document Style)	保放條例照會通牒式	Ministry of Law	1895	1 volume (12 pages)	Harji	29 x 20	Book	Regulations on release on bail, published upon reform of the judicial system in 1895, and a guide to formatting and classifying documents exchanged by government officials
102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ord of Supplies to Qing and Japanese Forces in Yongin County in the Gabo Year	龍仁縣甲午年清人日兵各營兵丁過去時供饋所入錢及戰亡兵丁擔軍雇價錢成冊	Yonin County Office	1895	1 volume (4 pages)	Harji	30.5 x 20.5	Book	Record of supplies provided to the Qing forces from China and the Japanese troops when they passed through Yongin County in 1894
103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ord of Supplies to Capital Guards and Japanese Forces in Yongin County	龍仁縣日兵京軍馬兵過去供饋所入錢成冊	Yonin County Office	1895	1 volume (4 pages)	Harji	30.5 x 20.5	Book	Record of supplies provided to the capital guards and Japanese forces when they passed through Yongin County in 1895
104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posal for Banishment	定配案	Ministry of Law	1895	1 volume (9 pages)	Harji	28.4 x 19.4	Book	Record of people exiled from the 3 <sup>rd</sup> month of 1895 to the 4 <sup>th</sup> month of 1896, along with their crimes and places of exile. The names of those exiled include Jo Byeong-gap, Kim Mun-hyeon, Yi Yong-tae, Min Yeong-jun (Min Yeong-jing), Min Hyeong-sik, and Min Eung-sik.
105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lligence	牒報	Ministry of Law	1895	1 volume (14 pages)	Harji	54 x 26.4	Book	Intelligence sent from the provinces to the Ministry of Law between the end of the 4 <sup>th</sup> month and the end of the 5 <sup>th</sup> month of 1895

106	Kyuji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lligence	諜報	Ministry of Law	1895	1 volume (14 pages)	Harji	26.7 x 71.7	Book	Intelligence sent from the provinces to the Ministry of Law between the end of the 4 <sup>th</sup> month and the end of the 5 <sup>th</sup> month of 1895
107	Kyuji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lligence	諜報	Ministry of Law	1895	1 volume (5 pages)	Harji	29.3 x 69.7	Book	Intelligence sent from across the country to the Ministry of Law in the 8 <sup>th</sup> month of 1895, shedding light on the state of society and the types of crimes committed before and afte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108	Kyuji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ets Taken in Jeonsomjin, Mokcheon-hyeon, Chungcheong-do Province	忠清道木川縣前召募陣籍產實數成冊	Chungcheong-do Provincial Office	1895	1 volume (6 pages)	Harji	31 x 21.9	Book	Breakdown of the assets taken from members of the Donghak Peasant Army by the former recruitment camp in Mokcheon County, reported by the governor-cum-commander of Chungcheong-do Province
109	Kyuji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ord of Convict Transfers to the Hanseong Court	漢城裁判所移囚錄	Hanseong Court	1895	1 volume (2 pages)	Harji	32 x 21	Book	Record of the transfer of convicts to the court in Hanseong (present-day Seoul) from government offices and counties across the country during the 5 <sup>th</sup> month of 1895
110	Kyuji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Book on Recommending and Reporting on Staff Officers and Special Recruits at Honam Provisional Camp	湖南招討營參謀官別軍官薦報姓名成冊	Honam Provisional Military Camp	1895	1 volume (2 pages)	Harji	35.9 x 21.1	Book	Information on recommending and reporting on staff officers and special recruits at the provisional military camp in Honam during the 1 <sup>st</sup> month of 1895
111	Kyuji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posals from the Ministry of Law	法部請議書	Cabinet Division of Records Compilation	1895-1896	2 volumes (60 pages)	Harji	28.6 x 29	Book	Collection of proposals submitted to the Cabinet meeting by the Ministry of Law between the 4 <sup>th</sup> month of 1895 and the 9 <sup>th</sup> month of 1896, containing information on the Donghak Peasant Army
112	Kyuji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Felons' Statements	重犯供草	Ministry of Law	1895-1899	9 volumes (30 pages)	Harji	31.7 x 20.4	Book	Records of the interrogations of peasant soldiers, including Jeon Yang-geun, Baek Gi-jeong, Kim Gye-jo, Kim Ji-sun and Baek Nak-gyu, who went into hiding as hunters in the mountainous region of Hwanghae-do Province, afte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hoping to make a revival
113	Kyuji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coming Documents from the Ministry of Law	法部來文	Ministry of Law	1894-1902	17 volumes (510 pages)	Harji	26.5 x 17.5	Book	Collection of Ministry of Law documents inquiring the Cabinet between 1895 and 1902, as to its internal affairs of personnel management, wages, welfare and other legal matters, containing information on the Donghak Peasant Army

No.	Provenance	Name of Material	Name in Chinese characters	Producer	Date	Pages	Material	Size (cm)	Form	Reason for Selection
114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coming and Outgoing Documents from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法部來去文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895-1906	13 volumes (390 pages)	Harji	27.6 x 18	Book	Collection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queries, dated 1895-1905, on laws pertaining to civil and criminal cases involving foreigners and replies, containing information on the Donghak Peasant Army
115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True Records of Military Administration in the Gabo Year	甲午軍政實記	Joseon Dynasty Government	1895	10 volumes (923 pages)	Harji		Book	Documents and reports exchanged with various government organizations after appointing Shin Jeong-hui as special military commissioner and installing the provisional military camp for Chungcheong and Jeolla regions on the 22 <sup>nd</sup> day of the 9 <sup>th</sup> month in 1894, until the 27 <sup>th</sup> day of the 12 <sup>th</sup> month in the same year, when the camp was closed
116	National Archives of Korea	Original Criminal Trial Records of 1896	刑事裁判原本	High Court	1896	1 volume (291 pages)	Harji	28 x 19	Book	Verdicts on 39 members of the Donghak Peasant Army who participated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1894
117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ecisions of the Hanseong Court	漢城裁判所刑名簿	Hanseong Court	1896-1907	1 volume (32 pages)	Harji	30.8 x 30	Book	Judgments and sentences handed down by the court of Hanseong (present-day Seoul) during a 138-month span from the 7 <sup>th</sup> month of 1896 to the 12 <sup>th</sup> month of 1907
118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ecisions of the Kaesong Court	開城裁判所刑名簿	Kaesong Court	1896	1 volume (9 pages)	Harji	32 x 28.2	Book	Records of personal data of criminals handled by the Kaesong Court in Gyeonggi-do Province, containing information on the Donghak Peasant Army.
119	National Archives of Korea	Original Criminal Trial Records of 1897	刑事裁判原本	High Court	1897-1898	1 volume (514 pages)	Harji	28 x 19	Book	Verdicts on 31 members of the Donghak Peasant Army who participated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1894
120	National Archives of Korea	Original Criminal Trial Records of 1898-1899	刑事裁判原本	High Court	1899	1 volume (648 pages)	Harji	28 x 19	Book	Verdicts on 10 members of the Donghak Peasant Army who participated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1894
121	National Archives of Korea	Original Criminal Trial Records of 1900	刑事裁判原本	Pyeongniwon (Provisional high court)	1900	1 volume (178 pages)	Harji	28 x 19	Book	Verdicts on 79 members of the Donghak Peasant Army who participated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1894
122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Yeomgi (Records of Integrity)	廉記	Joseon Dynasty Government	1900	1 volume (10 pages)	Harji	22 x 23.5	Book	Records from the 10 <sup>th</sup> month of 1900, listing the names of filial sons, influential gentry, and local Confucian scholars in Suncheon, Yeosu, Gwangju, Yeonggwang, and Damyang, as well as details on extortion of civilians by the heads of Donghak units dur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 Strategies for Globaliz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Hong Sung Deok Professor of Jeonju University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The Values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 To the World, Into the Future”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 Strategies for Globaliz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Hong, Seongduk  
Jeonju University



### Table of Contents

- I. Introduction
- II. Current Status of Globaliz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 III. Strategies for Globaliz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 IV. Conclusion



## I. Introduction

-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inscribed as a UNESCO Memory of the World in 2023 were evaluated for their global historical significance as records pursuing their universal values of freedom, equality, and human rights.
- This inscription represents an international acknowledgment of the world-historical importance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 To expand the global significance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beyond its origin as a peasant uprising in Joseon in 1894, it is crucial to develop a promotional strategy centered around these internationally recognized records.
- Unlike World Heritage Sites 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emory of the World inscriptions alone may not easily capture the attention of people worldwide.
- Therefore, the globalization of these documentary heritage records requires sustained effort.



## I. Introduction

- Globalization refers to the sharing or integration of universal differences through mutual exchange.
- Therefore, for globalization to occur,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such exchanges.
- Exchange involves a process of "shared understanding" to better comprehend each other, which can be achieved through a common language.
- The translation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into global languages is the first step toward globalization.
- However, in the case of documentary heritage, understanding its content is inherently scholarly, as these records were produced withi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 of the respective country.
- This presentation examines the current state and direction of the translation of these records into global languages, with a focus on relevant websites.



## II. Current Status of Globaliz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 The globalization statu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its records on the web
- ✓ Multilingual introduction of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 UNESCO Memory of the World – maj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e.g., UNESCO,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rchival institutions, and others).
- ✓ Search results fo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the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on the portal site, Google
- ✓ Review of entries related 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Encyclopedias (e.g., Britannica, Wikipedia).



## II. Current Status of Globaliz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 UNESCO([www.unesco.org](http://www.unesco.org))

Nomination for the Memory of the World International Register

###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 nominated heritage is a collection of 185 documents associated with the Donghak Peasant Movement. The Donghak movement was a popular uprising against both corruption in the ruling class and encroachment on Korea by foreign powers, demanding the establishment of a more just and equal society. Over the course of the movement, the Donghak army succeeded in establishing a cooperative governing unit known as a jipgangso through which corrupt officials could be punished and unfair government practices rectified. This unit of governance was a novel experiment in democracy with parallels rarely found anywhere in the world at the time. The Donghak movement paved the way for Korea to develop into a flourishing democracy. The nominated documents serve as a reservoir of memories testifying to the historical processes through which the public acted as a protagonist in history and impelled the course of events toward the achievement of universal values.

‘동학농민혁명기록물(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은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문서 185건을 모아 놓은 컬렉션이다. 동학운동은 지배계급의 부패와 외세의 침략에 맞서 더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할 것을 요구한 민중봉기였다. 이 과정에서 동학군은 부패한 관료들을 응징하고 불공정한 조정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집강소’라는 협동 통치 단위를 설립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통치 단위는 당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이었다. 동학운동은 한국이 번영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기록물은 대중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보편적 가치 실현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적 과정을 증언하는 기억의 저장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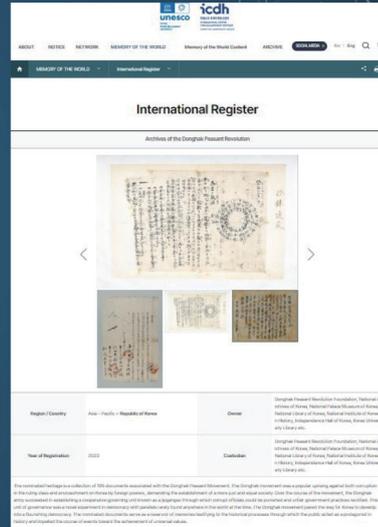


## II. Current Status of Globaliz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 UNESCO International Heritage Center([www.unescoicdh.org](http://www.unescoicdh.org))
- ✓ Korean, English

Region / Country	Asia - Pacific > Republic of Korea	Owner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National Library of Korea,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Independence Hall of Korea, Korea University Library etc.
Year of Registration	2023	Custodian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National Library of Korea,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Independence Hall of Korea, Korea University Library etc.

The nominated heritage is a collection of 185 documents associated with the Donghak Peasant Movement. The Donghak movement was a popular uprising against both corruption in the ruling class and encroachment on Korea by foreign powers, demanding the establishment of a more just and equal society. Over the course of the movement, the Donghak army succeeded in establishing a cooperative governing unit known as a Jijoganso through which corrupt officials could be punished and unfair government practices rectified. This unit of governance was a novel experiment in democracy with parallels rarely found anywhere in the world at the time. The Donghak movement paved the way for Korea to develop into a flourishing democracy. The nominated documents serve as a reservoir of memories testifying to the historical processes through which the public acted as a protagonist in history and impelled the course of events toward the achievement of universal values.



## II. Current Status of Globaliz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 Korean Heritage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Heritage Center([www.heritage.go.kr](http://www.heritage.go.kr))
- ✓ Korean, English, Chinese, Japanese

联合国教科文组织世界遗产 > 世界记录遗产

### 世界记录遗产

韩国的世界记录遗产

东学农民革命记录 (2023)

《图片来源：东学农民革命纪念馆》

《东学农民革命记录》是与1894年至1896年朝鲜爆发的东学农民革命相关的记录物。东学农民革命是民众反抗腐败领导和外国来势汹汹，为谋求平等公正的社会而发起的事件。

为韩国走向繁荣的民主主义奠定了基础。对类似外国帝国主义、民族主义、近代主义运动产生了影响。在此过程中，东学农民军在全罗道各地都设立了负责治安和行政的民、官合作（治理）机构“执事所”。

东学农民革命档案包括东学农民编制的文件、政府报告、个人日记和文集、各种任命书等。通过这些资料，可以从多种角度找到农民运动的进行过程及其意义。特别是作为超越时间和场所，从多种角度综合反映人类权利平等、反对殖民主义等的记录物，具有稀有性。

通过联合国教科文组织世界记录遗产的收录，《东学农民革命记录》作为朝鲜百姓追求自由、平等、人权等社会价值的记忆记录物，获得了世界历史重要性的认可。

Korea Heritage Service

News & Events | Explore Heritage | UNESCO Heritage | About Us | FAQ

### Memory of the World

#### Memory of the World, Republic of Korea

#####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 nominated heritage is a collection of 185 documents associated with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 Donghak revolution was a popular uprising against both corruption in the ruling class and encroachment on Korea by foreign powers, demanding the establishment of a more just and equal society. Over the course of the revolution, the Donghak army succeeded in establishing a cooperative governing unit known as a Jijoganso through which corrupt officials could be punished and unfair government practices rectified. This unit of governance was a novel experiment in democracy with parallels rarely found anywhere in the world at the time. The Donghak revolution paved the way for Korea to develop into a flourishing democracy. The revolution inspired the First Sino-Japanese War and the geopolitical voice in East Asia. The Chinese and Japanese troops arriving in Korea to quell the rebellion started the First Sino-Japanese War, where the Japanese soldiers defeated their Chinese counterparts and repatriated Chinese soldiers in the region. The nominated documents serve as a reservoir of memories testifying to the historical processes through which the public acted as a protagonist in history and impelled the course of events towards the achievement of universal values.

Materials produced by members of the Donghak Peasant Army No. 1 (Letter written in Hangeul by Han Dal-mun to his brother's old home)

Materials produced by members of the Donghak Peasant Army No. 2 (Letter from the 9th month of 1894 appointing Chwon Gyeon to be a Jijoganso or local-administration official)



## II. Current Status of Globaliz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Foundation([www.1894.or.kr](http://www.1894.or.kr))
- ✓ Korean, English
- ✓ Absence of Information on Records



## II. Current Status of Globaliz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 **Institutions with collection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 ✓ Lack of promotion regarding the designation of collected records as World Documentary Heritage
- ✓ Varied descriptions of individual collected reco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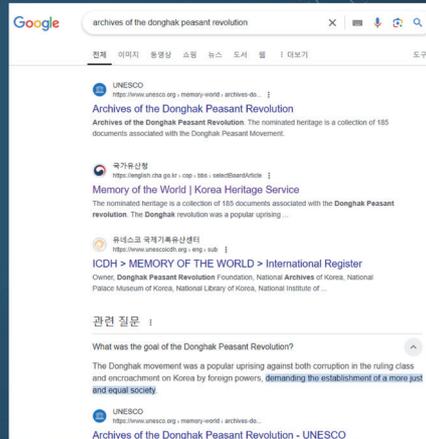
연번	소장기관	건수(건)	비율(%)
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66	35.7
2	고려대 도서관	29	15.7
3	국가기록원	5	2.7
4	국립고궁박물관	1	0.5
5	국립중앙도서관	5	2.7
6	국사편찬위원회	5	2.7
7	독립기념관	2	1.1
8	서울대 규장각	58	31.4
9	연세대 <u>학술문화처</u>	3	1.6
10	천도교 중앙총부	9	4.9
11	한국학중앙연구원	2	1.1
	합계	185	100



## II. Current Status of Globaliz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 **Google search**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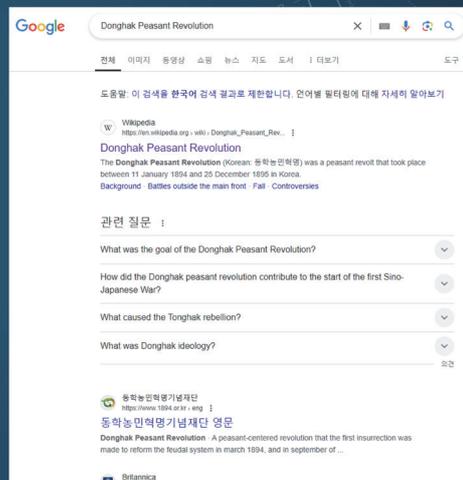
- ✓ After search, UNESCO, the Korean Heritage Administration, and the UNESCO International Documentary Heritage Centre are first retrieved.
- ✓ English news articles from domestic media about World Documentary Heritage listings and English newsletters from the holding institutions



## II. Current Status of Globaliz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 **Google search** “Donghak Peasant Revolution”

- ✓ After search, Wikipedia,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Foundation, Britannica, UNESCO, and the Korean Heritage Administration are retrieved.
- ✓ News sites, Visit Korea, Korea.net, and other Korea promotion-related websites





## II. Current Status of Globaliz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 • Wikipedia Search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 ✓ Within Wikipedia, there is no entry for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However, the 'Memory of the World Program' entry lists Korea (ranked 5th) among the top 10. It includes an introduction to the UNESCO Jikji Memory of the World Prize and an image of Jikji.
- ✓ The MOW entry is available in 49 languages on Wikipedia.

Top 10 countries by number of inscriptions [edit]

Rank	Country	Number of inscriptions
1	Germany	30
2	United Kingdom	24
3	Netherlands	21
4	France	20
5	Poland	18
5	South Korea	18
7	Austria	16
8	China	15
8	Russia	15
10	Spain	14

Jikji Prize [edit]

The Jikji Prize was established in 2004 in cooperation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further promote the objectives of the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and to commemorate the 2001 inscription of the country's Jikji on the Register.<sup>[1][2]</sup> The award, which includes a cash prize of \$30,000 from the Korean government, recognizes institutions that have contributed to the preservation and accessibility of documentary heritage.<sup>[3]</sup>

The prize has been awarded biannually since 2005 during the meeting of the IAC.<sup>[3]</sup>

Recipients [edit]

- 2005: Czech National Library (Prague)<sup>[2][4]</sup>
- 2007: Phonogrammarchiv of the Austrian Academy of Sciences
- 2009: National Archives of Malaysia (Kuala Lumpur)<sup>[2]</sup>



The Jikji is the earliest known book printed with movable metal type in 1377.



## II. Current Status of Globaliz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 • Wikipedia search “Donghak Peasant Revolution”

- ✓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entry available in 22 languages
- ✓ In the case of English version, it is structured into 17 sections, including Background, Gyojo Shinwon movement, Gubu Revolt, First revolt, Toggle First revolt subsection, Summer of 1894, and others.
- ✓ The table of contents and content vary by language.
- ✓ The Japanese version includes information about the World Documentary Heritage registration.

The screenshot shows the English Wikipedia article for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 article text is partially visible, starting with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Korean: 동학농민혁명) was a peasant revolt that took place between 11 January 1894 and 23 December 1895 in Korea. The peasants were primarily followers of Donghak, a Neo-Confucian movement that rejected Western technology and ideals. The Revolution began in the province of Gyeongsang in the early 1890s. Jo Byeong-gwan, a prominent magistrate of the gun in 1892, enforced harsh oppressive policies upon the local peasant population. Correspondingly, in March 1894, a group of peasants led by Jeon Bon-jun and Kim Gae-nam began an uprising against local authorities. The initial revolt was suppressed under Yi Hong-ae, and Jeon Bon-jun fled to nearby Taean. Jeon gathered an army in Mount Taebaek and captured Godeu in April. The rebels then defeated government forces in the Battle of Hwangpyeong and the Battle of the Hwanggyong River. Jeon then captured Seorju Fort and fought in a siege against Jeong Gye-hun government forces. In May, the rebels agreed on a truce through the Treaty of Jeonju. However, an unstable peace continued throughout the summer. The alarmed government requested the Qing dynasty for military intervention, to which the Qing responded with a deployment of 2,000 soldiers. Japan, angered that the Qing government had not informed Japan before the intervention as promised in the Convention of Tientsin, started the first Sino-Japanese War.<sup>[1]</sup> The war resulted in an expulsion of Chinese influence in Korea and also signaled an end to the Self-Strengthening Movement in China itself. Growing Japanese dominance in the Korean Peninsula caused anxiety amongst the rebels. From September to October, the Southern and Northern leaders negotiated the plans for the future in Samguk. On 12 October, a coalition army of Northern and Southern rebels was formed, and the army, numbering 25,000–200,000 (records differ), attacked Gyeongju. After several battles, the rebel army was decisively defeated in the Battle of Ipyeong, and the rebels were again overthrown in the Battle of Taean. Hostility continued deep into the spring of 1895. The rebel leaders were captured in various

世界の記憶 [編集]  
 東学農民革命のアーカイブは2023年に世界の記憶に登録された<sup>[26]</sup>。



## II. Current Status of Globaliz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 **Wikipedia search** “Donghak Peasant Revolution”

✓ Categories

Categories: 1894 in Korea | 19th-century revolutions | Conflicts in 1894 | Donghak Peasant Revolution | Invasions of Korea | Korean nationalism | Protests in Korea | Rebellions in Asia

カテゴリ: 東学 | 李氏朝鮮 | 1894年の戦闘 | 1894年の朝鮮 | 1895年の戦闘 | 1895年の朝鮮 | 農民反乱 | 朝鮮の戦争 | 宗教戦争 | ユネスコ記憶遺産

分类: 朝鮮王朝戦争 | 1890年代亞洲 | 朝鮮王朝叛亂 | 東學 | 1894年 | 1895年 | 农民起义

Catégories: Corée au XIXe siècle | Révolution au XIXe siècle | 1894 en Asie [+]

Categorías: Manifestaciones y protestas en Corea | Corea en 1894 | Revoluciones del siglo XIX | Dinastía Joseon | Conflictos en 1894



## II. Current Status of Globaliz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 **Britannica search** “Donghak Peasant Revolution”

✓ The entry term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s Donghak Uprising (Korean history)

**Donghak Uprising**, (1894) Korean mass revolt that sparked the first Sino-Japanese War (1894–95). Despite being persecuted for it, impoverished Koreans turned increasingly to Donghak (“Eastern Learning”; *see* Cheondogyo), a syncretic, nationalistic religion that opposed Western culture and espoused equality of all people. When demonstrations staged by Donghak followers calling for social reform met with a negative government response, the masses united with them in a rebellion that succeeded in defeating government troops in southern Korea. The government called on China for aid; Japan sent in troops without being asked, and China and Japan clashed. The rebels laid down their arms to defuse tensions; nevertheless, the Sino-Japanese War ensued. The leaders of the uprising, including Choe Si-hyeong, were executed.

The screenshot shows the Britannica search interface. At the top, the search bar contains 'Donghak Peasant Revolution'. Below the search bar, the results are listed under the heading 'You searched for: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 first result is 'Donghak Uprising (Korean history)', which includes a brief description: 'The Donghak Uprising was a Korean mass revolt that sparked the first Sino-Japanese War (1894-95). Despite being persecuted for it...'. The second result is 'Choe Si-hyeong (Korean religious leader)', with a description: '... Donghak founder and calling for administrative reform. In 1894 he led the so-called Donghak Revolt against the "corrupt government." The...'. The third result is 'Korea (historical nation, Asia)', with a description: 'The Donghak Uprising and government reform - The international power struggle and Korea's resistance - Korea under Japanese rule - Military control - The March...'. The fourth result is 'First Sino-Japanese War (1894-1895)', with a description: 'Date: August 1, 1894 - April 17, 1895; Location: China - Manchuria - Korea; Participants: China - Japan; Major Events: Donghak Uprising - Battle...'. The Britannica logo and navigation links are visible at the top of the page.



## II. Current Status of Globaliz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 ❖ Introduction 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listed as World Documentary Heritage, is only available from UNESCO (in English and French), the UNESCO International Documentary Heritage Centre (in English), and the Korean Heritage Administration (in English, Chinese, and Japanese).
- ❖ A google search for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yields news articles about the World Documentary Heritage listing only from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Foundation, UNESCO, and Korean-related promotional sites.
- ❖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s covered in 22 languages on Wikipedia, but there is significant variation in content across languages.
- ❖ In the Britannica encyclopedia, it is listed under the headword 'Donghak Uprising.'
- ❖ Other foreign-language websites related to Korea do not include information about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 III. Strategies for Globaliz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 ❖ To globalize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it is essential first to broaden awareness of both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the related records. Next, it is necessary to explore ways to share the universal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 ❖ Expanding awareness and sharing value are sequential processes but do not necessarily need to be carried out in a strict order. Awareness expansion is useful when it includes universal values recognized globally. In other words, to effectively convey information about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it is crucial to share universal values that can resonate with people around the world, beyond just providing basic knowledge.
- ❖ This process is also necessary for Koreans, not just for the global audience.



### III. Strategies for Globaliz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 ❖ Strategies for Globalization (Kim, Hyung-min, "Strategies for the Globalization of Korean Culture,"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54, 2011)
  1. Adopt an attitude of understanding Korean culture as part of global culture.
  2. Develop consistent policies with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organizations.
  3. Strengthen education in the Korean language as a foreign language.
  4. Discover and promote Korean 'cultural elements' that can be introduced abroad.
  5. Avoid nationalist overtones.
  6. Improve or eliminate factors that hinder the globalization process.
  7. Learn international etiquette and foreign languages.
  8.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overseas Korean Studies research institutes and Korean cultural centers.



### III. Strategies for Globaliz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 ❖ Strategies for Globalization (Kim, Hyung-min, "Strategies for the Globalization of Korean Culture,"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54, 2011)
  9. Train foreign students and Korean language learners.
  10. Create a positive image of Korean culture among overseas Koreans.
  11. Develop and distribute booklets introducing Korean culture.
  12. Translate and introduce Korean literary works into foreign languages.
  13. Actively utilize mass media.
  14. Promote modern production technology and artifacts to enhance the national brand.
  15. Disseminate cultural tourism products.
  16. Expand the participation of leading domestic companies.



### III. Strategies for Globaliz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To globalize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the three directions need to be determined.

- First, the content of globalization: What is being globalized?
- Second, the target of globalization: Who is the target audience for the globalization?
- Third, the subject of globalization: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concrete execution?

The content of globalization is the historical value and universal significance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The target of globalization includes people worldwide, including Koreans, and requires diversity according to the target audience.

The subject of globalization must establish strategies at a national level and designate specific executors.

The globalization plan should be based on these three elements.



### III. Strategies for Globaliz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 ❖ Globalization strategies based on the content of globalization

1. Production of explanatory materials for Korean World Documentary Heritage, includ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both online and offline, in multiple languages)

- **Creation or expansion of a website for Korean World Documentary Heritage**
  - Expand the content on the Korean Heritage Administration's World Documentary Heritage section.
  - Develop a database fo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Foundation's website.
- **Introduction of materials fo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and other listed records**
  - Establish explanatory materials that provide context for the listed records.
- **Explanation of the historical value and global significance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 Promote academic materials to increase public awareness and understanding.



### III. Strategies for Globaliz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 ❖ Globalization strategies based on the content of globalization

##### 2. Expansion and enhancement of international web information and utilization

- Analysi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on web encyclopedias such as Wikipedia and Britannica
  - In 2020, among 309 language communities worldwide, English-language Wikipedia was the top producer of documents.
  - Analysis of the presence and consistency of content, categories, and other factors
- Expansion of web encyclopedia content
  - Error correction and supplementation of content, securing content consistency across languages
- Provision of information to Korean-related influencers in major countries
  - Offering information about documentary heritage and related tourism to online content creators



### III. Strategies for Globaliz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 ❖ Globalization strategies based on the content of globalization

##### 3.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in the international network fo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s
  - Continue to hold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s to promote the expansion of research 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 The conferences should focus on the spread of international research 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the comparative study of its universal values on a global scale.
- Revolutionary Cities Network
  - Cooperation among cities (regions) that led revolutions related to modern democracy



### III. Strategies for Globaliz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 ❖ Globalization strategies based on the target audience of globalization

##### 1. Overseas Korean researchers and students

- Status of Korean Studies at overseas universities
  - In 2023, Korean Studies programs were offered at 1,408 universities in 107 countries. (551 universities run degree programs in Korean Studies, while 857 universities offer Korean Studies as part of general education or language programs).
- Support for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history education in Korean Studies curricular
  - Provide research and educational materials 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o Korean Studies (History) professors at overseas universities.
- Distribution of books 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o universities offering Korean Studies
  - Distribution of the books to the libraries of 551 universities that operate Korean Studies degree programs.



### III. Strategies for Globaliz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 ❖ Globalization strategies based on the target audience of globalization

##### 2. Overseas Koreans and pro-Korean foreigners

- Exploration of collective projects with the office of overseas Koreans
  - Participate in projects aimed at fostering the identity of overseas Koreans and strengthening their ties with their homeland
- Development and provision of websites introducing Korea
  - Korea net, Study Korean, Visit Korea, Overseas Korean Educational Institutions Portal (OKEP), and others
  - Collaboration on building and providing educational and explanatory materials
- Collaborative projects linked with local governments
  - Use of Korean cultural experience programs for overseas Koreans and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 III. Strategies for Globaliz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 ❖ Globalization strategies based on the target audience of globalization

##### 3. Collaboration with institutions such as museums related to Korean Studies

- Distribution of materials through Korean Cultural Centers and King Sejong Institutes
  - King Sejong Institutes operated in 248 locations across 85 countries
  - Korean Cultural Centers operated in 35 locations across 30 countries
- Support for exhibitions in overseas museum with Korean galleries
  - Collaborate with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on the 'National Assembly Museum Korean Gallery Support Project' (supporting 21 galleries in 9 countries in 2024)
  - Host special exhibitions of Korea's World Documentary Heritage, including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abroad
  - Provide replica copies of major records



### III. Strategies for Globaliz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 ❖ Globalization strategies based on the subjects of globalization

##### 1.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Promotion Plan for Overseas Marketing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2024-2027)"



추진전략	추진과제
<b>통합성</b> 핵심가치 중심의 해외홍보	1-1 핵심가치 중심의 해외홍보컨셉 설계
	1-2 글로벌 공감형 홍보의제와 선도적 담론 발굴
	1-3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대외메시지 발산
<b>개방성</b> 공신력 있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2-1 AI 기반 외신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2-2 디지털 한국정보의 중심, 'K- Info Hub'
	2-3 핵심 웹사이트 내 바른 한국정보 유통 촉진
	2-4 정부대표 다국어 뉴스채널의 품질 제고
<b>연결성</b> 새로운 파트너십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	3-1 파급력 있는 비제도권 뉴미디어 협력 확대
	3-2 한국에 대한 관심 외신과 지원채널 확장
	3-3 세계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한국홍보콘텐츠
	3-4 국제방송을 통한 국가홍보 역할 강화



### III. Strategies for Globaliz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 ❖ Globalization strategies based on the subjects of globalization

##### 1.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Systematic provision of Korean information through major channels such as Wikipedia
  - Investigation on the distribution status of Korean information on English-language Wikipedia, and identification of any missing information
  - Uploading accurate information and expansion of technologies collaborated with expert groups and institutions
  - Activation and validation of the information linkage on key channels used by foreigners (major search engines, generative AI, and relevant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 websites)
- Provision and management of diverse information based on access paths
  - Identification of comprehensive Korean information, Provision of monitoring analysis materials



### III. Strategies for Globaliz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 ❖ Globalization strategies based on the subjects of globalization

##### 1.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Expansion of cooperation targets for non-institutional social media
  - Foreign opinion leaders in Korea, digital journalists, influencers, and others
  - Invitation and Support
- Systematization of social media and utilization for Korean promotion
  - Establishment and utilization of a global influencer database
  - Arrangement of collaboration guidelines
  - Creation of content in collaboration with influencers



### III. Strategies for Globaliz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 ❖ Globalization strategies based on the subjects of globalization

##### 1.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Encouragement of Korean cultural promotion activities by foreigners residing abroad
  - Training programs for K-influencers and YouTubers – Fostering Korean experts on YouTube
  - International competitions, Creation of promotional content about Korea from a foreign perspective
- Establishment of partnerships with foreign groups in Korea and visiting Korea
  - Creation of a global Korean promotion network\_ diplomatic corps in Korea, foreign media, relevant academia, and international students
  - Development and provision of 'Guides to Living in Korea' tailored to different language groups and the characteristics of specific groups of foreigners in Korea
  - The network for foreign media in Korea



### III. Strategies for Globaliz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 ❖ Globalization strategies based on the subjects of globalization

##### 2. Korean Heritage Administration

- Expansion of the content on UNESCO-listed Heritage within the National Heritage Portal
  -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to UNESCO-listed heritage on the National Heritage Portal (World Heritage Sit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World Documentary Heritage)
  - In case of World Documentary Heritage, two contents such as 'What is World Documentary Heritage?' and 'Korean World Documentary Heritage' (For foreign languages, only Korean World Documentary Heritage' is introduced), the record outline of Record Heritage, and four types of records are introduced.
  - \* UNESCO provides the nomination application forms.
- Detailed explanations about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are provided 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Foundation's website.



### III. Strategies for Globaliz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 ❖ Globalization strategies based on the subjects of globalization

##### 2. Korean Heritage Administration

- Creation and distribution of catalogs for World Documentary Heritage
  - Creation and distribution of an English-language catalog of World Documentary Heritage (Integration of characteristics of records and quantity)
  - The catalog will be available as an e-book on the National Heritage Portal.
- Production of replicas of World Documentary Heritage such as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_ For exhibition use
  - Among the World Documentary Heritage, replicas for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were made.
  - Promotion of the production of replica copies of major records for use in exhibitions and educational purposes



### III. Strategies for Globaliz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 ❖ Globalization strategies based on the subjects of globalization

##### 3.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Foundation

- Strengthening the status as an applicant institution for World Documentary Heritage
  - Operation of a consortium of institutions that hold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 Collaboration on management and dissemination strategies fo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management plan fo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 The current management practices of institutions hold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 Analysis of the status of foreign-language introductions and presentation
  - Plan for education and research, Publicizing strategies through promotion



### III. Strategies for Globaliz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 ❖ Globalization strategies based on the subjects of globalization

##### 3.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Foundation

- Establishment of a database fo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 Advancement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rchives
  - Organization and integration of the content of the World Documentary Heritage listing into the database
  - Compilation of comprehensive materials fo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including original images, texts, and translations
  - Establishment of foreign-language versions of the World Documentary Heritage listing website in stages (English, Chinese, Japanese, French, Spanish, German, etc.)



### III. Strategies for Globaliz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 ❖ Globalization strategies based on the subjects of globalization

##### 3.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Foundation

- Translation of major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into foreign languages
  - Key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which can be translated into foreign languages (Declaration of Armed Uprising, Reforms for Abolishing Corrupt Practices, Jeon Bong-jun's Gongcho)
-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introduction materials for overseas promotion
  - Production of books about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listed as World Documentary Heritage (in foreign language)
- Web data development
  - Building Wikipedia entries (starting with Korean, followed by English, Chinese, Japanese, etc.).
  - Among the World Documentary Heritage records, 8 items listed on Wikipedia are as follows: *Hunminjeongeum*,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Seungjeongwon Ilgi*, *Donguibogam*, *Ilseongnok*, *Nanjung Ilgi*, *Finding Separated Families*, and *Korean Confucian Texts*.



## IV. Conclusion

- Unlike World Heritage 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orld Documentary Heritage has inherent limitations in terms of the promotion and utilization of the heritage itself. Given that there are currently no comprehensive books or websites systematically introduc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discussing globalization strategies might be premature
- A detailed and comprehensive plan about how to manage and utilize the World Documentary Heritage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should be developed first. Before advancing the comprehensive planning, information construction on global platforms such as Wikipedia can be undertaken. Unlike books or websites, Wikipedia allows for easy modification of information and supports multilingual versions through translation. Additionally, it is essential to correct any errors and distortions in the information about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on Wikipedia.
- It is necessary to explore ways to collaborate with projects from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Korean Heritage Administration, and local governments, and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Foundation.



**202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Part 2**





## Discussion Paper: Professor Bae Hang Seop's on 'The Values and Significance Embedded in the Record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Kim Yang Sik Professor of Cheongju University

This presentation critiques Western-centric modern values and democracy, while proposing alternative perspectives 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democracy, and egalitarianism. Ultimately,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reinterpreting the profound meanings embedded in the deaths of the Donghak Peasant Army and advocat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practical historical perspective that can contribute to addressing the challenges faced by contemporary human society. The presentation appears to have opened up a new horizon for understanding and research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by introducing new issues and research directions. While I agree with the presenter's assertions, I would like to offer a few comments to further enrich the discussion.

First, although the designated topic of this presentation is 'The Value and Significance Contained in the Record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 content predominantly centers on the historical nature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tself. While the theme and content are not entirely dissimilar in a broader context,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e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value and significance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the 'value and significance of the record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this context, it would be beneficial if the presentation were to include supplementary explanations on how the record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should be addressed and commemorated, thereby extending the discussion in alignment with the presentation's central theme.

Secondly,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inscribed as a UNESCO Memory of the World heritage, comprise a total of 185 documents, of which 138(74.6%) pertain to the

## Discussion

suppression of the Donghak Peasant Army. These records were produced in the process of violently suppressing the Donghak Peasant Army, reflecting the involvement of the ruling class and state power in acts of violence. Paradoxically, this not only attests to the significant potential of the Donghak Peasant Army to subvert the existing order, but also reveals the violent nature of the antagonistic class and state power. Moreover, it can be interpreted that, in an effort to conceal this violence, political reforms were undertaken, and the state sought to disguise its actions under the guise of legal and institutional modernity. This raises the question of how the resistance of the Donghak Peasant Army, which provoked class and state violence and caused a rupture in the system, should be assessed within the broader context of the history of democracy.

Thirdly, the popular assemblies and other forms of civic engagement that erupted between 1893 and 1894 can be viewed as a manifestation of the collective public discourse that had been steadily accumulating from below throughout the 19th century, serving as a foundation for resistance aimed at establishing a new political order. However, this grassroots discourse system experienced both disintegration and co-optation when it was absorbed and restructured by the reformist intellectuals advocating for the establishment of local councils. This process ultimately led to the subversion of the original agents of change.

Yet, this opposition—between grassroots, regionally-centered assemblies(or autonomous councils) and the attempts from above to utilize, assimilate, and institutionalize them—persisted in various forms at least until the 1960s. It was not until the 1970s, with the state-driven Saemaul Undong(New Community Movement) under authoritarian rule, that the long-standing vitality and sustainability of these grassroots, autonomous assemblies, which had evolved over the 19th and 20th centuries, were fully dismantled. Therefore, the assemblies and the establishment of local administrative offices(Jipgangso) that emerged dur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should be interpreted from a longer-term historical perspective. Such an approach may open up possibilities for re-envisioning democracy, as suggested by the presenter, through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activities of the Donghak Peasant Army's local administrative offices. Moreover, while the aspirations of these offices included overcoming social status and economic inequalities, it is even more crucial to recognize their significance in terms of establishing autonomous governance and political order from below,

based on public discourse. This historical perspective is also closely aligned with the current initiatives surrounding the operation of residents' autonomous councils at the township and village levels today.

Fourthly, regarding the subtopic of the presentati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the Concept of Equality,' it appears that the Donghak Peasant Army's economic egalitarianism requires extensive discussion from various perspectives. For instance, questions arise as to whether actions such as selling government grain at low prices to the poor or praising the peasant army as a righteous force truly stem from a conscious rejection of wealth concentration among a few individuals.

Particularly regarding 'equal distribution,' it is important to exercise caution in interpretation, given that some perspectives argue the Twelve Demands for Peasants Reform may not have existed in the form traditionally understood. In fact, explicit records of the Donghak Peasant Army engaging in equal distribution of resources are difficult to find in the existing documents from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 concept of equal distribution, particularly concerning Yeokdunto (Land granted to cover the expenses of stations,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offices.) was a strong demand from the peasantry, as evidenced by petitions submitted around 1900. Thus, despite the absence of explicit records, it is highly plausible that the Donghak Peasant Army in 1894 demanded and possibly implemented land redistribution measures, such as the redistribution of Yeokdunto and equal land distribution. Therefore, further examination is required to determine whether the economic egalitarianism, as pursued by the Donghak Peasant Army through equal distribution, can be considered a historical fact. Additionally, it is essential to investigate whether this egalitarian approach applied to all land, including both public and private properties.

It is evident that the concept of equality as understood within the context of Donghak differs fundamentally from Western notions of egalitarianism. Elements such as the Donghak principles of Yumusangja (Those who have and those who do not help each other.), the behavioral codes of the Donghak Peasant Army, the philosophy of Icheonsikcheon (Heaven feeds on Heaven) and the philosophy of samgyeong (Three things that people should respect; heaven, people, and all things) carry values and meanings that extend beyond mere economic

## Discussion

equality. These ideas are deeply intertwined with Korea's traditional philosophy of Hongik Ingan (means Let humans benefit widely), the Samjae concept (A Confucian term referring to Heaven, Earth, and Humanity, which are the basic components of the universe and the human world), Neo-Confucian cosmology, and the moral philosophy of Confucian righteousness. In this light, and as the presenter suggests, it becomes possible to transcend Western-centric and modern-centric historical perspectives, thereby allowing for the reconstruction of a more autonomous and contextually grounded understanding of history.

Fifthly, the harsh reality revealed by the record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s the violence inherent in class contradictions. The content depicted in many of these records highlights extreme class relations, class conflicts, and class consciousness. To assert their class interests, various means were employed without hesitation, including the involvement of foreign powers to reproduce class interests and consolidate power. This pattern of class violence was evident in the past and remains relevant today. Such class violence represents a significant threat to democracy and egalitarianism. Analyzing and critiquing the mechanisms of class contradictions through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is likely to contribute to the presenter's emphasized goal of 'constructing a new historical narrative that aids in addressing the challenges faced by human society.' Therefore, I would like to hear the presenter's insights on how to interpret the class issues depicted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within the context of the presentation's overall discussion.

## Discussion Paper: Professor Cho Jae-gon's on 'The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Lee Byeong Gyu Head of Research and Documentation Division,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for the Promotion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as Memory of the World in 2015, it has taken eight years of dedicated efforts to finally achieve the inscription of these records as a Memory of the World in May 2023. As one who served as the secretary of the Committee for the Promotion, I am filled with a deep sense of reflection and accomplishment. I would like to extend my heartfelt gratitude to Chairman Lee Man-yeol, and all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for the Promotion, who have devoted their earnest enthusiasm and sincere efforts until the successful inscription. Thank you for your unwavering commitment and support.

Since the records have been inscribed as Memory of the World, there have been numerous additional tasks to undertake, and the public's interest in and understanding of both the records and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Moving forward, we should focus on effectively utilizing these records. As someone who has been responsible for the practical aspects of the heritage promotion, I wanted to share a few brief reflections.

To fulfill my role as a discussant, I would like to make a few remarks regarding the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as presented by Mr. Jo Jae-gon. Mr. Jo has also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as a member of the Committee for the Promotion. I extend my gratitude to him as well.

The presenter has effectively explained the current status of the records and detailed their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by categorizing them into records produced by the Donghak Peasant Army, private records (suppression and observations), and reports and official documents from the Joseon government. After extensive discussions, the Committee for the Promotion reached a consensus that it would be appropriate to organize the records based on

## Discussion

their producing entities.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are particularly significant as they are documented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three main groups involved: the Donghak Peasant Army, the Joseon government that suppressed the movement, and private individuals who observed and recorded the events. Categorizing the records based on these entities is highly meaningful for objectively understanding the historical facts. However, alternative classifications might also be meaningful. For instance, records could be categorized by their format, such as documents, photographs, and videos. Other potential classification systems could also be considered. I would like to hear your thoughts on what alternative classification systems might exist fo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and what significance such classifications might have.

Next, I would like to address the issues related to the scope and range of the Record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 records that were inscribed this time consist of 185 items. However, there are many more records related 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beyond these 185 items. When determining the records to be inscribed, Committee for the Promotion established criteria based on the opinions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expert consultations. The criterion was that the records considered for inscription should be well-preserved and managed by national or equivalent institutions. As a result, 185 items were selected. Therefore, I would like to request a detailed introduction regard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that were not included in the inscription. Specifically, how many records were excluded, and among those, which ones hold significant historical value?

Lastly, as of 2023, 494 records are inscribed as Memory of the World, with South Korea having 18 inscriptions, includ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Globally, Germany holds the highest number with 30 records, followed by the United Kingdom with 24, the Netherlands with 21, and France with 20, placing South Korea fifth in the number of records. In Asia, South Korea leads in the number of inscriptions. However, while the presenter described the Record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mselves, there was no comparison made with other World Documentary Heritage records to explain the value and significance of these records. I would like to hear your opinion on how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can be distinguished in terms of their originality and rarity compared to other records (globally and within South Korea). Thank you.

## Discussion Paper: Professor Hong Seongduk's on 'Strategies for Globaliz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Lee Dong Hyun Senior Specialist, UNESCO Korean Committee

The Memory of the World program is a major initiative within UNESCO'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ctor. It aims not only to list documents recognized for their universal value to humanity, spanning across time and cultures, but also to mobilize all available resources for their preservation and management. Furthermore, the program seeks to enhance public accessibility and ensure active utilization for both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Through the aforementioned process of inscription on the international list, the existence and significance of these records have begun to be recognized by the general public. However, there remains a challenge in clearly distinguishing this initiative from other UNESCO designations such as World Heritag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espite this, the inscription of Korea's longstanding and systematic record of culture under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program has indeed heightened public interest. In this context, UNESCO temporarily suspended new inscriptions in 2017 for four years under the pretext of reforming the Memory of the World program. The Record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having undergone the international listing review process right after the reform's completion in 2021, were successfully inscribed alongside the April 19 Revolution records. This new inscription, occurring after a lengthy six-year hiatus, is especially significant and joyous.

The recognition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for their world significance under the Memory of the World criteria leaves no room for doubt. However, the inscription of such records, including those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comes with an obligation to undertake a series of activities aimed at expanding awareness and utilization. This involves a variety of visible and proactive measures. Based on their global importance, these records

## Discussion

necessitate efforts under the banner of 'globalization' to broaden their reach. This includes accurately conveying the content and significance of the records, providing systematic education and publicity, and fostering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llaborations. Even though the records have been inscribed as heritage due to their recognized world-historical value, this assessment from an expert perspective may be unfamiliar to the general public. There is often a discrepancy between expert evaluations and the general public's knowledge or approach. Therefore, the post-inscription globalization strategy should focus on engaging the general public, who may have minimal prior knowledge or interest. The aim is to spark curiosity,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and encourage voluntary participation in related activities, as well as to support continued learning and engagement.

In this regard, the approach and strategies outlined in the "Globalization Plan fo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are both timely and aligned with available resources and current trends. As highlighted early in the presentation, unlike other UNESCO-designated heritage, the mere inscription of world records does not guarantee 'globalization.' Given that these records were produced in the late 19th century under the geopolitical contex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surroundings, the lack of adequate information can make it challenging to share and understand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individual records and collective heritage. This challenge is a difficult task that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along with other records, must address in the future globalization process. Fortunately, the globalization process to date, supported by advancements in technology, allows for detailed information to be accessed in the desired language without the need for physical movement. This is true for the Record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s well; both the English inscription application prepared at the time of inscription and detailed information on the historical context, significance, and in-depth research of individual records are readily available online. Considering that the vast majority of information searches today are conducted via remote access through online databases and web resources, the globalization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should focus on improving and enhancing the quality of existing information, as well as expanding its reach through various modules and media.

By qualitative enhancement and improvement, it is meant to examine whether the multilingual information currently available online about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 Discussion

its records is accurate and presented in a manner that effectively raises public awareness. Additionally, it involves reviewing the accuracy of information provided by other countries. To achieve this, it is crucial to comprehensively verify current information on widely used platforms such as Google Search, UNESCO, and Wikipedia, which provide information about world documentary heritage. Regular monitoring of these sources is both reasonable and necessary. In addition to general Google searches,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and monitor how the information and achievements related 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its records appear in more detailed search methods such as Google Books and Google Scholar. Given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South Korean search environment, attention should also be given to search results on Naver. In particular, considering that unverified information can circulate through platforms like Naver's Knowledge iN section, it is important to devise strategies to address public inquiries in a timely and as accurate manner as possible.

While pursuing as much linguistic diversity as possible is desirable, it is advisable to approach this with a set of criteria (For example, it is advisable to base the approach on the six official languages of the United Nations: English, French, Spanish, Russian, Chinese, and Arabic. However, if budget constraints require a selection, providing essential languages such as English, French, and Chinese should be prioritized. If additional languages can be accommodated, including Japanese would be beneficial considering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context) rather than simply increasing the number of available languages. This approach should prioritiz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Furthermore, it is essential to minimize content discrepancies among available information and promptly address inaccuracies in information provided outside of Korea. This should be done by requesting corrections within legal boundaries to ensure that accurate information is readily accessible to all. To achieve this, primary sources related 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should undergo a thorough verification process before being published online. Additionally, proper attribution of the original creators and copyright should be clearly indicated when the original materials are published and processed. This will help prevent the spread of incorrect information during any subsequent modifications of the originally provided data.

Expanding quantitatively through the use of diverse modules refers to providing

## Discussion

comprehensive information by adding to the currently available data. This involves considering various levels of information (such as basic details and content tailored to different ages, education levels, and interests) and expression methods (utilizing all possible media, both analog and digital). In reality, it is challenging for non-specialist researchers to know the details of each document constituting the Record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it may not always be necessary for them to do so. However, it is essential that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general audiences can easily grasp the accurate facts, causal relationships, and historical and contemporary significance of these records. Therefore, the proposed training of Korean Studies Specialists in the presentation is undoubtedly a systematic approach that should be pursued in the medium to long term. Concurrently, it is essential to leverage widely accepted media platforms and formats to enhance outreach. For example, information could be disseminated, and interest could be generated through short-form media formats suitable for social media (such as shorts or reels). Additionally, creating short-term or series-based videos in collaboration with experts and influencers for public lecture programs or news shows, or producing and distributing animated series targeting younger audiences, could be effective strategies. While these suggestions may not offer deeply specialized information, they are crucial for providing the general public with a more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its records. Providing English as a primary language or offering multilingual subtitles from the outset could significantly contribute to broader dissemination beyond domestic boundaries.

Finally, to enhance the globalization strategies for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cords, it is proposed to establish a "Globalization Advisory Committee" (provisional name) led by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Foundation. This committee should actively incorporate opinions from relevant ministries, institutions, local governments, and experts to better refine the various ideas presented in this discussion. Additionally, it is essential to closely examine domestic cases of previously inscribed records to derive valuable insights into the globalization of these records. Reviewing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it is evident that achieving visible results in the globalization of record heritage within a one-year budget cycle is virtually unattainable. Therefore, a long-term approach, with budget allocation and project management planned over 3-5 year periods, is also necessary.





2024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국제학술대회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를 바라보다

---

발행일 2024년 9월

발행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연락처 063-530-9431

홈페이지 [www.1894.or.kr](http://www.1894.or.kr)

편집·인쇄 두인

---



